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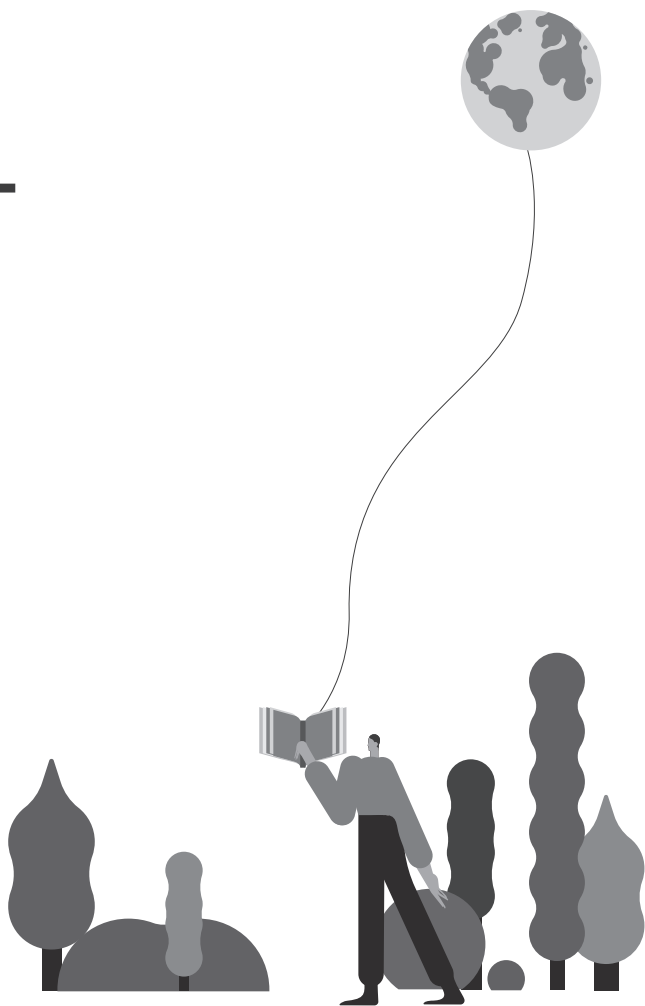
시 부문 대상 · 주양수
단편소설 부문 대상 · 이수정
일반산문 부문 대상 · 전열레나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창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창
상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올해도 재외동포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학의 창작의 장으로 1999년부터 매년 재외동포문학상을 시행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732만 재외동포의 이야기를 담은 스물네 번째 『재외동포 문학의 창』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4년간 재외동포문학상은 문학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삶을 공유하고 재외동포 문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차세대에게는 모국어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 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국내외에서 재외동포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나갈 것입니다.

올해는 응모 분야에 수필작품까지 확대해 더욱 생생하고 감동적인 재외동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묘사된 재외동포의 삶과 모습은 아름다운 한국인, beautiful Korean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주국에서 한국어를 알리고 한국문학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든 재외동포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대사인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앞으로도 한국문학을 비롯한 한국문화를 알리는 beautiful Korean으로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문학상에 관심을 가지고 훌륭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 11. 22.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성곤

김성곤

Contents

발간사 • 3

심사평 • 9

시

대상 치매꽃 • 26
주양수 (중국)

우수상 구두 • 29
KoAnn (미국)

한 장의 결혼사진 • 32
유한나 (독일)

가작 봄의 문자 • 34
김미영 (캐나다)

차보(Tsavo) 공원의 심바(사자)를 보았는가? • 36
김미영 (케냐)

부엌에서 소 기르기 • 38
김사비나 (미국)

옮겨진 한 그루 • 40
류명순 (에콰도르)

아버지의 바이칼 • 42
윤희경 (호주)

뿌리 깊은 나무 • 44
이영미 (인도네시아)

단편
소설

- 대상 타이거 마스크 • 48
이수정 (미국)
- 우수상 달의 비밀 • 72
박종진 (미국)
-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 • 88
원선미 (헝가리)
- 가작 히피는 아니지만 • 108
김경숙 (호주)
- 한겨울의 외출 • 126
김미영 (스웨덴)
- M. I. A. • 143
이지혜 (미국)

일반
산문

- 대상 뿌리 깊은 나무처럼 • 166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 우수상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 • 177
조성환 (미국)
-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 188
채단비 (프랑스)
- 가작 stay hungry, stay foolish! • 193
김순희 (일본)
- 떠나는 삶에 관하여 • 206
박동찬 (중국)
- 한글학교에서 • 218
박시드니 (덴마크)

Contents

가작	랩톱에 깃든 작은 이야기 • 231
	배동선 (인도네시아)
	제니를 찾아서 • 243
	이단비 (캐나다)
	고사리 • 253
	김미현 (미국)
	노크 • 258
	심수연 (케냐)
	결혼반지 이야기 • 262
윤덕환 (미국)	
뿌리 얇은 나무 • 266	
정은시 (캐나다)	
할머니의 간장 • 271	
하선영 (중국)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부문

최우수상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 • 278
	최찬아 (카자흐스탄)
우수상	홍콩에서 요식업 경영하기 • 283
	정승호 (중국)
	수라상 • 289
	조규희 (인도네시아)

장려상 상하이에서 ‘해방’을 외치다 • 294
 고수경 (중국)

 선한 영향력 • 300
 김기현 (도미니카공화국)

 세상의 이웃, 글로벌 코리안 • 304
 김세린 (칠레)

청소년
글짓기

초등 부문

최우수상 나는 카잔카 • 310
 주세아 (러시아)

우수상 내가 기증한 태극기 • 313
 김수아 (미국)

 나 혼자여도 괜찮아 • 316
 최소율 (독일)

장려상 나의 코로나 생활 • 319
 강태윤 (중국)

 팽이놀이와 김밥이야기 • 322
 김주안 (아일랜드)

 할아버지와 나의 만남 • 325
 장예준 (베트남)

수상 소감 • 329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심사평

시 부문

심사위원 신달자 · 정호승 · 유자효 · 문태준

단편소설 부문

심사위원 오정희 · 구효서 · 박덕규

일반산문 부문

심사위원 이경자 · 박인기 · 은희경 · 박상우 · 우한용

청소년글짓기 부문

심사위원 서하진 · 권지예



신달자 심사위원
(시인)



정호승 심사위원
(시인)



유자효 심사위원
(시인)



문태준 심사위원
(시인)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공모에 보내온 작품들은 수준이 높았다. 거주국도 다양했다. 시 창작을 향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시 쓰기의 실력을 보여준 분들이 많았다. 그런 만큼 심사위원들은 숙고를 거듭했다.

총 36편의 본심 진출작을 선정한 후 심사위원들은 좀 더 면밀하게 대면심사에 들어갔다. 거주 기간을 고려하되 시어의 선택이 얼마나 광범하고 적절한지를 살폈다. 또한, 수사적 표현과 독창적 시안(詩眼), 감흥의 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고려했다.

작품들의 시적 관심은 대체로 고향의 시공간과 가족 서사가 많았다. 특히 '어머니'를 시적 대상으로 노래한 작품들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하지만 감정의 유출이 과다한 경우는 적었다. 그만큼 개별 작품들의 느낌과 감정이 시의 화자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해마다 높은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심사위원들이 논의한 작품은 ‘치매꽃’, ‘구두’, ‘한 장의 결혼사진’이었다. 시 ‘구두’는 갈등하는 자아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노출한 작품이었다.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구두를 계속 신을 것인가를 두고서 시적 자아는 맞지 않는 구두를 벗어버리라는 내면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니 벗지 말라는 외부의 시선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 고민의 내용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것일 테다. 시인은 결국 구두를 벗어버리기로 작심하는데,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자아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긴 도정의 결말에 한 차례 더 어떤 쾌감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한 개인의 심경을 매우 진솔하게 드러낸 작품이었다.

시 ‘한 장의 결혼사진’은 “젊은 우크라이나 의사와 간호사”의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갖게 된 소회를 적은 작품이었다. 전쟁의 참담한 폐허 한가운데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의 힘을 간결하게 부각시켰다. 전쟁의 포악성에 대비시킨 사랑의 고결함과 순백이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시행의 처리가 깔끔했고, 시행에서 언어의 음악적인 율동도 잘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길고 긴 논의 끝에 시 ‘치매꽃’을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작품은 우선 오랜 시 창작 이력의 연륜이 느껴졌다. 밀도 있게,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행을 이끌어가는 힘이 견고했고, 곳곳에서 보여주는 수사적 표현도 빼어났다. 가령 “그는 쇠약한 선인장 같았다”, “어머니 방에는 / 성황당 나무같이 달력” 등에서 보여주는 직유적 표현은 개인의 비극적 상황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대목들이었다. 기억 상실과 심리 불안정 등을 고통스럽게 겪는 가족에 대한 애잔함이 아주 민감하게 전달되어 오는 작품이었다.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모든 분께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수상하신 분께는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단편소설 부문



오정희 심사위원
(소설가)



구효서 심사위원
(소설가)



박덕규 심사위원
(소설가/문학평론가)

수준이 고르게 높아졌다. 이걸 어쩌면 올해만의 특징이 아니고 최근 몇 년 연이어 나타나는 현상 같다. 그 중심에 북미권 한인들의 전면적인 약진이 높이고, 중국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의 여전한 선전(善戰)에다 서유럽 중심에서 유럽 전역으로의 확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권 등 전 세계 지역의 팔목상대까지, 아무래도 일시적인 일은 아닌 듯하다. 그렇다 해서 빼어난 작품이 금세 눈에 띄는 것은 물론 아닌데, 다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수작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 문학이란 것이 처음 공개될 때는 큰 반향을 못 일으키더라도 거기에 이런저런 문화적 이미지가 채색되면서 새삼 표 나게 향수(享受)되는 일도 적지 않다. 어쩌면 기왕의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입상작을 비롯해서 올해의 것 일부 역시 어느새 조금씩 수작(秀作)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사위원 3인이 일차 예선으로 15편을 추렸다. 완성도가 우선이었고, 재외 동포의 삶이나 인식 등을 의미 있게 반영하는가도 당연히 따졌다. 선에 든 작품들은 대개 생활상이나 그 지역의 역사 등을 나름대로 형상화했다는 평이었다. 극적인 요소로 드라마를 보는 느낌을 준 작품도 꽤 있었다. 무게감이 약한 채로나마 삶의 현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진솔성, 섬세한 감정 표현 등이 인정되기도 했다. 그럴듯한 서사를 구축하고도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언어 습관이나 편견을 드러낸 점은 따로 지적되었다. 집시, 히피, 토속축제 등 국내 작가의 작품에서는 깊이 관찰되지 못하는 소재가 관심을 끌기도 했다. 「타이거 마스크」(이수정/미국), 「달의 비밀」(박종진/미국),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원선미/헝가리), 「히피는 아니지만」(김경숙/호주), 「M.I.A.」(이지혜/미국), 「한겨울의 외출」(김미영/스웨덴) 등을 두고 순위 매김이 시작되었다.

「타이거 마스크」, 「달의 비밀」,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 등이 상위권에서 깊이 논의되었다. 「타이거 마스크」는 일찍이 가출한 아버지를 미국에 이민 가 살면서 만나게 된 일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다음에 드러날 사연을 궁금하게 만드는 서술로, 자본에서 소외된 처지인 일가의 삶을 해학적으로 드러낸 숨씨가 만만찮았다. ‘타이거 마스크’로써 ‘숨은 아버지’라는 스토리상의 기능과 사회 전면에 떠오르지 못하고 사는 계층의 삶을 대변하는 상징성을 얻었다. 「달의 비밀」은 미국 서부의 한 항구도시에서 치과를 경영하는 여의사가 자신의 병원으로 초빙해 일을 맡기는 70대 의사(닥터 백)가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비밀스런 사연을 서둘지 않고 느슨하게 드러내는 어조와 서술이 돋보였다. 서두의 ‘달 우화’를 중반부의 ‘달의 비밀’로 이어가며 상징성을 부각하는 힘도 빛났다.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는 헝가리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이 이웃의 집시 소녀(루시)의 교육과정을 후원한 스토리다. 마침내 김나지움까지 졸업하게 된 루시가 끝까지 성숙한 여성으로 당당하게 독립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이 어색함 없이 진술된다. 이 과정에서 무책임한 어른의 관습 아래 불합리하게 성장해 불우한 일생에 이르는 집시의 습속이 맞춤형에 밝혀지기도 한다. 이질적인 문화(집시)를 무리 없이 이해시킨다는 점, ‘지혜로운 이타심’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등 ‘글 읽기’로의 장점이 느껴지는 작품인데, 아무래도 ‘소설적’이기보다 ‘수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큰 약점이 되었다.

「달의 비밀」과 「타이거 마스크」는 각각 한 인물(닥터 백/아버지)을 개성적으로 입체화한 것으로는 매력적인 작품이었다. 원래 소설이 그렇긴 하지만, 또한 둘 모두 어느 정도의 작위성도 느껴졌다. 「타이거 마스크」가 산업화 시대를 살아온 우리네 한 시절의 세대적 아픔이 반영되었다면, 「달의 비밀」은 인간관계의 내밀한 상처를 건드리고 있었다. 결국 「타이거 마스크」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소설이라는 장르가 특징으로 삼는 ‘사건의 긴밀한 인과관계’에서 조금 앞섰다는 판단에서다.

「히피는 아니지만」은 모범 가정에서 의대생으로 성장해 단기간에 전문의가 된 한 인물이 히피가 되어 살고 있는 상황과 주변인물의 행동양상이 상당한 실재감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 반면에 문장의 밀도, 주제의 방향성 면에서 구심력이 약하게 느껴졌다. 「M.I.A.」는 미국에 정착한 한 한인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 원인이 ‘미국인들 사이에서의 위축감’과 관련된다는 것, 그 과정이 혼한 부부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등이 새로웠지만, 사건으로 긴밀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컸다.

「한겨울의 외출」은 한 방송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이민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동족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갈등의 피해자이던 한 여성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당당해지는 과정이 흥미로운 반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소소한 문제거리에 매달리는 서술 습관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보내온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의 소설은 갈수록 국내 작품들이 다루지 못하는 공간적, 인식적 새로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디테일으로써 완성에 이르는 예술’ 그 이전 단계에서 허술한 부분을 드러내고 말아 안타깝게 선외로 밀려났다. 입상 유무에 상관없이, 원격 미팅이 가능한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 작가끼리 연대를 통해 그 허술한 부분을 서로 지적해주고 고치는 시간이 쌓였으면 좋겠다.

일반산문 부문



이경자 심사위원
(소설가)



박인기 심사위원
(교수)



은희경 심사위원
(소설가)



박상우 심사위원
(소설가)



우한용 심사위원
(소설가)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하신 모든 분께 응원을 보낸다. 한국어로 글을 쓰는 분들은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들이다. 수상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린다. 한국어로 뛰어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모국어는 나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징표다. 재외동포로 살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모국어다. 이 장면에서 김현승 시인의 시 구절이 떠오른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채우는 내용이 ‘겸허한 모국어’다. 여러분들이 낸 작품들은 ‘겸허한 모국어’로 가득하다. 여러분의 글쓰기는 겸허한 모국어로 올리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낸 글 한 편 한 편이 모두 여러분이 겸허한 모국어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인 셈이다.

이번 작품을 읽으면서 소재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생활이 절박할수록 소재 범위가 좁아진다. 삶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다 보면 주변의 일들에 마음 쓸 여가가 없다. 소재가 다양하다는 것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글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안정에 머물지 말고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재외동포로서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작품을 만나 반가웠다.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커다란 역사의 흐름 속에 개인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 삶의 의미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삶의 맥락적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망각되기도 한다. 개인적 삶의 역사성은 기록을 통해 유지된다. 이는 글의 크고 작음과는 큰 관계가 없다. 기록 그 자체가 개인의 역사가 된다. 응모작 가운데 이런 역사적 시각이 담긴 글들을 만나 반가웠다.

대상으로 결정된 작품 「뿌리 깊은 나무처럼」(전엘레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역 삶의 체험을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당한다. 현지 사정에 따라 조부모는 러시아계다. 부모는 카자흐스탄의 이웃 우즈베크계다. 서술자 나는 고려인으로 한국어 공부를 위해 교환 학생으로 와있다. 변전하는 민족사를 서사로 구성하는 매력이 돋보인다.

우수상을 받은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조성환, 미국)는 미국에서 사는 교포가 겪은 폭동 체험을 서술한 글이다. 폭동이 전개되는 동안 개인이 겪는 불안과 그 극복과정이 박진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폭동을 겪은 체험을 넘어 그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을 서술함으로써 경험의 의미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글의 가치로 보인다.

다른 우수상 대상 작품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때」(채단비, 프랑스)는 프랑스 유학생들의 가난한 삶 가운데 얻어낸 사색을 서술하고 있다. 역경 자체보다는 그 역경을 소화하는 의미화 능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코인세탁소의 소음 가운데 집중이 더 잘되는 심리적 묘미를 드러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엮어내는 글솜씨가 돋보인다.

가작으로 평가된 작품들도 글의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었다. 간단한 언급을 하기로 한다. 작은 일상의 심리를 섬세한 필치로 쓴 「랩톱에 깃든 작은 이야기」(배동선, 인도네시아), 캐나다에서 카운슬러로 일하는 동안 깨닫는 인간이 해 「제니를 찾아서」(이단비, 캐나다), 덴마크 한글학교 체험을 서술한 「한글학교에서」(박시드니, 덴마크), 동포청년 5세가 기록하는 인정투쟁의 연대기인 「떠나는 삶에 대하여」(박동찬, 중국),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도일한 이후 겹쳐서 다가오는 개인사의 역경과 그 극복을 서술한 「stay hungry, stay foolish!」(김순희, 일본), 미국생활 중에 고사리 채취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고사리」(김미현, 미국), 할머니의 간장관리, 씨간장 보관과정에 나타나는 전통적 삶을 형상화한 「할머니의 간장」(하선영, 중국), 케냐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열악함 속에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통한 삶의 깊은 이해가 드러난 「노크」(심수연, 케냐),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삶을 통해 삶의 뿌리를 생각하게 하는 「뿌리 얽은 나무」(정은시, 캐나다), 결혼반지를 챙기지 못한 실책을 통해

인간의 욕망 증대 과정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결혼반지 이야기」(윤덕환, 미국) 이들 작품들은 소재의 다양성, 필자의 개성, 삶에 대한 애정이 짙게 드러난 빼어난 글들이다.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글들이다.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빈다.

심사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글로벌 시민의 자격을 갖게 되리라는 점. 재외동포로 살아가면서 모국어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에서, 모국어로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나아가 세계시민의 자격을 얻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두고자 한다.

청소년글짓기 부문



서하진 심사위원
(소설가)



권지예 심사위원
(소설가)

어언 10년간 매년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부문의 작품을 심사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설레는 기대 속에서 작품을 읽게 된다. 응모자 대부분이 10년 전후의 해외 거주기간이라니, 거의 평생을 해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다.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태생지를 떠나 낯선 토양과 환경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이 현지의 힘든 여건에서 고국의 언어를 배우고 다듬어 쓴 글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뭉클하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 지구적 감염병 시대를 살았다. 세계적인 고립과 봉쇄로 더 깊은 단절과 소외를 겪으며 한글과 한국문화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작품들을 뽑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심사를 맡은 사람으로서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자란 아이들의 실력을 확실히 검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이다. 현장 백일장이 아니니, ‘한글학교 교사나 어머니의 합작품이거나 과하게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한글 맞춤법이 많이 틀리고 표현이 어색하지만, 글이 창의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경우는 다소 고민이 된다. 대체로 한글도 매끄럽고 글도 단점 없이 무난하면 본심 작으로 올려 토의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언어가 아닌 마음이 통하는 글’을 발견할 때는 기쁘게 수상작으로 뽑게 된다.

이런 작품들은 대체로 자신만의 고난이나 체험을 통해 생생한 감정이나 깨달음을 느끼고 그것을 진심으로 한글로 잘 전달해서 읽는 이에게 마음의 울림을 공유하게 되는데, 동시에 글쓴이의 정신적 성장과 성숙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등부 최우수작인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는 길고 혹독한 카자흐스탄의 겨울의 의미를 앞으로의 삶에서 희망의 은유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따스하게 이야기한다. 「홍콩에서 요식업 경영하기」라는 작품도 현지에서 어머니의 식당 창업과 경영을 옆에서 도운 아들의 체험기로, 타지에서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로 사는 특별한 현장을 관찰한 수작이다.

초등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나는 카잔카」는 아예 한국 태생도 아니고 카잔에서 태어났지만, 양국의 문화를 행복하게 즐기며 산다. 러시아의 시를 즐기지만, 낯선 한국의 윤동주 시인의 「별 헤는 밤」의 슬픔을 마음으로 깨닫고 지극한 사랑을 느낀다. 윤동주 시인의 별은 시인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고, 그것이 응모자의 어머니와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순간적으로 안다.

마음이 통하게 하는 모국어로 쓴 시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그 티 없는 순수한 눈물 같은 마음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전해졌다. 우수작 「나 혼자여도 괜찮아」는 아시아 학생이라곤 혼자뿐인 독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외로운 한국 문화 소개 분투기이다. 예전에 비해 K-문화가 세계 어디나 퍼져 요즘은 한국을 모르는 세계인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한국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어린 외교관’의 열정적인 한국 알리기는 스스로 한국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얻게 되었다.

시련이 인간을 성숙하게 하듯이, 끝나지 않은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오히려 봉쇄로 인해 더 따뜻하게 서로 돕는 이웃들의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타국에서 외로이 자라는 아이들도 외로움으로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정신과 영혼이 더 성숙해지는 것 같다.

사실 최근에는 수상작의 작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본국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색과 통찰이 뛰어난 글을 써내고 있으며 결코 실력이 뒤지지 않는 편이다. 나날이 어린 학생들이 더 유려한 한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지에서 멋지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응모하고 있는데, 수상하지 못한 작품들도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랜 시간 이런 장을 마련해주는 재외동포재단에도 감사드린다.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대상

치매꽃 • 주양수 (중국) 26

우수상

구두 • KoAnn (미국) 29

한 장의 결혼사진 • 유한나 (독일) 32

가작

봄의 문자 • 김미영 (캐나다) 34

차보(Tsavo) 공원의 심바(사자)를 보았는가? • 김미영 (케냐) 36

부엌에서 소 기르기 • 김사비나 (미국) 38

옮겨진 한 그루 • 류명순 (에콰도르) 40

아버지의 바이칼 • 윤희경 (호주) 42

뿌리 깊은 나무 • 이영미 (인도네시아) 44

치매꽃

주 양수 (중국)

그는 우울했고
아버지는 격분했으며
어머니는 안쓰러웠다.

그는 편집적으로 플루옥세틴을 먹었고
아버지는 모르는 척 했으며
어머니의 안쓰러움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이 깊고 깊었다.

그는 쇠약한 선인장 같았다.

생채기에서 돌아난 마른 신경들이 날카롭게 삐쳐 나와
아버지의 침잡된 침묵을 찢고 들어가 단단히 고정시켰다.
어머니는 자꾸만 자다가 일어나 서성였다.

아버지의 앙상한 등골이 흑백의 엑스레이 필름 같았다.
 형광등이라도 켜면 침묵으로 겨우 견뎌낸 억새 같은 슬픔이 흰히 보일까 봐
 눈을 감아 어둠을 지켰다.

억새에도 꽃이 피면
 그렇그런 눈으로 꽃을 바라보게 되면
 외롭도록 견뎌 낸 침묵이 소리내어 울 것이다.

어머니는 달력마다 기억을 걸어 두었다.
 그 흔한 장롱도 화장대도 없는 어머니 방에는
 성황당 나무같이 달력이, 기억이 어지럽게 자라났다.
 서성이다 주저 앉은 곳에서 기억을 꺼내어 한 글자씩 오래도록 응시했다.
 몇 번째의 기억인지 알 수 없어 순서대로 돌려놓지 못했다.

선인장에 꽃이 피고 억새에도 꽃이 피
 그가 아들로 돌아와 마주 앉은
 몇 번째인가의 유월
 어머니는 흰 눈이 내린다며
 돌아온 아들 하루 묵고 갈 아랫목을 데웠고
 아들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러
 땡땡이 양말과 줄무늬 양말을 왼쪽과 오른쪽에 신고
 슬리퍼와 고무신을 오른쪽과 왼쪽에 신고 나갔다.

2022년 유월 고등어를 사러 나간 어머니는
 2007년 십이월에 간헐했다.

그는

아버지는

십오 년을 돌아와 고등어 없는 단출한 상에 마주 앉았는데

항상 곁에 계셨을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서성이며

혼자서 십오 년을 되짚어가셨던 것일까.

2007년에는 없었을 시장에서 2022년의 길을 잃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땡땡이인지 줄무늬인지

도대체 어디인지 모를 로터리에 주저앉는다.

억새꽃이 지면 어머니는 돌아올까

우리가 십오 년을 기다린 꽃은 상여꽃이었을까

모두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아직 오지 못했다.

시 부문
우수상

구두

KoAnn (미국)

맞지 않는 구두를 신었어요.
 살 때는 그 구두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였거든요.
 그 구두를 신으면 난 신데렐라가 될 줄 알았어요.
 신데렐라를 꿈꾸며 구두를 선택했어요.
 구두는 얼핏 나와 어울려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쁘고 잘 어울린다고 말해 줬어요.
 난 그 말을 믿었고, 그 구두와 함께했어요.
 그 구두는 ... 나를 위한 구두라 생각하면서...

구두를 신었어요.
 보기엔 멋지고 좋아 보였어요.
 한 발자국 ..., 천천히 ... 걷고 또 걸었어요.
 걸을수록 그 구두는 내 발에 고통을 안겨줬어요.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은 배가 되었어요.
 너무나 생각지 못한 고통으로 인해
 그 구두를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구두를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네요.
 모두들, 부러운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네요.
 나와 구두가 썩 잘 어울려 보였나 봐요.
 구두 속에서 제 발은 울고 있어요.
 제발 ~ 제발 ~ 벗겨달라고
 자유로운 맨발이고 싶다고
 차라리 거친 맨땅을 맨발로 걷고 싶다고
 난 ... 제 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차마 ...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히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나설 용기가 서질 않았어요.
 조금만 ... 그래 ... 조금만 더 참자.
 구두에 내 발이 익숙해질 동안만...
 그렇게 ...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시간이 흐르면 구두에 내 발이 익숙해질 줄 알았건만
 그 사이 내 발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구두 속에서 짓이기고 까지고 피나고
 본래의 이쁜 발 모양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 난 내 발을 학대해왔어요.
 단지 ... 남의 시선만을 의식한 채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 대가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이제서야 난 구두를 벗기로 했어요.
 이제서야 난 내 발을 어루만져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난 비로소 구두가 내 발에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사실을 이제야 ... 알게 되었지요.

구두를 벗어버리니

비록 발은 온갖 상처로 보기 안 좋아졌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상처뿐인 맨발로 다시 걸어야 하지만

구두로 인해 고통받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비록, 맨발로 걷다가 가시밭길 혹은 울퉁불퉁 자갈길을 걷게 될지라도

더 이상 맞지 않는 구두로 힘들게 걸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발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으니까요...

한 장의 결혼사진

유한나 (독일)

쏟아지는 햇살에
기쁜 웃음으로 반짝이는 호수
어여쁜 새소리에
더 푸르러진 숲 무대 아니었다
부푸는 가슴처럼 수십 개 풍선 달리고
장미 향기 그윽한 꽃 무대 아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위에 가족조끼 입은 신부
검은 턱시도 입고 워커 신은 신랑,
사랑의 눈빛 빛내며
생애 최고의 사진을 찍은 곳은...

군화 발자국처럼 시커멓게 찍혀있는
찢기고 부서진 건물 벽 앞
잔해로 둘러싸인 폐허의 거리

폭격의 시간이 훑고 지나간
찌그러지고 망가진 자동차 위에 앉아
앞날의 꿈을 담은 눈빛 마주 나누며
그들의 가장 축복된 시간을 뿌리고 있다

공포와 경악의 전장에서 보내온
젊은 우크라이나 의사와 간호사가 보내온
한 장의 결혼사진!

폭격도 뚫을 수 없는 사랑의 힘,
총알보다 강한 희망의 씨앗 담긴
조용하고 엄숙한 답례품.

봄의 문자

김미영 (캐나다)

을 봄은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별새가 휘저어놓고 간 바람 속에서
카톡이 터졌다
산수유가 보낸 문자
내 갈비뼈에 찢려 샛노랗게 터지는데
부풀어 오르는 구름의 귀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올라

골목길 같은
손금을 펼쳐 놓는다
모퉁이를 지나면
바닥의 실금들, 깊어질 것이라는
답장 대신 이모티콘을 만지작거린다

눈발자국 놓친 듯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새하얀 거짓말도 못하고

새소리 보다 잦아지는 나의 귀울림을
너만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는
내 마음의 마당에 울컥 쏟아지는 것이다

차보(Tsavo) 공원의 심바(사자)를 보았는가?

김미영 (케냐)

바늘로 콕 찌르면
바닷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은
구름 한 점 없는 아프리카의 푸른 하늘
대체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지평선이 보이는 너른 광야
초목이 타는 냄새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누렇게 바랜 풀을 뜯고 있는
얼룩말과 가젤과 어린 사슴들
하늘과 땅 사이에 우뚝 서 있는
바오밥(Baobab) 고목나무
신께서 실수로 거꾸로 꼽았다지.
비틀어진 나뭇가지마다
하얀 종이꽃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바오밥 나무에 꽃이 피면 비가 온다던

타이타(Taita) 부족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소낙비가 흠뻑 내렸으면 좋겠다.

비를 내릴 시기를 잊어버린 하늘
메마른 들판에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
더위에 지친 사자가 한 그루 나무에 의지해서
회색빛 그늘 밑에 드러누웠다.
입과 다리에 잔뜩 문힌 붉은 피
입을 벌리고 혈떡거린다.

사냥을 마친 만족감으로 누리는 여유
드러낸 허연 배에 까맣게 달라붙은 야생 진드기들
쉬지 않고 흡혈하고 있다.
평화로운 세계를 깨뜨리고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었으니
너도 누군가에게 먹히고 있다.

강하고 사나운 동물의 왕
너무 가까이 보아서 너의 정체를 알아버렸다.
모두가 너를 보며 두려워 떨고 있지만
쫓아낼 수 없는 작은 천적이
너의 피를 계속 빨아먹고 있다는 걸...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거다.

차보의 심바야, 너무 으르렁거리지 마라

부엌에서 소 기르기

김사비나 (미국)

가난한 우리 집에서 근근이 모은 돈으로
온 집안의 희망인 송아지 한 마리 장만하였지만,
소가 살 외양간이 없어 문밖에다 두자니 불쌍하고
울타리 없는 집이라 누가 잡아가면 어쩌나
송아지는 그 집 재산목록 1호니 부엌에서 키우기 시작을 하였지요.

처음엔 몇 달은 송아지라 작아서 부엌 한 귀퉁이 차지하여,
별 지장이 없더니 자라서 덩치가 커지며 암소가 되어
부엌에 한가득 되고 송아지가 아니라 소가 되어
제가 싫으면 뒷발길질하면
어머니는 저만큼 나가떨어져 며칠씩 앓게 되었지요.

외양간 지을 만한 재력도 없고 어머니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도 그 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부엌에서 키웠지요
송아지는 부엌만큼 커가고, 보람도 커가고,
저걸 팔아서 큰아들 서울로 유학 갈
꿈이 부풀어 가고 행복은 쌓이는데,

바람나서 집 나간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오시더니
온 집안 꿈과 소망으로 부엌에서 키우던
소를 몰래 시장에 팔고 달아나셨다.
그 밤으로 어머니 산에 올라 소 울음으로 산천이 떠나가라 울어 짓히고
온 동네 사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같이 울었지요.

아침이 되어 산에서 내려온 어머니 다시 시작하자 모진 맘 먹고,
동네 사람들 돈을 모아 다시 송아지 하나 장만하여
부엌에서 키우기 시작을 하였고,
행복을 다시 가꾸어 갔지요.

옮겨진 한 그루

류명순 (에과도르)

누가 나를 이곳으로 옮겨왔을까?

낮선 흙, 모르는 바람

뿌리를 끌어안은 채

하늘을 본다

구름아 너는 좋겠다

그리운 그 땅을 볼 수 있어서

바람아 너는 좋겠다

내가 아는 그 땅에 갈 수 있어서

두려움을 안고 사알짝 뿌리 내려본다

낮선 흙이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모르는 바람이 내게 인사하며

뜨거운 햇살이 나의 언 마음 녹이고

내리치는 빗방울이 나의 눈물 닦아준다

나를 감싸 안아준 고마운 흙
내게 자리를 내어준 고마운 땅
그 고마움에
그제서야 나는 뿌리를 편다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로 화답한다

누가 나를 이곳에 옮겨 놓았을까
먼 기억 속의 그 땅이 그리워진다
그 땅의 흠내음이 내 가슴을 적신다.

아버지의 바이칼

윤희경 (호주)

아버지의 시퍼런 꿈을 꺼내왔다
가장 깊고 푸른 호수 바닥에서
봄분 속 족장의 이야기처럼
흙 묻은 부장품과 함께 거뒀다
종로 팔판동이 아니라 시베리아 바이칼이라니
지상의 무덤을 거기로 하자고 노래를 부르시던
얼어 죽거나 그리워서 죽은 조상들의 목숨이
아버지의 비어있는 왼쪽 바지 마냥
갈기갈기 헐렁헐렁 바람에 날아가
별판의 고수레가 필경 되었을 거라니
시조새가 기다리는 본가에서는
천둥으로 통나무 집을 짓고
번개로 굽이치는 치어들을 키워
자작나무 숲이 된 물고기 냄새
돌고 돌아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 퇴근을 기다리던
어린 시절 맏딸의 목이 빠지는 이야기였다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아버지의 한쪽 허벅지를 베고 누워
뺏속까지 우리는 당굴후손들로
생물을 아무르 강가에 묻고
순록의 길 따라 동방을 세웠다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자식 넷 미국으로 호주로 다 흩어 보냈을까
아버지는 강인한 동토의 땅
가문비나무 전나무 가지로 피고 지는
동서로 물을 베고 남북으로 해를 베는
만년의 대장간
추운 두 발로 타지에서 발 구르지 말고
집에 돌아와 아랫목에 누우라는 풀무질 소리에
시우쇠 같은 손자손녀 여덟을 두었다
너 없는 바이칼이 무슨 의미며
너 있으면 바이칼이 또 무슨 의미 있겠냐고
루미처럼 딸에게 주신 양날의 종언
아버지를 발굴하고서야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는 시퍼런 나이가 되었다

뿌리 깊은 나무

이 영 미 (인도네시아)

봄비에 젖어 낙화하는 꽃잎들 따라
한순간의 만타를 위해 숨죽였던 시간
긴 한숨으로 풀어내는,
풀벌레 소리 요란한 적도의 밤

기회의 땅, 바다 건너 이국땅에서
활짝 필 거라던 어린 소녀의 다짐
함박눈처럼 흰 앵두꽃으로
가지마다 맺히던 고향의 밤

허리춤에 조롱조롱 매달린
붉은 앵두 같은 아이들 먹일 밥
가마솥에 안치며
고단한 하루를 불쏘시개로 태우던 어머니

한평생 흙에서 살다 간
어머니의 손에서 나던 냇내
화장품을 담뿍 발라도 지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향기가 화석처럼 박힌 손으로

가위를 쫄그럭거리며
저고리를 마름질하고
웃음을 고이 접어 꿰맨 수십 년 세월

흐드러지게 핀 일 없으니
이지러질 일도 없는 인생이라지만
기우는 세월을 머리에 하얗게 이고 선
나는 적도에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

또 다른 어머니로 기억될
강인한 나무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단편소설

대상

타이거 마스크 • 이수정 (미국) 48

우수상

달의 비밀 • 박종진 (미국) 72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 • 원선미 (헝가리) 88

가작

히피는 아니지만 • 김경숙 (호주) 108

한겨울의 외출 • 김미영 (스웨덴) 126

M. I. A. • 이지혜 (미국) 143

타이거 마스크

이수정 (미국)

오랜만에 본 아버지는 다른 가족과 있었다.

금수 씨가 아버지를 좀 더 일찍 알아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앞에 물컵을 놓으며 뭘 주문하겠냐고 물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기도 금수 씨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음식 주문은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온 여자가 했다. 두 여자 중 나이 많은 쪽이었다. 여자는 음식을 시킬 때 아버지를 포함해 다른 일행에게 뭘 먹겠냐고 묻지 않았다. 여자가 제 맘대로 해산물 위주로 요리를 주문할 때 금수 씨는 메뉴를 받아 적다가 자기를 쳐다보는 아버지와 또 한 번 눈이 마주쳤고 그때도 금수 씨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금수 씨의 눈에 아버지의 얼굴은 다르게 보일 만했다. 우선, 늘 눈썹을 덮게 덮수룩하던 앞머리가 7대 3 정도의 선명한 가르마로 나뉘어 넘어가 있었다. 그리고 염소수염이 사라지고 없었다. 앞머리가 바뀌고, 수염이 있던 자리에 없어진 사람을 이십 년 만에 보고 바로 알아볼 정도라면 보통 눈썰미가 아닐 것이다. 금수 씨는 눈썰미가 좋은 축에 들지 못했다.

먼저 알아본 쪽은 아버지였다. 주문하던 여자가 금수 씨의 이름표를 가리키며 차이니즈인지, 코리안인지 영어로 물었을 때였지 싶다. 악센트로 보아, 여자는 ‘왕(Wang)’이란 라스트 네임이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중국인 같았다. 이런 일이 왕왕 있어, 금수 씨는 빙긋 웃으며 “워씨한귀런(我是韩国人).” 하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여자가 금수 씨더러 금수 씨의 얼굴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 같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젊은 여자가 픽 웃으며 눈을 휴대폰에 박은 채 “일본인은 이런 데서 일 안 해.”라고 영어로 말했다. 부아가 나는지 말끝에 아랫입술을 무는 게 보였다. ‘이런 데’서 일 안 하는 일본인들에게 나는 부아인지, 나이 많은 여자에게 내는 부아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이 든 여자는 그런 젊은 여자를 본 척도 않고 금수 씨의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 His last name is also Korean Wang(그의 성도 역시 한국계 ‘왕’이에요).

순간, 함께 앉은 아이 앞의 스테인리스 스푼이며 나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아이가 실수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버지가 부러 떨어뜨린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것들을 집으려 테이블 보 밑으로 반은 기어들어 갔다. 자리를 뜨면서 금수 씨가 슬쩍 보니, 고개를 드는 아버지 얼굴이 불이 잘 붙은 구공탄 마냥 붉었는데 일행 중에 아버지 얼굴이 놀라서 붉어졌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금수 씨는 그래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 있는 금수 씨를 아버지가 찾아와 당신을 아버지라고 밝혔을 때 금수 씨는 놀라지도 못했다. 아버지를 이십 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보다 가뜩이나 바쁜 주방에서 손님하고 뭐하냐는 듯 힐끔거리는 주방장이 금수 씨는 더 신경 쓰였다.

우물쭈물 별말이 없는 금수 씨를 보고 아버지는 이럴 줄 알고 준비해왔다는 듯 셔츠 앞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옆모습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업혀 정면을 보고 있는 여자아이는 금수 씨 자신이 맞았

다. 금수 씨가 사진에서 눈을 떴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자 아버지는 어려운 허락을 얻어낸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주억거렸다. 아버지는 수시로 열리는 주방 문틈으로 홀 쪽을 힐끔거리며 금수 씨에게 역시 미리 적어 온 쪽지를 쥐여 주었다. 그러면서 금수 씨의 손을 그 두 손으로 힘주어 감싸고는 꼭 전화를 달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아버지에게 잡힌 손을 빼려고 금수 씨의 팔이 티 나게 움찔거렸다. 열두 살에 헤어져 얼굴도 가뭇한 아버지를 이십 년 만에 만났을 때 딸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였다.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할지, “반가워요.”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은 “왜 이러세요.”였다.

금수 씨는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통화를 하지도 않았다. 문자가 오가지도 않았다. 꼭 연락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 표정은 진심인 듯했고 얼핏 간절해 보이기까지 했으나 금수 씨 입장에서 그 말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었다. 집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반가워할 사람이 없으니 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금수 씨는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났다는 사실도 곧 잊을 참이었다.

뜻밖에도, 아버지를 먼저 입에 올린 건 엄마였다. 이십 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엄마가 아버지 이야기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입에 올릴 때 엄마는 대개, 어떤 일로 화가 아주 많이 나 있었다. 어떤 일로 화가 났는데 화난 김에 떠올리기 제일 좋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듯….

엄마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올리면 당신을 화나게 한 어떤 일을 대번에 잊곤 했다.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입에 올리는 엄마를 거의 본 적 없었기에, 뭐 좋은 일이 있는지 엄마가 콧노래 곁에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금수 씨는 구안와사가 온 사람처럼 입가로 커피를 다 흘렸다.

그날, 금수 씨의 집은 오랜만에 별일이 없었다. 그 전날은 엄마의 성한 가슴에서 또 발견된 종양이 음성이라는 결과를 병원에서 받았고 당일은 치수 씨가 모처럼 일찍 퇴근해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던 참이었다. 먼저 식사를 마친 금

수 씨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육개장 때문에 후끈거리는 속을 차가운 보리차로 달래고 있었고 엄마는 자몽 껍질을 손끝으로 뜯어내는 중이었다.

- 아무래도 내가 왕병기, 느이 아버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그리 말하고 엄마가 자몽 두 조각을 한꺼번에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동안 금수 씨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다. 한 달 전 전화 기록을 찾기 위해 서였다. '드래곤 팔레스'에서 아버지를 만난 뒤 금수 씨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번 걸긴 했다.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고는 통화 연결음 소리가 들리자 바로 끊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하지는 않았다. 저장할 필요까진 없는데 그렇다고 바로 잊기는 뭇한 전화번호를 남기는 금수 씨만의 방식이었다.

금수 씨는 휴대폰 화면을 위로 죽죽 밀어 아버지를 만난 한 달 전쯤으로 갔다. 아버지 것으로 짐작되는, 저장 안 된 번호가 있었다. 네 시경에 금수 씨가 걸었으나 통화는 성사되지 않은 전화…. 일단 그걸 찾아 놓고 금수 씨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었다.

아버지 이야기를 운만 떼고 엄마가 더 말이 없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아버지를 직접 찾은 건 아니지만 찾은 것과 진배없게 돼버린 금수 씨는 저 혼자 얼굴이 뜨뜻해졌다. 아무래도 아무 말이나 해야겠다 싶어 입을 떼려는데 막 입에 집어넣던 밥 한 숟갈이 뜨거워 치수 씨가 입을 못 다물고 턱을 툅툅 떨었다.

금수 씨보다 먼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틈에 금수 씨가 치수 씨를 향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금수 씨는 등을 돌린 채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엄마를 곁눈으로 힐끔거리며 검지를 세워 입술에 댔다. 쉬. 치수 씨가 금수 씨의 휴대폰을 슬쩍 보고는 금수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금수 씨는 입 모양으로 '아버지'를 만들어 보이고(엄마가 말한 그대로 '왕병기'라고 하려고 '와'를 만든 입을 열린 '아'로 바꿔서) 휴대폰 화면을 치수 씨 쪽

으로 해서 들이밀었다. 그걸 잠깐 들여다본 치수 씨가 입안의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얼른 삼켰다.

‘아버지를 찾았어?’라는 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아니, 우연히 만났어. 어디서? 식당에서.

소리를 안 내고 입 모양으로 말하려니 입의 움직임이 과장되어 둘 다 턱이 삐근했다. 엄마가 물컵을 들고 돌아와 자리에 앉는 바람에 금수 씨와 치수 씨는 소리 없는 대화를 멈춰야 했다. 치수 씨는 엄마가 내미는 컵을 받아 들고 물을 마시면서 가늘게 뜬 결눈으로 금수 씨를 보았다. 금수 씨는 못 본 척했다. 괜히 목을대를 크게 올려가며 물을 오래 마시는 치수 씨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엄마가 말했다.

- 느이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이젠 느이들을 만나야지.

식탁 아래서 치수 씨가 금수 씨의 다리를 톡 찼다. 금수 씨가 쓱 쳐다보니 치수 씨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는데,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걸 엄마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금수 씨를 질책하는 것도 같고,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엄마만 모르는 걸 재미있어하는 것도 같았다.

금수 씨와 치수 씨는 이제 갓 예순이 되었을 아버지의 생사를 엄마가 궁금해하는 게 이해는 갔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걸 몰랐다면 금수 씨와 치수 씨도 아버지에 관해 그걸 제일 궁금해할 판이었다.

아버지와 같이 살았을 때가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금수 씨가 아는 한 아버지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혼자 죽고 싶다는 말은 물론, 식구 다 같이 죽자는 말도 심심찮게 했다. 아버지는 죽고 싶다는 말을 대부분 밥을 먹다 말고 했다.

식구들은 죽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을 그다지 귀담아듣지 않았다. 아버지가 워낙 그 말을 자주 해서 그러기도 했고 그보다는 눈앞의 밥을 먹는 일이 더 중하기도 했다. 사실, 식구들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아버지가 염려된다기보다는, 좀 우스운 쪽이었다.

그게 좀 우스운 이유가 식구 나름대로 있었다. 엄마는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그게 우스웠다. 금수 씨는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가 드러나게 입술을 질끈 깨무는 아버지의 입매가 비장하다기보다는 간지럼을 참는 것처럼 보여 우스웠다. 치수 씨는 아버지가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한 번도 진짜로 죽는 적은 없어서 우스웠다.

식구들은 그 마음을 나름대로 내비치기도 했다. 그때마다 엄마는 밥상머리에 앉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죽고 싶은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지.”라고 중얼거렸고, 치수 씨는 헛바닥을 있는 대로 내밀고 고개를 앞으로 푹 떨구면서 저가 죽는 시늉을 했다.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 금수 씨는 입술을 깨무는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 마주 앉은 아버지 뒤희쪽 벽을 쳐다보았다. 그러던 여지 없이 그 벽의 옷걸이용 못에 걸린 타이거 마스크가 눈에 들어왔다.

바탕은 희고, 이마와 눈 아래쪽에 검은 줄 몇 개가 굵게 간 고무 재질의 레슬러용 마스크. 타이거 마스크는 늘 거기에 걸려, 늘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눈구멍, 콧구멍, 입 구멍이 있는 대로 늘어져 몹시 졸린 듯한 표정의….

그래서 금수 씨는 아버지를 보지 못한 지난 이십 년간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아버지의 얼굴보다 타이거 마스크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타이거 마스크는 아버지가 타이거 마스크에게 얻은 것이었다. 엄마는 타이거 마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버지뿐일 거라며, 누굴 좋아해도 아버지는 꼭 ‘저 같은’ 인간을 좋아한다고 이죽거렸다.

타이거 마스크는 경기에서 이기는 때가 거의, 아니, 단 한 번도 없는 레슬러였다. 쉽게 말해, 타이거 마스크는 저 주는 역할을 하는 레슬러였다.

물론, 한국 프로레슬링의 태동기에 태어나 한국 프로레슬링의 황금기에 청춘을 보내고 한국 프로레슬링의 암흑기에 때맞춰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답게 아버지는 프로레슬링에 ‘저 준다’는 말 따위는 개입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프로레슬링이 만들어진 각본대로 짜고 하는 쇼가 아니라 극본 없는 드라마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 믿음은 동네마다 있어 봐던 레슬링 체육관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금수 씨와 치수 씨는 세상 사람들이 레슬링 경기장이 아니라 야구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더는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방송을 볼 수 없게 된 무렵 태어났다. 말하자면, 금수 씨와 치수 씨가 아버지와 같이 산 십 년 남짓한 시간은 아버지로서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었다.

치수 씨가 태어나고 몇 년 뒤 주한미군방송(AFKN)에서 프로레슬링 중계가 재개되었는데 그 경기 내용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이기는 쪽은 늘 치렁치렁한 금발을 휘날리거나 근육보다 배가 더 볼거져 보이는 백인 레슬러들이었다.

상대편은 비단 한국인만은 아니었지만 누가 댔든 백인들 눈치라도 보듯 만났었다. 영어로 할 줄 아는 제일 긴 말이 ‘마이 네임 이즈 왕병기’면서 아버지는 AFKN 레슬링 경기를 빠짐없이 챙겨 보았다. 경기가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열린다고 하면 그 길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응원하는 한국 레슬러는 질 때가 훨씬 더 많아 레슬링 시합을 보고 오면 아버지는 여지없이 또 죽고 싶다고 말했다. 타이거 마스크는 그즈음, 등장한 레슬러였다. 타이거 마스크의 사명은 단순했다. 불붙은 듯 시뻘건 ‘비로도’ 망토를 휘날리며 링 위로 올라 양다리를 가위 삼은 ‘헤드 시저스’로 상대의 머리뺨을 조이며 기세등등…그러다 어느새, 허무하게 매트에 메다 꽃혀 양어깨를 링 바닥에 바짝 붙이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타이거 마스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는 이는 없었다. 벗은 몸 색깔을 보면 백인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경기 시작 전에 캐스터가 타이거 마스크의 국적 비슷한 걸 소개하기는 했으나 설마 저런 나라가 있을까 싶게 요상한 이름 인데다가 장내 마이크가 너무 울려 대개 멍개진 발음으로 들렸다.

하긴, 그의 국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지는 편의 나라 따윈 기억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는 하필, 그런 타이거 마스크의 팬이 되었다. 승자가 아니라 패자의 팬. 아버지는 타이거 마스크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극성 팬이 되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 덕에 아버지의 죽고 싶다는 말을 안 들어 좋다며 개의치 않았다.

늘 패자였지만 타이거 마스크는 그 전매특허 기술인 헤드 시저스 하나만큼은 어린 금수 씨가 봐도 가히 독보적으로 멋지게 해 보였다. 사실, 아버지에게도 가히 독보적이라 할 만한 게 있긴 했다. 키도 몸집도 한국의 평균 남자보다 조금 큰 정도였지만 아버지의 장판지만큼은 태생적으로 벽돌처럼 두껍고 탄탄했다. 하루는 타이거 마스크가 아버지의 장판을 가리켜 헤드 시저스를 위해 ‘신이 내린 장판지’라 했다며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아이처럼 자꾸 웃었다.

어느 날, 타이거 마스크는 등쪽에 뱀 문신을 한 미국의 ‘레드 스네이크’에게 곧바로 헤드 시저스를 걸려다 실패하고 뒤이어 백 드롭을 당했는데 그만 각본에 없는 뇌진탕을 일으키고 말았다. 티브이 속에서 타이거 마스크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금수 씨의 아버지가 그 한 귀통이를 붙잡고 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 큰 어른이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다음날, 신문 한 귀통이에 왕년의 한국 프로레슬링계 한 스타 레슬러의 부고가 실렸지만 그걸 눈여겨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사나흘 뒤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손에는 타이거 마스크의 유품인 타이거 마스크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그러고 어쩐 일인지, 죽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더니 몇 년 뒤 겨울, 집을 나갔다. 프로 레슬러가 되어야겠다는 쪽지 하나만 달랑 남긴 채….

벽에 걸린 타이거 마스크도 그때 아버지와 같이 금수 씨의 집에서 사라졌다. 언젠가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고, 엄마가 전화로 누군가와 속삭이는 걸 들은 어린 금수 씨는 아버지가 타이거 마스크의 원수를 갚으러 간 거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레슬러가 되었을까?

비단 아버지가 살아 있다고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치수 씨는 아버지의 생사보다 그게 더 궁금했다. 사실은 금수 씨도 그랬다. 아버지는 프로 레슬러가 되었을까?

한 달 전, 식당 주방에서 아버지에 잡힌 손을 빼내면서 금수 씨가 떨군 시선에 하필 아버지의 장판지가 들어 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레슬러가 되었다 쳐도 이제 예순이 된 아버지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눈가에 주름도 자글자글했지만 입고 있던 카고 반바지 아래로 볼거진 장판지는 여전히 어지간한 남자의 넓적다리만 했다.

아버지는 레슬러가 되었던 걸까? 엄마는 레슬러가 되고 싶다는 아버지를 죽고 싶다고 말할 때의 아버지보다 더 우스워했다. 금수 씨는 옷통을 벗고 검정 타이즈를 신고서 사각의 링에 올라 있는 아버지 꿈을 꾸 적어 몇 번 있었다. 꿈속 아버지는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마스크로 얼굴이 가리었지만, 금수 씨는 그게 아버지임을 알 수 있었다.

어떤 표식 같은 게 있어서 알아본 건 아니었다. 아버지 얼굴을 본단 한들, 금수 씨가 아버지 얼굴을 선명히 기억하는 것도 아니었다. 금수 씨는 다만, 느낌으로 그게 아버지 꿈이니 아버지라고 알 뿐이었다. 살아서 일면식도 없는 타이거 마스크가 금수 씨의 꿈에 굳이 나올 리는 없을 테니까.

금수 씨의 꿈속에서 아버지는 레슬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타이거 마스크가 그랬던 것처럼 꿈속의 아버지도 졌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지면서 웃었다. 타이거 마스크의 뚫린 눈구멍으로 보이는 아버지는 눈은 분명 웃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지는 게 당신이 할 일이라는 듯, 늘 지는 게 당신의 사명이라는 듯.

엄마는 밥을 다 먹은 치수 씨에게 자몽 조각 하나를 내밀며 아버지가 하는 레슬링 경기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고 이제야 털어놓았다. 엄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오 년 뒤 아버지를 LA에서 만났다.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엄마가 공금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금수 씨의 남은 식구들 모두 미국으로 올 때였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금수 씨와 치수 씨를 조퇴시키러 온 엄마는 지퍼를 미처 다 채우지 못해 옷가지가 삐죽 튀어나온 짐 가방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엄마의 블라우스 단추는 하나씩 밀려 있었다. 금수 씨와 치수 씨는 학교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랐다. 점심시간 전이라 도시락도 먹지 못한 채였다.

사진이나 티브이에서만 보던 비행기를 처음 타고도 금수 씨는 내놓고 신기해하지도 못하고 열 시간 내내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다. 치수 씨는 비행 내내 잤고 몇 차례 화장실을 다녀왔지만, 금수 씨는 오금에 잔뜩 힘을 준 채 진득하니 참았다. 비록 어렸지만 적어도 금수 씨는 엄마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어리지는 않았다.

잠도 소변도 참을 수 있었으나 금수 씨는 자기 가방에서 밥이 쉬어가는 냄새, 신 김치가 더 발효되는 냄새가 새 나오는 게 몹시 신경 쓰였다. 앞뒤에서 코를 ‘쿵쿵’ 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엄마는 치수와 머리를 기대고 코까지 골면서 잤다. 금수 씨는 속도 몰라주고 잘 자는 엄마가 야속하다기보다는 짝한 마음이 더 컸다. 이 모두가 식구들을 견어 먹이려다 생긴 일이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생긴 일이었으니까.

그 뒤로 이십 년이 지나는 동안 금수 씨는 아버지에 관해 한 마디도 묻지 않았고 엄마 입에서 아버지 소식을 들어 본 적도 없었다. 그랬기에 아버지가 레슬러가 되었는지 어떤지는커녕,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턱이 없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의 레슬링 시합에 가 보았다고 말하자 금수 씨는 이번에는 엄마가 조금 야속했다. 아버지가 남긴 쪽지에 ‘애들한테 아버지 노릇 좀 제대로 해보려고’라는 말도 있었던 걸 말 안 했을 때보다는 덜했지만….

- 아버지가 이겼어?

치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빈 밥공기와 수저를 들고 싱크대로 가면서 말했다. 심드렁하다는 투였지만 치수 씨는 무심코 튼 물의 세기를 바로 줄였다. 금수 씨가 옆 눈으로 보니 엄마는 막 입에 자몽 조각을 또 두 개나 넣고 우물거리는 중이었다.

- 그때, 갑자기 미국에 왔을 때 말이야. 우리가 신세 진 집이 느이 아버지 사촌 형네였어.

대충 그런 뜻으로 들렸는데 엄마가 입을 우물거리는 통에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시합에서 이겼는지 묻는 말에 적절한 대답이 아니었기에 금수 씨는 엄마의 입을 쳐다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치수 씨도 수세미로 그릇을 닦으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자몽이 입에 있는데도 한 조각을 더 집어넣을 기세였다. 금수 씨가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그 손을 저지했다. 엄마가 고개를 돌려 금수 씨를 보았다. 금수 씨는 굳이 눈을 마주치지는 않고 어떤 말을 기다린다는 시늉만 했다.

- 그이 통해서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실종신고까지는 안 했던 거고. 신고 안 하길 잘했지, 그 난리 났을 때 느이 아버지라도 미국에 있었으니 다행이지 뭐야. 그때 아버지를 만나야 해서 시합에 갔던 거야. 잘 돼 있으면 슬쩍 좀 비벼볼 참이었는데, 나 원, 진짜로 레슬링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았다니?

엄마가 말하는 도중에 치수 씨는 물을 다시 세계 틀고 싱크대 위에 널린 그릇들을 죄 끌어다 작심하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후드에 장착된 라디오도 켜다. 환성 소리가 쏟아지면서 프로야구 중계 캐스터의 격앙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뒷부분의 ‘진짜로 레슬링이나 하고 있을 줄 알았다니?’는 금수 씨만 들을 수 있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졌는지 이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금수 씨는 엄마 쪽으로 몸을 조금 틀었다. 이제 와 그게 왜 자꾸 궁금한지 금수 씨도 이유를 알 수는 없었다.

- 시험 도중에 느이 아버지가 날 알아보더라고. 하긴 관중이라 해봐야 몇 사람 되지도 않았거든.

금수 씨가 엄마 등 뒤로 손을 뻗어 라디오 줌 끄라고 치수 씨에게 손짓을 보냈다. 엄마는 자몽 하나를 다 먹고는 또 하나를 집어 들고 껍질을 까기 시작했다. 엄마의 손톱이 껍질에 푹 들어가면서 불그레한즙이 짙, 엄마 눈에 튀었다. 금수 씨가 티슈를 몇 장 뽑아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가 티슈로 두 눈을 지그시 닦았다. 앞뒤 정황을 모르는 이 눈에는 설피 울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그때, 돌아선 치수 씨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치수 씨가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다. 움직이는 치수 씨를 금수 씨가 곁눈으로 좇았다. 입으로 '누렁이?'하고 해 보이자 치수 씨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에서 얼굴을 조금 떼고 치수 씨는 '주향이'라고 내뱉듯 말하고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다.

- 누렁이 놈, 요즘 치수한테 전화가 잦드라?

누렁이는 치수 씨가 일하는 '델리 바이트(Deli Bite)'의 주인이었다. 어디 유럽계라는데 백반증이 있어 가뜩이나 누런 이가 더 누래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름이 길고 생소해서 엄마 입을 통해 그냥 '누렁이'로 굳어졌다.

단어란 건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는 성질이 있어, 금수 씨나 치수 씨에게는 '누렁이'가 '누런 이'의 비슷한 말 정도였지만 엄마에게는 한국의 시골 마을이면 으레 한두 마리 돌아다니는 동네 개와 같은 말인 듯했다.

엄마는 통화하는 치수 씨를 보려 목을 길게 뻗었다. 금수 씨가 그런 엄마를 위해 상체를 뒤로 살짝 젖혔다.

-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뭐 시킬 일은 그리 많다니?

엄마는 치수 씨가 주향이라고 한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주향이 텔리 바이트에서 일하게 된 건 금수 씨 덕이었다. 금수 씨는 치수 씨나 주향보다 텔리 바이트에서 먼저 일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일자리가 급해진 주향에게 금수 씨가 그 자리를 내준 것이었다.

금수 씨는 드래곤 팔레스 자리를 주향에게 소개했지만, 밤 열 시 넘어 퇴근이 가능한 웨이트리스 일을 주향은 할 수가 없어 금수 씨가 드래곤 팔레스로 옮겨 갔다. 덕분에 금수 씨는 배우고 싶던 중식 요리를 눈동냥으로나마 익힐 수 있었고 주향 씨는 오후 다섯 시면 퇴근해서 남편을 돌볼 수 있었다.

다리 저는 치수 씨를 고용하기 싫어하는 누렁이에게 힘든 일을 적게 시키는 대신 덜 힘든 일을 길게 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설득한 것도 주향이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주급이 자꾸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주기는 쫓고, 히스패닉계가 대부분인 동료 직원들이 무거운 식자재를 힘겹게 옮기면서도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치수 씨에게 눈치 안 주는 것만 해도 치수 씨로서는 불평할 수 없는 자리였다. 주향에게 어떤 물건 위치를 가르쳐 주는 듯한 통화가 끝나는가 싶더니 치수 씨가 금수 씨를 향해 말했다.

- 누나랑 통화하고 싶대.

- 나하고?

- 응.

- 내 전화로 하라 그래. 내 전화번호 알 텐데?

금수 씨의 말끝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잠시 잊고 있었고, 그랬기에 잠시 평온할 수 있었는데 무언가를 계기로 그걸 떠올려야 하면서 평온이 깨지고 어떤 현실로 돌아와 짓게 되는 침묵...

금수 씨네 평온을 깨는데 계기가 된 것은 금수 씨의 전화번호였다. 한 달이 멀다고 바뀌야 하는 전화번호.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전화번호. 아니, 가까운 사이기에 더 알려줄 수 없는 전화번호. 이혼에 합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 '전'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동보가 캐내려 혈안이 된 금수 씨의 전화번호.

지금 금수 씨가 사는 집과 드래곤 팔레스는 아직 동보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텔리 바이트는 금수 씨 동생 치수 씨가 집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무는 곳이라 가장 위험해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었다.

텔리 바이트로 찾아온 동보가 금수 씨 있는 곳을 대라며 냉장고 앞에서 치수 씨 목을 조르는 것을 주향이 계산대에서 CCTV로 보았다. 주향은 누렁이가 가게 보안상 창고에서 키우는 진짜 개, 핏볼 '찰스'를 풀었다. 찰스는 누렁이도 가끔 무는, 한 마디로 주인도 몰라보는 개인데, 어떤 영문인지 금수 씨 남매에게만큼은 순종적이었기에 치수 씨의 목을 조르는 동보를 보고 찰스의 눈에서 실제로 불꽃 같은 게 튀더라고. 나중에 주향이 푼 현장 목격담이었다.

찰스가 동보의 드러난 발목을 '어그적'하고 물 때 날카롭고 긴 개 이빨이 사람 뼈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는데 주향은 그제, 찌는 여름날 얼음 조각 씹을 때 소리와 비슷하더라 말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었다고 멋쩍어했다.

금수 씨가 치수 씨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들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듯 속삭이는 주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 언니, 가게에 한 번 들리요. 될수록 빨리요.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손님이 많아 한참 분주한 1시 무렵, 5번 테이블 손님이 금수 씨를 찾는다고 매니저가 알려왔다. 오인용 테이블에 혼자 앉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막 무가내로 앉더라. 5번 테이블 쪽은 가림막이 있어 메인 홀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금수 씨 담당도 아니어서 금수 씨는 손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금수 씨를 찾는 이유는 전에 들렸을 때 받은 서비스가 인상에 남았기 때문이라고. 중

년의 남자라고 했다.

금수 씨가 말은 2번 테이블 손님이 필요한 게 있는지 손을 드는 게 보였다. 매니저가 대신 그쪽으로 움직이며 금수 씨에게 빨리 5번으로 가보라고 손짓했다. 대충 달래서 작은 테이블로 옮겨 앉게 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금수 씨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님이 찾는다고 할 때부터 심장이 저 밑으로 떨어져 요동치는 바람에 배가 다 아파졌다. 금수 씨는 입술을 안으로 힘주어 말아 넣고 5번 테이블로 들어가는 벽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동보는 금수 씨를 보고 손을 번쩍 들었다. 한 테이블 건너에 앉은 백인 손님 중 하나가 젓가락으로 로메인을 길게 들어 올리다가 동보 쪽을 쳐다보았다. 그 걸 시작으로 등을 보이고 앉은 손님도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 동보가 그들을 향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리자 고개도 시선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금수 씨가 동보 곁으로 다가가 섰다. 동보가 턱을 까딱하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금수 씨는 직원은 손님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돼 있다고 영어로 말했다. 조금 전 그 테이블에서 들어오는 시선이 금수 씨 옆구리에서 따갑게 느껴졌다.

동보가 그쪽으로 또 인상을 쓰면서 금수 씨의 손목을 잡아채듯 끌어서 자리에 앉히려 했다. 금수 씨는 얼른 그 손을 빼고 자세를 고쳐 섰다.

- What...would you order?(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입안에서 혀를 굴리는지 동보의 턱이 불거져 나왔다. 동보가 그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픽, 콧방귀를 뀌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한 번 푹 떨구더니 동보는 결심한 듯 바짓단을 걷어 올렸다. 복숭아뼈 위쪽으로 꿰맨 듯한 상처 자국이 나 있었다.

- 개 값 받으러 왔네. 주는 거 봐서 암전히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개 춤 한 번 춰주고.

금수 씨의 주먹이 저절로 꼭 쥐어졌다. 동보에게 뺨을 맞거나 동보가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르는 걸 막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가 떠올랐다. 그게 이제와 역올하다기보다 그리고 오 년이나 같이 살았던 자신이 새삼 어이없어서였다.

금수 씨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긴 숨을 가늘게 내쉬었다. 금수 씨는 입을 거의 열지 않고 복화술 하듯 동보에게 돈을 온라인으로 부쳐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일단 이곳에서 제발 나가 달라고.

동보는 금수 씨더러 돈을 갖고 집으로 오라면서 그러지 않으면 다음 날 여기 다시 와서 ‘개 춤’ 한 판 제대로 춰 보이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레스토랑을 문을 밀고 나가던 동보가 빙글거리며 저만치 선 매니저에게 굳이 인사를 했다. 자신은 금수 씨 남편이고 금수 씨를 잘 부탁한다는 말도 했다. 동보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금수 씨는 그 옆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다.

두 층을 걸어 내려가던 금수 씨는 어느 지점에서 계단 난간을 붙잡고 스프르 주저앉았다. 불이 터질 정도로 입안 가득 숨을 몰아 담고는 한동안 참았다가 일시에 쏟아냈다. 입안에 오래 머물러 뜨거워진 날숨과 함께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어린애처럼 소리 내며 울고 싶지는 않아서 금수 씨는 이를 세게 물었는데 그래도 이 사이로 소리 몇 가닥이 새어 나왔다.

금수 씨의 손이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꺼냈다. 눈물 몇 방울이 휴대폰 화면에 떨어졌다. 금수 씨는 얼른 손바닥으로 그걸 문질러 지우고 통화 기록을 보려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렸다. 식구들부터 시작해 낯익은 이름들이 죽죽 지나갔지만 하나를 짚어 전화 걸 곳이 없었다. 그게 또 서러워지려는 순간, 금수 씨의 손가락이 툭 멈췄다. 어떤 일인지 눈물도 툭 멈췄다.

한 달 전 네 시 무렵, 금수 씨에게서 나간 전화. 아버지의 번호였다. 금수 씨의 손가락이 그 번호를 톡 치니 아래쪽으로 동그란 전화기 표시가 나타났다. 금수 씨의 손가락이 그 표시 위에서 까딱거렸다. 아버지라고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예전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 안 나는 아버지에게, 다른 가족과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뭘 어찌겠다고.

금수 씨는 찢던 검지를 주먹으로 밀어 넣었다. 문득, 아버지 얼굴 대신 더 떠올리기 쉬운 얼굴이라 그런지, 죽고 싶다고 말하던 아버지 등 뒤로 걸린 타이거 마스크가 떠올랐다. 여지없이 졸린 표정을 한…。 그때는 그걸 보고 용케 참았던 웃음이 이 와중에 피식 새 나왔다.

이제, 금수 씨는 눈물과 콧물이 섞여 진득해진 얼굴의 물기를 손등으로 닦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맡겨 놓은 돈을 좀 찾아두라고. 무슨 일이라고 묻는 엄마에게 동보가 찾아왔고 그래서 ‘개 값’을 갚아야 한다고 설명할 때 금수 씨는 울먹이지 않을 수 있었다.

어쩐 일인지, 엄마는 돈을 찾아 놓지 않았다. 동보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오그라든다며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고 목숨이나 보전하자던 엄마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는 그저 돈 찾는 걸 잊었다고 했다.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절제할 때 의사가 기억에 관여하는 뇌 신경의 일부를 잘못 잘라낸 게 분명하다는 말을 이참에 엄마는 또 했다. 잊어버리고도 풀릴 것 없다는 소리였다. 왜 그걸 잊었는지 따질 겨를이 없었다.

돈을 받지 못한 동보가 식당으로 쳐들어올 게 뻔해서 금수 씨는 새벽같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보에게 들킨 이상, 그곳에서 더 일하기도 글렀기에 몸이 아파 하루 쉬겠다고 말하면서 금수 씨는 벌써 서운해 목소리가 떨렸다.

마음 좋은 매니저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걸 보니 많이 아픈가 보다, 혹시 코로나면 큰일이라고 말할 때 금수 씨는 울컥 목이 메었다. 금수 씨는 엄마가 돈을 찾아 놓지 않아서 동보의 집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인데 사실은 갈 필요가 없었다. 동보 역시 자기 집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 집 앞까지 가기는 했으나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 갔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경위를 금수 씨는 집에서 티브이 뉴스를 통해 알았다. 가게에 틀어놓은 티브이를 보던 주향이 기겁하고 빨리 뉴스를 보라고 금수 씨에게 알려 주었다. 뉴스에 나온 사건 현장은 일층이 피자 가게인 상가 건물로 그 이층에 동보의 원룸이 있었다. 건물 앞에 경찰차가 줄줄이 서 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중에 몇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Asian Hate Crime). 미국 내에서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뉴욕에서도 동보가 사는 P타운 부근이었다. 그러니까 동보가, 금수 씨는 말로만 듣던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을 당했다는 소리였다. 경찰 기자회견 장면에서는 자막이며 설명이 추가돼 금수 씨는 좀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었다.

술이 좀 취한 상태로 동보가 비틀거리며 집 문을 열려고 고개를 숙일 때 동보를 덮친 괴한이 있었다. 동보는 어깨뼈가 군데군데 으스러지고 팔이 어깨에서 빠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가 옆집 인도인에 의해 새벽에 발견되었다. 경찰은 전형적인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과 달리, 더 심각하고 복잡한 상해가 연루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 사례가 나왔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아직 자세한 피해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경찰은 가해자가 동보의 목과 어깨 쪽을 무언가로 심하게 압박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어깨에서 빠질 정도로 잡아당긴 것으로 추측했다. 이 정도 손상을 가하려면 대체 무엇으로 압박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 의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그게, 욕심이 갓 넘었지만 '신이 내린 장판지'를 지닌 한 전직 프로 레슬러의 헤드 시저스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하는 이는 금수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직 제대로 증언할 상태가 못 되는 피해자가 그나마 한 말 중, 가해자가 쓰고 있었다는 마스크는 요즘 같은 팬데믹에 누구나 쓰고 다니는, 입만 가리는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을 다 가린 타이거 마스크라는 것도.

엄마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말을 금수 씨에게 이미 했다고 우겼다. 치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모처럼 다 모인 자리에서 했기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 말을 할 때 “내가 자몽을 먹고 있었잖아.”라고 할 때는 식탁으로 가서 거기 놓인 자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금수 씨는 그때 엄마가 아버지를 찾았다고 한 게 아니라 찾아야 할 것 같다

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자 엄마는 반갑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찾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찾았고 그래서 찾았는데 뒷말을 생략한 것뿐이라고. 그 정도면 다 알아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금수 씨는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이제는 자식들을 만나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엄마는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이 아니라 살아 ‘있으니’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며 ‘있으니’ 부분에서 음절에 맞춰 식탁을 세 번 두들겼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래곤 팔레스로 온 게 우연이 아니라 엄마가 알려줘서 금수 씨를 일부러 보러 왔다는 이야기였다.

- 너는 아버지를 만나고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다니?

지난 이십 년간 아버지 사는 곳도 알고, 아버지에게서 생활비에 치수 씨의 다리 하며 엄마 수술 병원비까지 도움받아 놓고 말하지 않은 엄마가 할 말은 아니라고 금수 씨는 말하고 싶었지만, 하필 엄마가 꺼진 가슴을 문지르는 바람에 하지 않았다.

그 뒤로 이 손 저 손 교대로 계속 가슴을 문지르면서 엄마가 풀어 놓은 이야기는 동보가 특하면 금수 씨에게 주먹질하고 이혼도 안 해주면서 돈을 뜯어 간다는 걸 아버지에게 전했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당신이 동보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도 아니었다.

엄마는 레슬링 이야기만 했다.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천신만고 끝에 프로 레슬러가 되었는데 얼마 못 가 프로레슬링 협회에서 제명당하고, 신분 문제로 추방당할 판에 아버지의 레슬링 코치였던 관장의 미망인과 재혼하고 그 덕에 미국 시민이 된 경위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알아두면 나쁜 것 없다는 듯 무덤덤하게 말했다.

별로 오래 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피곤하니 눕고 싶다며 안방 쪽으로 걸어갔다. 금수 씨는 빈 찻잔을 들고 싱크대로 가면서 역시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냥 생각나 묻는다는 말투로, 아버지가 이겼냐고 물었다. 엄마가 보러 갔다는 그 시합에서…. 엄마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 아, 이겼다니까. 그래서 프로레슬링 협회에서 쫓겨났다고 좀 전에 말했는데 넌 뭘 들었다니?

금수 씨는 주향이 주인 없을 때 오라는 시간에 맞춰 텔리 화이트로 갔다. 치수 씨도 거래처에 심부름 가고 없었다. 주향은 문 앞에 나와 금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수 씨를 보자마자 주향이 금수 씨의 팔을 잡아끌다시피 해서 가게 홀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다.

진열대에서 가격 라벨을 붙이고 있던 마구엘이 금수 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주향이 마구엘을 보면서 계산대를 향해 손가락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자 마구엘이 바레, 바레 하면서 계산대로 향했다. 금수 씨가 창고 옆을 지날 때 안에서 찰스가 그르렁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문을 긁어대며 끽끽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금수 씨의 체취를 기억하는 게 기특해 금수 씨가 멈칫하자 주향이 아예 금수 씨 뒤로 와서 등을 창고 옆방 안으로 들이밀었다.

금수 씨가 일할 때는 늘 잠겨 있던 방이었다. 누런 상자가 온 벽을 가득 메우고 있어 발 디딜 틈 없는 방 한쪽에 철제 선반이 있고 그 위로 컴퓨터며 낡은 오디오, 비디오 재생기 같은 게 보였다. 주향이 고개만 빼고 문밖을 살피더니 문을 닫고 안에서 잠갔다.

- 내가 이 방 열쇠를 복사하느라 스파이 작전을 썼다니깐.

주향이 컴퓨터와 비디오 재생기를 켜고 거기 달린 둥근 레버를 이리저리 돌렸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 다들 내가 노래방 다닐 때 노래만 부른 줄 알지? 노래방 기기도 다 내가 만졌다니깐.

찾으려던 걸 찾은 듯 주향이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켰다.

- 많이 놀라지는 말아요, 언니. 언니는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모니터에 텔리 바이트의 냉장고와 그 앞쪽 선반이 나타났다. 냉장고에 물건을 넣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은 치수 씨였다. 금수 씨는 한동안 모니터를 보다가 주향을 돌아보았다. 주향이 조금만 더 보라는 신호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그런 주향의 표정은 자못 심각하기도, 자못 서글퍼도 보였다.

금수 씨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보내는 순간, 모니터 한쪽에 주인, 누령이가 나타났다. 그가 걸어와 허리를 숙이고 있는 치수 씨에게 다가들더니 그 뒤에 섰다. 텔리 가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정경에 여전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몰라 금수 씨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다음 순간, 텔리 가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경이 펼쳐졌다. 누령이의 두 손이 치수 씨의 엉덩이에 철썩 가 붙은 것이다. 치수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다. 한 손으로 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누령이의 손을 밀쳤지만 다른 손으로는 여전히 냉장고에 물건을 들었다. 급기야 누령이는 치수 씨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치수 씨 등에다 얼굴을 비볐는데 두 손은 어느새 치수 씨의 가슴에 가 있었다.

CCTV의 위치를 알고 있는 누령이가 CCTV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웃었다. 있는 대로 이를 드러내며... CCTV가 구형이라 그런지 영상이 흑백이라 누령이의 누런 이가 실제와 달리 하얗게 드러났다.

치수 씨는 모니터에 보이는 쪽 손에 1리터짜리 콜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냉장고 문을 짚은 채 가만히 있었다. 옆으로 서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서리쳐지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란다는 듯, 체념한 몸짓이었다.

금수 씨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화씨로 100도가 넘는 바깥 날씨에 있는 대로 달궈진 차 실내는 살을 태울 기세였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지 않은 걸 후회하며 금수 씨는 에어컨을 틀었다.

냉매가 바닥났는지 바람이 나오는 기척이 없었다. 금수 씨는 에어컨 온도를 최저로, 바람 세기를 최대로 맞췄다. 폐차 직전의 차답게 위잉, 기계 섞인 바람 소리가 뜨거운 차 안을 채웠다.

금수 씨가 바람이 나오는 곳에 얼굴을 들이대려는데 조수석에 놓은 휴대폰에서 문자 수신음이 울렸다.

휴대폰을 열어 보니, 그새 주향이 문제의 영상만 편집해 보내온 것이었다. 결코 다시 보고 싶은 생각 없었으나 뭘 잘못 눌렀는지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금수 씨의 차가 대어진 지점에서 두어 블록만 가면 경찰서가 있었다. 하지만 금수 씨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다. 그건 치수 씨도 마찬가지였을 터였다. 주변 사람들은 금수 씨의 식구가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처지란 걸 잘 알고 있었다. 금수 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걸 더 잘 알았다.

금수 씨는 영상 속 치수 씨가 가만히 서 있는 지점에서 멈춤을 눌렀다. 금수 씨가 손가락으로 휴대폰 영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화면이 커지는 대신 선명도가 흐려져서 여전히 치수 씨의 표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치수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혹시, 치수는 죽고 싶어 하는 걸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하면 다들 우스워했다. 아버지와 헤어져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금수 씨는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한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금수 씨에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만한 때는 술하게 많았다. 그러나 적어도 금수 씨는 죽는 게 무서워 어떻게든 살아가려 하는 쪽이었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섭다는 뜻일 텐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얼굴을 지을까.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치수의 얼굴이 혹시 그런 얼굴인 건 아닐까.

흐릿한 치수의 얼굴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쳤다. 아버지의 얼굴도 치수처럼 흐릿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던 아버지의 얼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무서워하는 얼굴...

금수 씨는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걸 그랬다는 후회가 이제야 들었다.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금수 씨는 아버지가 왜 죽고 싶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생각해 보면, 식구 중 누구도 그걸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흐릿한 치수 씨의 얼굴 위로 흐릿한 아버지의 얼굴이 겹치고, 다시 그 위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쳤다. 아버지가 죽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금수 씨가 쳐다보던 얼굴, 타이거 마스크. 아버지가 자진해서 덮어쓰기라도 하듯, 아버지 얼굴 위에 타이거 마스크가 씌워졌다.

타이거 마스크는 예전 벽에 걸려 있을 때와 표정이 달라졌다. 졸리던 표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었던 구멍들마다 무언가가 채워졌다. 눈구멍 안에 바둑돌처럼 검은 눈동자가 박히고, 콧구멍 안으로 뜨거운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고, 입 구멍 안에 붉은 핏기가 감도는 입술이 들어앉았다.

밥상을 앞에 두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앉아 있던 아버지, 아니 타이거 마스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몸을 날려 누군가를 쓰러뜨리고는 같이 누워 그 누군가의 목을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타이거 마스크는 발가락에서부터 서서히 힘을 모아 위로, 위로 끌어올렸다. 그 힘이 발등을 지나 발목을 지나 '신이 내린 장판지'에 닿았다. 거기서부터는 역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힘은 제힘으로 생(生)을 입어 더 위로, 위로 질주했다. 그 힘은 목적지에 닿아 무언가를 있는 힘껏 조였고, 감히 누군가의 생을 누르는 누군가의 날 선 비명이 좁고 어두운 아파트 복도에 울렸다.

자동차 안이 어느새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져 금수 씨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금수 씨는 휴대폰을 바투 들고 전화번호를 뒤졌다. 그리고 찾은 번호를 저장부터 했다. 이름을 입력할 때, 잠시 망설이긴 했지만 '아버지'로.... 금수 씨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다. 전화가 가는 신호음에 금수 씨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귓가로 올라와 똥똥, 박자를 맞추었다. 신호음 두 번에 딸깍, 전화를 받는 기척이 났다.

- 여보세요.
- 아버지.

잠깐의 정적.

- 너, 금수로구나.

- 네. 저, 금수예요. 치수 일로 상의드릴 게 좀 있어서요.

달의 비밀

박종진 (미국)

닥터 백은 일흔이 넘은 나이였지만 무척 건강하셨는데 잔병 정도는 있어도 큰 병은 없으셨다.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 닥터 백은 삼십 분 넘게 자전거를 달려 수술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시는 것을 보면 참 건강하신 편이다. 그것도 수술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술하러 오시니까 더욱 그렇다는 말이다.

내 치과 병원은 규모가 작아서 나 혼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두 번 있는 잇몸 수술 때는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그때마다 닥터 백에게 연락했고, 그분은 한 번도 거절하시지 않고 꼭 와주셨다. 아무리 봐도 훌륭한 치과 의사셨는데 닥터 백은 이상하리만큼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계셨다. 자동차가 없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고 생활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나오는 얼마 되지 않은 은퇴연금에 의존하셨다. 가윗돈이라면 내 수술을 도와주시면서 조금씩 버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인지 내게 자주 돈을 빌려 가곤 하셨는데 나는 돈을 꾸어드리면서도 항상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왜냐면 그 액수가 20불, 10불, 심지어는 단돈 5달러일 때도 이따금 있기 때문이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른이, 그것도 소위 의사라는 분이 그 정도 돈이 없어서 남에

게 손을 내민다는 것이 나를 속상하게 했다. 물론 내가 사례비를 드리면 바로 갚기는 하셨지만 은퇴한 의사의 생활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자존심뿐이었다. 남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쓰는데 닥터 백은 여전히 접었다 폼다 하는 구식 휴대 전화를 사용하셨다. 혹시 도박으로 전 재산을 다 없애셨나 의심도 해봤지만, 노름할 위인도 못 되셨다. 그저 돈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수술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가끔 닥터 백을 모시고 근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대접했다. 그분은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잡수시면서 얻어먹은 값이라며 어린아이 동화 같은 얘기를 해주시곤 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때는 하늘에 달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별뿔보다 더 큰 천체가 지구와 충돌했는데 깨진 조각들이 하늘로 튀어 올라 지구 주위를 맴돌다 나중에 서로 뭉쳐져 달이 되었다고 하셨다. 닥터 백은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상세하게 숫자를 사용해서 설명하시고 진지하게 풀어나가셔서 듣는 이를 이야기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기술이 있으셨다. 그냥 오래전이라고 하시지 않고 반을림하지 않은 숫자를 들먹거리시는 것으로 미루어 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종종 있었다. 지금 달은 옛 상처를 잊고 지구 주위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고 있지만, 골초가 된 호랑이가 담배를 끊을 때쯤에 달은 지구를 영영 떠날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난데없이 나타난 달은 우리 곁을 돌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달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며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셨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 내 수술을 도와주시면서 비록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긴 했지만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었다. 가족 얘기는 실수로라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설령 가족이 있다고 해도 그런 노인네 비위를 일일이 맞추며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분 가족이 없는 것도 이해가 갔다. 워낙 괴팍한 성격이어서 만나고 돌아서면 무언인가 개운찮았다. 닥터 백은 상

대방을 은근히 불편하게 만드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으셨다. 하지만 그분이 내게는 꼭 맞춤형 도우미 노릇을 해주셔서 나는 불편한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교차하면서도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빈틈없이 나를 도와주셨다. 무엇보다도 잇몸 수술은 확실히 나보다 한 수 위의 전문가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처음으로 연락도 없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것이 그분과의 마지막이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덧없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라지만 닥터 백이 한마디 말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자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 서운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연 생각도 흐려지는지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닥터 백의 일은 내 기억에서 차츰 잊히고 있었다. 달랑 전화번호 호에만 의존하던 우리는 전화가 되지 않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분 말씀대로 사람의 관계는 만나고 헤어짐의 반복이 맞는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나도 어쩌다 불혹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천성적으로 게을러서인지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 별로 결혼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원래 나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중학생일 때 홀로 나를 키우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미국에 사시던 이모가 나를 거두셔서 나는 시카고 이모네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렇게 치과 의사가 되었다. 문학소녀를 꿈꾸던 내가 의사가 된 데는 아무런 동기도 없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모는 내가 치과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다. 시카고 이모 댁에 얹혀살면서 사춘기를 보낸 나는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책과 씨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가 취미였던, 아니 공부밖에 할 것이 없었던 나는 어떤 꿈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럭저럭 이모에게 떠밀려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카운티 병원에서 치과 의사로 일했다.

세상에 사명감 없이 의사가 된 사람은 나 하나뿐일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환자가 늘고 내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자 나는 직업에 보람을 갖게 되었다. 의사란 직업이라기보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란 결론에 이르자 의사가

된 것이 참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사람은 형편이 나빠지거나 궁지에 몰리면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기도하면서 도움을 바란다. 그러나 신이 도와주기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필요한 곳에는 주저 없이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나 같은 의사들이 그런 일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나는 그렇게 인생의 철이 들었다.

나는 개인 병원 개업을 미국의 작은 도시인 샌피드로를 택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시간 반 남쪽으로 달리면 나오는 항구 도시인데 살다 보니 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카고는 겨울에 눈 치우는 것이 큰일이다. 잘못하면 허리를 다치거나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다. 차츰 기력이 떨어지신 이모 부부는 나이 든 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시려고, 이곳저곳 알아보시다가 친한 친구가 사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하셔서 나도 이모네 가깝게 이사하려고 마음먹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살고 싶었는데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산타모니카나 말리부 근처는 아주 부자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 동네에 산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는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자기가 사는 동네 얘기를 하며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찾아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 이젠 나도 이곳에 자리 잡았다. 데보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직장이 있는 이곳 샌피드로에 정착한 지 꽤 되었다는데 여자 혼자 살기에 너무 좋다고 했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은 데보라네 집에서 걸어서 5분도 채 안 걸린다. 태평양 바다를 보고 꿈을 꾸며 잠을 자고, 일하러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태평양 바다를 보며 저녁 식사를 한다. 나름 괜찮은 인생이다.

우리 집 거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곳이 카브리요 해변이다. 넘어지면 코 닿을 것 같은데 집에서 약 1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고 걸어서는 20분 정도 걸린다. 카브리요 갯벌은 조개 천국이다. 모래밭 아무 곳이나 골라서 한 뼘만 파면 틀림없이 조개가 나온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란 말이 있듯이 카브리요 해변의 조개잡이도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잡은 조개를 가져가

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조개들이 그런 법 규정을 잘 아는지 생각보다 쉽게 잡혀 준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조개 몇 마리 잡아서 신나지만 결국, 모두 바다에 놓아주어야 한다. 잡힌 조개는 단단한 껍질을 꼭 닫고 마치 그 속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 같은 보호막 속에 자신을 숨기고 안전하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이곳 바닷가에서 인생을 배운다.

나는 매일 아침 카브리요 해변 길을 데보라와 함께 걷는다. 비행기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웃이 된 데보라와 나는 걷기 친구가 되었다. 유대인인 그녀는 나보다 열두 살 많은 띠동갑으로 이곳 대학병원 간호사다. 나는 매일 그렇게 총 4마일을 걷고 출근한다. 혼자 했으면 오래 버티지 못했을 텐데 둘이 같이 걸어서 서로 고마워한다. 처음 그녀 집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던 날이었다. 탁자 위에는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조카 부부라고 하며 조카며느리가 한국 사람인데 변호사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다. 나처럼 독신인 그녀는 루시란 이름의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루시도 우리와 함께 걷는 멤버다. 내가 처음 루시를 본 순간 시카고에 살 때 키우던 캔디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요사이 웬만한 미국 도시에는 어디에나 한국 사람이 산다. 오렌지 카운티나 로스앤젤레스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만, 샌피드로에는 한국 사람이 없다. 그런 어느 날 처음으로 한국 손님이 생겼는데 데보라의 조카며느리 크리스털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를 하는 그녀는 나처럼 한국 사람이고 시카고 출신이어서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게다가 일찍 친부모를 여윈 것까지 같아서 우리는 언니와 동생처럼 지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시카고에 사신다고 하는데 물론 크리스털을 두 살 때 입양하신 미국인 양부모시다. 결혼한 후 그녀는 친부모를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버린 친부모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세월이 흘러 상황이 변하면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럴 때는 언니 동생이 뒤바뀐 것 같다. 나도 친아버지란 사람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봤다. 한 번도 없었다. 원망도 했고 용서한 적은 있어도 찾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 유전자의 유사성 때문에 가족 관계가 성립한다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아닌가. 그렇다면 구태여 생물학적 혈육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새아버지는 내가 친자식이 아닌데도 애지중지 키우셨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몸이 아프다고 같이 살던 개를 남에게 맡겼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 전력이 있는 내가 데보라네 집에서 루시를 보자 의식 저편에 자리하고 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삐죽이 들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시카고 카운티 병원에서 일할 때 많이 아픈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하느라 캔디를 돌볼 형편이 안 되는 데다 이모가 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직장 동료에게 맡겼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뉴욕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캔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서 당시 나 스스로 몸을 추스를 형편이 못 돼 할 수 없이 데려가도 좋다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곧 찾아와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나는 캔디를 포기하고 말았다. 친구는 가끔 캔디를 찍은 동영상을 보내주었고 그런 때마다 다시 돌려 달라고 할까 여러 번 망설이다 새 주인을 만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애써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접었다. 식구란 필요할 때는 곁에 끼고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버렸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찾아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후였기 때문이다.

토요일은 데보라가 지키는 안식일이어서 나 혼자 걸어야 했는데 나는 그녀와 매일 걷는 바닷가 길 대신 집에서 15분 떨어진 공원까지 걸었다. 거기에는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 기증했다는 '우정의 종'이 걸려 있는데 데보라와 나의 우정을 미리 안 것 같다. 에밀레종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커다란 종을 볼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캔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속죄의 날을 맞는 나는 내가 버린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고 나를 버린 가족을 용서하려고 노력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 딱 한 가지 어렵풋하게나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렸을 적에 나는 아버지 수염을 만지며 잤다는 것뿐이다. 그조차 오래 돼서 바랜 내 기억 조각인지, 아니면 이모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다섯 살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사실 어머니가 재혼하신 나의 새 아버지였다.

나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 사람은 4대 독자 외아들이었다는데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내 어머니는 집안의 요구와 달리 딸을 낳자 내가 채 백일이 되기도 전에 시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머느리 될 여자가 눈에 차지 않았던 시부모는 결혼 조건을 달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때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줘도, 만약 딸을 낳으면 보따리를 싸야 했다. 가축 품종 개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동물조차 당연히 암컷이 더 가치가 있는데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 반대였던가 보다. 사내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족이 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구습에 젖은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처자식을 헌신짝처럼 버린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애 딸린 이혼녀이기도 하고 한편 혼인신고조차 안 돼서 미혼모이기도 한 내 어머니는 내가 세 살 되던 해에 텍수염의 새 아버지를 만나셨지만, 살만해지자 남편이 암으로 죽고 청상과부가 되어 혼자 나를 키우시다가 내가 중학생일 때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라도 지셨는지 불쌍한 내 어머니는 이혼녀, 미혼모, 청상과부 등 온갖 서러운 여자 모습으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어린 시절의 내 인생은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비극적이고 암울했다.

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내게는 두 사람이나 되었지만 정작 내가 그들이 필요할 때는 내 곁에 없었다. 그러다 나이 들어 부모님 연세쯤 되는 닥터 백을 보자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다. 웬만했으면 아버지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잘 봐 드리려고 해도 이견 아니다 싶었다. 아버지란 존재가 저렇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속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어느 날 닥터 백이 수술 시작보다 반 시간 일찍 병원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있었고 내 시선이 그 봉지로 간 것을 알고 말씀하셨다.

“이거 트윙키인데 닥터 정 주려고 가져왔어. 맛있어서 나는 하루 한 끼는 트윙키로 해결해. 속에는 하얀 크림이 들었지만 겉은 노란색 빵이어서 닥터 정처럼 외모는 동양인이지만 서양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트윙키라고 한 대.”

내게 주시려고 가져오셨다면 서양인 흉내 내는 동양인, 그것도 나를 꼭 잡아 서슴없이 도매금으로 넘기는 닥터 백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됐다. 같은 한국 사람끼리니까 괜찮지만, 트윙키 얘기를 백인이 동양인을 상대로 했다면 인종 비하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크리스털은 한 번도 자기가 한국인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어떤 미국 사람은 자기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물었다고 했다. 나는 갑자기 닥터 백이 얘기하신 트윙키 생각이 나서 그녀도 나처럼 결국 트윙키로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웃었다. 크리스털의 집 벽에는 고갱이 타히티섬에서 그렸다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그녀의 집에 놀러 가서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트윙키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만,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재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겠는가?

평생 아버지란 존재와 관계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닥터 백이었다. 이왕이면 멋있는 아버지상을 풍기는 그런 인격을 바랐는데 내 기대가 너무 컸던지 우리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면서도 켄끄러웠다. 그런 닥터 백이 한마디 없이 내 앞에서 사라진 후 나는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전화 한 통에 연결된 우리 사이는 자주 미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막상 당사자가 사라지고 나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보다 좋았던 추억이 생각났다.

그분은 자기의 120살 생일잔치에 꼭 참석해 달라는 농담을 하시곤 했다. 왜 구태여 120살까지 사시려느냐고 여쭙더니 자기가 그 나이가 돼야 인류가 화성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 올 것 같다고 하시면서 화성으로의 이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미래라고 하셨다. 얘기가 여기까지 이르면 그분은 치과 의사가 아니라 몽상가다. 그리고 보면 가끔 동화처럼 들려주시던 얘기가 어쩌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치과 의사이면서 왜 그렇게 변변찮은 인생을 사셨을까 생각해 본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분명 있겠지만 그것은 그분의 개인사이니 알 필요도, 알 권리도 없어서 생각을 관둔다. 십 년쯤 전에 학회 일로 한국에 간 적이 있었다. 모임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로비에 메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모르는 치과 의사 한 분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호텔 커피숍에서 그분을 만났다.

자기 대학 동기가 미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다 은퇴했는데 마침 우리 병원이 있는 샌피드로에 산다며 손이 필요하면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이 드신 점잖은 분의 부탁이어서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정중히 지갑에 넣고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미국에 돌아와서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잇몸 수술 계획이 잡히면서 손이 모자랐다.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 만난 사람이 바로 닥터 백이었다.

첫인상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호감을 끄는 얼굴도 아니고 어쨌든 쉽게 사귀기 힘든 사람이었다. 게다가 고집이 세고,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거만한 태도와 말씨는 상대방을 편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스테파니 정입니다. 이곳 샌피드로에 개인 치과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초면의 닥터 백은 표정 없는 얼굴로 말했다.

“내 성은 백이요. 나도 소싯적에 치과 의사를 했소.”

조금 불쾌한 생각이 들 무렵 노인의 눈에 눈물이 보이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한국에서 뵈는 닥터 남궁계길께서 선생님의 연락처를 주셨어요. 손이 모자랄 때 연락드려도 되는지요?”

닥터 백은 눈물을 들켜서 신경이 쓰였는지 자꾸 자세를 고쳐 앉으시며 뭔가 불편해했고 나는 면접관이나 된 것처럼 물었다.

“샌피드로에는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데 닥터 백께서 이 도시에 사신다고 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연고가 있으신지요?”

닥터 백은 여전히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나는 원래 로스앤젤레스에 살았지요. 은퇴할 무렵 노인 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지원자가 밀렸는지 쉽게 내 차례가 오지 않았는데 어떤 분 말씀이 조금 떨어진 이곳이 바다도 가깝고 노인 아파트 배정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살게 되었소.”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한국에서 만난 닥터 남궁계길 얘기를 꺼냈더니 닥터 백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얼굴로 말을 이으셨다.

“그 친구하고는 의대 동기요. 학생 때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아주 가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전화 정도 합니다. 마침 이곳에서 치과 병원을 하시는 한국인 닥터가 치의학회 회의차 한국에 가신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내가 가깝게 살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파트타임 거리를 주시면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닥터 정께 다리 좀 놓아달라고 부탁했지요.”

우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머리를 맞대고 수술을 했다. 무엇보다도 닥터 백은 잇몸 수술에 있어서 우리 젊은 의사들보다 한 수 위였다. 만나는 횟수가 늘면서 닥터 백은 내게 하던 존대를 잊어버리셨는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하대하셨다. 아버지뻘이어서 그분이 내게 말을 놓는 것이 거슬리지 않았다. 나는 닥터 백이 시키시는 대로 일해서 누가 도우미였는지 분간이 안 될 때도 많았다.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수술이 끝나면 지친 나에게 쉬어도 좋다고 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말은 내가 조수 역할을 하는 닥터 백에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나는 그분의 허

락이 떨어지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파에 깊숙이 앉아 눈을 감고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래도 주객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또 5불만 쥐달라고 하셨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했다.

“닥터 백은 명색이 의사셨는데 아무리 은퇴하셨다고 해도 수중에 단돈 5달러가 없나요? 돈을 빌려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주 그런 부탁을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가시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복잡해져요. 그냥 한 번에 돈을 넉넉히 빌리시면 어때요? 그런데 저 말고 돈을 융통할 만한 사람은 또 없나요?”

전화 저쪽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 변명하려고 마땅한 말을 찾고 있는데 닥터 백의 심각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미 유통기한이 넘은 나이가 되었는데 그런 나를 잘 대접해 주는 닥터 스테파니 정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신세를 갚고 싶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 나이 들어 정신이 없어지니 자꾸 해야 할 일을 까먹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만들었지. 예를 들어, 다음 날 가지고 가야 할 물건이 있으면 바로 신발 속에 넣어 뒀. 그래야 안 잊어버리거든. 아무리 급해도 신발은 신고 갈 것이고, 신을 신다 보면 자동으로 그 물건을 챙기게 되니까. 물건이야 그렇다 치지만 닥터 정한테 갚고 싶은 내 마음은 신발 속에 넣어둘 수 없으니 차라리 푼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을 때마다 잊지 않으려고 내 뒀에는 머리를 쓴 것인데 불편했다니 미안해. 만약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꼭 내가 베푸는 쪽이 될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나는 흥혈수혈하는 닥터 백을 당연히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 최근에 추리소설을 읽으셨든지 아니면 치매가 시작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더니 몇 푼 되지 않은 돈 빌려드리기 귀찮아서 한 말씀 드렸다가 다음 생이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닥터 백을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번에 얻어먹

은 트윅키도 혹시 신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비위가 상했다.

닥터 백과는 매사가 그런 식이었다. 무례하고, 그러나 톱소리 나게 일을 잘 하시고, 마치 그리스 신화나 전래동화처럼 얘기해주시면서도 정확한 숫자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분의 참모습인지 헷갈렸다. 어쨌든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셨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불편은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고 있지만, 정신적인 이상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닥터 백은 본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그런 닥터 백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신 지 벌써 두 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분 생각이 나면 혼자 답답하기도 했다가 그 후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다. 결론은 그분이 쳐 놓은 그물에 아직 내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닥터 백에게는 치과 일 말고 잘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 꽃 가꾸기에 남다른 재주가 있으셨다. 처음에는 병원에 오실 때마다 현관 옆 화단 빈자리를 꽃으로 채워주셨는데 환자들이 꽃밭이 너무 보기 좋다고 했다. 나중에 내 부탁으로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아보카도 나무를, 그리고 뒤뜰에는 레몬과 라임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주셨는데 키가 내 무릎밖에 안 되는 아직 어린나무였는데도 주먹만 한 열매가 달려 있었다. 그 모습이 하도 신통해서 열 살도 안 돼 보이는 꼬마가 제 몸의 반쯤 되는 큰아기를 둘러업은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해서 한참 웃은 적이 있다. 잘 익은 레몬 하나를 따서 직접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시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현관 앞에 장미가 몇 그루 있었지만, 별레가 극성을 부려 꽃잎을 갉아먹고 꽃봉오리까지 피해를 줘서 닥터 백은 장미를 없애고 관리가 쉬운 블루 아가베를 심어 주셨다. 우리 집에는 정원 때문에 몇 번 오시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내 허락도 없이 무시로 드나드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는지 없애려고 했던 허니서클을 잘라버리시고 대신 하카란다를 심으셨다. 우리 병원 건물 주차장에는 키가 큰 하카란다가 마치 병풍처럼 나란히 서

있는데 보라색 꽃이 만발했다가 질 때 땅바닥이 온통 보랏빛으로 변했다. 그 광경을 본 내가 탄성을 지른 적이 있었는데 잊지 않으시고 하카란다를 집 뒤편 한쪽 구석에 심어주신 것이다. 한번은 내가 꽃 중에서 수국을 제일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후 열은 쪽빛의 속이 짙은 수국꽃이 집에 돌아오는 나를 맞았다. 가슴이 뭉클해진 나는 속으로 닥터 백에게 감사했다. 그렇게 집 앞은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뒤뜰 아래쪽 잔디가 물이 모자라서 누렇게 죽어가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잔디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닥터 백은 지저분한 잔디를 걷어버리고 그 대신 색색의 조약돌을 깔아주셔서 마치 유치원 놀이터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다.

나는 발표력도 없고 직책도 없는데 학회 일이 있으면 종종 뽐낸다. 만만해서 그런가 보다.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석자 명단에 남궁계길이란 이름이 보였다. 그분이다. 흔하지 않은 그 이름은 분명 오래전 나와 닥터 백을 연결해 주셨던 남궁계길 닥터다. 난리 통에 헤어진 친정 아버지 소식을 듣게 된 것처럼 기뻐다. 첫날 일정이 끝날 무렵 그리 어렵지 않게 닥터 남궁을 만나서 호텔 커피숍에 모시고 갔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의자에 기대 세우시며 나를 반기셨다.

“저를 바로 알아보시던데 우리 참 오랜만이지요?”

나도 그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보며 인사했다.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어요?”

세월이 꽤 지났지만 그래도 나는 바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앞에 앉은 노인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 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닥터 정께서 가끔 수술을 도와달라고 불러서 같이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친구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닥터 백이 말없이 사라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나와는 시대 동기였어요. 성격이 모난 데가 있어도 좋은 사람이었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생무상을 느꼈습니다. 객지에서 가족도 없이 떠나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짠한 생각이 듭니다. 하긴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 그 친구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언젠가 전화해서 자기가 버린 딸 소식을 알게 됐다며 울먹인 적이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딸 곁을 맴돌며 참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친구 원대로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는지 몰라. 그 일로 한국에 다녀갔으면 나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 것은 어린 딸을 버린 죄값이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했지요. 어찌면 그런 식으로 자신을 바닥으로 내몰고 학대하는 것이 딸을 버린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장례식엔 가셨소?”

나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면서 가슴이 답답해지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기였다. 호텔 현관을 도망치듯 뛰쳐나와 주차장 쪽으로 향하며 심호흡을 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이리저리 둘러보니 방파제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제주 바다 수평선 위에도 샌피드로에서 본 똑같은 태양이 지고 있었다. 불덩어리 같은 새빨간 태양이 바닷물 속으로 조금씩 가라앉는 동안 그 근처가 마치 불나는 것처럼 붉게 물들었고 이내 별이 하나둘씩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일몰에 서서 불쌍한 내 어머니와 두 사람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닥터 백이 사라지기 반년 전 어느 날 해 질 녘이었다. 해거름에 정신이 팔린 나를 툭 치시며 시비를 거셨다.

“뭘 그렇게 넋 나간 사람처럼 보고 있어? 저 불타는 노을은 고작 빛의 산란 현상일 뿐이야.”

나도 지지 않으려고 맞섰다.

“닥터 백은 왜 그렇게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세요? 그저 보이는 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닥터 백은 뜻밖의 저항에 멈칫하시더니 이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빛에 속고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달도 자신의 절반을 감춘 채 늘 한 면만 보여주거든. 그래서 달 뒤편에 뭐가 있는지 그런 달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지.”

마치 자기 혼자 삼라만상의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척하시는 닥터 백에게 나도 지지 않으려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달과 우리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달이 자기 뒤편에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겨 두었나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전열을 가다듬은 닥터 백이 엄청난 결론을 내리셨다.

“왜 아직 떡방아 찼는 토끼를 본 사람이 없는지 알아? 옥토끼는 계수나무가 울창한 달 뒤편에 살고 있거든.”

상황은 그렇게 맥없이 끝났다. 잎이 다 떨어져 버린 하카란다가 늘어선 길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시는 닥터 백의 머리 위에 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이층 병원 창문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불현듯 슬픈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해가 완전히 지자 별이 총총한 제주 하늘 아래서 나는 아까 호텔 커피숍에서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되씹으면서 이리저리 앞뒤를 맞춰봤지만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도 내용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이미 정상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간신히 이야기의 가닥을 잡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달이었다. 그러나 밤하늘 어디를 뒤져도 달은 없었다. 까닭 없는 상실감이 해일처럼 밀려오는데 거친 파도 소리, 바람 소리 틈에서 닥터 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호랑이가 담배를 끊자 달은 이별의 때가 온 줄 알고 서둘러서 지구를 떠났을지 몰라.”

호텔 방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면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마치 달덩이처럼 탐스러운 수국 한 송이를 내 품에 안겨 주셨다. 그 얼굴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고 낮이 익었다. 나는 꿈속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

가슴에 뺏혔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내 볼을 타고 흐르며 그 얼굴이 누구인지 생각날 때쯤 나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호텔 창문 밖에 펼쳐진 밤바다 위에는 그제야 휘영청 밝은 달이 뜨고 있었다.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

원 선 미 (헝가리)

주저 니니(아줌마)가 나를 찾아 왔다. 의외였다.

집시 아줌마가 우리 집 벨을 누르는 경우는 담밖에 버리려고 내놓은 전자제품이나 옷가지들을 가져가도 되느냐고 물을 때가 아니고는 벨을 누를 일이 없다. 무엇보다 할 얘기가 있다며 담장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이사 와서 15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주저 니니는 다른 집시 가정들과는 달리 이웃 헝가리 분들과 잘 지내고 평도 좋은 편이라서 나는 흔쾌히 앞 베란다에 있는 티 테이블로 안내를 했다. 나는 밖의 길이 다 보이는 앞 베란다의 그네 의자에 앉아서 저녁 노을 보는 것을 즐겼고 가끔 주저 니니가 대형 마트 비닐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럴 때면 돌아가신 큰이모가 떠오르곤 했다. 큰이모의 저녁 퇴근길이 '저렇게 지치고 발목에는 큰 쇧덩이가 묶여 있는 것처럼 다리를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질질 끌면서 걸었겠구나' 싶으면서 가슴이 시려오곤 했다.

언제였던가. 우리 집 강아지 미미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열린 문으로 집을 나가서는 안 돌아와 딸이랑 “미미~” “미미야~” 온 동네 찾아 헤맬 때 7살 루시가 3개월 강아지 미미를 안고 우리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루시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미미랑 놀았다.

그런데 오늘 오후 루시의 할머니 주저 니니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요점은 이랬다.

주저 니니는 16살에 사촌 오빠와의 사이에서 첫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팠단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폐아다. 그 자폐아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딘가 시설에 맡기고 왔다고 했다.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8살에 루시의 엄마 자스민을 낳았고, 21살 되던 해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5살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자신의 아이는 루시의 엄마 자스민 하나라고 한다. 첫아들이 두 살쯤 되었을 때 정상이 아닌 것을 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고는 주저 니니의 여동생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여 6명의 아이를 낳았단다. 집시들은 아내가 둘인 경우를 종종 보았고 성격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 라헬처럼 자매를 아내로 두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믿어지지 않았었다. 21세기에 어떻게 자매가 한 남편이랑 살지? 이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집시들을 더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저 니니도 자매가 한 남편과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9명의 자녀 중에서 3명만 정상이다. 두 번째 부인인 어니끄의 6명 자녀 중 4명은 지능이 낮아서 특수학교에 다녔고, 2명은 일반학교에 다녔단다. 과거형인 것을 보면 다니다 그만둔 것이 분명하다.

주저 니니는 자신에게는 딸 자스민 하나만 낳았는데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15살에 손녀 루시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까지는 자신이 루시를 키웠고 자스민은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렀는데 그마저도 얼마 전에 마약으로 감옥에 갔다고 한다.

자기가 보니 루시는 똑똑한데 어떻게 하면 루시가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주저 니니의 질문에 당황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졸업할 수 있냐고? 매일 학교에 출석하면 졸업을 하지. 그 당연한 답을 나에게 묻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저 니니, 주저 니니는 루시가 8학년 졸업을 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 아니, 미미 딸처럼 졸업을 해야지.”

아, 김나지움 졸업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그냥 미미라고 부른다. 내가 내 이름이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 집 개 미미의 이름으로.

“주저 니니, 정말로 루시가 김나지움 졸업하기를 원해요?”

“응, 정말, 정말 김나지움을 졸업할 수 있을까?”

“매일 매일 학교에 출석하면 졸업하지요.”

당연한 대답을 하고 주저 니니를 응시했다. 지금까지 내가 들은 집시에 대한 정보는 다 부정적인 것들이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잘 키우는 집시 가정도 많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잘 하는 집시도 많고, 어느 지방의 시장은 본인이 집시고 집시들의 환경과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도 있다. 남편 친구 마틴은 집시지만 바 이올린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시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좋지 않다.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하고, 들켜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미미, 나는 초등학교 3학년도 못 마쳤어. 자스민은 계속 남자친구랑 밖에서 살고, 루시를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고 공부도 도와줘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 하거든.”

주저 니니 남편은 가끔 헝가리 사람 집의 정원 일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은 집에 있었다. 여동생이면서 두 번째 부인인 어니끄는 내가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았다. 뚱뚱한 몸은 그냥 비만이라기보다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생긴 비만으로 보였고, 지능도 좀 낮은 편이어서 아이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다.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주저 니니였다.

그러니까 나보고 루시를 챙겨달라는 것인데….

“주저 니니, 학교에서 5시까지 봐주고, 오후에는 숙제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 도와주니까 학교에 5시까지 놔두면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헝가리어를 못할 때 제니를 학교에 5시까지 놔뒀는데 선생님이 다 도와주셨어.”

난 확신이 안 섰다. 주저 니니의 말이 진심인지 그냥 순간적인 바람인지. 설 불리 그러자고 했다가 매일 베이비시터가 되어서 그 집 애들을 다 돌봐줘야 한다면 심란해지기 때문이다.

“루시가 네가 가르쳐 줬다면서 수학을 5점(A)을 받아왔어.”

며칠 전 루시에게 접시 10개를 꺼내 초콜릿을 가지고 구구단, 묶음의 원리를 가르쳐 줬었다. 이곳은 2학년부터 구구단을 하지만 루시는 3학년인데도 귀에 익은 몇 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구구단의 묶음 원리를 가르쳐 주니 바로 이해했다.

주저 니니는 손녀가 받아온 수학 5점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해서 이 손녀만은 꼭 학교를 잘 보내서 졸업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보다. 아니 자신의 살아온 길을 똑같이 살아가는 딸을 보면서 진저리가 쳐졌는지도 모르겠다.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속임수야? 진짜야? 무슨 의도지?

그때 주저 니니가 작은 소리로 말을 한다.

“루시는 좋은 남편이랑 살게 하고 싶어.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는 남편이랑.”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거면 충분했다.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매 맞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여성의 전화에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보았던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그 굴레는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기 힘든 것이었다. 굴레였다. 더 지독한 것은 이 굴레가 세습되기도 한다는 거였다.

지금 주저 니니는 그 끊어내기 힘든 굴레에서 루시를 구출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내일 답을 주겠다고 하고 일단은 주저 니니를 돌려보냈다. 남편은 해보고 싶으면 해보라는데 일 년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은 해보라고 한다.

“엄마, 해봐. 도와줘. 주저 니니 말대로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하지만 9년이면 길긴 하지. 하다가 그만둔다고 해도 옆에서 누군가가 잘 챙겨주면 8학년은 졸업할 거 아냐. 엄마, 8학년만 졸업해도 다행이니까 엄마는 일단 8학년 졸업을 목표로 해봐.”

그래. 해보자. 천사처럼 예쁜 루시가 8학년은 졸업을 해야지. 어쩌면 주저 니니가 바라는 대로 김나지움도 졸업할지 모르잖아.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만약 주저 니니가 루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면 난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때리지 않고 폭력적인 남편을 안 만나게 하고 싶다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때리고 쥘튼한 남편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다. 대학 아니라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아내를 때리고 업신여기는 남편도 있지 않은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폭력 남편을 만나는 것 또한 절대 아니다.

주저 니니의 말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루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루시가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취직이라도 한다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남편이 필요해서 결혼하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어쩌면 루시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 오죽 답답하면 나에게 찾아 왔을까. 그래 해보자.

‘만약 중간에 임신을 한다면… 상관없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한 거니까 아이를 낳아도 일단 고등학교 졸업을 목표로 하자’ 그리 맘을 먹었다.

다음 날 오후에 주저 니니를 만나서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절대로 결석은 안 된다고 다짐을 받았다. 출석만 해도 졸업은 가능하니까.

아침에는 주저 니니가 루시를 8시 전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을 했다. 나는 오후 4시에 미미를 데리고 학교에 갔다. 가끔 내가 외출을 하거나 일이 생길 때는 전날 미리 루시에게 이야기했고, 옆집 안나 할머니에게 부탁을 했다. 루시는 안나 할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오는 날은 싫다는 표현을 표정으로 했는데, 그건 안나 할머니랑 오는 날은 아이스크림 집을 안 들르고 빠른 길로 바로 집으로 오기 때문이었다.

3학년 루시는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다. 긴 까만 머리에 다른 집시 아이들과는 달리 하얀 피부의 루시는 인형처럼 예뻐다. 주저 니니는 매일 루시의 긴 머리를 색색의 리본이랑 종종 땡고, 중국가게에서 산 유치한 공주 치마를 입혀서 학교에 보냈다. 오후에 학교에서 기다리면 루시는 나를 보고 환히 웃으면서 뛰어와서 안겼다. 3학년인데 어째 체구는 1학년처럼 작다. 그 작은 몸이 안길 때면 가슴이 몽클했다. 그리고 주저 니니가 머뭇머뭇 작은 소리로 했던 말이 떠오르곤 했다.

“루시는 좋은 남편이랑 살게 하고 싶어.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는 남편이랑.”

‘그래야지, 이 작고 작은 아이는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우리는 집으로 올 때는 길을 돌아 케이크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 집은 이 지역에서 백 년이 넘은 오래된 케이크 집으로 제법 유명한 곳인데 어린 루시에게 하루 중 기분 좋은 일 하나를 선물로 주기 위해 매일 들르는 곳이 되었다.

콘 위에 아이스크림 한 덩이씩 받아서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으며 루시는 재잘재잘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해주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안에 들어가서 나는 커피를, 루시는 핫초코를 케이크 한 조각과 먹었다. 학교에서 화가 났던 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 남자아이 때문에 모두가 웃었다는 이야기, 내가 청소하다 찾은 한국에서 사 온 과일 향 나는 사인펜을 루시에게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삼촌이랑 동생들이랑 싸움이 났던 일. 결국 그 사인펜은 동생이 모두 망가트려서 밤새 울었다는 이야기 등.

동양 중년 여자랑 집시 여자아이가 같이 있는 게 신기한 헝가리 아이들은 자꾸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어떤 아이는 아예 우리 옆에 서서는 빤히 쳐다보곤 했다.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루시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불편했지만 루시가,

“미미, 너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잖아. 정말 신경 쓰여. 그래도 내가 미미 좋아하니까 괜찮아.” 하고 말하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

“고맙다. 나랑 같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미안해.”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난 당연히 루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루시는 자기는 헝가리 사람이고 동양여자인 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본다고 생각을 한 것이 너무 웃겼다.

그러고 보니 우린 둘 다 헝가리에서 이방인이었다. 난 루시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는 것을 극도로 조심했다. 루시가 사는 집에는 루시 말고도 많은 식구들이 있고 내가 주는 선물이 싸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과일 향 나는 별것도 아닌 사인펜처럼 말이다. 다들 삶이 힘들고 팍팍하니 빌미 거리만 보이면 그걸 이유로 싸움이 되고 폭언이 되고 한풀이가 된다.

매일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루시가 학교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던 어느 날, 학교에 Zene Iskola(음악학교) 안내문이 붙었다. 새 학기 신입생 오디션에 관한 안내문이었다. 집에 오자마자 딸이 쓰던 물건을 담아 놓은 상자를 다 뒤져서 플루트를 찾았다. 그리고 루시에게 보여주었다.

“루시, 이거 알지? 제니가 3학년 때부터 배우면서 사용하던 거야. 4학년부터 제네이쉬콜라에서 플루트를 배우면 어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루시는 시큰둥하다. 루시의 반응에 김이 빠지고 신청도 못 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루시가 속마음을 말한다.

“미미, 나는 플루트를 할 줄 몰라.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놀리면 어떻게 해, 제니는 잘했지?”

무서웠구나. 잘못해서 놀림 받을까 봐, 그리고 제니처럼 잘하지 못하면 내가 실망할까 봐.

“제니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이상한 ‘빹빹’ 소리만 냈지.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면 음악이 나와. 이 플루트 안에서, 네가 만들어 내는 거지.”

“진짜?”

“응. 근데 나는 도와줄 수 없어. 모르거든. 그러니까 음악학교에 가서 배워야 해.”

“미미가 나 데리러 올 거야?”

“그럼, 끝나는 시간에 데리러 가지.”

그렇게 루시는 4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고 플루트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졌다. 루시도 철이 들면서부터 헝가리 아이들 속에서 집시라는 열등감이 있었고 그 열등감 때문에 어느 날은 풀이 죽고, 어느 날은 불같이 화를 내곤 했는데 플루트를 배우면서 자기의 손가락과 입술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다.

4학년을 마치는 종업식에서 루시는 4명의 학생들과 함께 헝가리 국가를 연주했다. 플루트를 배운지 1년이지만 고운 소리로 연주하는 루시는 작은 새가 되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놀라운 소리가 루시의 입과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루시랑 한 약속이 있었다. 한 학년을 잘 마치면 여름 캠프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헝가리 아이들은 두 달의 여름방학 동안 다양한 캠프에 참여한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 루시는 내가 캠프 하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고민하더니 수영 캠프로 정했고, 이 지역 유일한 수영장에 등록했다. 캠프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루시는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었다. 우리 옆집의 안나 할머니 손녀 릴리였다.

릴리는 부다페스트에 사는데 얼마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방학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 위해 온 것이다. 일주일 수영 캠프를 같이 하면서 친구가 없던 둘이 친구가 되었고, 여름방학 두 달 동안 둘은 매일 붙어 다니며 놀았다.

루시에게 단짝 친구가 생긴 것이다. 오전에 안나 할머니 집에서 놀면 오후에는 우리 집으로 와서 TV를 보거나 종이접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는, 둘이 머리를 맞대고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꽃도 접고, 새도 접으면서 놀았다. 우연히 딸이 간직했던 소녀시대, 카라, 2PM 뮤직비디오를 보더니 두 소녀는 한국 아이돌의 팬이 되었고, 많은 시간을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을 연습하면서 보냈다.

두 달의 방학은 빠르게 지나갔고, 릴리는 엄마에게로 돌아갔다. 5학년이 된

루시는 생각보다 학교에 잘 갔다. 다행히 루시의 집시 친구들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없었고 플루트를 배우는 기쁨이 점점 커지는 루시는 오후면 우리 집에 꼭 들러서 연습했다.

어느 날, 루시가 플루트 연습을 하는데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이 전화를 했다.

“잘하지? 너보다 잘한다.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아주 잘해.”

딸이 까르르 웃으면서 “잘하기는 잘하네. 엄마가 루시한테 신경 쓰느라 나한테 매일매일 카톡하고 어디냐, 빨리 들어가라, 누구 만나냐 안 해서 좋아.”

“헐. 딸, 항상 조심해야지. 졸업 준비는 잘하고? 엄마가 졸업식에 갈까 하는데.”

“아냐, 엄마, 오지 마, 누가 요즘 대학 졸업식에 오냐? 그리고 졸업식 미룰 거야. 수료로 남겨 두고 일 년 정도 헝가리에서 인턴하면서 취업 준비할까 봐.”

그리고 정말 딸이 왔다. 봄이 오는 3월에. 딸이 오니 남편도, 루시도, 나도 우리 모두 활기가 넘쳤다. 제니랑 루시랑 남편은 저녁이면 보드게임을 자주 했다. 루시를 위한 제니의 배려였다. 웃음소리와 ‘안 돼, 악’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루시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제니, 넌 왜 남편이 없어?”

“응? 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우리 엄마는 15살에 나를 낳았대.”

“그래?”

“근데 왜 제니는 결혼 안 해? 남자친구가 없어?”

딸이 제니의 질문을 받더니 소리 내서 웃는다.

“루시, 난 결혼은 아주 늦게 하고 싶어. 지금 일하는 게 좋거든. 재밌고.”

루시는 제니의 딸이 아직은 이해가 안 가는지 가만히 쳐다본다.

“루시, 잠깐 기다려”

갑자기 딸이 일어서더니 자기 방으로 가서는 한 아름 앨범을 들고 나왔다.

“루시, 내 사진 같이 볼래?”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제니의 앨범을 보기 시작한다.

제니 앨범의 첫 사진은 우리 결혼사진이다. 그리고 큰 콩 같은 초음파 사진

이 있고, 신생아 제니의 사진, 백일 사진, 돌 사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한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제니가 루시에게 설명을 한다. 루시는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서 같이 앨범 10여 개를 다 본 뒤에 제니가 루시에게 말을 한다.

“난, 내가 엄마가 되어서 내 아이랑 행복할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 지금은 내가 일하는 게 더 좋아서 만약 지금 결혼을 하면 남편이랑 많이 싸울 수도 있고, 아이가 생기면 예쁘고 감사하고 좋기도 하겠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낼지도 몰라. 지금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

“제니는 벌써 나이가 많잖아.”

그 말에 딸이 큰소리로 웃으면서

“난 이제 겨우 24살이야.” 한다.

내가 대학 졸업할 때는 결혼 적령기라는 것이 23~26살이었다.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런데 짐시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나 보다. 24살의 우리 딸이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되니 말이다.

“루시, 공부하는 게 재밌고,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일을 해서 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월급을 받으면 뭘 할까 생각하고, 휴가 때 어디로 여행 갈까 생각하는 게 좋거든. 그리고 일하면서 또 여행하면서 새로운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게 난 좋아.”

루시는 저 작은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할까. 자기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는 너무 다른 생각을 말하는 제니를 가만히 쳐다본다. 딸이 1년을 머물다가 취직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자기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루시에게 선물로 주고 갔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 만약 8학년 졸업을 하게 된다면 졸업 선물로 새 핸드폰을 사주겠다고.

그리고 루시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다.

6학년을 마치면서 나는 더 이상 루시를 데리러 학교로 가지 않아도 되었고, 루시가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와서는 숙제를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집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한테도 한국말 가르쳐 줘.”

나를 미미, 니니라고 부르던 루시가 지금은 엄마라고 부른다. 제니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자 루시가 물었다. “엄마가 미미 이름이야?”

그 말에 딸은 배를 잡고 웃더니 “루시, 미미는 우리 집 개 이름이고, 엄마 이름은 지혜야. 그리고 헝가리 말로 어녀(Anya)가 한국말로 엄마야.”

그 말을 들은 루시는 그때부터 미미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알아야 했다. 루시도 엄마가 그렇고 엄마가 필요했다는 것을. 난 그때는 미처 몰랐다.

“왜?”

“그냥. 배우고 싶어.”

“이제 제니랑 한국말로 루시 흥 못 보겠네. 루시가 다 알아들을 거 아냐?”

내 말에 루시가 킬킬킬 웃는다. 나는 집에서 한글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에 루시를 데리고 갔다.

“오늘은 내 딸이 같이 왔어요. 베이비시터를 못 구했거든.”

내 말에 학생들이 웃었다. 아닌 걸 알지만 다들 어린 루시에게 친절했고 루시는 헝가리 여학생, 남학생, 베트남 남학생, 몽골 여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웠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루시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려고, 드라마를 한국어로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여행가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즐겨워했다.

그렇게 루시는 8학년 졸업을 했고, 주저 니니가 그렇게도 바라던 김나지움에 들어갔다. 딸은 한국에서 루시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루시가 갖고 싶어 하는 스마트폰을 선물로 사줬다. 아니 나랑 루시랑 같이 가서 사고 딸은 내 통장으로 돈을 넣었다.

“엄마, 엄마랑 제니, 초이(남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천사야.”

새 핸드폰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은 루시가 나를 꼭 끌어안고 뿌쉬뿌쉬(볼에 뽀뽀해주는 것)를 한다. 3학년이었던 루시가 8학년을 졸업하고 김나지움에 입

학했는데 감동도 컸지만 앞으로 4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걱정도 앞섰다.

“엄마, 괜찮아. 4년 잘 보낼 거야. 시간 빠르잖아.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필요하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어려운 과목은 한 번씩 과외를 시켜줘 봐.”

“그러든가 해야겠다. 앞으로 4년을 잘 보내야 할 텐데.”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춘기 때는 마침 딸이 헝가리에 와있어서 루시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잘 넘긴 거 같은데 막연한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 지 나는 알고 있었다.

루시는 더 이상 작은 꼬마 여자아이가 아니었다. 김나지움 1학년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지만 루시는 사내 녀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런데 나의 불안함은 엉뚱한 곳에서 현실이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루시 엄마 자스민이 출소를 한 것이다.

루시는 조금씩 주말마다 바빠졌다. 자스민이 루시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항상 우리와 같이 보내곤 했었는데 루시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는 실베스타(12월 31일 밤)도 자스민과 파티에 갔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보다는 서운함이 컸다.

아마도 딸이 헝가리에 와서 일 년을 같이 지내고 간 뒤에 루시는 나와 더 가깝고 딸 제니처럼 내 울타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나 보다. 분명 루시는 집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시의 색이 옅어졌다고 오만하게 그리 생각했었나 보다. 루시에게는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옆에 있어야만 루시가 다른 집시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나 보다. 그런데 루시는 자스민과 함께 있으면서도 결석은 하지 않았고 전보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 집에 들어서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숙제도 했지만 뭔가 내 속에서는 자꾸만 서운함이 쌓이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9학년 새해가 지났고 봄이 올 때쯤 시내에 있는 웨스턴드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다. 통신사 계약을 새로 하고 봄옷이나 하나 볼까 천천히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탈리아 식당 옆에 있는 스타벅스에 루시랑 자스민이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맞다. 봄 방학이구나. 요즘 루시가 자주 오지 않아서 봄 방학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루시의 환한 웃음을 보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나를 볼 수 없는 것에 ‘다행이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통수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다. 루시가 많이 웃기는 했지만 나와 같이 있을 때와 짓는 웃음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뭐랄까. 더 눈부시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하게. 아니다. 편안하게.

‘맞다. 자스민은 루시의 엄마야. 루시는 엄마가 그리웠던 거야. 왜 내가 그걸 몰랐을 까. 루시가 ‘엄마, 엄마’라고 부르니까 내가 진짜 루시 엄마라도 된 듯 착각을 했나 보다’

난 루시 옆에 자스민이 있으면 루시가 위태롭고 분명 루시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자스민을 나와 루시 사이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자스민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주저 니니를 통해서.

루시랑 자주 가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좀 일찍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자스민이 약간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자스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루시한테 이야기 들었어. 고마워.”

“무슨 얘기?”

“나 없을 때 루시 챙겨줘서. 루시가 나보고 한국 엄마가 나보다 더 진짜 엄마 같다며, 미미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좀 배우라고 했어.”

루시의 그 말에 울컥하면서 그동안 혼자 서운하고 배신감 느꼈던 내가 부끄러워지면서 미안함이 올라왔다.

“자스민, 주저 니니한테 혹시 들었어? 주저 니니랑 내가 약속한 일?”

“루시 김나지움 졸업시키는 거? 응.”

“자스민은 어떻게 생각해?”

“뭘”

“루시가 계속 학교에 가고 졸업하는 거.”

“당연히 좋지. 그래야 직장도 생기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자스민의 말에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스민 말대로 일은 할 수 있지. 근데 앞으로 3년을 더 학교에 다녀야 해.”

“가면 되지.”

내가 자스민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대답하는 걸까?

“미미, 나도 김나지옴 졸업하고 싶었어. 6학년 때 그만뒀지만. 맘은 그랬어.”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을 가만히 보더니 말을 계속한다.

“나도 김나지옴 졸업하고 싶었어. 근데 나보고 학교에 꼭 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공부가 재미없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녀도 아무도 나를 혼내거나 왜 학교에 안 가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친구들도 안 가니까 학교에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루시를 임신했을 때 다들 축하해줬어. 내 친구들도 비슷하게 임신을 했거든. 그래서 재밌었어. 다 그런 줄 알았거든. 우리는 다 이렇게 살고 엄마도 할머니도 다 별문제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루시를 낳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매일 케빈이랑 싸우고 욕하고 엄마한테 맨날 돈 좀 달라고 하고. 난 일을 할 수 없었고, 케빈은 몇 번 일했는데 돈을 많이 못 받았어. 근데 그 돈을 자기 신발 사고 루시 옷 사고 나니 없는 거야.”

가슴이 답답해 왔다. 15살, 17살이 아이를 낳고 자스민은 그녀의 집에서, 또 케빈은 그의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루시 동생이 생겼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주저 니니도 몰랐었나?

“루시가 2살 때 임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어. 루시 하나도 힘든데 또 아기가 생긴 게 화가 났어. 내가 케빈한테 피임하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싫

다며 나더러 하라고 했어. 그러다 임신을 했는데 울고 보채는 루시도 밋고 뱃속 아기도 너무 싫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프더니 아기가 떠났어.”

자스민이 울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그랬다.

유산을 하고 아기 루시 아빠 케빈과 자주 다투다가 케빈이 떠났다고 했다.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케빈에 대한 화풀이로 루시를 집에 놔두고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항상 가난하고 불행한지 우울해졌고, 좁은 집에서 북적대며 사는 시끄러운 집이 너무 싫어서 자꾸만 친구들과 밖에서 생활하다가 마약인 줄도 모르고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클럽에서.

지금은 정말 마약을 끊었고, 루시가 김나지움을 다니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다면서 루시가 김나지움을 마치고 졸업하기를 원하는 주저 니니처럼 자기도 간절히 원한다고 말을 한다. 그럼 됐다.

나는 자스민에게 부탁을 했다.

“자스민, 루시가 김나지움을 졸업하려면 남자친구는 괜찮지만 임신하면 곤란해. 알지?”

“응. 나도 알아. 근데 임신하고 아기 낳고도 다닐 수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스민 너도 루시 임신해서 알잖아. 루시 임신했을 때 케빈이 힘들었어? 자스민이 힘들었어?”

“당연히 내가 힘들었지. 케빈 그 자식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빠가 됐다고 자랑만 했지.”

“임신하고 아이 낳고 그러면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하는 건 좀 힘들어. 자스민은 왜 루시 낳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 안 했어? 주저 니니한테 루시 부탁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됐을 텐데. 공부도 싫었겠지만 아기를 두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없었잖아. 루시도 그럴 거야. 케빈도 17살에 아빠가 된 거니까 어렸기 때문에 자스민이랑 사랑하는 건 좋지만 아빠나 남편이 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계속 싸우게 된 거야. 어려서 엄마,

아빠가 되면 누구나 힘들거든.” 자스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루시가 만약 임신을 했다고 해. 자스민 네가 아기를 잘 돌봐 준다고 해도 루시는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임신을 하면 몰라도 학교 다니는 중에 임신하고 아기 낳으면 대부분 학교는 그만두거든. 엄마인 네가 옆에서 그러지 않게 좀 도와줘.”

“미미. 지금 남자친구는 루시의 남편이 되지는 않을 거야.”

“자스민, 루시는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야.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루시랑 사랑하고 싶어 하지. 자스민이 15살에 루시를 낳았지? 지금 루시가 15살이야. 자스민이 15살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기억나? 뭘 했고 뭘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며 놀았는지 생각해 봐. 루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야. 자스민이 루시를 낳고 예쁜 아기라 행복하고 좋았지만 루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했지? 15살에 엄마가 되니까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놀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엄마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해야 했잖아. 루시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어.”

“알았어. 나도 루시가 김나지움 졸업하는 게 좋아. 근데 루시는 8학년을 졸업했잖아. 내 친구들 중에 8학년 졸업한 아이들은 거의 없어. 루시가 똑똑해.”

“맞아. 네 딸 루시는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야.” 내가 말했다.

“근데 주말에는 루시랑 같이 다녀도 되지?”

“당연하지, 네가 엄마잖아. 루시는 엄마가 와서 너무 좋은가 봐. 자스민이랑 같이 있을 때 루시는 엄청 행복해 보여.”

루시가 자기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해 보인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웃는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 루시가 10학년이 되었을 때는 헝가리 정부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음식점, 카페 등 어디에서도 실내, 실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며, 애완동물 산책도 집에서 2km로 제한했다.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아야 했으며 식료품점도 12시 이전에는 60세 이상이, 12시 이후에는 60세 이하가 장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은 12시 이전에 물건을 살 수 있고 나는 12시 이후에 마트에 갈 수 있는 이상하고 요상한 생활이 지속되었다.

내 한국 일정도 취소되었고, 남편의 출장도 전부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루시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니 인터넷이 없는 루시는 우리 집에서 수업을 들었다. 루시가 우리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하던 어느 날 자스민이 튀김기를 빌리러 왔다가 내가 남편 바지단을 줄이려고 꺼내 놓은 재봉틀을 보았다.

“미미, 재봉틀 할 줄 알아?”

“응, 간단한 것만. 옷은 못 만들어.”

재봉틀을 눈여겨보던 자스민이 다음 날 아침에 루시를 따라 우리 집에 왔다.

“미미, 나 재봉틀 조금 할 줄 하는데 나 좀 가르쳐 줘.”

“응? 난 가르쳐 줄 정도는 안 되는데?”

나는 전에 사 놓은 천을 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자스민은 가방을 만들까 하고 샀던 천이라는 것을 들고는 루시가 수업하는 동안 거실에서 재봉틀로 간단한 에코백을 만들었다. 그런데 제법 괜찮았다. 아주 깔끔하게. 내가 만든 것보다 완성도가 높은 가방이었다.

“자스민, 멋지다.” 내 표정과 칭찬에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자스민.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유튜브를 보면서 좀 연습해 봐. 그래서 우체국 건물 1층에서 옷 고쳐주는 유딧 니니 있지? 유딧 니니처럼 자스민도 돈을 받고 옷을 고쳐주거나 예쁜 것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잖아.”

그날부터 자스민은 매일 매일 우리 집에서 재봉틀로 도시락 주머니도 만들고, 식탁에서 사용할 냅킨, 의자 커버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스민이 만들면 내가 만든 값을 지불하고 만든 것들은 우리 집에서 사용했다. 유튜브로 알 수 없는 것은 우체국에 관리비 내러 가던 날, 마침 유딧 니니를 만나 자스민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일 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이 3차까지 늘어나면서 2년을 넘겼다.

루시가 12학년이 되던 가을에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한 뒤여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고 식당이나 카페 등은 영업이 정상화되었다. 마스크는 착용해야 했지만 그래도 외부 모임과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드디어 봄이 되었을 때 헝가리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고 국경도 열었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헝가리는 김나지움 졸업 때 아이들이 두 달 정도 3곡의 춤을 배워서 12학년 전체가 춤을 춘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정부가 3월에 모든 규제를 풀었고 루시는 썰러거버뜨(Szalagavato: 졸업 무도회로 리본을 달아 준다는 의미)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의논해서 춤과 드레스 색을 정하고 두 달 동안 춤을 연습하면서 루시는 김나지움 4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친구도 알게 되고 무엇보다 두 명의 좋은 친구가 생겼다.

루시의 반은 검정 드레스, 빨간 드레스 그리고 12학년 전체가 입는 하얀 드레스 이렇게 3개의 드레스로 결정을 했고, 자스민은 그중에서 빨간 드레스를 자기가 만들겠다고 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천을 사고 비즈를 샀다. 나는 아예 내 재봉틀을 자스민에게 선물했다.

“자스민, 내 재봉틀은 쓸데없이 기능이 너무 많아. 나는 그냥 간단한 게 좋거든. 이거 자스민이 써.”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자스민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내가 남편에게 오래전 결혼 기념 선물로 받은 재봉틀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재봉틀로 일도 하고 루시의 드레스를 만들었다.

검정 드레스와 하얀 드레스는 자스민과 루시, 그리고 내가 시내의 드레스 대여점을 돌고 또 돌면서 우리 셋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탄한 드레스로 결정을 했다. 루시의 드레스 대여비는 남편이 루시에게 주는 졸업선물이었다. 한국에서 딸은 진짜로 졸업이 현실이 되었다며 루시의 구두를 사주라고 돈을 보내왔고 루시는 하얀 비단구두와 까만 하이힐을 샀다.

5월의 햇살 좋은 오후, 우리 모두 정장을 하고 루시의 썰러거버뜨에 참석을 했다.

첫 춤은 까만 드레스를 입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서 삼바였다. 경쾌한 스텝을 받는 루시는 빛이 났다. 루시의 이름처럼. 두 번째 곡은 하얀 셔츠의 첫 단추를 푼 남학생들이 춤을 추면서 담임선생님을 모시고 나타났고,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학생들이 사방에서 춤을 추며 무대 가운데로 모였다. 루시는 자스민이 만든 드레스를 입었다. 짧은 치마 위에 속이 들여다보이는 빨간 망사로 걸치마를 만들어 붙이고 뒤에 큰 리본을 단 화려한 빨간 드레스였다. 남학생들이 원을 그리듯 뒤로 물러나고, 여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며 노신사와 짧게 춤을 추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시는 선생님을 위해 춤을 준비한 아이들의 마음이 귀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이 자리에 루시는 엄마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담임선생님의 손을 잡고 춤을 춘다.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왔다.

마지막 춤은 12학년의 모든 여학생들이 화려한 오픈 솔더의 눈부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멋진 턱시도를 입은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추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루시는 키가 큰 남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데, 나비처럼 살포시 구름 위를 날듯이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학생들의 모든 순서가 끝나자 학부모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가 축하의 춤을 추었다. 루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는 할머니랑 첫 춤을 추었다. 주저 니니는 루시의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계속 우셨다.

두 번째 춤은 내 남편과 추었다. 남편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손녀 같은 루시의 손을 잡고 어색하게 앞으로 옆으로, 뒤로 스텝을 밟았다. 마지막으로 엄마 자스민의 손을 잡은 루시는 흰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어린아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다. 둘은 '까르르' 웃으면서 빙글빙글 돌고 서로를 돌리고 또 돌렸다. 나는 카메라로 심 없이 셔터를 눌렀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다. 루시가 정말로 김나지움을 졸업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루시의 앞날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루시가 원하는 삶을 선물로 안겨주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루시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집시인 루시를 특별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편견의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분명 좌절하고 분노하며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하지만 집시인 루시에게는 더 힘든 시간일 것이 분명하지만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루시는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제 루시는 자신의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고 나는 언제든지 루시가 힘들 때면 어깨를 빌려줄 것이다.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하겠지.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엄마, 나 꿈이 생겼어.” 하면,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멋지다.” 응원을 하겠지.

루시야. 너에게서 빛이 나. 환한.

히피는 아니지만

김경숙 (호주)

절벽 위의 집이 매물로 나왔다. 그 집은 절벽 위에 조성된 작은 단지 안에 자리 잡은 세 채 중 하나였고. 호주 초기시절에 건축기사 윌리엄이 자신의 세 딸을 위해 손수 지은 클래식한 벽돌집이었다. 100년이 훨씬 넘은 그 집을 보자마자, 목가적인 옛 스런 정취와, 야라 강의 시원한 전망에 나는 망설임 없이 매입했다.

첫째 딸이 살던 윗집은, 현 주인이 증축 후 분리했고. 가운데 우리 집과 아래쪽의 셋째 딸이 살던 조엔 집은, 담벼락이 형성되어 사적 공간이 보장된 뒤뜰과 달리, 앞마당은 울타리 없이 자매들이 마당과 차고 문을 함께 공유하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조엔은 우리 집 현관문을 부담 없이 열고 들어오곤 했다. 예의 바른 그녀는 친절하고 상냥했다. 그런 그녀를 나는 환영했고,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웃사촌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종종 영국식 예절을 들먹이며 내비치는, 조엔의 인증편견적 우월감을 상대하기엔, 내심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동양인이라는 나의 자격지심일 거라고 치부하며 그녀를 이해했다.

무르익은 봄별이 화사한 10월의 주말이었다. 차고에 낡고 녹슨 승합차가 보인다. 호기심에 들여다본 차 안에는, 땀국이 흐르는 이불이 뒷좌석에서 헨 옷들과 엉겨 있고, 더러운 앞은뱅이 의자를 비롯한 식기 등 잡동사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기겁하며 돌아서는데, 조엔이 갈색 장발의 덩수룩한 수염과, 후줄근한 옷차림의 남자와 함께 나온다. 조엔과 짧은 포옹을 마치고 그가 차를 몰고 떠났다. 조엔이 다가와 속삭이듯 내게 말한다.

“조라고 부르는 우리 큰아들 조셉이야.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한 수재였는데… 지금은 히피로 살고 있어.”

“말아들이 히피라고요?”

이사 온 첫날, 이삿짐 정리를 하느라 바쁜 와중에 윗집 줄리 부부는 초콜릿 상자를, 아랫집 조엔 부부는 와인병을 들고 건너왔었다. 상류층 매너로 동양인인 우리를 은근히 탐색하고는, 자기들 소개와 함께 ‘존칭을 빼고 이름을 부르라’며 친구를 자칭하던 우아한 조엔에게 히피 아들이라니…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었다. 그런 나의 속내를 읽은 듯, 그녀는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한 울타리 속 이웃이 된 축하자리라고 한다.

동생 진후와 나는 뒷마당에 피어난 은방울꽃으로 부케를 만들고, 조엔 집으로 건너갔다. 조엔의 남편 스콧 씨가 식탁을 차리는 동안, 그녀는 집 구경을 시켜준다. 그녀를 뒤따라 경사진 베란다 밑의 벽부터, 절벽 경계선인 낮은 철조망 사이에 조성된 조엔의 비밀 정원으로 들어섰다. 좁은 오솔길 위로, 커다란 상록수가지의 초록 잎이 하늘을 덮었고, 그 옆으로 활짝 핀 복사꽃 진분홍 물결의 매혹적인 장관이 펼쳐진다. 복사꽃 주변에 색색으로 피어나기 시작하는 물오른 꽃망울들, 나무울타리를 기어오르는 덩굴풀숲에는 꼬마 요정들이 살고 있는 듯한 경이로움이 넘쳐났다.

“이곳은,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쉬을 얻는 곳. 큰아들 조가 매년 다른 테마로 꽃을 심어주는 나만의 비밀 요새야. 올해의 주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Love로 정했지. 여기서 흙을 만진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는지 60대

증반인 나의 육체 건강 지수가 40대로 나왔지 뭐야.”

천진난만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날렵한 외모는 연한 북청색 바지와, 셔츠, 은발의 베레모에, 무색 뿔테 안경이 어우러져 실제로도 50대로 보였다.

정원 뒤로 완만하게 경사져 내려간 반지하의 창고에 이르렀다. 육중한 나무 문이 둔탁한 음을 내며 열렸다. 빛이 차단된 내부는, 와인 병들이 뿑뿑이 와인 랙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자녀와 손자들이 태어날 때마다, 와인을 두 상자씩 구입해서 이곳에 저장했다가, 그들이 18세가 되면 한 상자를, 그리고 21세 성년식에서 나머지 상자를 축배로 사용하고 있어. 물론, 우리부부의 매년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도 그리하고.”

“와우… 대단하네요.”

나는 와인보다 맥주 체질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와인 저장고의 위용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집 구경이 끝나고, 구운 감자를 곁들인 로스트 치킨에 텃밭에서 뜯어온 로켓 샐러드로 차려진 식탁은, 조앤이 저장고에서 꺼내온 12년된 와인과, 재스민 향초, 은방울꽃 향기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Cheers!”

건배를 끝내고 상기된 노부부는 가족 이야기를 격의 없이 들려준다.

낙농업의 산지인, 호주의 최남단 타스마니아 섬에서 유학 온 조앤과 멜버른 토박이인 스콧 씨는 17세 때 대학 입학식에서 첫눈에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와 주정부의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원로 학자 스콧 씨는 일 처리는 예민하고, 빈틈없지만, 의외로 성격은 소탈하고 유머가 넘친다. 자산가임에도, 낡은 차를 손수 수리하며 고색창연한 집안의 장식품들은, 그의 겸소함이 배가되어 단순하고도 깔끔했다. 부인 조앤이 명문 사립고교 교사 출신답게 자녀의 교육관에 대한 소신을 냉철하게 내비친다.

“나는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립여학교를 다녔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어. 내 관점으로 볼 때, 부유층 아이들이 공립학교 학생들

과 달리 선별되었다는 자칭 귀족화에 물드는 게 싫었고, 아이들이 어려운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알아야,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내 교육 철학 때문이라고 할까.”

조엔의 말에 스콧 씨가 끼어든다.

“바쁜 나를 도와 아이들 교육을 조엔이 도맡아준 덕분에 항상 조엔에게 고맙게요. 은퇴를 하고 나서는 아내가 아이들을 키워주고, 수고해준 보답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아침식사를 챙겨 조엔의 침대로 가져다주며, 저녁식사 준비도 내가 하고 있지.” 스콧 씨는 조엔의 손등에 살짝 입맞춤을 한다. 이렇듯 다복한 가정으로 보였지만, 내가 궁금했던 것은 그 전날 보았던 맏아들 조의 행색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우선 선물로 준비해간 오르골의 아리랑 멜로디를 들려주었다.

“이 곡은, 한국의 얼과 애환이 서린 노래로 힘들어도 기쁘게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한국의 대표적 민요 아리랑이에요.”

아리랑의 애잔한 가락에 맞춰 부부는 몸을 흔들며 “윈더폴”을 연발했다. 조엔이 오르골의 매화 문양을 쓰다듬으며, 큰아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조는 의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최단기간에 전문의를 취득한 수재였는데 돌연, 히피가 되었어. 히피 여인과 결혼해 아이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서 살며...”

조엔은 잠시 숨을 고른 후, 큰아들 조는 봄이 되면 엄마만을 위한 정원을 꾸며주고, 겨울에는 벽난로 땀감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가는 심성 고운 아들이며, 둘째는 금융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 셋째 딸은 유명 피아니스트로 각자 분야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들 부부는 자식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으로, 자녀들이 행복하면 자신들도 덩달아 행복하다는 말로, 큰아들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주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조에 대한 미련이 담겨있었다. 조엔은, 재차 조가 영특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조의 천재성이, 그를 히피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것 같아...”

자유를 갈망하는 조의 영혼이 나의 촉(觸)을 건드리며 서서히 나의 영혼을 잠식해 가고 있음을 그때는 몰랐다. 당시 나는 동생 진후와 디자인 관련 사업 설립 준비로 인한 분주함에, 이웃에 대해 소소한 신경을 쓸 여력과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분서주한 결과, 이태가 지나서야 우리 회사는 점차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다.

겨울로 접어들자, 조엔 부부는 호주의 습한 겨울을 피해 따뜻한 프랑스의 시골 농가를 찾아 떠났다. 집 단속을 부탁받은 나는, 그들의 우편물을 수거해 보관통에 넣고 커피를 내려 베란다로 나왔다. 절벽 아래로 겨울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한낮이 주는 평온함은, 재택근무가 주는 또 하나의 이점이다. 문득 기척이 느껴져 돌아다 보니, 옆집 베란다에 예의 그 남자가 벽에 등을 대고 앉아 향만 쪽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자리는, 평소 조엔 부부가 애쉬나무 테두리에 등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디자인 의자를 나란히 붙여놓고, 석양빛으로 물든 아라 강을 마주하고 담소를 나누던 곳. 또한 기품 있게 앉아 있는 조엔 앞에서, 저녁 만찬을 차리느라 은발의 스코트 씨가 바삐 움직이던 곳이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멀리 녹색의 상선이 정박해 있는 도크랜즈항만 앞으로 흰색 요트들이 수면을 가르는 단조로운 전경뿐이다. 그는 오랫동안 미동 하나 없다. 그 모습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갑자기 그 쓸쓸함이 한기(寒氣)가 되어 내게로 들어와 가슴속을 훑는다. 나는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당신 누구야, 왜 거기 있지?”

쉿소리를 내는 나를 바라보는 처연한 그의 눈빛이 선량하다.

“스코트의 아들이며, 내 이름은 조.”

수지 할머니가 살던 집에 새 주인인 진희라는 한국인이 이사 왔다는 얘길 들었다며 아는 체를 한다.

쓰레기차를 몰고 가던, 삼 년 전에 보았던 첫인상의 불량스러움이 가신 모습에 그에 대한 반감이 사라졌고. 그와의 대화가 끝났다. 급히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뒤졌다. 스테이크용 고기를 얇게 저며, 참기름과 간장소스에 볶고 대충

색깔 별로 채소를 모아 잡채를 만들었다.

“조, 우리 집에서 티타임 할래? 너를 위해 한국 국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그와 유대를 갖게 되었다. 나보다 한 살 어린 그는 심성이 부드러웠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 사이에는 친밀감이 형성되었다.

천성적으로 역마살이 있던, 나는 호주주재 상사원이었던 부친을 따라 어려서부터 호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일본 하라주쿠에 머물며, 당시 준공된 오모테 산도힐스의 디자인에 매료되어 일본에서 공간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호주와 일본에서 보낸 나는 한국사회 적응이 힘들었고 답답했다.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를 결혼이라는 틀을 거부하고 동생 진후가 사는, 고풍스러움과 현대적인 요소가 혼합된 도시 멜버른에 터를 잡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어떤 고정된 틀에 구속되는 직장생활을 싫어해 조소과 출신인 진후와 단둘이 열정과 용기만으로 회사 창업에 뛰어들었다. 비혼주의자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그러니 영혼의 자유를 지향하다 못해 추구한다는 면에서, 조와 나는 어린아이들처럼 아주 죽이 잘 맞아, 스스럼없이 친구가 되었다.

“나에게는 내 영혼에 대한 비밀이 하나 있어.”

축망받던 의사의 길을 버리고 히피가 된 이유를 묻는 나의 고루한 질문에 진지한 표정으로 운을 떼 그가 이어 말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영혼을 버릴 때야.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적나라한 실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

그의 철학적 대답이 어렵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는 대신, 젓가락질이 서툰 그를 위해 포크와 스푼을 가져다주며, 자연주의자이며 데이지라는 이름의 신비스러운 히피 여인과의 운명적 만남에 대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 스키를 즐겼던 조는 28살이 되던 10년 전 겨울, 스노위마운틴 진다바인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곳은 페리셔 스키장까지 20여 분 정도 산길을 운전해야 했지만, 전력회사 ‘스노위하이드로’의 댐 공사로 생겨난 호숫가에서,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을 맞는 설렘에, 매년 그가 즐겨 찾는 곳이었다. 멜버른에서 일곱 시간 가까이 운전을 하고 도착한 그는 카페 ‘버치우드’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터키 이민2세인 히피 여인 데이지를 만났다. 원목으로 꾸며 산촌의 느낌이 가득 담긴 카페 내부는 푸근함을 안겨주었고, 주방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모두 히피들이었다.

그녀, 데이지가 다가와서 조에게 메뉴판을 내밀었다. 붉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로 가득 찬 커다란 눈매가 주는 강렬함에, 그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주문을 받은 그녀가 돌아서자, 검은색 바탕에 빨간 히비스커스 꽃이 어우러진 드레스를 입은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때였다. 갑자기 그녀가 뒤돌아보았고, 조와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 일순, 숨이 멎는 듯한 느낌 속에 그는 전율했다.

그즈음, 동료 의사들과의 경쟁심이 얽힌 진부한 관심사에 영혼이 피폐해져 가던 그에게, 이국적인 히피 여인과의 교류는 그를 감싸고 있던 벽을 허물었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었다. 신열을 앓던 그는 결국 일생일대의 선택을 했고, 곧장 스노위마운틴의 진다바인으로 거처를 옮겼다. 데이지와 사이에서 아이들이 생기고, 카페에서 일하며 누리는 자연 속 생활은 행복했다. 모친 조엔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

“그러니까 데이지를 처음 보는 순간 끌렸다는 거네? 너희 부모님처럼...”

“맞아. 전광석화 같은 사건이었지.”

“부전자전이구나. 넌 아빠를 닮았어.”

나의 말에 그가 크게 웃었다. 찻물을 위해 유리 포트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셋노란 국화꽃 몽우리들이 놀라 유명하기 시작한다. 조는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말을 잇는다.

“영국에서 건너와 4대째인 낙농 회사를 승계 경영하는 외할아버지는, 귀족 가문답게 영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 어릴 적 내가 ‘영국’이라고 하면 ‘조셉 모리슨! 영국이 아니고 대영제국이라고 해야지’라고 정정해 주시곤 했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엄마는 내가 데이지와 결혼을 하고 히피로 살겠다고 하니 침묵하시더라. 대신, 아빠가 ‘조셉! 다시 한 번 생각해라, 그리고 신중히 결정해’ 단 두 마디를 하셨지. 나는 ‘인간에게는 각자 정해진 자리가 있고, 나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집을 나왔어. 하지만 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엄마를 이해하고 사랑해.”

찾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얼굴에 스산한 자작나무 바람이 곱친다. 그는 국화 향을 음미하며 풀어낸, 자신의 내력을 이제 마무리하며 들려준다.

- 그 후, 조엔은 아이들이 태어나자 ‘조,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제 아이 교육 문제도 있고 하니, 이곳으로 옮겨와 가족과 왕래하며 살면 안 되겠니?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문자를 읽고 갈등하는 그를 데이지는 배려 해주었고, 뿔버튼 근교 단데농 숲속 마을로 거처를 옮겼다.

그사이, 연년생인 셋째와 막내가 태어났지만, 조엔은 한 번도 손주들을 찾지 않았고. 물론 데이지에게도 타인처럼 무관심으로 대했다. 그런 생활을 견디다 못한 조는, 살던 집을 정리해서 데이지와 아이들을 고향 진다바인으로 돌려보내고. 허탈감에 빠진 그는 승합차 속에서 홀로 노숙을 하다, 얼마 전 단칸방을 마련했다.

- 나는 그의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 주면서 생각에 잠겼다. 조엔과 스콧 씨가 길으로 보이는 타인의 시선에서는 당당하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히피 며느리에 대한 드러낼 수 없는 그들만의 고뇌가 있을 거라는... 망설이다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 관념상, 그러니까 음... 히피들은 말야. 마약, 이상한 옷차림, 록음악, 섹스,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좋은 질문이야, 히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달라, 히피들도 다양한 개성의 소유자들이거든. 데이지를 비롯해 이곳의 히피들은 나름, 철학과 올바른 가치관 위에 자연에 대한 사랑과, 인간애를 추구한다.”

“전원의 꽃을 히피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그런 것들이 신경과 의사였던 내가 히피 문화를 받아들인 이유이기도 해.”

그가 똑바로 내 눈을 응시하며 말을 계속한다.

“현대의학으로 이해되지 않는 자연적 치료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명상과, 대기(大氣)의 기운에 맞춰 파종한 농산물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을 이룰 때야.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어 몸속 회로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이지.”

“데이지와 나는 사회와 교류하며,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는 자연주의자일 뿐이야. 그녀는 순수해, 빛나는 보석처럼. 그리고 맑은 영혼을 가졌어. 데이지를 만나보면 진희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될 거야.”

조의 확신에 찬 논조의 히피의 삶과, 지금은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빈티지 숍에서 일하는, 그와 친구 사이로 남게 된 데이지에 대해 나는 공감하며, 데이지를 만나고 싶다고 그에게 말했다.

짧은 겨울 햇살이 자취를 거두기 전, 그가 주섬주섬 일어섰다. 그는 노트에 진다바인 데이지의 집 주소와, 큰 길에서 헤매지 않고 셋길을 통해 산속 집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그려 건네주고는, 작별 인사로 가벼운 포옹을 한다. 의례적인 인사 방법이었지만, 잠시 잠깐 맞닿은 그의 넓은 가슴은 따뜻하게 다가왔고, 살짝 맞댄 볼의 그의 구레나룻 수염의 감촉이 진하게 느껴진다. 나는 볼에 손을 얹은 채, 거실의 유리창을 통해 조가 부모님 집 베란다 의자를 정리해 놓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겨울 장마가 끝나고, 스노위마운틴에 눈 소식이 들려올 때 나의 겨울 휴가가 시작되었다. 시내에서 가까운 전원풍 건물의 이층에, 나를 포함 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우리의 디자인 전문 <STUDIO JHIN>은 아직은 영세한 신생 업체이지만, 동생 진후가 ‘디자인 부문 대상’ 수상으로 인지도를 쌓자 차츰 바빠지고 있었다.

나는 고객과의 미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업무 특성상 주로 재택근무를 선호했지만, 빠른 완결을 위해 회사에서 밤샘 근무를 했다. 피곤을 느끼기에 앞서 언제나 그렇듯이, 남과 다른 것을 만들어냈다는 자긍심으로, 기분은 항상 새로워진다.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할 겸 스노위마운틴으로 향했다.

아침 비행 편으로 도착한 캔버라 공항에서, 진다바인으로 가기 위해 나는 렌터카를 대여했다. 단조롭던 시골길은, 스노위마운틴 관문인 쿠마를 지나자 달라졌다. 눈 덮인 들판에 군데군데 모여있는, 고인돌을 연상시키는 돌무더기들과, 앙상한 나무들이 엉겨 범상치 않은 태고적 정경을 보여준다.

진다바인에 들어서자, 노트를 꺼내어 조가 그려준 셋길을 찾아 들어섰다. 검출리 사이로 난 길을 벗어나자, 자작나무 은색 가지들이 순백의 설원에 펼쳐진다. 나는 차를 세웠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겨울 숲에서의 차가운 들숨은, 폐부 깊숙이 파고들며 여독을 날려준다. 천천히 우체통 뒤로 난 눈길을 걸어 데이지집에 도착했다. 얇은 언덕에 자리한 목조 집이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의 전언에 의하면, 방학이라 큰애와 둘째는 스키캠프에 참가하고 있고, 셋째와 막내는 외할머니가 있는 쿠마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처마 밑 야외 탁자의 눈을 털어내고 잠시 앉았다.

언덕 아래로 눈 덮인 무채색 숲이 수목화처럼 펼쳐졌고, 짙은 공기가 감싼다. 이곳 삶을 위해 고층 빌딩숲에서 탈출을 감행하고, 해방된 삶을 살았던 조의 용기가 새삼 부러워졌고, 그가 그리워졌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카페 ‘버치우드’를 찾아 나섰다. 휴가철을 맞은 카페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주문을 하고, 호텔에서 내가 카페 위치를 물었을 때, 이곳 커피 맛을 칭찬하던 리셉션 직원 말이 생각나, 커피머신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깔끔하게 수염을 다듬은 히피 청년이, 진지한 얼굴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게 보인다. 커피를 마시고도 꽤 오랫동안 기다린 후, 신선한 로켓 위에 구운 늙은 호박, 다진 아몬드와 호두, 고트치즈, 호박씨를 함께 버무리고 그 위에 빨간 석류 알과 통깨가 뿌린 폼킨 샐러드가 나왔다. 샐러드가 담긴 접시

가장자리는, 노란 꽃잎과 민트 속잎으로 장식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다.

점심을 마치고, 데이지를 만나러 조가 알려준 옆의 빈티지 숍에 들렀다, 안쪽 벽에 낫익은 데님셔츠 드레스가 걸린 것이 보인다. 내가 옷을 살피자, 뒤편에서 정리를 하고 있던 여인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드레스 오리지널이에요. 원소유자가 사이즈가 작아 입지 못하고 내놓은 거랍니다.”

‘머레이 노먼’ 디자인 한정판이었다. 상태도 양호했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옷이라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내게로 온다. 그녀의 크고 깊은 검은 눈동자는, 사람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있었다. 붉은 생머리를 가진 범접할 수 없어 보이는... 어찌 보면 무표정해 보이기도 하는 히피 여인이다. 순간 나는 가슴이 뛰어 숨을 크게 들이켰다.

“이 옷의 임자가 되다니 행운녀예요.”

계산을 하며 그녀가 말한다.

“맞아요. 옆 카페의 점심이 너무 맘에 들었는데, 이런 옷까지 찾다니...”

의도적으로 카페를 힘주어 말하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카페는 오래전에 자신이 일했던 곳으로 카페 주인이 외삼촌이라고 했다. 도도하고, 다소 쓸쓸해 보이는 첫인상에 근접하기 어렵겠다는 나의 선입견을 깨고, 그녀는 의외로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는 부모님이 옆집에 살아서 알게 된 친구로, 그가 너를 만나보라고 추천해줬고, 그의 허락을 받고, 오는 길에 너의 집을 들렀다고... 나는 한국 출신으로 이름은 진희이고, 히피 생활에 관심이 많으며, 나도 모르게 그만 장황하게 수다를 늘어놓고 있었다.

“오우 조가 말한 코리언 친구가 바로 당신이었군요. So Fantastic!”

나지막한 외침과 커다란 눈의 동공이 놀라서 크게 확장된 그녀는 점심시간이라 한적한 숍의 카운터 뒤편으로 나를 이끈다.

“나의 아버지가, 유엔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인연인지, 진희, 당신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어머나! 한국 참전 용사라니. It's amazing.”

나는 인연에 놀라워하며, 그녀가 드레스를 개키면서 여담으로 들려주는 인근 빌딩들을 소유한, 부친의 이민 성공담에 귀기울였다.

- 터키 산간 마을에서 가난으로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하고, 농사를 지어 시장에 내다 팔던 아버지 샤마르 씨는, 한국전쟁에 용병으로 참전했다. PX에서 구입한 카멜 양당배를 암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으다가 종전으로 귀국한 그는, 노동자를 모집하는 호주 이민선(移民船)에 합류해 시드니항에 도착했다. 맨리 해변에 자리한 이민자 수용소에서 영국 출신 관리자에게 ‘동구권(東歐圈)의 돼지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영당을 발로 차이는 수모와 설움을 당하곤 했다. 그는 식당과 호텔에서 접시 닦기와 청소 일을 하며 기반을 잡느라, 늦은 나이가 되어서야 고향 처녀 바이올렛을 초청해 결혼했고 집세가 비싼 시드니를 떠나, 스노위마운틴 관문인 산간 마을, 쿠마로 옮겨왔다.

쿠마는 스키장과 리조트가 지척이라 관광객이 사철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음식솜씨가 좋은 엄마는, 히피인 외삼촌을 불러들여 주유소 옆 노점에서 터키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텃밭에서 갓 재배한 채소로 만든 신선한 음식은 스키어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졌다.

그 여세를 몰아, 쿠마 중심가에 엄마 이름을 딴 ‘바이올렛’이라는 상호로 터키식 전문 레스토랑을 차렸고 지역 명소가 되었다. 외삼촌은 쿠마 근교 진다바인에 ‘버치우드’ 카페를 개업했고, 샤마르 씨는 돈을 모으는 대로 부동산을 사들여 재산을 일궈지만, 여전히 손수 기른 꽃과 채소를, 매일 외삼촌 카페와 자신의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다.

- 이야기를 마친 데이지는 꼼꼼하게 개켜 포장한 데님 드레스를 내게 건네며 덧붙인다.

“우리 부모님은 히피는 아니지만 히피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완성된 요리 접시에 꽃잎으로 장식을 한답니다. 부모님은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꽃의 화평도 같이 선물하고 싶으신 거죠.”

그녀의 비번 날, 그녀 집에서 오후의 티타임을 갖기로 하고 솥을 나왔다.

벽난로의 따뜻한 열기로 실내는 훈훈했다. 데이지는 자신이 직접 부리를 캐서 만든 민들레 차를 따라준다. 빵 굽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다. 그녀는 배려와 인정이 넘쳤다. 오븐에서 갓 구운, 참깨가 뿌려진 터키식 시미트빵을 꺼내며 그녀가 말한다.

“영혼이 닳은 사람은 서로를 알아봐요. 엇그제, 당신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 당신과의 인연에는 어떤 섭리가 있다고 봤어요. 나를 끌어들이는 중력을 느꼈다고 할까… 그리고 평소 한국이란 나라에 친밀감이 있었어요. 짧게라도 아버지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지요.”

천성적으로 말수가 없는, 한때 요가 강사였던 그녀가 처음 보는 내게 부모님의 스토리를 들려준 이유였다.

그녀는 매서운 겨울바람에 꺾인, 눈발의 생 나뭇가지를 바구니에 주워 담아 벽난로에 던져 넣었다. 벽난로의 뜨거운 불길에 생가지의 물기가 ‘탁! 타다탁! 탁!’ 리드미컬하게 기존 불꽃과 화합을 이루며 격렬한 불꽃으로 피어난다.

“보세요. 저 젖은 생가지는 혼자서는 절대 불이 안 붙거든요. 기존의 불꽃 속에서는 저렇게 기세 좋게 타오르죠. 우리 인생도 베이스 불꽃이 필요해요. 혼자 애써봐야 연기만 나지요.”

데이지가 착잡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가 조엔이라는 기존 불꽃을 통해 그들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한 나는 왠지 가슴이 뭉클했다.

“조엔이 조의 인생이 나 때문에 엇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이혼 상태예요. 물론 내가 이혼을 요구한 것은 조에게, 나와 조엔 우리 세 사람 사이에 형성된 긴장 기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다만 조가 이혼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안했기에 완전한 이혼 성립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서로의 사이에 생긴 간극은 메워지지 않아 이제는 다 비웠다고 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꼬옥 잡아 주었다. 그녀는 손을 내게 맡긴 채 말했다.

“진희! 당신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요. 우리의 삶이란, 지금 삶인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응원 할게요.”

휴가에서 돌아온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겨울이 끝나갈 무렵 조엔 부부도 여행에서 돌아왔다. 나는 조엔과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평행선을 이루는 생활을 유지했다. 논리 정연한 그녀의 우월감이 묻은 가시에 찢리지 않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지만, 그녀와 자식 간의 개인사에 선을 넘지 않으려는 나름의 조치였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조엔의 둘째 아들과 딸은, 성공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바쁜 일상이라는 함정에 빠져, 부모 집을 거의 방문하지 못했다. 대신 생일이나 집안 행사에 조엔 부부가 자녀들을 방문하곤 했다. 봄이 되어도 조가 찾아오지 않자 조엔은 ‘느슨한 평화’라는 올해의 테마에 맞게 손수 비밀 정원에 흰색과 보라색 꽃모종을 배열해 심었다.

조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주말, 머리와 수염을 완전히 밀어낸 새로운 스타일에 깔끔한 차를 몰고 나타났다. 얼마 후, 그는 홀로 떠났고 조엔 부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더위는 4월이 되자 한풀 꺾였고, 티타임에, 베란다에 나온 조엔이 나를 보자 곧바로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동안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어요.”

자리를 권하며 내가 말하자

“나는 마음이 더 힘들었어.”

조엔은 우울한 표정으로 그간 겪었던 일을 털어놓는다. 데이지와 아이들을 만나러 갔던 조는 그의 낡은 차가 폐차되어, 봄에 오지 못했고 부모님 뜻대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으니 이제 ‘혼자 있고 싶다’며 단절을 통보하고는 행하니 가벼웠다고 한다.

이에, 쇼크를 받은 스콧 씨가 상심으로, 고통스러워한다며 조엔은 외로움을 내비친다. 나는 조엔의 복잡한 심리 상태의 통로에 들어와 미로에 갇힌 느낌이다. 자신의 불꽃을 만들어 보여 줄 베이스 불꽃을 원했던 정념(正念)의 여인 데이지, 수재였던 아들의 일탈이 안타까운 귀부인 조엔 사이가 더욱 요원해 보인다.

부모와 연락을 끊은 조는, 데이지에게 가지 않은 이유로 자의식이 강한 데이지가 조를 거부할 걸 알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진희 네가 왜 생각이 나며 그리운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게 보내왔다. 메일을 읽으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었다는 두려움에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지난 겨울 구입한 자주색 단추와 벨트가 달린 데님 셔츠 드레스를 찾아 걸쳤다. 그 옷을 내게 건네며 상대를 압도하는 서기(瑞氣) 어린 신비스러운 그녀, 나를 응원하던 데이지가 내 옆에 있는 느낌에 나는, 내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던 희미하나마 존재감 깊었던 조의 그림자를 애써 지웠다.

조의 잠행이 시작되고, 내가 데이지를 방문했던 것과 우호적인 것을 간과한 조엔은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데이지에 관한 소소한 일에도 “왜 그렇게 말하지? 너가 그리 말하니 어쨌든 유감스러워.” 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말수가 적어졌고, 우리 집으로 건너오던 일도 뜸해졌다.

가을이 무르익은 4월 16일 수요일 이른 아침에 “스콧, 스콧...” 조엔이 스콧 씨를 찾는 소리로 앞마당이 술렁거렸다. 전날 밤, 남아있던 와인을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조엔은, 새벽녘 옆자리에 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평소에도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것을 알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녀가 거실로 나왔으나 스콧 씨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불안한 예감에 나를 찾아온 조엔과 함께, 그녀 집안의 문을 다시 열어 확인하고 조엔의 비밀 정원을 살폈으나, 새벽의 순수에 젖은 초록의 느슨한 평화로움만 가득할 뿐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원 뒤쪽으로 내려가, 어둑한 와인 저장고의 도어록에 손을 얹으려던 조엔이 멈칫하더니 그대로 얼어붙는다. 미세하게 벌어진 문짝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녀를 젖히고, 내가 힘껏 문을 밀쳤다. 축수 낮은 전등 아래, 잠옷차림의 스콧 씨가 가슴을 부여잡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그의 무릎 아래에는, 샤도네이 한 병이 텅굴고 있었다.

“스콧! 여기서 뭐하고 있어?”

조엔이 급히 스콧 씨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으나, 그의 팔이 축 처진다. 떨리는 손으로, 000 응급 다이얼을 눌러 구조를 요청하고 털썩 창고 바닥에 주저앉은 나는, 조엔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차가운 스콧 씨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걸 지켜보았다. 멀리서 들리던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멎었다. 사망을 확인한 구급요원들은 유명을 달리한 스콧 씨를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부검결과, 스콧 씨가 와인 저장고에서 허리를 굽혀 하단부의 와인 병을 들고 일어서다 심정지가 온 것으로 판명이 났다. 급작스런 참사에, 조엔의 충격이 클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놀랍게도 그녀는 하루 만에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남편이 고통 없이 떠났고, 또한 간병의 부담을 주지 않고 떠났으니, 나는 그걸로 행복하고 감사하군요. 죽음이란 결코 끝이 아니고 또다른 세상으로의 시작이기에… 이제 스콧을 기쁘게 보내 줄 거예요.”

장례식을 앞두고, 조문을 하러 방문한 이웃들에게 조엔은 상류층의 고급 영어를 구사하며 품위 있게 말한다. 의연한 조엔의 태도를 보며, 앞으로 그녀와 나의 관계가 또 다른 정점으로 치닫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제 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국립 갤러리 야외무대 광장에는, 장례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고인을 기리는 지인 및 정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로 넘쳐났다. 고인의 손자 손녀들은, 현악 4중주의 힘찬 행진곡을 연주하여, 할아버지의 하늘나라 여정을 환송한다. 조엔의 기획대로 예식은 시종 밝은 연주회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때 검은 정장 차림의 조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보인다. 자신의 잠적 후, 일어난 부친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멍한 표정이다. 늦게라도 참석한 그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고개를 떨군 그와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나의 메일을 통해, 부친의 부고를 전해 듣고서야, 장례 준비로 분주한 조엔에게 연락을 해왔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자책하며, 장례식에 데이지의 자녀들과 동행하고자 했으나, 완강한 조엔의 뜻을 꺾지 못하고 혼자 참석한 것이었다.

장례식 참석을 거부당한 조의 자녀들은, 진다바인 검츄리 숲에서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 바람결에 실려 보내겠다’고 했다는 말과, 자신은 뉴질랜드로 떠나 늦가을 바람이 데려다주는 대로 살아가겠노라는 조가 보낸 메일이 나의 노트북에 들어와 있었다.

오랜만에 나타난 그를 보자, 삼 년 전 일들이 꿈속처럼 혼돈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아려왔다.

꽃다발에 쌓인 운구행렬이 갤러리를 떠나, 고인이 살던 집 안팎과 골목길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장지로 떠날 때였다. 서걱거리는 바람 한 줄이 꽃은 지고, 초록 앞만 무성한 자카란다 나뭇가지를, 휘감고 내려와 운구 차량을 스치고 사라지는 환영(幻影)에 현기증이 일었다.

“아, 안 돼. 후우~”

나는 심호흡을 길게 내뿜으며 천천히 앞차를 뒤쫓아 장지로 출발했다. 장지에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리며, 세속을 떠나 자유를 찾아가는 영혼의 명복을 빌었다. 유독, 새파란 가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아름답기만 한, 한낮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주유소에서 주유구를 가득 채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검은색 정장을 벗어 버렸다. 황급히 데님 드레스를 찾아 걸치고는 자주색 벨트로 허리를 힘껏 졸라맨 후, 노트북의 전원을 켰다.

웹사이트에 나를 대신할 'STUDIO JHIN'의 디자이너 구인광고를 올리고, 한 달 후에 출발하는 뉴질랜드 항공 표와 오늘 밤 묵을 진다바인 호텔을 예약했다. 간단한 옷가지를 챙겨 가방에 담고, 밖으로 나온 나는 시동을 걸었고. 밤이 늦기 전, 진다바인에 도착하기 위해 M31 하이웨이에 진입했다. 곳곳에 설치된 과속 카메라에 잡히지 않게, 나는 시속 110km 속도계를 주시하며 페달을 밟는다.

한겨울의 외출

김미영 (스웨덴)

은성은 어렴풋이 잠에서 깨 창이 있는 쪽으로 몸을 뒤척였다. 알람시계가 아직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벽 다섯 시 전일 것이었다. 커튼 자락 사이로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방안으로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은성은 침대 옆에 놓인 탁자 위로 손을 더듬어 어젯밤에 작동해 두었던 시계의 알람 버튼을 눌렀다. 바깥바람을 한 번 쐬기 위해서라기에는 너무 이른 기상이었고 귀찮은 외출이었다. 은성은 자신의 체온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몸을 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을씨년스럽게만 느껴졌다.

정순은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는 작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로 살지 말자.”고 말했다. 그 말이 사뭇 비장하게 들려 은성은 정순의 말끝에 짧게 웃었다.

“드라마 엑스트라로 한 번 출연하면 강물로 도도하게 흐를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한 고인 물이야. 은성이 네 처지는 더 그렇고.”

“내 처지가 뭐?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라서?”

“뭘 꼭 그렇다기보다는… 미란 씨의 말에 네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네가 마치 움푹 파인 물웅덩이에 갇힌 방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미안해,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 말의 요점은 나랑 같이 엑스트라를 해야 한다는 거야.”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지인에게서 한국인 보조 출연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정순은 자신이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은 물론 은성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놓고는 관심 없다는 은성을 며칠 내리 졸라댔다. 처음에는 설득의 내용이 단순히 언제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겠냐는 것이었지만 미란과 만남을 가진 후에는 물웅덩이와 방개 운운하며 생활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단언했다. 결국 은성은 정순과 함께 드라마 제작 사무소로 찾아가 조연출인 화니를 만나고 촬영에 필요한 의상과 시간, 장소 등에 관한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드라마 출연을 위해 직장에 휴가까지 미리 신청해 놓았던 정순은 촬영 전날 오후부터 겨울철에 유행하는 장염에 걸려 집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고 정순이 강조하던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나 흥분 같은 것이 없었던 은성은 혼자 겨울 새벽의 뿌연 안개를 헤치며 먼 곳의 촬영장을 찾아가야 했다.

은성은 욕실 천장의 전등에서 내리비치는 불빛에 눈살을 찌푸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은성은 아무리 카메라가 머물지 않을 얼굴이라고 해도 다음 날 새벽에 외출할 상황인데도 전날 밤에 굳이 라면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던 자신을 한심해했다. 한밤중에 라면이나 국수를 먹고 싶은 증상이 공복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허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은성은 번번이 면의 유혹을 끊어 내지 못했다. 은성은 부어오른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몇 번 두드렸다. 그리고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눈 아래에 대고 눈꼬리 쪽으로 밀어내면서 눈 밑을 팽팽하게 당겨 보았다. 혹시라도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면 큰일이었다. 은성은 미란 때문이 아니라면 드라마 출연에 대해 정순에게 설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또 한 명의 또래가 스톡홀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정순과 함께 미란을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미란은 드러내놓고 상대를 관찰하는 눈빛으로 은성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김은성이란 이름을 홍마담에게 몇 번 들었어요. 제가 홍마담 친구거든요.”

미란이 다른 누군가에게서 은성의 이름을 들었다고 했다면 은성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들었는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홍마담에게서

들었다면 그건 얘기가 달랐다. 홍마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오래전 불쾌감이 시간의 두터운 층을 뚫고 스멀스멀 뻗어 나와 은성의 얼굴을 달구기 시작했다. 홍마담을 보지 않고 지낸 지 거의 십 년이 되어 갔지만 그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여전히 경기를 일으킬 만큼 끔찍한 것이었다. 그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은성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지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은성은 스스로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툭 던졌다.

“뭐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자주 말했는데 매번 같은 얘기였어요. 김은성 씨가 여기 어떤 조직에서 일하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면서요? 김은성 씨가 남의 말 안 듣다가 조직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얘기죠.”

정순의 입에서 짧게 탄식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지만 미란은 꼬고 앉은 다리를 까딱거리며 여전히 은성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정순이 손을 뻗어 탁자 위에 올려진 은성의 손목을 슬그머니 잡았다. 은성은 정순에게 손목이 잡힌 채 경직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거 무척 오래전 일인데.”

미란이 뜻하고 웃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중요한 사안을 잊어버리겠어요?”

정순이 은성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지만 은성은 이미 손목에 가해지는 힘의 의미에 순응할 마음이 없었다.

“내가 했던 일은 시스템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때 꽤거리 몰고 다니면서 나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묵사발 내놨으면 됐지 뭐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떠들고 다닌대요? 스웨덴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홍마담에 대해 말하면서 미친년이라고 하길래 ‘표현 참 심하다’고 했는데 내가 직접 겪어보니 그녀는 진정 미친년이더군요. 그리고 당신, 친구는 개불 딱 봐도 따까리구만.”

정순이 은성의 손목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으하’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정순은 미란이 자리를 떠나기 전 홍마담에게 은성의 거친 표현을 전하지

말이 달라는 당부를 했다. 그리고 은성은 얌전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본디 한성깔이 있는 인물인데 그 점을 미란이 건드린 만큼 너그러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카페에 돌만 맥없이 남게 되었을 때 정순은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말을 아무 감정 없이 툭툭 내뱉는 미란이나 케케묵은 옛날 일을 바로 어제 일처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흥마담이나 그런 쓸데없는 말에 새삼스레 파르르 떨며 혈기를 참지 못하는 은성이나 모두 재미가 결핍된 사람들로 어찌 보면 조금씩 아픈 사람들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재미와 관련된 긴 잔소리 끝에 결국 드라마 출연에 대한 은성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은성이 엄마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방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밤 동안 갇혀 있던 고요를 흠뻑으며 엄마가 말했다.

“지금 나가는 거야?”

은성이 누워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침대에 걸터앉았다.

“내가 시끄럽게 해서 깨셨나 봐.”

엄마가 팔을 뻗어 침대 머리말의 조명을 켜 다음 이불을 가슴에서 조금 밀어냈다. 은성이 엄마의 등 뒤로 팔을 뻗으려 했지만 엄마는 가볍게 손사래를 친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 가서 촬영 잘해라. 옛날에 네 꿈이 배우 아니었니?”

은성이 작게 소리 내어 웃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어린이들의 꿈이 배우나 가수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찍는 건 그냥 뒷모습만 잠깐 나오는 거래. 얼굴이 훤히 다 나오면 당연히 못한다고 했지.”

”하면 하는 거지 당연히 못하기는.”

은성이 손을 들어 엄마의 이마를 덮고 있는 머리카락 몇 올을 천천히 뒤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오늘은 아침하고 점심을 엄마 혼자 드셔야 하는데…”

“밥 혼자 먹는 게 무슨 대수라고. 너는 나 노인네 취급하면서 내 옆에 붙어있을 생각 그만하고 밖으로 자꾸만 나가. 그래야 기회도 얻고 그러지.”

“무슨 기회?”

엄마가 은성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다.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오늘은 엑스트라지만 내일은 스타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야.”

은성은 마흔다섯 살의 딸로서 엄마에게 어쩐지 좀 미안한 심정인 채로,

“무슨 스타 같은 말씀이야?”라고 말하며 공연히 하하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은성은 집에서 출발한 지 사십 분이 지난 후에야 스톡홀름 중앙역에서 외곽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를 수 있었다. 기차가 여러 역을 거치는 동안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종점이 가까워지면서 객실은 한산해졌다. 종점까지 마지막 구간은 국적을 짐작할 수 없는 한 무리의 동양인 남자들과 은성만 남아있었다. 남자들은 쉬지 않고 웃고 떠들었다. 은성이 종점인 기차역에서 내려 출구를 찾아 두리번거릴 때 함께 내린 무리 중 하나가 은성에게 다가와 암호를 대듯 오늘 촬영할 드라마의 이름을 말했다. 은성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그가 손을 들어 멀리 버스 정류장 팻말이 보이는 방향의 출구를 가리켰다. 한결같이 두꺼운 점퍼 차림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앞에서 걷던 남자들은 번갈아 뒤를 돌아보며 은성이 제대로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주변에 건물 이 없어서인지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왔고 매운 바람 때문에 은성의 턱이 가슴에 파묻힐 듯 움츠러들었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자 정류장 팻말 근처에서 서성이던 여자 하나가 은성과 남자들을 향해 드라마 이름을 크게 외쳤고 추위에 떨며 걷던 사람들은 여자가 승합차의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차에 뛰어올랐다. 날씨가 매섭게 추운 데다 낮은 상황들이 불편하기만 해서 은성은 남자들 뒤에서 마지막으로 승합차에 오르며 정순에 대한 원망의 말을 낮게 뇌까렸다.

촬영 장소인 성은 스톡홀름과 주변 지역의 다른 성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었지만 넓은 정원의 한쪽은 산책로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은 골프장으로 이어져 시야에 가리는 것 없이 전망이 훤히 트여 있었다. 성의 입구 계단에는 이미 촬영을 시작한 사람들이 정장 코트 차림으로 열을 맞춰 서 있었고 빨간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장비를 지닌 사람들과 계단에서 있는 배우들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까지 차를 운전해 온 여자가 주뻗거리고 있는 은성과 남자들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으라고 말했다. 은성이 계단을 오를 때 꼴지머리를 한 젊은 남자 하나가 무리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넸다.

“아니 여기는 웬일이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갑작스러운 한국어 인사에 놀란 표정을 지었던 은성이 곧 밝게 웃으며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남자의 표정은 이른 겨울 아침의 바람과 추위에 아랑곳없이 무척 환하고 즐거워 보였다. 빨간 코트의 여자가 통성명을 하고 있는 꼴지머리의 남자와 은성을 바라보다 은성과 눈이 마주쳤을 때 무척 반가운 내색을 했다. 은성은 승합차를 함께 타고 온 무리와 함께 열려 있는 성의 현관문을 통과해 내부로 들어섰다. 성의 입구에서 문 하나를 더 지나서 들어선 거실의 바닥에는 화려한 꽃무늬의 붉은색 양탄자가 넓게 깔려 있었고 한쪽 모퉁이에 꽃잎 모양의 조각들을 정교하게 붙인 흰색 벽난로가 바닥에서 천장으로 이어져 있었다. 현관문과 방문 두 개가 모두 활짝 열려 있어 실내라고 해도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와 출기는 마찬가지로였지만 금색과 붉은색 그리고 갈색의 장식이나 가구 때문에 방 안은 어쩐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은성은 거실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왕가에 속해 있는 성답게 품위와 위엄이 느껴지는 이곳이 은성은 금방 좋아졌다. 은성은 정순이 말한 것처럼 이 성에서 한나절 머물면서 공짜 점심을 먹고 커피도 마시며 함께 노닥거릴 수 있었으면 무척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관에서 양옆으로 연결되는 방들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커피와 다과가 마련된 작고 아담한 왼쪽 방으로만 모여들었다.

은성은 다른 사람들처럼 커피포트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들었다. 하지만 기차에서부터 내내 함께 왔던 남자들이 방 안에 놓인 몇 개의 테이블에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저희들끼리 스웨덴어로 잡담을 했으므로 은성은 두 개의 작은 방을 지나 사면의 벽이 푸른색의 실크 벽지로 둘러싸인 방으로 들어섰다. 은성이 벽에 걸린 왕가의 초상화들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입구 계단을 오르면서 마

주쳤던 빨간 코트의 여자가 빠른 걸음으로 은성에게 다가왔다. 작은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자를 마주 보고 섰을 때 은성의 머릿속에 그녀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갑자기 떠올랐다. 은성이 당신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었노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럴 틈도 없이 여자가 매우 급하고 빠른 스웨덴어로 은성에게 물었다.

“스웨덴어와 영어 중 뭐가 더 편해요?”

은성이 대답했다.

“스웨덴어요.”

여자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레나예요.”

“은성입니다.”

레나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잠깐 두리번거리다 말했다.

“당신이 오늘 맡게 된 역할은… 저기 보이는 저 남자.”

레나가 가리키는 손끝이 자신을 향하는 듯하자 남자가 웃으며 손을 흔들며 보였다,

“저 남자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레나가 코트 주머니에 꽂혀 있던 종이봉치를 꺼내든 후 빠르게 몇 장 넘겨 은성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이 부분을 오늘 은성이 연기해야 하는 거죠.”

은성이 레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뒤늦게 깨닫고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놀란 눈으로 레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제가 연기를 해야 한다고요?”

스태프 한 명이 방으로 뛰어 들어와 레나에게 급한 듯 말을 건넸고 레나는 은성의 물음에 대한 대답 없이 스태프와 함께 재빨리 방을 나섰다. 정순이 함께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노라고 마지못한 걸음을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연기를 해야 한다니. 은성은 전날 밤에 라면을 먹고 부은 얼굴로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국영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내보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원서를 쓰면서 ‘연극영화과에 지원해 보면 어떨까’ 잠깐 생각한 적이 있고, 영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에 나왔던 나이 오십의 배우 지망생 오미희의 대사,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 학원에나 다녀야지.”가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영화의 대사들 중 가장 가슴에 깊게 새겨진 대사였다 하더라도 이진 안 되는 일이었다.

은성은 레나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레나를 찾아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레나는 현관문 안쪽에서 작은 기계들을 올린 판을 띠처럼 동그랗게 허리에 두르고 윈드 스크린이 씌워져 있는 기다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성은 레나와 음향 담당인 것 같은 남자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좀처럼 틈을 찾을 수 없자 대신 조연출인 화니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찾아도 눈에 띄지 않던 화니가 갑자기 현관 중앙에 불쑥 나타나 다른 모든 방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진 휴대폰을 모두 꺼 주세요.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진을 찍는다? 절대 안 돼요.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기 전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사진 올리고 드라마 내용을 좀 쓰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말을 마친 화니가 전원을 끄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드는 사람들을 빠르게 지나치며 은성에게 곧바로 다가왔다.

“레나에게서 이미 얘기 들었지요? 오늘 두 명의 보조 출연자가 빠지는 바람에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한 명은 배탈이 났다고 하고 또 한 명은 집합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두절 상태예요. 그중 한 사람은 대사까지 있는데 말이예요.”

은성은 한국인 엑스트라 중에 한 명은 대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화니의 사무실에서 들었었다. 그게 누군인지 이름을 묻지는 않았지만 정순은 대사가 있는 그 사람이 부럽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 성은 이미 예약해 두었고 배우들 스케줄도 잡아 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은성이 오늘 한 번은 머리를 묶고, 한 번은 머리를 풀고, 옷을 갈아입어 가면

서 두 사람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한 번은 거의 뒷모습만 나오니까 문제없어요.”

화니가 말을 마치고 나서 입을 크게 벌리고 환하게 웃었기 때문에 은성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난감한 표정만 지어 보였다. 화니는 은성을 남겨두고 어딘가로 행하니 갔다가 손에 시나리오를 들고 금방 다시 나타났다. 화니가 은성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시나리오를 몇 장 넘겼다.

“음… 여기 바로 이 부분. 나쁜 놈. 우리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이걸 그냥 한국어로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스웨덴어는 자막으로 나갈 거니까.”

화니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금 전에 레나가 가리켰던 남자를 다시 손끝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바나나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서 커피포트를 눌러 종이컵에 커피를 받던 남자가 은성과 화니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리고 잔뜩 화가 난 표정을 지어야 하니까 음… 이렇게 말이에요. 나 보세요. 이렇게.”

화니가 최대한 눈을 부릅떠 보이며 눈썹을 치켜세울 때 은성이, “저기 잠깐만요.” 라고 말했다. 화니가 은성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은성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오늘 은성마저 없었다면 우린 끝까지 패닉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은성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잊을 뻔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한 마디를 더 보탤다.

“은성이 이제 두 사람 역할에 대사까지 하게 되었으니 처음 얘기했던 출연료의 두 배 이상 받게 될 거예요.”

화니의 분주한 시선은 이미 다른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로 향했고 은성이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화니는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레나와 화니가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던 남자가 바나나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은성에게 다가왔다.

“이동환입니다. 원래 제 파트너는 지금 연락두절 상태라고 하더군요.”

은성은 동환이 말을 걸어오자 반가운 내색을 했다.

“아, 한국분이 또 계셨네요. 사실은 기차에서부터 봤는데 사람들과 스웨덴어로 워낙 유창하게 대화하시길래 아닌 줄 알았어요.”

동환이 큰 소리로 웃었다.

“하하. 제가 한국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온 지는 한 십 년 됐습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왔으니까요.”

은성이 진심으로 놀랍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보다 나중에 오신 건데 스웨덴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스웨덴어를 잘하려고 집에서도 스웨덴어로만 대화했거든요. 아내는 아이가 한국어를 못하는 게 제 탓이라고 합니다.”

동환이 큰소리로 웃던 끝에 느닷없이 쓸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동환의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을 의아해하며 잠시 머뭇거리다 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국어로 화를 내야 한다는데 드라마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막 해도 되는 걸까요? 전체 시나리오를 읽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동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내용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레나가... 그녀가 시나리오 쓰고 감독하면서 배우도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레나가 쓴 드라마 시리즈를 다 봤거든요. 다른 나라 이미지 훼손하고 그럴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동환이 대단한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주위에 한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은성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들리는 애기로는 이 드라마 말고 레나의 다음 작품에 한국 사람 한 명이 시종일관 비중 있게 나올 거라는군요.”

계단 장면을 찍기 위해 건물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달음박질하듯 추위를 피해 실내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너나없이 다과가 차려진 방의 커피포트 앞에 줄을 섰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뒤늦게 들어오며 줄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레나가 은성에게 다가와 말했다.

“커피 휴식 후에 바로 촬영에 들어갈 거예요.”

레나가 음향 담당인 남자를 향해 가고 동환이 남자 엑스트라가 모여 있는 자리로 갔을 때 계단에서 은성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이름이 두식이라고 밝혔던 콩지머리의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 은성에게 다가왔다. 두식은 무척 반가운 표정으로 은성에게 말을 건넸다.

“아니 그동안 왜 그렇게 꼼짝을 안 하고 사셨어요?”

은성은 어디에서 마주쳤었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 은둔에 가까운 그녀의 생활을 지적하는 것 같은 말을 하자 조금 불편한 기분이 되었다. 두식의 질문에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은성이 빨강계 얼어버린 두식의 두 뺨과 코끝을 보며 물었다.

“바깥 날씨가 무척 추운데 괜찮으셨어요?”

두식이 코끝을 스스 문지르며 말했다.

“이까짓 추위 별거 아니에요. 한국인 조연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나서서 도와줘야지 어찌겠어요. 오늘 홍마담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김은성 씨도 오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두식을 향해 애써 부드럽게 웃던 은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오늘 불참한 두 명 중에 한 명은 정순이니 대사가 있다는 다른 한 명은 홍마담인 셈이고 그렇다면 은성이 오늘 출지에 떠맡은 역할은 애초에 홍마담의 것이라는 얘기였다. 은성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홍마담이 이 성에 오지 않았기 망정이지 혹시 이곳에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일이었다. 은성은 홍마담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자신이 맡고 있던 일에서 스스로 내려온 이후로 홍마담이 나타날 만한 자리는 되도록 피해왔었다. 홍마담이 워낙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인물이다 보니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면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피해야 했다. 은성은 오늘 홍마담의 불참은 하늘이 도운 일이라 생각했다. 음향 담당인 남자가 붉은 마이크를 한쪽 벽에 세워 두고 여전히 허리둘레에 장비들을 두른 채 한 손에 마이크 송신기를 들고 은성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노아라고 소개했다.

“블라우스 안으로 무선마이크를 넣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은성은 블라우스를 스커트 밖으로 빼낸 후 몸수색을 당하는 사람처럼 팔을 양 옆으로 벌렸다. 노아가 스커트 허리단에 마이크 송신기를 꽂고 실오라기 같은 마이크 줄을 블라우스 속으로 넣어 가슴팍까지 올린 후 테이프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서 블라우스 밖에서 마이크가 보이는지 확인했다.

“됐습니다.”

노아가 장비를 챙기는 동안 레나가 은성에게 다가와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다. 은성과 함께 기차와 승합차를 타고 왔고 오랜 시간 테이블에 앉아서 잡담을 나누던 남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방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끼고 둘씩 셋씩 모여 서서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레나는 동환에게 은성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서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은성은 어쩐지 사람들이 자신만 보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매우 낮은 얼굴 하나가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흥마담이었다. 흥마담은 별게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앞으로 고꾸라질 것처럼 허리를 숙이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은성의 눈앞으로 빛이 쏟아져 내리듯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레나가 은성을 향해 말했다.

“내가 사인을 보내면 바로 대사를 하는 거예요. 화난 표정 잊지 말고.”

레나와 몇몇 스태프들이 구석으로 가더니 일제히 쪼그리고 앉아 스태프 한 명이 들고 있는 카메라를 들여다보며 말을 주고받았다. 허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무릎을 짚은 채 거친 숨을 내쉬던 흥마담이 허리를 일으키더니 레나와 스태프들에게 다가갔다. 은성의 눈길이 흥마담의 움직임에 그대로 따라갔다. 흥마담이 스웨덴어로 “잠깐!”이라고 외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흥마담을 향했다. 그러나 그 순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느 곳에 있는지 보이지 않던 화나가 번개같이 나타나 흥마담을 감싸 안듯 잡고는 재빨리 방을 나갔다.

은성은 레나가 지체하지 말고 자신에게 사인을 보내주기 바랐다. 은성은 레나로부터 연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해 왔던, 부기가 빠지지 않은 얼굴에 대한 걱정과 한 번 찍힌 영상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자

신에게서 하얗게 증발해 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잘해보고 싶다는 느닷없는 의욕이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은성은 흥마담이 금방이라도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와, ‘너 이 촬영 취소야!’라고 외칠까 봐 불안하기까지 했다. 스태프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촬영에 필요한 사람만 남고 모두 방에서 나가 달라고 말했다. 두식이 여전히 커피잔을 손에 든 채로, “자 그럼, 건투를 빕니다.”라고 말하고는 사람들과 함께 방을 나섰다.

은성과 마주 보고 서 있던 동환이 씩 웃으며 말했다.

“화를 내야 한다니까, 최근에 화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면 되겠네요.”

은성은 떠올리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방금 흥마담이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은성은 흥마담을 향한 자신의 감정에 집중했다. 레나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지금!”이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은성이 눈에 힘을 주고 동환의 얼굴을 아래위로 훑으며 입꼬리를 일그러뜨렸다. 뺨에도 약간의 경련이 일었고 목소리도 떨려 나왔다.

“야, 이 나쁜 놈아!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

카메라를 들여다보던 레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퍼펙트!”

레나가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동환이 뜨악한 표정으로 은성을 바라보았다.

“대사를 엄청 늘리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실감 나게 하실 줄이야.”

은성이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너무 부끄럽네요.”

레나는 은성에게 다른 각도에서 세 번 더 찍는 동안 조금 전에 했던 것과 같은 완벽한 표정과 말투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레나는 은성이 한 번 씩 연기를 할 때마다 흡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 번의 장면을 모두 찍고 났을 때 은성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긴장과 흥분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자신의 몸 안에서 춤을 추며 분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의 그녀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 된 듯한 엉뚱한 기분도 들었다. 흥마담을

향한 묵은 분노가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되고 폐기 처분되는 것도 묘하면서 통쾌한 일이었다. 노아가 은성에게 다가와 스커트 허리에 채웠던 마이크 송신기를 떼어내며 전에도 연기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촬영을 위해 닫혀 있던 문이 열리자마자 홍마담이 뛰어 들어와 레나에게 다가갔다. 홍마담은 레나에게 자신이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레나는, “아, 그렇군요. 그것 참 유감이에요.”라고만 대꾸하고는 스태프들과 서둘러 방을 나갔다. 레나를 따라 나갔던 홍마담이 금방 다시 돌아와 은성 앞에 섰다.

“남의 것을 뺏으니 기분이 좋아요?”

은성이 여전히 얼굴이 빨그스레하게 상기된 채로 홍마담을 건네다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네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내가 들어왔을 때 바로 나한테 넘겼어야지.”

은성은 홍마담을 대하는 자신의 여유 있는 태도를 스스로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말을 이었다.

“홍마담, 우리 지금 꼬박 십 년 만에 다시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이럴 게 아니라 인사를 먼저 나눠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니 정말 이 여자가!”

은성은 촬영이 있었던 방을 한 번 둘러보고 나서 여전히 ‘아니 이런, 뭐 이런’ 하며 떠들고 있는 홍마담 앞을 지나 천천히 방을 나갔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외식업체에서 배달해 온 도시락과 과일, 음료 등을 들고 성내에 흩어졌다. 은성은 동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맞은편 자리에 도시락과 굴 한 개를 올려놓고 가방을 두었던 푸른 실크 벽지의 방으로 건너갔다. 은성은 가방을 들고 그대로 방을 나오려다 잠시 서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은성의 휴대폰에 화장이 없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앉아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려 보이는 정순의 사진이 도착해 있었다. 은성은 짧게 답을 써 보내기로 했다.

‘나 사십 대 중반에 드디어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

답을 쓰면서 은성은 혼자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은성이 도시락을 두었던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테이블 자리에 빈틈없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동환의 옆자리에 앉아서 그럴 연어가 들어 있는 파스타를 먹고 있던 레나가 은성을 보자 오늘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동환이 레나의 말을 얼른 받아, 은성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출연시켜 주라고 했다. 연기를 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대체로 예민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 없던 유명한 코미디언이라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슬쩍 은성을 보았고 레나는 동환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식사를 마친 레나와 노아가 빈 도시락통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홍마담이 서둘러 일어나 그들을 따라갔다. 식사를 마치고 사과를 베어 먹던 코미디언이 은성에게 평소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다.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비교적 자유롭고요.”

은성은 그녀가 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식사 시간 내내 동환과 작은 소리로 대화를 나누던 두식이 은성의 말끝에 느닷없이 은성과 함께 살고 있는 은성의 엄마는 무척 유능한 사업가였고 지금까지도 상당한 재력가일 것이라는 말을 했다. 코미디언이 짧게 ‘아하’라고 대꾸하며 살짝 굳어버린 은성의 얼굴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코미디언이 빈 도시락통에 먹다 남은 사과와 물컵을 담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두식도 파스타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음식이 삼 분의 일쯤 남은 도시락통을 들고 쓰레기통이 있는 거실 쪽을 향해 갔다. 은성과 둘만 자리에 남게 된 동환이 의자에 기댄 등을 길게 늘이며 시무룩해진 표정으로 은성을 건네다 보았다.

“부유한 어머니 덕분에 사는데 별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그럼 오늘은 심심풀이로 나오신 건가요?”

“심심풀이가 아니라...”

은성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책로에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마주 보며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가로수 사이로 멀리 보이는 바다가 겨울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흐르기 위해서 나왔어요.”

동환이 탁자 위에 내려놓았던 포크를 다시 집어 들고 도시락통에 남아있던 파스타 하나를 공연히 포크 끝으로 으깨며 말했다.

“흐르기 위해서라... 그말 듣기 좋군요. 전 석 달 후면 혼자 한국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안되더라고요. 아이하고는...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덜 들 거예요. 제게는 아마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흐르는 걸 겁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동환과 두식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스톱홀름을 향해 출발했다. 은성은 성 안을 돌아다니거나 간식을 먹다가 원래 자신의 역할이었던 뒷모습을 보이며 앉아 있는 장면을 찍기 위해 화니가 준 머리 끈으로 머리를 동그랗게 묶고 역시 화니가 준 스웨터를 걸친 후 정순의 대역을 하기로 한 홍마담과 나란히 앉았다. 오후 세 시 반이 되었을 뿐인데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은성은 촬영팀이 올 때까지 한참 동안 홍마담과 가까이 앉아 대기해야 했다.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은성과 홍마담은 웃는 얼굴을 하고서 서로를 향해 말의 창을 거침없이 던졌다. 홍마담은 은성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미란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했고 은성은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렇게라도 전달이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홍마담은 이것을 찍기 위해 직장에 휴가도 냈는데 사고로 길이 막히고 휴대폰은 먹통이 되고 역할은 엉뚱한 데로 갔으니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라고 했고 은성은 재수 좋은 날 제대로 다시 만나볼 의사가 있는데 홍마담은 어떠냐고 물었다.

홍마담은 뒷모습 촬영이 끝나자마자 화니가 나눠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는 행하니 가버렸고 은성은 사인을 하고 외투를 입고 가방을 챙겨 들고도 선뜻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주위를 서성거렸다. 출연자들이 모두 가고 스태프들만 남아 뒷정리를 할 때 은성을 본 레나가 은성의 곁으로 다가왔다. 은성이 먼저 말을 건넸다

“오늘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은성에게 손을 내밀며 레나가 말했다.

“나도 무척 고마워요.”

레나가 여전히 은성의 손을 잡은 채로 잠시 뜬을 들이다 다시 말했다.

“음... 우리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것 같아요.”

은성과 레나의 곁을 지나가던 화니가 은성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다.

차창 밖으로 밤바다 위에 길게 누운 도시의 불빛이 느긋하게 일렁이며 스톡홀름역이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오랜 시간 기차에 앉아 있었지만 은성에게는 스톡홀름역까지 오는 시간이 순간인 것만 같았다. 은성의 머릿속에 촬영장에서 있었던 장면과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이 내내 어지럽게 섞이며 뚝뚝 떠다녔다. 그리고 그 어지러움의 중심에는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것 같다는 레나의 말이 있었다. 그것이 단지 친절한 빈말일 뿐이라 생각하면서도 은성은 그 말을 떠올리며 몇 번이고 미소지었다. 은성이 내릴 채비를 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어깨에 두르고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폰이 은성의 손끝에서 요란스레 떨어졌다. 은성이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할로.”

수화기 너머로 활기찬 화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성, 은성에게 들려줄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 결정이 너무 좋은데 이 일이 은성에게도 아주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은성은 자리에 그대로 선 채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대었다. 그리고 화니가 전해 줄 소식이 무엇인지 듣기도 전에 펄쩍 뛰어오른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써 ‘에이 설마, 설마’ 하며 손을 가슴에 살짝 얹었다. 은성은 어쩌면 자신이 정순에게 한턱을 단단히 내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쩌면... 엄마에게 오늘 아침까지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엄마의 말처럼 스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말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은성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화니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M. I. A.

이지혜 (미국)

1

새로 이사 온 집에서의 짐 정리가 대충 마무리되자 미영은 필립에게 뉴욕타임즈를 사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신문 말하는 거야?”

필립은 의외라는 듯이 물었다.

“응. 퇴근하는 길에 터미널에서 매일 좀 사다 줄 수 있어? 지난번에 보니까 가판대가 많더라구.”

“차라리 어플을 설치하는 건 어때? 요즘 누가 종이 신문을 본다고. 그거 사려고 시간 뺏기고 그러느니 그냥 어플로 결제해서 읽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당신이 정말 읽고 싶다면 말야.”

매일 신문을 사오는 것이 굉장한 현신이라도 되는 듯 필립이 난색을 하며 말했다. 소호의 한 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필립은 매일 뉴저지에서 맨해튼의 소호까지 출퇴근을 했는데 두 시간 반씩 길에 시간을 허비하고 나면 녹초가 되었다. 그런데다 신문을 사기 위해 가판대에 들러 계산을 기다리면서 초과될 시간을 생각하니 영 귀찮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좀 부탁할게. 핸드폰으로 보면 눈이 아파서 그래.”

필립은 말없이 남은 스크램블 에그를 포크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갔다. 남은 베이컨 조각을 먹고 잔에 담긴 커피를 비웠다. 냅킨으로 입을 닦은 후 빈 접시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치우는 것은 미영의 일이었다.

“근데 당신 한국에서도 신문 읽었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필립이 물었다. 마치 한국에서도 안 보던 신문을 미국에서 읽으려는 미영의 모순적인 행동을 지적이라도 하듯이.

“당연하지.”

필립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어서 미영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네. 알았어. 있다가 퇴근하는 길에 사 올게.”

마지못해 알겠다고 한 필립은 현관 앞에서 미영과 가벼운 포옹을 나누고 집을 떠났다. 필립이 정작 뉴욕타임즈를 사 온 건 연거푸 이틀이나 잇고서 부탁한 지 삼 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는 모든 지 잘 잊었다. 미영에 대한 사소한 것들은 물론이고 본인이 무심코 어딘가에 둔 물건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필립은 미영을 추궁했다. 필립의 문제는 자신이 잘 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다. 그런 점은 둘 사이에서 쉽게 언쟁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소개를 통해서 만났고 작년에 한국에서 조출한 결혼식을 올렸다. 미영은 초혼이었고 필립은 재혼이었다. 결혼하면 한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미영에게는 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둘 사이에 끓어오르는 열정적인 애정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은 충분했다. 걱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연애에 익숙했던 미영은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의 필립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다가 정갈하고 삼삼한 건강식으로 몸을 보양하는 기분이었다. 일 년간의 장거리 연애동안 필립은 단 한 번도 미영을 조바심 내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다. ‘결혼이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

면서 미영은 과거의 연인과의 사이에서 결혼에 목매던 자신을 자책했다.

필립은 민감한 기질을 가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더분한 편이었다. 소변을 볼 때 앉아서 봤으면 좋겠다는 미영의 요구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렇게 했다. 결혼 생활에 실패했던 이력이 있던 필립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경기도의 소도시에서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아래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온 미영의 배경과, 서울 변두리의 한 회사 인사팀에서 오랜 시간 일한 경력, 자신의 주장보다는 상대의 의견에 맞추려고 드는 그녀의 성격은 특히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녀에게는 일생을 안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날 서고 거친 느낌이 없었다. 어떤 것에도 욕심내지 않고 느긋하고 편안한 성격이 좋았다. 미영은 민들레 잎처럼 순하고 소박한 여자였다.

그들은 미영의 퇴직금과 결혼자금을 보태서 리지우드라는 동네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학군이 좋아서인지 높은 비중으로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필립이 출근을 하고 나면 미영은 방대한 시간 앞에서 길을 잃는 기분이 들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좋을지 막막했다. 그런 여유는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다가 운전에 익숙해지면서 행동반경이 아주 조금씩 넓어졌다. 그것은 미영이 미국생활에 적응해가는 속도와 비례했다.

미영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리지우드 기차역 앞의 스타벅스였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미영은 그곳에서 영어 이름을 만들었다. 커피를 주문할 때마다 직원이 이름을 물었고 직원은 미영이라는 발음을 어려워했다. 미영은 얼굴이 빨개진 채 모기 만한 소리로 스펠링을 알려주려고 입을 뻗었다.

“M.I…”

“It’s okay. Do you need a receipt?”

직원은 손사래를 치며 스펠링 따위에는 관심 없다는 듯 굴었다.

“No…”

미영은 다른 사람들 틈에서 커피를 기다렸다. 제시카, 애나, 롭 이름들이 차례대로 호명되었고 사람들이 웃으며 커피를 받아서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Small Ice americano!”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뻗주뻗 앞으로 나아갔다. 좀 전에 미영의 주문을 받은 여자가 미영을 향해 커피를 건넸다. 자신만 이름이 아닌 주문 내역으로 불린다는 게 어쩐지 자존심 상했다. 그래서 미영은 영어이름을 만들었다. 미아. 발음하기에도 쉬웠고 M.I.A 스펠링도 간단한 이름이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미영은 리지우드 기차역으로 향했다. 야외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꽤 오래 앉아 있었다. 오후 시간의 기차역은 늘 한산했다. 기차는 이십 분에 한 번씩 종소리를 울리며 승강장에 도착했다. 적게는 한 두 명, 많게는 열 명 가까이 기차에 타고 내렸다. 기차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제복을 입은 승무원이 플랫폼에 내려서 미처 타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했다. 한 번은 벤치에 앉아 있던 미영에게 이 기차를 탈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미영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노, 땡큐.”라고 말했다. 아임 파인이라고 했어야 했다. 미영은 두고두고 자신의 말을 곱씹었다.

미영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로 부터 알 수 없는 위축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자신이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쓸데없이 긴장하는 탓이라고 생각했다. 미영이 길거리에서, 스타벅스에서, 또는 기차역의 승강장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여유가 있었고 당당함이 느껴졌다. 행동이나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에서도 세련됨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어쩐지 동정심이 느껴지는데 비해 이곳의 노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동네를 통틀어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미영 혼자뿐인 것 같았다. 그러다가 오후 여섯 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준비했다. 미영의 유일한 일정이었다.

필립이 뉴욕타임즈를 사 온 다음 날, 미영은 신문을 가방에 넣고 스타벅스로 향했다. 미아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두툼한 신문안에 뻑뻑하게 실린 뉴스들이 마치 미영이 읽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속에 담긴 많은 뉴스를 읽어야 한다니.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미영은 설레었다. 신문의 1면에는 며칠 전 벌어진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에 표시해가며 읽어 내려갔다. 뻑뻑한 글씨와 쉽 없이 달려드는 모르는 영어 단어를 보고 있자니 눈이 피곤해졌다.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근처에서 익숙한 언어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여자 네 명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한국어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미영의 나이보다 약간 많거나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었는데 한껏 꾸민 차림이었다. 미영은 테이블에 올려둔 여자들의 명품 가방을 힐끔 쳐다봤다. 그리고 자신의 에코백과 뉴욕타임즈를 내려다봤다. 묘한 우울감이 들었다. 아이들 교육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자들의 대화를 무시하며 다시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에는 최근 실종된 가족에 대한 뉴스가 크게 실려 있었다. 브루클린에 살던 젊은 부부와 다섯 살 아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내용이였다. 기사에 집중해서 읽을수록 미영은 자신을 향해서 힐끔거리는 옆 테이블 여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럴수록 더욱 신문에 집중하는 척했다. 얼마쯤 지났을까.

“Excuse me.”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중 가장 의욕적으로 대화를 주도해나가던 여자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미영을 보고 있었다.

“네?”

미영은 한국말로 대답했다. 지금껏 여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던 것을 들어서 은연중에 튀어나온 걸 수도 있었지만 뉴욕타임즈씩이나 읽고 있는데 대화 몇 번에 미천한 영어 실력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어머. 한국분이세요? 어쩐지. 우리끼리 한국분일 거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여자가 호들갑을 떨며 반가워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미영은 어색하게 웃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앞에 의자 안 쓰시는 거면 저희가 써도 될까 해서요.”

“그럼요.”

“고마워요. 그럼.”

여자는 미영의 앞에 놓인 의자를 끌어갔다. 미영은 여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국사람 일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는 말이 거슬렸다. 혹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 때문에 그렇게 추측한 것은 아니었을까. 낯선 장소에 와서 혼자 주변에 신경을 곤두세운 채 어색하게 구는 한국인 특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곧 새로운 일행이 옆 테이블에 도착해 그 의자에 앉았다. 미영은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 집중하려고 했으나 옆 테이블의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가 거슬렸다. 곧 가방을 들고 신문을 옆구리에 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영이 스타벅스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어머. 지난번에 그분 맞죠?”

뉴욕타임즈를 읽고 있던 미영은 고개를 들어 여자를 올려다봤다. 지난번에 의자를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었던 그 여자였다. 이번에는 여자 혼자였다. 여자는 한 손에는 커피가 든 종이컵을 다른 한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 또 만나네요. 반가워라.”

여자는 화색을 띠며 미영이 앉은 옆 테이블에 앉았다.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네. 집이 이 근처예요.”

“저도 여기 자주 와요. 여기서 혼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구요.”

여자는 곧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영은 여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여자의 영어가 유창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자 어쩐지 안심이 되었다.

‘저 정도 영어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은 생각했다. 여자는 자신의 영어 실력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발음을 정확히 하려 애썼다. 주눅 들지 않는 그 모습에 미영은 도리어 자극을 받았

다. 전화를 끊은 여자가 미영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저요?”

“네. 요즘 종이 신문 읽는 사람 드문데 열심히 읽고 계신 게 인상적이어서.”

“아, 이거요. 이건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음에 여기 또 언제 오세요? 그때 같이 커피 한 잔 할까요?”

“저 내일도 올 거예요. 비슷한 시간에.”

“연락처 교환할까요? 전 레이첼이에요.”

“전 미아예요.”

미영은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처음 보는 여자가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 준 것이 고마웠다. 게다가 커피숍에 오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해도 될 정도로 갖춰 입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미영은 친구가 별로 없었다. 미영의 결혼식에도 얼굴을 비춘 지인은 회사 동료 몇 명이 전부였다. 애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댁 때문에, 미영이 결혼식에 참석했었던 친구들은 갖가지 이유로 미영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딱히 마음 가는 친구가 없었던 것도 미련 없이 한국을 떠나올 수 있는데 한몫하기도 했다. 미영은 문득 한국에서의 삶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한 회사에서 7년 넘게 일했었다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의 과거처럼 느껴졌다.

주말에 미영과 필립은 외식을 했다. 분위기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을 발견해서 자신만의 맛집 목록을 채워나가는 것은 미영의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럴 때만큼은 자신이 능동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갔다. 가끔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오면 필립이 미영의 귀에 대고 그 뜻을 설명해줬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관람했다.

“그 브루클린에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 알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영이 물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응.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나오더라구.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대.”

“그래?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대?”

“모르나 봐. 젊은 부부랑 다섯 살짜리 남자아이래.”

“신문 읽는 거 재밌어?”

“재미라기 보단 검사검사 읽고 있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데 매일 신문 사오는 거 귀찮진 않지?”

“괜찮아. 어차피 오는 길인데 뭐.”

“그래. 고마워.”

“당신은 호기심이 많아서 영어도 금방 늘 거야.”

필립이 미영의 옆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가? 미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뉴욕타임즈를 읽는 여자는 동경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굳이 그 신문을 고집했다. 신문에 담긴 영어의 수준은 미영에게 버거울 정도로 높았지만 그래도 신문을 놓지 않았다. 읽는 척이라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면서 막연한 불안감을 지워버릴 수 있어서 좋았다.

어쨌든 나는 시도라도 하고 있잖아. 미영은 스스로를 변호했다.

“미아 씨는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먼저 여기 생활에 좀 더 적응하구요. 그 다음에 찾아봐야죠.”

“이미 적응 잘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레이첼이 빙긋이 웃었다.

“아닌데...”

미영이 겸연쩍은 듯이 답했다.

“관심 있는 분야 있어요? 어쨌든 미아 씨는 학구적인 것에 끌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뭘 해야 좋을지 저도 찾고 있어요.”

“잘됐네요. 지난번에 여기서 저랑 같이 만나던 여자분들 있죠. 그분들 다들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부수적인 수입을 창출하려고 저랑 함께 일하고 있어요. 한 분은 저랑 일 년도 안 돼서 한 달 수입이 벌써 직장인 못지않구요. 미아 씨도 관심 있으면 다음 모임에 참석할래요?”

“...어떤, 모임인데요?”

“요즘 세상은 전부 마케팅이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서 일정한 사무실 없이 내가 가는 곳이 사무실이 되는 세상이구요. 한마디로 인맥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화를 나눌수록 미영은 자신과 레이첼의 공통점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 친목을 맺는 자리라기보다 좋은 먹잇감을 찾은 일방적인 레이첼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었다. 미영은 겉으로는 듣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한바탕 마케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레이첼은 냅킨을 펼쳐놓고 그 위에 가방에서 꺼낸 알약들을 쏟았다.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알약 열 몇 개를 손바닥에 올리더니 두 번에 걸쳐서 꿀꺽 삼켰다.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레이첼의 행동이 하도 희한해서 미영은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이거. 몸에 좋은 약.”

레이첼은 나머지 알약들을 입에 털어 넣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미소지었다.

“이게 다 역할이 있는 영양제거든요. 비타민 D, C, 철분, 마그네슘, 루테인, 코큐텐, 칼슘, 엽산, 유산균, 오메가3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전부 따로 드세요?”

“그럼요. 전부 역할이 다른걸요. 이것 좀 보세요.”

레이첼은 가방에서 팜플릿을 꺼내 건넸다. 다양한 영양제에 대한 광고가 실린 팜플릿이었다. 미영은 찬찬히 살펴봤다.

“이게 전부 거기 적혀있는 회사 제품인데 난 정말 이 제품 만나고 나서 몸이 달라진 걸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이 제품이라고 하면 무슨 다단계라고 생각해서 거부감부터 드는 모양인데 그냥 제품만 보면 사실 시중에 있는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특히 먹을거리에 까다로운 미국에서 제품이 괜찮지 않으면 절대 시중에서 판매할 수가 없죠. 미아 씨는 따로 먹는 영양제 있어요?”

“아뇨.”

미영이 팸플릿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내가 영양제 몇 개 줘볼게요. 한 번 먹어봐요. 진짜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니깐요. 미국에서 이 회사가 창립 60년이 돼가는데 여태까지 말썽 한번 없잖아요. 자. 이거.”

레이첼은 가방에서 따로 포장된 영양제 샘플과 팸플릿을 귀한 물건인 양 건넸다. 미영은 그것들을 받아들고 살펴보는 척하면서 시간을 확인했다. 생기를 띄는 레이첼의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던 레이첼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잠시나마 그녀와 좋은 인연이 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씁쓸함이 느껴졌다.

레이첼과 헤어지고 미영은 기차역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읽다 만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로컬 뉴스 섹션에서는 얼마 전 실종된 브루클린의 젊은 가족에 대한 것이 실렸다. 부부와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의 인터뷰가 실렸는데 소제목에

[They've been M.I.A for few days now]

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다.

“미아?”

미영은 자신의 영어 이름과 스펠링이 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구글 검색을 했다. M.I.A는 약어로 ‘Missing In Action’이라는 뜻이었다.

2

사실 퇴근길마다 미영의 신문을 사는 일이 필립에겐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다. 필립은 매일 여섯 시에 사무실을 나섰고 여섯 시 십 분에 Spring 스테이션에서 지하철을 탔다. 십오 분 뒤 그랜드센트럴역에 내려서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터미널을 통과해 기차가 도착하는 승강장으로 도착했다. 약간의 지체되는 시간 없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여야지 여섯 시 삼십오 분 기차를 탈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일곱 시 십오 분까지 기다려야 했다. 미영에게 뉴욕타임즈를 사다주면서부터 필립은 여섯 시 삼십오 분 열차를 포기해야만 했다. 고작 그 신문을 사기 위해서 퇴근길에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니. 필립은 굳이 뉴욕타임즈만을 고집하는 미영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근데 왜 굳이 뉴욕타임즈야? 뉴저지 로컬 신문은 당신도 쉽게 살 수 있잖아.”

“스타벅스에서 로컬신문 들춰봤는데 내용은 별로 없고 전부 광고더라구.”

어쩔 수 없이 매일 뉴욕타임즈를 사면서 곧 미영이 신문 읽는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금세 싫증 낼 것이라고 믿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종이 신문을 읽는 단 말인가. 그래도 그는 이곳에 적응하려는 미영의 노력을 도와주기로 했다. ‘그 최초의 시도가 신문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미국 생활을 좋아하지 않아서 일 년의 반을 한국의 친정집에서 보내던 전 아내와의 갈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미영의 그런 노력이 감사하기도 했다.

필립이 신문을 사는 곳은 티켓 발권기 앞의 가판대였다. 그 가판대는 신문 외에도 I Love N.Y 같은 문구가 적힌 머그컵이나 열쇠고리, 후드티 같은 다양한 기념품들을 팔았다. 필립은 늘 같은 점원-젊은 아시안 여성-과 마주쳤다. 다른 가판대도 많았지만 굳이 그곳만 고집한 이유는 점원의 상냥한 태도 때문이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점원이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왔다. 필립이 그렇다고 하자 점원은 해사하게 웃으며 자기도 그렇다고 한국말로 대답했다.

“신문 보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요즘 종이 신문 잘 안 팔리는데.”

“집이 뉴저지라... 시간 때울 겸 기차 안에서 읽어요.”

필립은 자신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아내의 심부름이라는 말이 웬지 입 밖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그곳에서 신문을 사면서 필립은 점원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날씨가 그날의 화제가 되는 뉴스들로 시작한 잡담들은 곧 사적인 대화들로 이어졌다. 그녀의 이름이 제니퍼라는 것과 중저가 브랜드 회사에서 가방 인턴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필립 역시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알고서 더욱 친근하게 대했다.

“실은 우리 이모가 여기 주인이거든요. 최근에 일하던 알바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사람 구해질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대타로.”

“피곤하시겠어요. 투잡이잖아요.”

“돈도 별로 좋아요. 아시잖아요. 여기 렌트비 비싼 거.”

“이 근처 사세요?”

“멀진 않아요. 이스트빌리지 쪽이니까.”

처음에 필립은 신문을 산 뒤 간단한 잡담 몇 마디를 나누고 곧바로 기차가 도착하는 플랫폼으로 떠났다. 그러다 점점 그 가판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중에는 기차가 오기 직전까지 그 가판대에 서서 제니퍼와 수다를 떠는 것이 퇴근 후의 일과가 되었다. 가끔 음료수를 사거나 매대에 놓인 후드티를 만지작거리는 손님이 나타나면 필립은 대화를 멈추고 자리를 비켜주었다. 간혹 무례한 손님들이 나타나면 제니퍼는 필립과 눈을 마주친 채 눈썹을 치켜올리면서 황당하다는 사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필립은 슬며시 웃으며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의 대화는 주로 디자이너로 일하는 직업적 고충에 대한 것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필립의 경우처럼 제니퍼도 성인이 되어서 유학을 왔다고 했다. 제니퍼는 자신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언어에 대한 갈증, 그로 인해서 회사에서 일정

직책 이상은 승진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필립은 깊이 공감했다. 둘 사이에 사적인 질문이나 대화는 없었다. 필립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도 제니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단골손님과 점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언제 시간 되시면 제 포트폴리오 좀 봐주실래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필립은 어려울 것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봐달라는 건지 궁금했다.

“그러죠. 지금 가지고 있어요?”

“노트북 가져왔어요. 여기 들어와서 좀 봐주실래요?”

필립은 망설임 없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천장이 유독 낮아서 상체를 한껏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 게다가 매우 비좁아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붙어 앉아야만 했다. 제니퍼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그녀에게서 나는 좋은 향기가 어떤 종류의 향일까 생각하며 필립은 그녀의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가 습관처럼 바르던 핸드크림 냄새일까, 아니면 평소에 뿌리는 향수 냄새일까.

“이거예요.”

제니퍼가 노트북을 넘겨주며 말했다. 화면 가득 그녀의 포트폴리오가 떠올라 있었다.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나가서 다른 회사도 좀 알아보려는데 이게 좀 걱정돼서요. 필립 씨는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런 거 잘 보실 거 아녜요. 좀 봐주세요.”

필립은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다. 딱히 고쳐야 할 것도 조언해 줄 만한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잘 만드셨네요. 오히려 제 포트폴리오를 봐주셔야 할 거 같은데요?”

“하하. 그런가요? 이거 웬지 으쓱해지는데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제니퍼가 만족한 듯 함박웃음을 지었다. 좁은 공간에 앉아 있기가 어색해진 필립은 괜히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이 안이 이렇게 생겼었군요.”

“형편없이 좁죠? 제가 이렇게 비좁은 곳에서 일한답니다. 일 끝나고 스트레칭이라도 안 하면 정말 몸이 굳어버릴 거 같아요.”

제니퍼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푸념했다. 그리고 선반에 놓여 있던 물병을 집더니 뚜껑을 열어 서너 모금 삼켰다. 그녀의 까무잡잡하고 가느다란 목덜미에 보송보송한 잔털이 시선을 붙잡았다.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살게요.”

제니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가 일어나자 필립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닿았다. 크롭톱을 입고 있어서 잘록한 허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배꼽에는 반짝이는 큐빅이 달린 양증맞은 피어싱이 달려 있었다. 필립은 시계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곧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었다.

“아니예요. 이제 곧 가 봐야죠.”

“봐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엔 제가 꼭 커피라도 살게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필립은 제니퍼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맹세코 이성적인 감정은 없다고 자신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같은 한국인이자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단지 자립심이 강하고 밝은 그녀의 성격이 퇴근길의 필립에게 활기를 줄 뿐이었다. 늘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필립의 사소한 말에도 ‘푸하하’ 하고 쉽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럴 때마다 약한 바람에도 폴폴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가 떠올랐다. 집의 뒷마당 잔디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볼 때마다 필립은 발로 툭 건드려서 홀씨를 몽땅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었다. 그 싱그럽고 터질 것 같은 에너지의 파장에 자신이 영향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다. 제니퍼를 상대하면서 필립은 잊고 있었던 자신의 20대 시절을 자주 떠올렸다. 인테리어 디

자이너가 되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겠다는 야심으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자신이 생각났다. 먹고 사는 문제와 결혼과 이혼이라는 인생의 대소사를 겪어 내면서 세월의 갈피에 닳아 퇴색된 자신의 야망이 불현듯 떠올랐다. 필립은 잊고 있었던 삶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고작 그런 것으로 삶의 영감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스웠지만 정말 그랬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 준비를 하는 일이 어느덧 필립에게는 설레는 일이 되었다.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머리를 손질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랜드센트럴역에 내려 제니퍼가 일하는 가판대 앞을 지날 때면 ‘혹시 출근시간에도 그녀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신경 쓰였다. 퇴근길에는 오히려 더 활기에 차서 제니퍼가 일하는 가판대로 한달음에 달려갔고 그곳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가끔은 일곱 시 기차를 놓치고 여덟 시 기차를 탈 때도 있었다. 두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미영은 더 이상 신문을 사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왜?”

“좀 쉬려구. 영어가 느는 것 같지도 않구.”

“원래 영어라는 게 빨리 늘 수가 없어. 당신이 매일 매일 신문을 읽고 단어를 공부하는 행위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구.”

“아냐. 좀 실래.”

“무슨 일 있어?”

필립은 미영의 기색을 살피며 물었다. 요즘 들어 말수가 적어진 것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아니. 왜?”

“별일 없는 거지?”

“응. 왜 자꾸 물어?”

“아냐. 별일 없으면 됐어.”

필립은 미영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했다.

동석에게 메일이 온 것은 뜻밖이었다.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한 그의 메일은 학회 세미나로 뉴욕에 오게 되었고 시간이 된다면-미영만 괜찮다면- 점심을 같이 하지 않겠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영은 동석의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의도를 알 수가 없는 여섯 줄짜리 간단한 메일이었다. 동석은 미영과 삼 년 동안 사귀던 사이였지만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미영이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동석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아침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었다. 미영이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는 소식은 서로 아는 지인들을 통해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동석은 뉴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와서 과거의 애인에게서조차 향수를 느끼며 일시적으로 감상적인 마음에 빠져든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동석의 메일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미영은 생각했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지? 막상 만나면 무슨 얘길 하지?’

설령 의도가 있다면 어쩔 것인가. 동석의 의도가 무엇이든 미영은 그것에 순순히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그저 동석 앞에서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자신을 아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두 통의 간단한 이메일이 더 오가고 미영은 동석과 약속을 잡았다. 금요일 오후 한 시, 브라이언파크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다. 필립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필립이 퇴근하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 미영은 간단히 화장을 하고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스타벅스에서 만났던 그 여자들처럼 공들여 머리를 하고 결혼 선물로 받았던 명품백도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사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도 필립은 계속 신문을 사 왔다. 시위라도 하는 건가?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신문을 내려다보며 미영은 생각했다.

“왜 자꾸 신문을 사 오는 거야? 필요 없다고 했잖아.”

미영이 물었을 때 필립은,

“당신 신문 사다주면서 읽어보니까 읽을 만하더라고. 나한테도 도움도 되고.”
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필립이 퇴근길에 들고 오는 신문은 몇 장 넘겨보지도 않은 뻗뻗한 새 신문 그대로였다. 미영은 제일 위에 놓인 신문을 돌돌 말아 가방 속에 넣고 집을 나섰다.

공원 입구에 서 있는 동석을 한 눈에 알아본 미영은 그의 변한 모습에 약간 당황했다. 그는 몇 년 전보다 말랐고 피곤해보였는데 시차 적응 때문인지 낮선 곳에서 특유의 예민한 기질이 발동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다. 풀로 반팔 셔츠와 바지 단이 암전하게 떨어지는 청바지 차림의 그는 핸드폰 화면을 연신 들여다보며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무테안경 너머로 번잡한 길거리를 둘러볼 때는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혔다. 세상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게 되어서 모든 것에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게 잡힌 껌껌하고 예민한 중년의 남자. 미영이 몇 년 만에 만난 동석의 이미지는 그랬다.

“오랜만이네! 넌 그대로다.”

미영은 자신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는 동석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대로긴. 잘 지냈어?”

“응. 나야 똑같지 뭐. 식사 안 했지? 어디 아는 데 있어?”

“스��이크 먹을래?”

“좋아. 어디든 가자.”

다섯 블록 떨어진 레스토랑으로 걸어가는 동안 동석은 일주일 일정으로 뉴욕에 왔다는 것과 이번이 두 번째 뉴욕 방문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이 가진 환상에 비해 뉴욕이라는 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참 뒤떨어진 곳이라는 것 등을 떠들었다. 미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디자이너야. 인테리어.”

“남편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편하겠다. 여자들 집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너네 집은 잡지에 나오는 그런 집처럼 꾸몄겠어. 안 그래?”

“그렇지도 않아. 그냥 평범해.”

미영은 동석이 필립에 대해서 떠드는 것이 불편했다.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때 친했던 친구 대하듯이 구는 게 어쩐지 언짢았다. 시간이 흐른 지금이야 웃으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때를 기억하면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동석의 메일을 그냥 무시했어야 했다. 미영은 약간 후회했다. 곧 서버가 다가와 메뉴판을 주면서 뭘 마시겠냐고 물었다.

“진토닉 한잔할래?”

동석이 물었다.

“그래.”

서버는 곧 두 잔의 진토닉을 가지고 왔고 맛이 괜찮은지 동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때? 여기서 사는 거?”

“좋아. 여유롭고.”

“뉴저지는 그래도 미국 같은 분위기가 나겠어. 어휴. 여긴 너무 정신없고 지저분해. 약간의 자기 암시가 있어야지 여기 살 수 있을 거 같아. 그래. 여기가 뉴욕이다. 여긴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이 정도 지저분함과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뉴욕이니까.”

동석은 자신의 말이 꽤 재치있다고 생각했는지 피식거렸다. 미영은 대답 없이 진토닉을 넘겼다.

“그래서 그 세미나는 잘 마친 거야?”

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형식적인 거지 뭐.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잖아.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남들 다 하니까 해야 하는 거. 구색 맞추기.”

“그러는 너는 남들 다 하는 결혼은 왜 안 하니?”

미영이 농담처럼 불쑥 물었다.

“그러게.”

미영은 힐끔힐끔 시간을 확인했다. 식사가 끝나면 바로 일어설 생각이었다. 중년을 향해가는 동석은 예민하고 냉소적인 기질이 더 심해지면서 대화 상대를 기운 빠지고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기 끝나면 학생들이 교수 평가하잖아. 너도 그거 확인하니?”

“가끔. 왜?”

“주로 어때? 내가 교수라면 그거 엄청 신경 쓰일 거 같거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주관적인 거잖아. 꼭 성적 잘 안 나온 애들이 그런 건 잘하더라.”

계산을 마치고 일어나면서 동석이 미영의 가방을 힐끔거렸다. 돌돌 접어놓은 신문이 약간 빠져나와 있었다.

“너 신문도 읽어?”

“어. 그냥 뭐.”

“뉴욕타임즈네?”

의외라는 듯 동석이 미영을 쳐다봤다.

“신문이라도 안 읽으면 뇌가 멈출 것 같아서.”

미영이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야. 그래도 멋진데? 뉴욕타임즈를 읽는 여성. 하긴. 넌 한국 가요도 안 들었잖아.”

“내가 그랬어?”

“기억 안 나? 내 친구 민식이는 가끔 너 안부 물으면서 그 얘길 아직도 해.”

“어떤 거?”

“그 한국 가요 안 듣는 네 전 여친은 잘살고 있냐고 말야.”

미영은 그 말이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 민식이라면 동석의 가장 친한 친구로 그와 사귀는 동안 여러 번 같이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다. 가요가 시끄럽게 흘러나오던 어느 술집에서 미영이 시끄럽다고 인상을 쓰자, “왜요, 좋잖아요.” 라

던 민식의 불쾌해진 얼굴이 떠올랐다. 가요를 즐겨 듣지 않는다는 미영의 말에 민식은 그럼 뭐 팝송이라도 듣냐며 핀잔하는 투로 대꾸했던 일화가 떠올랐다.

“고맙네. 내 안부도 물어주고.”

미영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레스토랑을 나와 잠시 걷다가 동석이 커피 한잔 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밥값을 동석이 냈으니 커피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스타벅스로 들어갔다. 미영은 미아라는 이름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주문했다.

“미아?”

아메리카노를 받아든 동석이 컵 홀더에 적힌 주문 이름을 보고 중얼거렸다.

“왜?”

“너 영어 이름이 미아야?”

“그냥 스타벅스용 이름이야. 여긴 주문할 때 이름을 묻잖아. 그래서 하나 만 들었어.”

“이름 좋은데? 영어도 못하는데 제시카나 레이첼 이런 이름보단 낫잖아.”

동석이 실실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미영은 그 말이 당황스러웠다. 영어를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동석의 말에서 무시하는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무슨 뜻이야?”

“뭐가?”

“너 이름 말야. 무슨 뜻이 있어?”

“영어 이름에 무슨 뜻이 있어. 그냥 부르기 쉬운 이름이지.”

동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밖의 풍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들 말야.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고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걸까?”

동석이 빈정대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그러게.”

지하철역 앞에서 동석이 어색하게 악수를 건넸다. 맞잡아주기를 기다리며 허공에 불쑥 떠 있는 것 같은 동석의 손을 가만히 내려 보다가 힘없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었다. 동석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곧 맞잡은 손이 풀리고 미영이 먼저 뒤를 돌아섰다. 미영은 망설임 없이 지하철역으로 사라졌다.

그랜드센트럴역에 도착한 미영은 가판대 앞에 서서 신문들을 바라봤다. 뉴욕타임즈 외에도 다양한 신문이 진열되어있었다. 신문을 사갈까 고민하던 미영의 시선을 붙잡은 건 I LOVE N.Y이라는 글씨가 적힌 머그컵이었다. 오목한 컵받침과 세트인 빨간색 머그컵이었다. 무심결에 머그컵을 만지작거리던 미영은 자신을 바라보는 점원의 시선과 마주쳤다. 젊고 예쁘장한 아시아계 점원이었다. 포니테일 스타일로 머리를 질끈 묶고 크롭톱에 레깅스 차림인 점원에게서 젊고 활기찬 기운이 느껴졌다. 점원은 미영을 향해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무해하고 호의적인 그런 미소였다.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일반산문

대상

뿌리 깊은 나무처럼 •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166

우수상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 • 조성환 (미국) 177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 채단비 (프랑스) 188

가작

stay hungry, stay foolish! • 김순희 (일본) 193

떠나는 삶에 관하여 • 박동찬 (중국) 206

한글학교에서 • 박시드니 (덴마크) 218

랩톱에 깃든 작은 이야기 • 배동선 (인도네시아) 231

제니를 찾아서 • 이단비 (캐나다) 243

고사리 • 김미현 (미국) 253

노크 • 심수연 (케냐) 258

결혼반지 이야기 • 윤덕환 (미국) 262

뿌리 얇은 나무 • 정은시 (캐나다) 266

할머니의 간장 • 하선영 (중국) 271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할머니 이것 보세요. 예쁜 화분을 가져왔어요.”

“뭘, 이런 걸 다! 이 조그만 화분에서 나무가 잘 자라겠나?”

퇴근길에 화원에 들러 식물을 좋아하는 할머니를 위해 석류나무 화분을 사다 드렸다. 할머니는 화분을 보고 반색하셨지만, 이내 잘 자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하셨다. 화분에서 키우는 관상용 나무라고 설명했는데도 텃밭에 옮겨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다. 예전에 꽃을 사다 드린 적은 많았지만 나무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가게 앞에 진열된 자그마한 석류나무를 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린 듯 화분을 살 수밖에 없었다. 특정한 향이나 사물을 보고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한다는데, 이 석류나무가 할머니와 나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데려다 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석류, 포도, 복숭아, 모과, 호두나무가 가득했던 할머니 집 텃밭에서 시작된다. 그중에서도 석류나무에 꽃이 필 때, 그리고 보석처럼 작고 빛나던 열매가 열릴 때 왠지 모를 신비감에 젖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벌써 30년도 더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석류의 향을 맡을 때면 할머니의 시골집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맛벌이로 바빴던 부모님 때문에 나는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 할머니는 늘 삐쩍 마른 나에게 미숫가루를 우유에 개서 주시곤 했다. 이후로 한동안 잊어버렸던 그 맛을 20년도 더 지나 이역만리 한국에서 유학할 때 다시 맛보게 될 줄을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내 기억으로 대략 6살 무렵부터 나는 할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을 따라 산으로 들로 시금치를 캐러 다녔다. 산에 올라가면 초록의 싱그러운 나물 사이에서 붉디붉은 예쁜 양귀비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강렬한 이미지는 어린 내 눈에도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나물을 캐러 산에 다녀와서는 구들 위로 올라가 동생이랑 소소한 장난을 하며 놀았다.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어린이용 체스를 가져와서 가르쳐주셨다. 이걸 배우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말씀에 졸린 눈을 비벼가며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난다. 저녁에는 타다 남은 장작 위에 감자를 올려서 구워 먹기도 했다.

언뜻 들어보면 한국의 어느 시골마을의 풍경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살았던 곳은 깎아내린 듯 높은 산과 넓고 푸른 초원이 이색적인 ‘수르훅’이라는 마을이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산악국가로 불리지만 이곳은 타지키스탄에서도 오지 중 오지였다. 지금은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이웃 나라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살고 있지만 내 어린 시절 기억의 8할은 바로 이 산속 마을에서 시작한다. 그만큼 나에게 이 마을은 특별하다. 산 고개를 넘으면 판지강이 흐르는 아프가니스탄이 보이는, 국경과 닿아있는 지역이었다. 이 마을은 다른 타지키스탄 지역과는 달리 고려인이 집성촌을 이뤄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마을 이장과 학교 교장도 모두 고려인이었다. 이는 소련시절 벼농사에 특출났던 고려인들을 이곳에 집단 정착시켜 이 험준한 땅을 농경지역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할머니, 어떻게 해서 타지키스탄에 가게 되셨어요?”

“한국과 가깝기도 하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연해주에서 살다가 1937년에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었지.”

할머니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지만 1937년, 할머니가 5살이었을 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면서 유라시아 넓은 초원에 뿌리내리게 된 고려인 1세였다. 1937년에 할머니 가족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고려극장, 고려일보 등 모든 고려인이 강제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할머니 가족이 처음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 남부 크즐오르다주의 ‘바이가 쿰’이라는 마을이었다. 이곳은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었고 주변에 물을 구하기조차 힘들었다. 앞친 데 뒤편 격이라고 당시는 원주민인 카자흐스탄 사람들 역시 대기근에 시름하고 있던 시기였다. 할머니의 가족은 어렵사리 폐가를 구해 그 마을에서 2년 정도를 버텼지만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이웃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고려인 집성촌이 많고 농사지를 땅도 충분하다는 소문에 할머니의 조부께서 먼저 그곳으로 가서서 작은 집을 지으셨다. 그리곤 다시 돌아와 온 가족을 데리고 새 보급자리인 우즈베키스탄을 향해 45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이동하셨다고 한다. 그때 할머니는 고작 5살이었고 할머니의 어머니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끝도 없는 길을 걷고 걷다 해가 지면 모르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잠깐의 휴식을 청했다. 생면부지의 남의 집에서 쪽잠을 청한 대가족은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떠났다. 가다가 배가 고프면 노상의 ‘차이하나(중앙아시아 전통차집)’ 들러 빵과 차로 허기를 달랬다고 한다. 그렇게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도착하니 정말로 인근에 고려인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고려인들은 새로운 정착촌에 ‘노브이 푸티’, ‘폴리트오트델’ 등 과거 연해주에서 살던 마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할머니의 가족은 ‘스베르드로프’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트랙토르(견인차)일을 잘하셨지. 벼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좋아서 창고에 보관할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 넘쳐난 것은 마당에 두었지. 날마다 방앗간에서 벼를 찧었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현지인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 농사가 잘되기도 했고 아버지가 착해서 우리 집엔 10명이 넘는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친척들도 함께 살았단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처음엔 갈 생각이 없었지. 대가족이어서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는 비록 하지 못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결혼도 하고 아이 셋을 낳았지. 양가 부모님 집도 가깝고 형편이 좋았거든. 근데 어느 날 타지키스탄에 먼저 간 시누이가 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식들과 함께 타지키스탄 수르홉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관리자는 농사지을 땅을 배당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 뿌리내리기 위해 모두 다 벼농사에 매달렸다. 수르홉 마을은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여름에는 기온이 영상 45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건조한 지역이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눈에 나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설 틈도 없이 밥을 안치고 닭을 백 마리가량 사육하던 커다란 닭장을 청소하고 나서야 간단하게 늦은 저녁을 드셨다. 그리곤 건너편에 있던 작은 영화관에 가 표 파는 일까지 끝내고 나서야 집에 돌아와 몸을 누이셨다.

그렇게 고된 노동으로 바듯했던 삶이었지만 할머니와 나는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피스타치오를 따 먹거나 가을이 되면 마당에 자라는 석류와 감을 따서 먹기도 했다. 행복했던 기억으로 가득한 나의 어린 시절, 시골에서 할머니와 보냈던 그 시간이 오래된 영화의 필름처럼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지키스탄에서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된 직후인 1992년, 타지키스탄에 내전이 터졌기 때문이다. 모든 마을에 외출 통제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 외에 집 밖에 나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무조건 총을 쏘았다. 실제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다.

우리가 살던 마을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위험했다. 우리는 어디로든 급히 떠나야만 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쫓겨나듯 떠나야 했기에 행선지를 고를 여유조차도 없었다. 그 당시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타지키스탄에도 여러 민족 출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

었는데, 그중 카자흐스탄계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계 민족들은 러시아로 떠났지만 갈 곳 없는 고려인들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조종사 공부를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떠난 큰아버지가 그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알마티로 떠날 수 있었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라 온 가족이 함께 출발하지는 못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먼저 큰아버지 도움으로 알마티로 향했다.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하셨던 큰아버지가 표를 구매하지 못해 비행기 짐칸에 어머니와 남동생을 태웠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후발대로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알마티로 갔는데 어린 나의 뇌리에 깊게 새겨진 흔들리던 기차의 소음과 창문 밖으로 쉴 새 없이 변하던 풍경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쪽이 아릿해짐을 느낀다.

가장 늦게까지 타지키스탄에 남았던 것은 아버지였다. 행복한 추억들이 가득한 집을 그대로 버려 놓고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신 터였다. 그렇게 아버지는 1년 정도 더 남아 결국 집을 팔 수 있었고, 모든 재산을 정리한 뒤 기차에 몸을 실었다. 상황이 상황이었는지라 아버지는 돈을 옷 여기 저기에 나눠 숨겨놓은 채로 기차를 타셨는데, 기차 안에서 무장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한다. 강도들은 긴장한 아버지에게 긴 총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그 순간, 돈을 다 주면 알마티에 있는 가족들이 굶을까 걱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총에 맞아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한다. 정신을 차린 아버지는 한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내주며 이게 전부라고 사정했고 믿어준 착한 건지 실제로 믿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행히 강도들은 아버지가 준 돈을 쥐고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아버지는 1993년 우리 가족들과 눈물겨운 상봉을 이룰 수 있었다. 당시 우리는 큰아버지가 먼저 빌린 돈으로 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해 가을, 독립 후 2년 된 카자흐스탄이 자체 화폐를 도입하며 화폐개혁을 단행한 결과 기존의 소련 루블은 그야말로 종이조각 신세로 전락

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당시 우리 가족은 난민 신분이었고 국적도 없었다. 국적을 취득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국적을 얻기 전에는 좋은 일자리를 꿈꿀 수조차 없었다. 할아버지는 경비원을 하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용접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짓고 수학 교사였던 어머니는 채소와 과일을 팔러 다녔다.

나는 알마티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공항 근처라 공항 직원이나 엔지니어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러시아계 출신이었는데 똑똑하고 예쁘고 키가 큰 친구들을 보며 나는 팬스레 주눅이 들곤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나는 어머니가 장사하는 곳에 가서 일이 끝날 때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주로 공항이나 학교 주변에서 채소를 팔았다. 나는 늘 어머니와 같이 다녀야 했는데 혹시나 친구들이 볼까 봐 항상 창피하고 두려웠다. 장사가 잘 안되는 날이면 어머니는 나에게 배와 사과를 담긴 양동이를 쥐여주고 본인은 다른 장소에 가서 채소를 팔았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학교 친구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과일을 팔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국적도 취득하고 부모님도 공항에 취직해 상황이 좋아졌다.

하지만, 학창 시절 나는 친구들이 출신을 물어볼 때 가장 곤혹스러웠다. 핏줄은 한국인이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러시아 태생이며, 부모님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데 나는 타지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았다. 내가 그들처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사실은 나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나는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

그 당시 내가 살던 동네와 학교에는 고려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친구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인의 뿌리라는 것에 대해 크게 관심 갖지 못한 채 고

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우연히 집에서 ‘레닌기치(현재 고려일보)’라는 신문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어로 적힌 신문이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한국어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마치 피가 당긴다는 우리 속담처럼 말이다. 내용도 알 길 없는 신문을 훑어보며 웬일인지 나는 마음속의 피가 조금씩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할머니를 졸라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글자를 익히고 단어를 러시아어 단어와 대조하면서 읽어보았다. 그렇게 하루 이틀 쌓여갔고 어느 순간 내가 읽고 있는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나에게는 전혀 생소했던 외국어인 한국어였지만 하나의 열정만으로 빠른 속도로 습득해나갔고 나는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생각해온 전공을 포기하고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학부 4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나의 역사적 조국, 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벌써 이십 년이 가까이 된 일이지만 나는 아직도 인천공항에 처음 내린 가슴 벅차오르던 그 순간을 기억한다. 꿈에서조차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한국어를 배우기 전까지 어디에 위치하는지조차 몰랐던 이 생소한 나라에 첫발을 내디딘 스무 살 초반의 앓된 나에게 이것이 가슴까지 벅찰일 일까 싶지만 실제로 그랬다. 150년 만에 멀고 먼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만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나의 조상님께서 사셨던 이곳, 언제나 돌아오고 싶어 하셨던 그리운 고향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치 그분들의 꿈을 대신 이뤄드리는 기분마저 들었다.

늘 내 주변에는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친구들뿐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어디를 둘러봐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신기했다. 한국에 온 후 며칠 동안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의 사람들을 구경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비슷한 생김새와는 다르게 한국어는 유치원생보다 서툴렀던 나였기에 지금 생각하면 얼굴 붉어지는 에피소드도 많이 생겼다. 친구들과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면 소음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어가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었다. 분명히 배워서 알고 있는 쉬운 말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들었다.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한 번 잃게 되니 나중에는 한국어를 시작하려고만 하면 울렁증이 생길 정도였다. 한 번은 신촌에 가야 하는데 발음을 잘못하는 바람에 신천에 가게 된 일도 있었다. 다른 도시에 사는 고려인 친척 아주머니는 내 한국어 울렁증을 알고는 “버스터미널 매표소에 가서 말로 하지 말고 주소를 종이로 써서 보여 주면 된다”고까지 말씀하기도 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실력이 형편없다는 핑계로, 혹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모든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려 했던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

다행히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내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를 더 많이 챙겨주었다. 귀찮을 수 있는 일도 하나씩 알려주고 어디를 가든 이것이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아프면 약과 죽을 집으로 가져다주고 내가 서툴게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었다.

어느 날은 두통이 심했는데 아는 한국 아주머니가 ‘내 손이 약손이다, 아프지 말아라’며 나를 쓰다듬어 주셨던 적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울컥 차올랐다. 한국어를 잘 몰랐던 어린 시절 내가 어디 아플 때마다 할머니가 다가와 나를 어루만져주시며 똑같은 말씀으로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며 살아왔고 유일하게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었던 통로는 오로지 할머니와의 대화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통해 들었던 모든 한국어들은 내 기억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아 한국에서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할머니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말은 통하지 않았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었다. 그제야 나는 한국어를 못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한국어를 학습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내 태도가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한국어에 대한 벽을 허물자 그 이후부터는 금방 늘었다. 차차 생활이 익숙해지며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타국에서 왔다는 느낌조차 잘 느끼지 못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나는 한국어학당을 다닐 수 있었다. 학부 수업은 한국인 친구들과 듣고 어학당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나 다른 재외 교포들과 수업을 들었다. 반 친구 중에는 미국, 일본, 스페인, 중국 교포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나와 같은 고시원에 살고 수업도 함께 들었던 재일교포 박마의 언니와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부엌에서 함께 밥을 먹을 때면 나는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언니는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나는 한국을 떠난 재일교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복잡다단한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나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온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제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가 재일동포사에 관심을 많이 보이자 나중에 그 언니의 어머니께서 일본에서 작은 선물과 함께 옛날 영화 포스터 몇 장을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그게 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언니의 어머니가 일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스토리를 카메라에 담고 '아리랑의 노래',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재일교포 감독인 박수남 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언니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언젠가는 사람들의 귀에 그 이야기가 들린다.”

언니가 입버릇처럼 했던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내 귓가에 남아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교환학생 과정이 끝난 뒤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 학부를 졸업하고 한 뒤 한국에서 더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대학원 전공은 국어학을 선택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선택이 조금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전공을 '국어학'이라고 밝히면 대부분 '러시아어학'이라고 받아들였고, 그게 아니라 '한국어학'이라고 대답하면 자연스럽게 '외

국민을 위한 한국어과'라고 생각하는 식이었다. 사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도 않는 내가 한국어를 학문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것이 어쩌면 어불성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제일교포 박마의 언니의 말이 떠오른다. “들려줘야 듣게 된다”고 했던 그 언니의 말처럼 나도 한국어로 우리 가족의 역사를, 고려인들이 살아낸 치열한 삶의 장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부족한 언어실력에도 불구하고 동포 관련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나의 한국어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른 해외동포들의 그것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나의 마음속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이 아닌 한국사람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도전 자체로 의미가 깊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삼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고려인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려인에게 역시 한국은 커튼으로 가려진 미지의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끊어진 테이프나 다름 없었다. 사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옛날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다. 어린 나에게 이야기해주기에는 지나치게 슬프고 힘겨운 시절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 남을지 아니면 가족이 있는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지 많이 고민했다. 결국 나는 연로한 할머니의 곁을 좀 더 지켜드리기로 결심하고 다시 알마티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덕분에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그동안은 어리고 무관심해서 잘 몰랐던 고려인의 역사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종종 할머니를 졸라댄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귀찮은 손녀의 인터뷰 요청에도 싫은 내색 없이 조각조각 흩어진 본인의 기억의 숲을 더듬곤 하신다.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우리는 집 앞 화단에 작은 석류나무를 함께 심었다. 관상용이라 더 크게 자랄 것 같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갑갑한 화분을 벗

어나 땅에 심은 이 석류나무가 훗날 깊게 뿌리내릴 거라는 생각에 못내 흐뭇해 하셨다. 이것은 어쩌면 역사의 폭풍우 앞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만 했던 자신을 비롯한 다른 고려인의 굴곡진 운명을 이 작은 나무 하나가 보호해주기를 염원하는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

나무를 심으며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골집이 떠올라 한동안 추억에 잠길 수 있었다. 추억 속의 석류나무가 나와 할머니를 행복한 시절로 데려다준 것처럼 할머니와 증조할머니에게도 각각 연해주와 한국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추억을 연결하는 저마다의 ‘나무’가 분명 있을 것이다. 나의 증조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결국 이역만리 타국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지 못하셨지만 고향에 얽힌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운명의 연속성을 느끼곤 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나무’를 통해 할머니와의 연대감을 이어가듯이 말이다.

되돌아보니, 나도 다양한 나라 출신인 동포친구들도 역시 뿌리가 같은 ‘나무’를 떠올리며 우연인 듯 운명같이 한국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무야, 무럭무럭 잘 자라라.”

일반산문 부문
(체형수기)
우수상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

조성환 (미국)

‘Life’s full of bumps(삶은 온통 시련으로 가득한 것)’

엘에이 4.29폭동 30주년 기념식 참석차 한국문화원으로 가던 중이었다, 105번 서쪽에서 110번 북쪽으로 바뀌 타는 프리웨이 고가다리 난간에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한 문장을 보았다. 근처 도로변 풀밭에 몇몇 홈 리스 텐트가 보였다.

어떤 사람일까, 삶의 신산함을 짙은 한 문장으로 흘뿌려 놓은 이는.

기념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운타운의 7가와 샌 피드로 스트리트 부근, 허름한 공장이 밀집한 빌딩 숲을 지날 때였다. 어디에서 트럼펫 소리가 들렸다. 한 블록 위엔 노숙자들의 텐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곳. 나는 소리를 쫓아 골목길로 들어섰다. 빌딩과 빌딩 사이 한구석에서 허름한 중년 흑인이 트럼펫을 허공에 올려 대고, 니니 로소의 ‘밤하늘의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나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의 연주를 들었다. 아마추어 수준을 넘은 실력이었다. 해거름의 열은 햇살에 트럼펫이 반짝였다. 적막만 내려앉은 거리에서 세상 속에 섞이지 못한 그의 고단한 영혼을 달래듯 골목을 휘감고 도는 트럼펫 소리.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모습이 따라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방의 벽이 캄캄할 때를 만난다. 다리 난간에 낙서처럼 절창의 문장을 써 놓은 사람이나 트럼펫을 잘 다루던 사람도 한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때를 놓친 사람일 것이다.

나의 이민 역사도 시련의 연속이었다.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 들었던 어느 세월 좋은 사람의 낭만적인 노래가사에 나성은 지상 낙원인 줄 알았다. 막상 이곳에 첫발을 디딘 사람에게는 꿈이 확 깨는 오아시스 같은 노래였다. 그 노랫말이 다시 들리기까지 오랜 세월을 허덕여야 비로소 귀에 찾아오는 소리였다.

미국에 온 지 8년 만에 흑인 빈민 지역에 리커 스토어를 인수했다. 그 업체를 갖기까지 8년은 사철 내내 '햇빛은 짹짹 모래알은 반짝이는' 사막의 땅 엘에이에서 온몸으로 햇빛과 맞짱을 뜬 기간이었다. 몇 년은 주유소 펌프맨으로, 몇 년은 정원사로 햇빛과 싸웠다. 그즈음은 한국에서 온 이민자라면 누구나 다 그만그만한 세월의 언덕을 힘겹게들 넘었다. 힘겨웠다고는 하지만, 꿈이 있었으니 힘겨운 것쯤이야 능히 견딜 수 있었다.

한인 사업가들은 비교적 심성이 착하고 다루기 쉬운 흑인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빈민이 많아 정부에서 생활 보조금을 받는 이가 많았고 그렇게 받은 돈을 흑인들은 험프게 풀었다. 기대한 대로 장사는 잘되었다. 미국으로 온 지 10년 만에 비로소 안정을 찾기 시작한 어느 날, 흑인 밀집 지역인 사우스센트럴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한국인의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이 사태의 발단은 폭동이 일어나기 한 해 전, 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 청년을 붙잡아 4명의 백인 경찰이 무차별 폭행했던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민이 찍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는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적 패악성이 날날이 드러나 있었다. 흑인들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은 네 명의 백인 경관에 대한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이 나자 분을 참지 못한 흑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폭도로 변한 사건이었다. 치안 공백이 된 엘에이 사우스 센트럴지역에 흑인들은 방화와 약탈을 저질렀고 2,300여 군테의

한인 업소가 피해를 보았다. 폭도로 변한 군중은 한인 업소를 주 타깃으로 여겼다. 흑인들이 한인업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드니 킹에 대한 구타 사건으로 흑인사회가 울분과 분노로 들썩이던 2주일이 채 안 된 하필이면 그때, 흑인 밀집 지역의 한 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의심받던 나타샤 할린즈라는 15세 흑인 여학생이 한인 여주인이 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도 배심원단의 피의자에 대한 유죄평결에도 불구하고, 백인 여성 판사는 한인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백인 여성 판사는 그 사건의 정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인 업주의 손을 들어줬는지, 한인을 개입시켜 백인과 흑인 간 일촉즉발의 위기를 한인과 흑인의 갈등으로 물꼬를 틀 계산된 판결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한인 업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좀 더 상식적인 접근을 했었다라면 폭동의 성격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또한 알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 판결은 한-흑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한 단초가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폭동이 있던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새벽 장을 보러 나섰다. 잔뜩 구름이 내려앉은 날씨가 이날 있을 라드니 킹에 연루된 경찰관들의 배심원 평결을 앞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와 닮아 있었다. 도매상을 찾은 한인 마켓 업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두어 시간 앞으로 다가온 라드니 킹의 평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 상인들은 평결을 앞둔 며칠 전부터 흑인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여차하면 들고 일어날 기세로 흑인 커뮤니티가 버르고 있는 분위기는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더라도 이미 알고 있던 터였다. 도매상에 모인 상인들과 나는 이 긴장 속에서도 엘에이의 강력한 경찰력을 믿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헤어졌었다.

쇼핑하고 온 물건을 가게에 부리고 있을 때였다. 라디오에서 라드니 킹 배심원단이 폭행을 가한 경찰관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는 속보가 나왔다. 설마 했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라디오에는 엘에이 사우스 쪽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각별히 주의

하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뭔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였다. 종업원들과 함께 물건을 정리하던 나는 종종 마켓 밖을 나가 동정을 살폈다. 대로가 아닌 동네 길이라고는 해도 평소와는 달리 지나가는 차가 현저히 줄어 있었다.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거리는 을씨년스러웠고 검은 비닐봉지가 간간이 부는 바람에 낮게 떠서 날리고 있었다.

시위나 폭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공권력을 믿고 싶었다.

“잔, 티브이 켜봐. 놀맨디에서 사고가 터졌어.”

동네 주민인 페드로가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했다. 안 그래도 티브이를 막 켜려던 참이었다. 티브이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리커 마켓과 지척 간인 놀맨디와 플로렌스가 맞닿은 사거리에서 대형 트럭을 모는 백인 운전사가 흑인들에게 끌려 나오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영하고 있었다. 이미 긴장된 마음에 이 상황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흥분해 있는 군중이 저 운전사를 온전하게 내보낼 리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문득, 나는 경찰력이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는 이 땅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방송사 헬기에서 찍은 영상에 경찰차는 보이지 않았다. 전 같았으면 방송사 헬기가 떠서 촬영할 정도면 헬기보다 먼저 와 있던 것이 경찰차였다. 흑인들 손에 끌려 나온 백인 운전사가 몰매를 맞고 있었다. 백주 대로에서, 시민이 폭행당하는데도 경찰이나 구급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가게 밖은 금방이라도 뭔가가 터질 것 같은 흥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디를 가는지 모를 젊은 흑인이 가득 탄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거리를 질주하는 것이 더러 보였을 뿐 일반 차량의 통행은 보이지 않았다.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업주들은 신속히 대피하라는 엘에이 경찰국의 포고령을 티브이에서 속보로 전하고 있었다. 헬기에서 촬영하는 영상에는 최초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놀맨디와 플로렌스가 만나는 거리에 시위대가 운집해 있는 모습에 영

글을 맞추고 있었다.

“잔, 왜 문 안 닫고 여태껏 이려고 있어! 방송 안 들었어?”

몇몇 동네 사람이 가게로 찾아와 나의 굵직한 행동을 나무랐다. 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차라리 종업원과 동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지키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불화살을 쏘아대는 캘리포니아의 태양에 맞섰던 8년 만에 일군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들어 있었다.

갑자기 무리 지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적막만 무겁게 깔려있던 차도에 하나둘 모이던 인파가 순식간에 밀물 들어오듯 불어났다. 그때까지 가게에 머물며 사태를 살피던 흑인 종업원인 게리와 엘살바도르인인 까를로스가 겁에 질린 듯 가게 문 닫기를 재촉했다. 나의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다.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니었다. 초를 다투어야 했다. 순식간에 균중으로 변한 인파에서 분노에 찬 구호가 악다구니처럼 들렸다.

‘쳐들어가자, 베벌리로!’

더러는 누런 박스를 뜯어 엉성하게 매직펜으로 ‘베벌리로 가자’는 선동 글을 적은 피켓을 들고 고향을 질렀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위의 대상은 백인을 향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엘에이 서쪽에 위치한 베벌리힐스와 할리우드 지역은 상류층인 백인이 사는 지역이다. 그곳은 흑인들에겐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했던 질시의 땅이었다. 흑인들은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가게를 지키려던 마음도 엄습해오는 공포와 현실적인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 황급히 가게 문을 닫고 차에 올랐다. 차도에 들어찬 인파로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운전석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누군가가 균중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기, 펙킹 코리안이 있다!”

몇이나 되는지도 모를 눈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차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전자를 쳐다보던 누군가가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

로 창문을 쳐대었다. 누군가는 욕을 해대며 차체를 발로 걷어찼고, 차를 마구 흔들어대기도 했다. 그제야 나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했다. 이 시위는 백인만을 성도하려는 게 아니었음을 알았다.

나는 이미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침착하자. 침착하자’를 주문처럼 외웠다. 만일 이곳에서 끌려가면 백인 트럭 운전사처럼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었다. 불안한 내색을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군중심리의 빌미를 줄 수도 있을 터였다. 속내를 감추고 태연해지려 애썼다.

간신히 큰길을 피해 좁은 동네 골목길로 들어섰다. 마의 소굴을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인파가 몰려 있지 않은 골목길을 골라 다니며 어렵게 프리웨이 근처에 다다랐지만, 대로를 가로질러 프리웨이에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흥분한 군중에게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한인 방송사인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실시간으로 급박한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사우스 엘에이 쪽의 업주들은 신속히 빠져나오기를 거듭 촉구하는 경찰청 포고문을 계속 전하고 있었다.

궁리 끝에 뒷좌석에 있는 물건이 든 작은 종이 상자를 꺼내어 ‘아베아무스 아미고! (Abeamus amigo! 동지여! 앞으로 나가자)’ 라는 글자를 볼펜으로 덧입혀 선동 글귀를 적었다. 일테면 라티노로 행세하며 동류의식을 유발하는 속임수를 쓸 작정이었다.

볼펜의 심을 뽑아 손바닥에 잉크를 빼내 덕지덕지 얼굴에 바르고, 마시다 남은 물을 머리에 부어 머리를 헹글어놓았다. 얼추 굵은일을 하는 라티노 노동자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었다. 청년 때부터 불만이었던 곱슬머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그 방법은 통했다. 차를 앞으로 나가면서 운전석 옆 차창을 조금 열어 손에 든 팻말을 흔들어가며, 아베아무스 아미고! 하고 히스패닉 말로 소리 소리 지르는 것으로 공포심을 삭여냈다. 흥분한 군중이 ‘와, 와’하며 화답을 하

는 사이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가는 듯배처럼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밀리듯 나갔다. 불과 몇 십 미터도 안 되는 건너편 프리웨이 진입로에 간신히 닿았지만, 입구에는 통행금지 차단막이 싸늘하게 쳐져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나는 다시 능청스럽게 시위대와 맞장구를 쳐가며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다가 마침 오른쪽에 나 있는 동네 진입로로 자연스럽게 빠졌다. 대로를 건너 민가 옆으로 난 작은 동네 길로 들어서서 폭풍의 핵을 벗어나 로컬 길로 집으로 갈 수 있었다. 여러 곡절을 거쳐 집에 도착한 나를 사색이 된 가족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막 세 살이 된 딸아이를 덤석 품에 안자 비로소 눈가가 핑 돌았다.

이 폭동으로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던 사우스 센트럴이 불바다가 되고 대다수 한인 사업체가 재로 변했다. 나는 타다만 가게 건물 벽에 기대어 뉘엿뉘엿 흘러가는 구름을 망연히 쳐다보았다. 허무했고 막막했다. 그때 내 눈을 밝혀준 것이 시멘트 바닥 사이로 노란 꽃을 피워 올린 민들레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저, 억척! 저런 억척이면 된다. 민들레를 닮으면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처져 있던 마음이 불끈 용기가 솟았다. 녀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타다 만 가게를 개축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가까이 혹은 멀리 떨어져 있던 동종의 가게들이 불타고 사라진 후여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폭동이 지나간 흑인 동네는 잠시 평온을 유지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였다. 백인 경관들의 무죄 판결에 여전히 흑인사회가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해에 재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최초 흑인 폭동에 호되게 당한 한인 업주들도 총기류를 점검하고 당하고만 있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형이 걱정스러운 남동생은 오래된 실탄을 바꿔 장전하라고 45구경과 38리볼버 권총의 총알을 새로 사 왔다. 나는 45구경은 허리벨트 뒤에 꽂고 38리볼버는 계산대 밑에 놓아두었다.

흑인사회는 여전히 불만의 기류가 감돌았다. 이른 아침에 도매점에서 사 온 물건을 종업원들이 진열하는 사이 나는 계산대 앞에 있었다. 그때 스무 살도 채 안 된 것 같은 흑인 청년 하나가 들어오더니 다이스(주사위) 한 짝을 요구했다. 계산대 뒤에는 잡화 종류가 다양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별생각 없이 뒤돌아서 주사위를 집어 뒤돌아섰을 때였다. 아이가 시커먼 총을 나에게 겨누고 있었다. 꼭 장난 같은 생각이 들어 “에이 가이, 치워!” 나는 손으로 총구를 치우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아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총구를 흔들어대었다. ‘헨 샵, 헨 샵! (hands up!)’ 나는 비로소 그가 말로만 듣던 강도인 줄 알았다. 총구가 눈에 아른거린 후였다.

아이가 계산대를 점프해서 들어와 계산대 밑에 있는 권총을 수거했으며 내 바지 주머니를 툭툭 건들며 총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마침 물건을 부리느라 굽고 넓은 허리 보호대용 가죽 벨트를 해서 등 뒤에 45구경 권총이 있는 걸 그는 눈치를 채지 못했다. 아이가 총을 쏘려 계산대에 돈을 빼고 돈을 감춰둘 만한 곳을 뒤지는 동안 나는 충분히 허리 뒤의 총을 꺼내 발사할 수 있었다. 짧은 찰나, 수많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통계에는 4.29폭동을 전후해서 만여 개에 달하는 한인 업체에서 연 30명의 강도에 희생된 한인 업주가 발생했다고 한다. 희생자 대부분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던 여성이거나 강도에 대항하다 당한 케이스였다.

저 아이가 몇 푼 안 되는 돈만 가져간다면야 문제 될 게 없겠지만, 저도 잔뜩 긴장한 터라 여차하면 총질하지 말라는 법도 없었다. 순간 딸아이의 해맑은 모습이 떠올랐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많은 갈등을 했다. 그렇다고 내 손으로 사람을 쏘아 죽여?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총을 빼 들었고 그에게 쏘았다. 퍽! 불발이었다. 그 소리에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아, 나는 죽었구나. 나는 그가 내게 총을 겨누고 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번개같이 몸으로 그를 덮쳤다. 둘이 엉겨 붙었고 호리호리한 아이여서 무술 유단자인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다뤘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격발이 불발되자 그때부터 나는 캄

깜해져서 정신이 없었다. 그 아이도 불시에 덮친 나로 인해 총을 떨어트린 것만 명료하게 기억에 남았다.

나와 옥신각신하던 강도는 돈과 총을 팽개치고 계산대를 넘어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 불발된 실탄은 규격이 다른 것으로 동생이 잘못 사 온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었고 나도 죽지 않았다. 그때 총알이 발사되고 그가 죽었다면 나는 평생을 미국에 온 걸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후유증은 무서웠다. 사고 당일은 무덤덤하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흑인 아이들이 다 강도 같아 보였고 계산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만 가도 머리끝이 곤두섰다. 대략 3개월 정도는 계산대 근처에 가지 못했다. 장사가 잘된다고 했더니 호사다마라는 사자성어처럼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라드니 킹 사건의 재심에 몇몇 백인 경관이 유죄로 뒤바뀌자 비로소 흑인 촌이 조용해졌다. 이 사건이 일단락되자 흑인 촌에도 한인업소에도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늦가을 어느 날이었다.

온종일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로 늦은 밤의 점포 안은 나와 종업원 외에 손님이 없었다. 이런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때이기도 했다. 그때 열여섯 일곱 살 쯤 된 앳된 흑인 소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곧장 맥주를 진열해 둔 냉장고에서 두 병의 맥주를 들고 나왔다. 창고로 통하는 뒷문 옆에 있던 내가 물었다.

“에이, 가이 너 몇 살인데?”

“열여섯.”

“넌 미성년자야. 못 팔아.”

“와이 낮?”

와이 낮은 무슨 와이 낮이야, 가게에서 나가! 팽랑한 놈 같으니라고.

그가 씩씩거리며 나가자 종업원과 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오면서 옆구리에 찰싹 붙여서 감추고 들어온

‘우지’라고 하는 기관단총을 꺼내 잼싸게 내게 겨누었다. 30센티미터 보다 약간 긴 총에 짧은 총열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몸을 피할 겨를도, 허리 뒤에 총을 꺼낼 겨를도 없이 ‘어’ 하는 순간에 그가 총을 쏘았다. 퍽, 불발이었다. 그 순간 총을 꺼내든 나보다 먼저 문을 열고 나간 아이와 곧이어 들리던 액셀레이터 밟는 자지러지는 소리. 순간적인 일이었다. 귀에 남아 있는 ‘퍽’ 소리는 전에 강도 사건 때 내가 쏜 총의 불발 소리와 같았다.

나는 그날 집으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저 기관총의 불발이 일부러 나를 겁주려고 의도한 것인지, 실제로 불발된 것인지에 대해서였다. 엘에이에는 파란색을 상징으로 하는 ‘크립스’와 붉은색을 그들의 이미지로 하는 ‘볼러즈’라는 악명 높은 두 라이벌 갱단이 있다. 특히면 총질로 싸우고 죽이는 집단인데 이들이 갱단에 가입하는 신참내기 아이들에게 강도짓을 시키거나 라이벌 갱단에게 총질시켜 담력을 키운다고 한다. 그게 어떤 것이든 나의 결론은 불발이었다. 겁주려고 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짓을 할 리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혹시 지난번 강도 사건 때 한 목숨을 죽일 뻔했으나 불발된 인과의 결과는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다. 어쨌든 나는 또 죽었어야 할 몸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서늘해 왔다. 이것은 내 삶에 대한 몇 차례의 경고가 아닌가를 생각했다.

‘그래, 접자.’ 이것만이 내가 해야 할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나를 믿고 있는 내 가족, 특히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내 몸부터 잘 지켜야 할 의무가 내게 있는 것이다. 나는 그후 쌍권총 차고 벌어 놓은 돈을 새 사업을 하면서 탈탈 털렸다. 그랬음에도 불멸의 의지인 내 친구 민들레의 교훈으로 다시 일어섰고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

균락을 이루면 몸 사리지 않아도 된다

어깨를 걸고 숲을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외롭다거나 슬프지 않아도 된다

대궁을 키워 올려 출가시킨 여린 손들
 바람은 제 새끼마냥 등에 태워 데려갔지
 언덕길
 후미진 빈틈 낮과 밤이 어두운 곳에
 잡풀이라고 눈 밖으로 밀려난다 한들
 양양 되던 새순들이 햇살 비낀 음지에도
 보란 듯
 억척스럽게 밀어 올린 질긴 참견
 언덕배기 길옆에 길게 성을 구축하고
 마침내 이룬 일가 황색기 세워 박고
 하나, 둘
 등불을 켜다 몸 시렸던 거리에

〈민들레를 보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쓴 시조. 2016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민들레 촌’으로 신인상〉

아직 제대로 말문이 터지 못한 두 살짜리 손녀의 손을 잡고 햇볕 내려앉은 뒤뜰을 거닌다. 화단 끝머리 담 밑에 한 무리의 민들레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손녀와 함께 나는 민들레꽃 앞에 오래 머물렀다. 활짝 핀 노란 민들레꽃은 잘 웃는 손녀의 얼굴을 닮았다.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평화가 비로소 내게 찾아왔다. 40년 만이었다.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채 단비 (프랑스)

드디어 빨래 바구니가 다 찼다. 가득 찬 빨래 바구니를 보는 나는 미소가 번진다. 이케아 빅사이즈 빨래 바구니를 왼쪽 어깨에 둘러 멘다. 짐은 최소로 할 것. H&M 빛바랜 청재킷 안주머니에 동전 지갑, 열쇠, 휴대폰, 책 한 권을 옥여 넣는다. 집 밖을 나갈 때면 언제나 내 곁을 지키던 흑기사, 회색 백팩과 유선 이어폰을 두고 가려니 막상 아쉽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괜히 질척거린다. 그래도 먼 길 떠나는 거 아니니 괜찮다고, 이내 자신을 다독이며 손을 거둔다.

걸어서 5분. 손잡이를 돌리지 않아도 열리는 문 앞에 선다. 내가 원할 때 언제나 발을 들일 수 있는 곳. 하얀 타일, 하얀 벽. 코끝을 스치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 바로 직전에 청소를 끝낸 모양이다. 유리 통창을 뚫을 듯 햇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햇살과 나만 공간을 채우고 있다. 아무도 없다. 오길 잘했다. 들고 온 이케아 백을 모두 비우고 창 너머 인도와 2차선 도로를 잠시 바라본다.

한국과의 거리 약 9,400km, 시차 7시간(서머 타임 적용 시). 올해로 프랑스에 산 지도 햇수로 11년이 되었다. 프랑스에 살며 4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얻지 못한 단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세탁기이다. 유학 초기 나의 첫 세탁방은 기숙사 근처 작고 그늘진 건물 1층의 허름한 공간이었다. 처

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세탁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힐끗거리며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을 때도 세탁 세제를 부을 때도 시선이 날아와 내 몸 여기저기에 꽂히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세탁방에서 술을 마시며 쉬는 노숙자를 마주치기도 했다. 괜히 덤덤한 척 빨래를 준비했지만 두려움에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날부터 한동안 집에서 손빨래를 했다. 세면대에서 청바지를 빨고 손으로 짰다. 집 안 곳곳에는 널어놓은 양말과 속옷들로 빨래 커튼이 생겼을 정도였다. 이때부터였을까. 내게 세탁은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골칫거리가 되었다.

손빨래 생활 4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신식 기숙사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다. 지긋지긋했던 림셰어를 청산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숙사 지하에 코인 세탁기가 있다는 사실에 이미 내 마음은 들떠 있었다. 옥탑방이던 어때, 이렇게 삶의 질이 한층 올라갔는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건물 지하는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었다. 세탁방은 항상 어두웠다. 불을 켜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져서 다시 어둠 속에 갇혔다. 내 뒤에서 아니면 킁킁한 구석 어딘가에서 누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세탁기를 돌리자마자 항상 도망치듯 내 방으로 달아났다. 손빨래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이제는 세탁이 어떻게든 미뤄야 할 공포의 미션이 되어버렸다.

기숙사 생활을 전전하다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 2017년부터 함께 사는 지금도 여전히 코인 세탁방을 다니고 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사다리꼴 모양의 우리 집.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장실 겸 욕실, 주방, 거실, 침실이 경계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문과 출신답게 2,000여 권의 책을 짊어지고 사느라 집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 9평 짜리 집에 남편이 먼저 이사를 들어왔을 때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밥이나 세탁이나. 주방 싱크대 옆에 가스레인지와 세탁기를 둘 유일한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선택은? 남편은 주저없이 가스레인지를 선택했다. 선택의 대가로 우리는 배부름을 얻었지만 빨랫감과 세탁 세제를 챙겨 매주 집을 나서야 하는 귀찮음을 감수해야 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선택을 납득할 수 없었다. 미식의 나라 프랑스 출신이면 뭐하나, 요리
에 취미 하나 없는 양반이면서... 이런 사람이 가스레인지와 오븐을 고집하
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후발대로 집에 들어온 굴러온 돌이니 별다른
발언권이 없지 않은가.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나는 세탁기를 언제
장만할 수 있을까...' 한동안 무거운 빨래 가방을 들고 고군분투할 때면 내딛는
발걸음마다 구시렁대며 불평을 쏟아냈었다.

어느덧 프랑스 살이 8년 차가 되었고, 코로나19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곧이
어 프랑스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졌다. 하늘길도 막혀서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갈 수도 없었다. 한국 역사책에서나 배웠던 이동 제한령과 통금을 프랑스에서
겪었다. 마트, 코인 세탁방, 약국처럼 기초 생활 영위를 위한 곳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할 수 없었다. 삼시간에 9평 투룸이 나의 온 세상이 되었고 시간이 지
날수록 나도 9평짜리 사람이 되어갔다. 학업과 살림, 여가생활까지 9평 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내 몸이 닿고 생각이 머무는 곳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시간
도 공간도 멈췄다, 9평 안에서. 가장 편안했고 언제나 안락할 거라고 믿었던
집이 답답해졌다. 극 내향형인 내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성전이었던 집이 나를
움아매고 위협하자 내 안에서도 연이어 폭발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와 거의 동시에 나는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박사 1년차의 패기로
도서관에서 닥치는 대로 책을 빌려왔고 비상금을 털어 책을 사들였다. 하지만
도서관도 카페도 문을 닫은 코로나 시국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공부할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집에서 책장을 아무리 넘겨봐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무
기력과 자괴감만이 나를 감쌌다. 프랑스어로 학업을 해야 하는데 프랑스어가
읽히지 않는 지경까지 다다른 것이다. 대책이 필요했다. 석사 시절 세탁방에
노트북을 들고 가 한두 번 논문을 썼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당시 영감
을 얻기 위해 엉덩이를 붙인 곳마다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두드렸었다. 휴가
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수업을 기다리던 학교 복도에서도, 그리고 세탁방에
서도. 그 어떤 음악보다도 내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탁월했던 세탁기 소

리. 그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고 그 길로 자처해서 빨랫감을 들고 밖에 나갔다. 책 한 권을 품에 안은 채.

홀로 세탁기 앞에 앉아 세탁기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집에서 3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단어와 문장이 30분 안에 해결되었다. 귀찮음과 짜증을 이케아 백에 넣어 갔던 세탁방이 오히려 나의 안식처가 되었다. 마음 편히 자발적으로 산뜻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던 내게 세탁방은 최적의 공간이었다. 마음이 맞는 프랑스인 남편과 살 아도, 지나가다 얼굴을 보고 인사를 건네는 이웃들이 있어도 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아마도 더 오래 마음을 나누고 웃음을 나눴던 한국 가족들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해 피어난 아릿한 감정 때문이겠지. ‘아, 나는 집을 그리워 하고 있었구나’ 9평 집보다 더 작은 코인 세탁방에서 한국 집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 소음’을 찾아 집을 나섰다. 깨끗한 빨래보다 소음을 들으러 구시렁대지 않으며 발길을 재촉한다. 소음을 들으며 나만의 시공간에 스스로 갇히려 집을 나섰다. 마지막 동전을 기계에 넣고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음 안으로 몸과 마음을 서서히 밀어 넣는다. 일정한 기계음. 물소리.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덜컹 멈추다가 다시 흐르는 물소리. 클라이맥스는 탈수 시간. 절정에 다다르다가 템포를 늦춘다. 결말을 향해 서서히 작아지는 기분 좋은 소음. 9평 집에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향수와 답답함이 소음을 따라 조금씩 사라진다.

적막. 세탁기도 나도 미션 종료. 세탁방의 네모난 문으로 나가기 전 세탁기의 둥근 문을 연다. 바짝 젖어 서로 뒤엉킨 물기 먹은 티셔츠와 바지, 옷가지보다 많은 여러 켈레의 양말을 이케아 백에 차곡차곡 담은 후 왼쪽 어깨에 둘러멘다. 건조는 집에서 할 수 있다. 30분 전 밟았던 길을 되돌아간다. 이제 다시 9평 집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결국 나는 박사 논문을 끝내지 못했다. 코로나와 함께 박사 3년을 보내고 집, 도서관, 세탁방을 번갈아 가며 내 연구의 의의와 동기를 찾아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세탁방에서 다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되찾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내 마음의 향수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세탁 30분으로 해결될 향수가 아니었음을 또 한 번 깨달았다. 하지만 9,000km를 비행기로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3년 반의 시간을 버티러 세탁방에 간다. 빨래 바구니가 어서 빨리 찼으면 좋겠다. 오후 2시의 햇살을 받으며 세탁방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니 말이다. 청재킷 안주머니 속 가족 지갑에서 동전이 짹짹 거린다.

일반산문 부문
(체형수기)
가작

stay hungry, stay foolish!

김 순 희 (일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20대 후반에 접어들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내게 주위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일본어 학원에서 만난 일본인 선생님의 말씀은 달랐다. “더 고민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겐 커다란 발상의 전환이었고, 그렇게 나는 혼자 선생님과 인연을 시작으로 일본유학을 꿈꾸게 되었다. 스물일곱의 어느 날, 비자신청 등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끝내고 부모님께 일본행을 통보했다. 십여 년 전, 보수적인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시골 살림에 아들 셋의 대학공부를 위해 인문계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내 고집을 꺾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졸업 후 3년 동안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나는 그 후 영업직으로 전환할 때도 무언가에 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사회생활 4년쯤 지났을 때 독학사라는 제도를 알고 도전해 봤지만, 바쁜 일정과 주말을 이용한 청강을 따라가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27살에는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야간대학 입학 창구를 두드려 봤지만, 당시만 해도 사회인에게 만학의 문은 넓지 않았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부모님은 내가 적당히 직장생활을 하다 평범하게 결혼해 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나는 8년의 직장생활에 중지부를 찍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 스물여덟의 나이에 일본땅을 밟았다. 마음속으로 '30대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를 외치며.

유학생들과 결혼

일본에서의 유학생들은 일본어 학교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의 내 목표는 일본어 학교 졸업 후 호텔 관련 분야의 전공을 밟아 호텔종사자가 되는 것이었다. 전문직에 대한 희망과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호텔업의 일이 나에게 잘 맞다고 생각했다. 한국에서 일본어 학원에 다녔지만, 내 일본어는 그리 쉽게 늘지 않았다. 살아있는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다. 짧은 일본어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몇 군데 거절당한 끝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설거지, 칵테일 만들기, 홀 서비스, 청소 등을 했다. 외국인은 혼자뿐이었는데 듣기와 말하기가 좀처럼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나름 8년이란 직장생활에서 얻은 자신감도 있었고 열심히 하면 사람들 마음은 다 통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다.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선전용 전단을 돌리기도 했다. 2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오후에 저녁 아르바이트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리더에게 전화를 했을 때,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게 되었다.

“김 상은 해고됐다”라고. 전날 밤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침에 전단지를 돌리고, 사장님께 인사까지 하고 왔는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었다. 결국, 일본어를 잘 못 하고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나는 한 달여 일한 일본 가게에서 잘린 것이었다. 사장님은 나를 아르바이트생 리더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자리를 피해 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언어소통이 잘되지 않는 외국인인데다 일본의 선술집 분위기도 잘 읽지 못한 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당시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납득

하기 힘들었다. 언어와 문화의 벽을 실감한 쓰디쓴 경험이었다.

일본어 학교를 마칠 무렵, 유학 생활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났다. 둘 다 혼기가 짝 찬 나이로 결혼 소식을 기다리시던 양가 부모님들은 무척 기뻐하셨고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미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호텔 관련 전문학교 진학도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 멀어져갔고 호텔종사자의 꿈도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그 후 아르바이트로 일본어 학교에서 사무보조 일자리를 얻었고 2년 후에는 정직원이 되었다.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태어났고, 두 달이 지나 친정엄마가 오시자마자 직장에 복귀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필사적으로 분투했었던 것 같다. 생후 3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6년을 보육원(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들은 세 살까지 유독 병치레가 많아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남편과 나를 단련시켰다. 그때마다 초보부모인 남편과 나는 멀리 있는 한국의 가족들보다 보육원 선생님들과 친구 엄마들, 인터넷 정보를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꿈에 그리던 대학생이 되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야간대학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50대 이후 언젠가 아이가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을 때 대학을 가고 싶다는 꿈만 꾸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야간대학에 원서를 냈다. 당시 야간대학의 수요가 별로 없었고 원서를 낸 야간대학의 학과도 축소되어 지원 가능한 학과가 영문학과뿐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남편의 협조와 회사의 배려에 힘입어 나는 그렇게 서른여덟의 나이에 대학생이 되었다.

“배움의 가장 큰 증거는 변화에 있다.” 첫 수업에서 한 교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다. 그렇게 시작된 야간대학 수업은 바쁘게 돌아갔다. 5시 45분에 회사를 마치고 6시 10분부터 시작하는 수업에 맞춰 자전거를 달려 대학에 도착했다. 9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면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과제와 집안일을 끝내고 12시가 넘어야 잠들 수 있는 생활을 4년간 계속했다. 토요일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캠퍼스의 과목을 수강해야 했고 일요일은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해야 했다. 영어라는 외국어를 20년 만에 다시 접하며 공부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늘 꿈꾸던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과 변화에 대한 기대는 힘든 공부조차도 즐겁고 가슴 뛰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경험한 적 없던 나는 강의실에 앉아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외국인으로서 접하게 되는 일본의 젊은 학생들과의 교류는 흥미진진했다. 가끔 내가 첫 수업의 강의실에 들어가면 떠들고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쌩’ 하고 조용해지곤 했다. 내가 맨 앞자리에 앉으면 “뭐야! 교수님이 아니고 학생이잖아” 라며 만학도에 속았다는 뒤통수가 간질거리는 수군거림이 들리곤 했다. 외국인이 거의 없는 사립대학에서 나는 일본 학생들과 나이만 다를 뿐 똑같은 학생으로, 어쩌면 더 열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이어갔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정해진 시간 내에 서술시험을 치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영어 교수님들만은 내 실력보다 적극적인 태도에 후한 점수를 주셨다. 나의 도전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맘껏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싶은 욕심에 야간 검도부 동아리에 들어갔다. 검도 실력이야 초보에서 시작해 초보로 끝나고 말았지만, 한국에서 드라마를 보며 동경했던 검도를 경험하고 다른 과의 학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도구로 무장을 해도 20대 초반의 젊은 남학생들과 대전을 치르고 나면 숨은 턱까지 차 올랐고, 가격당한 머리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얼얼했고, 어느새 팔뚝엔 보랏빛 멍이 들어 있곤 했다. 한국과 같은 장유유서의 유교적 문화가 뿌리 깊지 않은 탓인지 격의 없는 그들의 대우가 어떨 때는 참 편했다. 덕분에 대학생활의 큰 추억으로 남았다.

동일본대지진이 남긴 것

대학교 3학년이 끝날 무렵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다. 동북지방, 그중에서도 내가 사는 미야기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와 피해가 발

생했다. 그전까지 크고 작은 지진은 익숙했지만, 그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진동과 함께 찾아온 정전으로 엄청난 공포가 엄습했다. 회사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학교로 달려가 머리에 보호모자를 뒤집어쓰고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4층인 집안은 쏟아져 내려 산란한 식기들과 쓰러진 가재도구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위층에서 물이 새는지 벽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전기, 물, 가스는 모두 끊긴 상태였다. 계속되는 여진에 아들은 책상 밑에 들어가 울음을 터트렸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센다이한국총영사관이 피난 대피소 역할을 하는 것도 모르고 지역 피난소로 지정된 초등학교로 가려고 하니, 역에서 발이 묶여 귀가할 수 없게 된 사람들로 이미 발 디딜 틈 없는 포화상태라 했다. 다행히 어린이회 학부모의 도움으로 근처 커뮤니티센터에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발이 날리는 캄캄한 밤길을 걸어 피난소에 다다랐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담으며 주먹밥을 배급받고 자가발전도 있었지만, 휴대전화 충전은 엄두도 내지 못 하고 한국의 가족, 지인들 걱정에 지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소식도 모른 채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해하며 이틀 밤을 보냈다. 전기가 복구된 후 집에 돌아와 TV를 통해 접한 쓰나미 피해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들의 엄청난 피해 영상에 그저 할 말을 잇는 채 눈물만 흘렸다. 부랴부랴 한국의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렸더니, 우리와의 연락 두절로 심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셨단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방송된 쓰나미 영상을 보시고 큰 충격을 받으신 데다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형제들이 동경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행방불명 신고를 해놓고, 연락이 올 때까지 애간장을 태우셨다고 한다. 비상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점을 돌고 물을 길어 쓰며 불편한 생활을 하던 중, 이번엔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공포에 소문만 무성했고 가솔린 보급에 비상이 걸리며 센다이한국총영사관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피난을 독려하는 연락이 왔다. 결국, 지진 발생 일주일 만에 남편을 남겨둔 채 아들과 센다이한국총영사관에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아키타로 이동했다. 집에서 가까운 센다이 공항은 쓰나

미로 모두 침수되고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난민 같은 참담한 기분으로 아키타에 도착해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무사히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몸이 기억하는 지진의 공포는 한동안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시댁에서 배추 농사를 도우며 보낼 수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결국, 2주 만에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지진 발생 후, 한 달 만에 물과 가스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서글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한동안 지속되던 우울함도 일상을 회복하며 사람들과 만나 지진 극복기를 공유하면서 안정되어갔다. 당시 우리 가족을 위해 비상식량과 음식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먼길을 달려와 준 일본의 지인, 한국어 통역 직원까지 동반해 호텔을 수배해주고 비행기 항공권 예매를 도와주던 아키타 국제협회 직원들, 충전기와 담요를 빌려주던 어린이회 학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웃'의 고마움과 동병상련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게 된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그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재난을 경험하며 우여곡절 끝에 대학교 4학년을 무사히 마쳤다. 졸업식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많은 일본인 학생들 속에서 유일하게 한복을 입은 한국인 학생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

대학원 진학과 새로운 도전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동안 왠지 모를 허탈감에 '늦공부는 자기만족'이라는 깨달음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만학으로 얻은 배움에 대한 갈증과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은 나를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다.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나는 고민 끝에 한 일부교연구로 방향 전환을 모색했다. 몇몇 대학원 코스에 문을 두드리고 몇 번을 거절당한 끝에 어렵게 한 곳에서 청강생의 기회를 얻었다.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4월부터 연구생으로 입학 약속을 받고 조심스럽게 청강수업을 받으며 새로운 공부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2월 말이 되어 교수님과 면

답에서 최종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미 회사에는 3월 말로 사직서를 낸 상태였다. 전공과목을 살리지 못한 전문성 부족과 열정만으로 부딪힌 결과였지만, 예상치 못한 최종 통보에 일주일 동안 위가 쓰린 경험을 해야 했다. 결국 1년 후, 졸업한 대학으로 돌아가 영어교육 관련 분야로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음을 직감하면서도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지도교수님은 대학 2학년 때 나에게 많은 감명을 주신 분으로 한일 간 역사 문제에 사려와 조예가 깊은 분이셨다. 연구의 주제를 고민하던 나에게 교수님은 ‘한일간의 역사 인식’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다. 처음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교수님은 “김 상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라”고 힘을 실어주셨다. 내용과 언어를 통합한 언어 교육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테마로 수업을 구성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언어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과제였다. 실제로 연구수업에서는 한일 간에 얽힌 근대사의 역사적 사건을 소개하고, 어렵게 섭외한 한국 유학생들을 게스트로 참가시켰다. 일본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해 전후 결과를 분석했다. 시내에서 ‘한일 프리허그 캠페인’을 주도한 한국유학생을 협력자로 섭외해 캠페인 과정을 소개하고 소그룹 토론에 참가시키면서 교수님 말씀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한일교류의 연구수업이 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논문 집필과정에서 엄격한 교수님 앞에 자존감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영어라는 언어 장벽에 부딪히며 온갖 자괴감과 포기하고 싶은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기어이 완성할 수 있었다.

대학원 2년 기간 중, 또 하나의 도전은 ‘영어 중·고 교원면허’ 취득이었다. 교원면허를 취득해 일본 학생들처럼 현역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교육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마지막 관문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3주간의 교생실습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철저한 준비와 사전교육을 받으며 시작했다. 때마침 아들이 같은 중2로 반향기의 정

점을 찍고 있던 터라 세대차이라는 문제와 문화적 차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했다. 교생실습은 운 좋게도(?) 이지메 문제와 학생 간의 골절사고 등 사건 사고가 많은 반을 배정받았다. 3주 동안 4시 반에 일어나 9시가 넘어 귀가하며 수업 준비와 수업 진행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역시 어린 학생들과의 소통은 쉽지 않았다. 마지막 날 돌아온 설문지에서 “일본어도, 영어도 알아듣기 힘들다.” “직업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 “목소리만 크고 시끄럽다.”는 코멘트에 가슴에 억눌렀던 무엇인가가 화산처럼 분출되면서 폭소와 눈물을 동시에 쏟아내고 말았다. 문화의 차이를 떠나 교육적 이상과 세대 간의 이해는 좀처럼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였다. 엄마뿐인 나를 어려워할까봐 걱정하며 친해지려 다가갔지만, 오히려 어린 학생들은 내가 생각한 만큼 진지하지 않았다. 소통을 원하지 않는 어린 학생들, 알아도 손을 들어 발표하려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정열적이고 성실한 초보 선생님의 열성은 그저 귀찮기만 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만의 공통의 관심사나 화젯거리(게임, 오타쿠, K-pop 등)로 다가가지 않으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해진 과정만을 성실하게 임했던 탓에 그것을 수업 외 시간에 실천하기란 3주의 시간은 짧기만 했다. 학생들의 그런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지금의 어린 학생들의 표현’이라는 깨달음과 ‘언젠가 이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왠지 모를 희망을 품게 되었다. 마지막 날, 나는 학생들이 귀가한 교실 칠판에 크게 ‘또 만나자’를 써놓고 돌아왔다.

그렇게 마흔여섯 살에 대학원을 마쳤고, 이번에는 한국의 사이버대학에 편입해 2년간 한국어교육 과정과 다문화 전문가 과정을 공부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 한국인 엄마들과 시작한 한글학교 교사와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막상 모국어인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러 내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변화한 한국 사회에 대해 문외한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나를 부끄럽게 했다. 20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은 한국을 방문해왔지만,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에 당

황하면서도 정작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일본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비롯한 문화적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임을 먼길을 돌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

지난 십여 년 동안 공부 외에도 나의 부족함을 극복해 보려 많은 강연회와 한일 관련 이슈와 사회문제를 다룬 모임, 자원봉사활동 등을 쫓아다녔다. 또 7, 8년 전부터는 이(異)문화 이해프로그램에 참가해 한국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시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방문해왔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손질해 입고, 한국의 전통놀이와 가까운 이웃 한국에 대한 수업을 했다. 어린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과 눈망울에 큰 보람을 느꼈고, 나 자신도 많은 공부가 되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생이 되어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준다면 좋겠다.'

나는 아마도 지금 그 작은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9년에 일본에 와 2002년 한일월드컵과 한류붐의 파도를 타고 한국인으로 일본에 살면서 늘 자긍심을 느껴왔고 나도 언젠가 일본 사회의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왔다.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하면서 이웃의 의미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생과 상생을 위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으며 일본에서의 생활이 20년이 넘으며 이제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역할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다. 2019년 11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매년 지진 외에도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는 일본에 살며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자원봉사 모집 안내를 본 나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전화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복과 장갑, 장화 등을 챙겨 집합장소로 나갔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 섞여 버스로 이동해 하천 범람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투입되어 청소와 정리작업을 했다. 모두 진지하게 몇 시간을 진흙탕 속에서 삽질을

했고 나도 여자라고 예외 없이 열심히 삽질을 했다.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아 몹시 피곤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 피곤함도 모른 채, 큰 후유증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틀간의 자원봉사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기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이슈화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와는 별개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젊어서부터 공부로 단련된 연구자나 교육자처럼 네트워크 없었고, 실력도, 경험도 턱없이 부족했다. 가르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던 나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연회나 포럼에서 인사를 나누는 몇 분의 한국어 교수님의 명함을 찾아 이력서를 보냈다. 밀저 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나만의 색깔을 내기 위해 성과과정을 담은 지난 10년간의 사진자료를 만들고, 자기소개서에는 나만의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 훌륭한 연구자도, 우수한 인재도 아니지만, 내가 남과 다르게 걸어온 길에 대해 소개했다. 나와 같은 경험이 한국어교육과 한일교류사업에 활용되기를 바라며, 그런 이유로 '나 자신을 추천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분명 일방적인 내 구직활동이었고 당장 기회가 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랬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팬데믹 상황이 되며 4월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발표되고 대면으로 가르치던 몇몇 한국어 수업도 중단됐다. 자원봉사 활동이며, 어린이 한글학교 수업이며, 자잘하게 이어졌던 활동이 모두 중단되며 심신이 혼란스러웠다. 많은 사람이 경험했을 코로나블루를 경험하며 나는 책과 유튜브 강연에 의지하며 우울할 땐 여기저기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그렇게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이력서를 보냈던 한 대학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내년 4월부터 안식년 휴가를 가는 교수님을 대신해 한국어 수업을 몇 개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흐릿한 빛이 찾아 오가기를 반복하던 내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희망으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았을 때,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왔다. 시내의 공립

고등학교에서 새로운 한국어 선생님을 찾고 있었고, 나는 일본의 정식 교원면허 소지자 자격으로 정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면접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은 다양한 배움을 실천하고 학습환경이 다른 학생들이 많은 학교 특성상 내 경력과 배경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다. 처음엔 한국어만 담당하려던 것이 우연히 한국어의 다음 시간인 영어수업 교원 자리가 비며 영어수업까지 맡게 되었다. 영어 중·고교원 면허가 그 진가를 발휘한 순간이었다. 마치 퍼즐처럼 생각지도 못한 피스들이 맞아떨어지며 나는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비상근 초임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가르치게 된 것이다. 코로나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 한글학교에서 어린이 계승언어를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며, 나는 유튜브를 활용한 어린이 한국어 학습 동영상을 제안해 만들었다. 필드워크 수업의 코디네이터로 대학생을 데리고 한국의 한일역사 관련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무산되었다. 대신 학생들과 함께 미야기현 내에 있는 '안중근 의사와 일본인 간수 치바 도시치'의 인연을 기리고 있는 대림사(大林寺)를 방문했다. 취재한 내용과 만든 자료를 한국의 대학교수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해서 실시했다. '늘 부족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내게 시련과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희망이 함께 다가온 한 해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점을 찍어갈 것이다

일본에서의 23년 동안 나는 유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다시 학생에서 사회인을 반복하며 성장해왔다. 지금은 4살 어린이부터 60대 일반인까지 다양한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다. '한국어교사'라는 직업은 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르치는 일은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한국에 갈 적마다 찾아뵙는 혼자 선생님은 지금도 나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시는데, 선생님의 너무나 역동적이며 한국적인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곤 한다.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에서 나는 그 두 가지를 알게 모르게 몸에 익히고 때론 불끈 뜨거워지는 가슴을 신중함으로 식히며 수동적 자세에서 역동적인 코드로 바뀌가며 기회를 만들고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 지낸 23년 동안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를 떠나보내며 남은 두 어머니께는 왠지 죄송스럽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남편과 아들, 세 식구가 일본에 산 지 20년. 그리고 혹독하게 사춘기를 앓으며 방황하던 아들도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해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남편은 20여 년을 함께한 동지로 우리의 일본 생활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할 것이다. 코로나19로 3년째 뵙지 못하고 있는 친정엄마는 어느덧 여든이 넘으셨고 요즘 부쩍 옛날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보고 싶다고, 내게 미안하다’고 하신다.

만약 내가 20여 년 전 일본행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에 머물렀다면, 지금쯤 나는 현실에 순응하며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의 삶은 내게 많은 도전과 실패, 갈등 속에 고민하면서도 묵묵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지표를 안고 살게 했다. 일본에 와서부터 분명 내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고,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많은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얻은 기회와 도전이 나를 이끌어 주는 큰 힘이었으며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본인의 선택이든, 가족 중에 누군가의 선택이든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생각하지 못한, 보다 많은 외부적 요소들과 부딪히며 방향전환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언어를 비롯한 문화적 장벽에 부딪히며 소수집단이라는 사회적 한계 속에, 때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한정된 기회 속에서 성장과 갈등, 타협을 반복해 간다. 나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30대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20대 후반에 일본땅을 밟았고, 40대 인생을 바꾸기 위해 30대 후반에 대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50대의 나이에 60대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도전은 실패를 통해 재성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다. 처음부터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었지만,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했고, 때로 바보처럼 무지하고 용감하게 도전했다. 뒤돌아보니 그렇게 내가 지나온 시간 속에 수많은 점들이 남겨졌다. 그리고 그 점들이 또 다른 점들과 더해져 그려낼 내 인생의 그림을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또 새로운 점들을 찍어나갈 것이다.

떠나는 삶에 관하여 (동포 5세가 기록하는 인정 투쟁 연대기)

박 동 찬 (중국)

기약 없는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나는 낯설지 않다. 소싯적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다시피 한 모태신앙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늘 『출애굽기』 속 이스라엘 민족의 이산의 일화들로 성도들을 위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신학자들이 과학적인 셈법을 동원해 추산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하면 대충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에서 나와 중국에 정착한 우리 조선 민족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하도 어릴 때의 기억이라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노(老)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때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울부짖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교회 통제는 꽤 살벌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해왔던 나는, 공안(중국의 경찰조직)이 교회로 들이닥칠 때마다 창고로 숨어 들어갔던 기억 또한 잊을 수가 없

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인 나에게 있어서도 목사님의 출애굽 설교는 놓아서는 안 될 동아줄 같은 존재였다.

고조부: 디아스포라 가족의 탄생

고조부가 중국으로 떠난 지도 어언 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실 중국으로 갔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다. 1920년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근대국가가 세워지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아시아 첫 공화정 국가인 중화민국이 이듬해 세워졌다지만 혼란스럽기는 여기나 식민지 조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 동북 지방은 아예 군벌들이 할거하고 있어 중국의 개념이 유통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고조부 세대는 그곳을 만주나 간도 정도로 호명했을 것 같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그런 지리적 개념조차 없었다. 그냥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는 공간이다, 우리말을 자유롭게 쓰고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나라 잃은 비분강개를 뜨겁게 발설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들은 자유에 소속되고 싶었다.

3·1운동 이듬해 조국 찬탈자로부터 수배자로 지목받은 나의 고조부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하령리, 태어난 고향 땅을 등지고 만주로 탈주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했으련만 1942년 5월 이국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조부의 말로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항일운동에 힘썼다고 하는데, 입증자료 미비라는 사유로 그간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는 번번이 반려됐다. 그러던 중에 4년 전쯤, 조부는 발품을 팔아 수집한 얼마 안 되는 사료를 장손인 나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나이도 나이고,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면서 이제는 나의 일이라고 당부했다.

“내가 알기로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는 혜택은 직계 3대까지일 거다. 너가 찾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너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건 없어. 그래도, 무조건 찾아야 한다. 그건 우리 할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국립묘지에 비석이라도 세워야지.”

사실 입증자료 미비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 1949년 사회주의 중국이 건국하면서 50년대 말부터 반우파투쟁, 민족정풍운동 등 ‘인민’과 ‘적’을 구분하는 정치공작이 진행됐다. 그리고 광기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는 문화대혁명까지, 중국의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은 단연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 지구다. 조선족의 집단거주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문화대혁명 때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곳 중 하나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친조카 마오위안신(毛遠新)이 연변에 내려와 문학을 진두지휘했으니 그 파괴력은 가늠할 만하다. 그때 남조선(한국)이나 북조선에 친척이 있으면 조선 간첩, 소련에 갔다 왔으면 소련 간첩, 일본공장에 강제 징용되어 일했던 경험이 있으면 일본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조선족이 부지기수였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공산당 입지 강화를 위해 조선족의 전통과 풍습, 조국관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이용됐다.

올해 여든을 넘기신 동네 어르신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소학교에 다닐 때 시험에서 조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한다. 두 개의 보기에서 하나를 고르는 식인데 중국과 조선이 나란히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난감했을 거란 예상과 달리 당연히 중국을 골랐다는 어르신의 얘기가 이어지자 나는 호기심에 물었다.

“조선을 정답이라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허, 민족분자라고 피떠우(批斗·조리돌림) 해버리지.”

아무튼 고조부의 선택 덕분에 나의 집안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중국에서 살게 되었다. 그렇지만 고조부의 선택권이 그 후손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주어지지 않았던 관계로 우리는 중국에서만 살아야 했다. ‘조선족’이라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을 부여받고서, 히브리 민초들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아쉽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다행 왕을 시작으로 일개 왕국사(왕정사)로 포섭되고 만다. 그렇게 재중 조선인들의 역사도 중국 조선족의 역사로 편입 당하는 수순을 밟는다.

조모: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

조모의 고향은 요녕성 무순에 있는 장당(章黨)이라는 동네였다. 원래는 그냥 오지의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지만 큰 저수지(章黨水庫)가 들어선 후로 저수지와 더불어 유명해졌다. 물론 조모네가 살던 집은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상백관이라는 아무 연고가 없는 마을로 이사 갔는데 사실 강제 이주나 다름없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나마 보상금이 지금까지도 나온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돈 얘기만 나오면 귀가 쫄긋해진다. 조모의 기억에 따르면 1년에 200위안, 계산해보니 한화로 3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었다. 그것도 50년 분할 지급으로 되어있고, 당사자가 부재할 시 지급도 자동 종료된다고 한다.

아무튼, 조모는 그때로부터 떠나는 삶을 시작한다. 지인의 중매로 조부가 (될 사람이) 있는 마을로 와서 살림을 차렸고, 인민공사¹⁾에서 일하면서 입에 풀칠이나 했다. 사실 조모는 10년 동안의 문화대혁명을 온전히 겪은 산증인이거나 마찬가지여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조모의 문화대혁명은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다. 누구를 피떠우(批鬥·조리돌림)한다면 무리에 휩쓸려 동조하고, 발일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일손을 놓고 모 주석(마오쩌둥) 어록을 읽었다고 한다.

“할머니, 근데 중국말 잘 못 하시잖아요. 어록을 어떻게 읽으셨대.”

“혼자서 읽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응얼응얼했지 뭐.”

립싱크를 한 거다. 강하고 독하고 실용적인 조선족이라고들 많이 얘기한다. 쉽게 말하면 조선족은 처세술에 능하다. 이것을 두고 조선족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무엇하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눈치와 처세였다. 자랑스러운 민족성이 아니다.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1992년 5월 2일,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조모는 한발 앞서 서울로 향한다. 한국에 외삼촌이 살아계셨는데 그분의 초청 덕분에 3개월 친척방문

1) 1958년 중국 정부가 농촌의 집단화를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농가의 99%가 가입함.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사실 친척방문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이름이다. 당장 내일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해야만 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의 열기가 한창일 때였다. 모든 사람이 어떤 힘에 떠밀려 자본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었다. 조모도 아마 불안했던 모양이다. 좋게 말하면 앞서 언급한 실용성이고, 아니면 어떤 ‘국제감각’이 작동했을 수도 있다. 함께 부자가 되자는 사회주의 이상은 공허한 구호로만 남은 채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이 중국 현대사의 분명한 전환점임은 수궁이 되지만 그 속에 국가의 또 다른 강제가 개입된 것은 아닐까.

조모는 계획대로 3개월 비자가 만료된 후로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안고 음지에 숨어 지냈다. 단속반이 식당에, 다방에, 공사 현장에 몇 번이나 닦쳤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눈치가 재빠르다고 자평하는 조모는 화장실에 숨거나 뒷문으로 빠져나가 위기를 모면하였다. 지금 조모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웃으며 이야기한다지만 그렇게까지 버텨야 했던 삶은 여간 안쓰러운 게 아니었다.

그 후 조모는 다시 외삼촌의 도움으로 일시적 귀화 정책이 시행될 즈음에 오랜 ‘불법체류자’의 삶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아마도 처음으로 해보는 본인만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불법체류자’라는 조모에게 붙었던 낙인을, 떠남에서 강제되지 않으려는 필사적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런데 말이다. 귀화의 길이 본인의 기꺼운 선택이었을 거라는 나의 기존의 판단이 무색해지고 있다. “할머니, 한국에 계속 사실 거죠?”라고 물으면 요즘은 머뭇머뭇하시다가 “사람 일이란 걸 어떻게 알겠소.”라고 답한다. 아, 조모에게 국적이란 것도 떠나는 것에 지쳐 어디든 정착해서 잠깐 쉬려 했던 방편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하지만 조모는 그 갈망만큼이나 떠도는 삶에 익숙해져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떠나게 된다. 한번 떠남을 경험한 사람에게 두 번째 떠남은 ‘퍽’이나 예사로운 일이다. 모든 조선족이 그런 것 같다. 뿌리 없는 공허함이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 또 다른 월경의 기획자

나의 아버지는 중국 선양(瀋陽)에서 작은 사업, 여행사를 하신다. 그것도 무려 13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돈을 제법 벌었을 법도 한데 부자는 못 되고 여전히 중산층이다. 여행업을 잠시 떠나 전혀 상관없는 직종도 경험해보았고, 목돈을 모아 새로운 장사를 해보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결과는 늘 좋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반백이 되더니 여행사 몇 년만 더하고 귀농이나 해야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하신다. 아버지는 이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아버지의 여행사는 희한하게도 여행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여행사다. 하는 업무라고는 조선족 동포들을 위한 한국 방문 비자 대행이 유일하다. 항공권도 판매하시는데 매출의 99%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이다. 십여 년 동안 조선족 출입국정책은 한 달이 멀다 하고 수없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변화하는 정책을 두고 일희일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자주 보았다. 90년대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불었던 친척방문 열풍, 방문 취업제 도입으로 조선족 사회를 강타한 출국 바람,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까지. 아버지는 늘 질풍노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런 아버지 곁에서 나는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찾아오는 수많은 조선족을 만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로 추방당해 다시는 한국으로 못 가게 되어 눈물 흘리는 중년 아저씨와 한국 비자를 받고도 두고 갈 자식 걱정에 그늘진 얼굴의 어머니들. 아버지의 여행사는 늘 그런 사람들로 북적였다.

한국행으로 잃은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국이 스러지는 조선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고마운 존재임은 틀림없다. 1920년, 나의 고조부는 식솔들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셨고, 그 원한의 강을 다시 건너지 못하고 객지에서 운명했다. 그리고 100년이 흘렀다. 생각해보니 나의 아버지는 강 이편에서 다시 강 저편으로, 사람들의 월경(越境)을 돕고 있다. 그래, 어쩌면 여행사는 정말 운명인가 보다.

“아버지, 그동안 여행사 하면서 한국으로 보낸 사람이 얼추 몇 명 정도 되죠?”

“허, 내가 그거 세고 앉아 있을 정신 있다. 그래도 뭐 한 2,000명은 되지 않겠어?”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버지도 본인이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적당한 장사꾼이다. 비자 값도 내기 어려운 짠한 사정 앞에서는 그냥 손해 보기를 선택한다. 나는 큰돈 못 버는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럽다. 하늘의 고조부도 분명 기뻐할 터다. 아버지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고조부의 꿈을 비행기로 실어 나르고 있으니 말이다.

나: 소수자의 삶과 고뇌

1996년 4월, 나는 중국 선양의 시립 제4 병원에서 태어났다. 내가 출생 병원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훗날 누누이 그 일을 언급한 아버지 덕분이다. 90년대의 중국은 아직도 발전의 새순이 한창 돋아나고 있을 때였다. 아이도 보통 집이나 위생소(보건소에 해당하는 작은 의료기관) 같은 데서 출산하였기에, 시립병원에 간다는 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사치였다. 게다가 아버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며 간호사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홍bao(紅包·뒤통)까지 두둑이 챙겨주었다고 한다. 족히 몇백 위안, 몇 달 치 임금과 맞먹는 돈이었다. 돈은 당연히 조모가 한국에서 송금한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의 은혜를 입었다.

‘떠남’은 나에게 태생적 속성이었나 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중국 신분증에는 주소가 하나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오래전 폐기된 호구 제도는 중국에서 아직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호적(호구부)에 기록된 주소로, 조부와 아버지가 살았던 마을이 신분증에 찍히게 된다. 한국에 온 뒤로 이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은 뻔했으니, 주소가 평생 변하지 않고 따라붙는 중국의 신분증으로 인식했던 탓이다. 실로 호구 제

도는 중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농민공 문제이다. 먹고 살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호구가 농촌, 외지에 있는 관계로 아무런 도시의 혜택도 누릴 수가 없다. 자식이 현지 학교에 취학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사실상 차등적 시민권 제도나 다름없다.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정부의 뜻인가 모르겠다. 그래도 사람들은 즐기치게 어디론가 떠나간다. 떠남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 아닐까.

선양에서 초중고를 나오는 동안 내가 떠나는 일은 없었다. 대신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에 익숙해졌다. 나의 조모는 벌써 한국으로 떠나 없었고, 아버지도 내가 네 살 때 한국으로 떠났다. 그러다가 3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오나 싶더니 이내 어머니가 4학년 때 한국으로 향했다. 나는 성장기의 거의 모든 시간을 결손 속에서 보내야 했다.

“한국에 가는 것도 다 동찬이를 위해서야.”

한국은 어른들이 가는 곳, 한국은 행복해지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버려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우리라고 함은 부모의 한국행이 2000년대 나의 학창 시절에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담임선생님이 한 학기에 한 번씩 결손가정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부모 중 한국에 안 간 경우가 이상할 정도로 모두가 손을 번쩍 들었다. 현대판 이산가족이 조선족 공동체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너도나도 애늬은이가 되었다. 학교서 숙제로 내주는 일기 쓰기와 글짓기는 온통 덧없는 세상과 돈에 대한 염증(厭症)으로 가득했다. 백일장에서는 부모와의 생이별을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친구가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금은 웃으며 추억할 수 있다지만 그때는 사회 분위기 전체가 우울했다. 연변에서 불리는 애창곡 중에 <모두 다 갔다>라는 곡이 있다. “안해(아내)도 갔다, 남편도 갔다, 삼촌도 갔다, 모두 다 갔다. 한국에 갔다, 일본에 갔다, 미국에 갔다, 로씨야(러시아)로 갔다.” 노래 가사가 그렇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한국으로 떠난 모든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다. 돌아

오려고 떠난다. 한국에 몸은 와있는데 마음은 떠난 곳, 처자식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회가 조선족에 거는 ‘기대’가 있다. 한국인으로 살아주었으면, 한국의 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거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한국과 중국이 축구 하면 당신은 어디 응원할 거요?” 몸과 마음이 분열했듯이, 조선족의 정체성이란 것도 동전의 양면과 다름없다. 애초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생각 없는 국제 유목민임을 인지한다면 그런 질문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알 수 있다.

나: 국적은 있어도 조국은 없다

떠남은 꼭 어떤 확인 가능한 지리적 위치를 향해야 하는 건 아니다. 깨달음을 갈구하는 떠남도 있다. 나의 소년기는 ‘나는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한 긴긴 방향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삶은 “너는 조선족이야”였다. 그런데 사춘기의 반항심은 이 명제로도 옮겨갔다. “나는 조선족”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2002년 9월, 나는 집에서 별로 머지않은 조선족 소학교(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일곱 살 때를 가리켜 공부를 잘했다고 하기에는 민망함이 없지 않지만, 사상 각오가 투철했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우등생인 이유로 소년선봉대원이 됐다고 정리하겠다. 소년선봉대는 공산당 산하 어린이조직이다. 나라님의 어록을 읽고 외우는 시대는 다행히 아니었지만, 붉은 넥타이를 매일같이 매고, 국기에 대한 거수경례도 배웠다. 물론 그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다. 우리는 공산주의 계승자라는 주문도 달달 외워야 했다. 어머니가 한국으로 떠난 4학년 때를 제외하고 나의 성적은 늘 상위권에 들었다. 보통 5학년부턴 소년선봉대의 임원으로 발탁되고는 하는데 가장 일찍 대원이 됐지만, 임원은 끝까지 안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때는 몰랐고 나중의 추론인데 나의 기독교 신앙이 아무래도 ‘문제’였을 것 같다.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닌 어머니 영향으로 나는 당시에 중국에서 보기 드문 모태신앙이었다. 학교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묶어두지는 않았지만, 엄포를 놓는 등 핍박은 늘 있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2008년의 기억은 단순하다. 여름방학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한국에 놀러 간 일과 태어나서 12년 만에 한국으로 귀화한 조모를 만난 일,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양궁경기를 보면서 한국 대신 중국을 응원했다가 외조부에게 호되게 혼난 일, 그게 전부였다.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나는 한국이란 존재를 그때 비로소 의식하기 시작했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경계'의 실체를 체감했다. 그것은 각각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각과 생각 사이에 놓인 금단(禁斷)이었다. 양쪽에서 간을 보고 있자니 그 유동성이 오히려 불확실성만 키웠던 것 같다.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영토가 필요했다. 나는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정박지를 찾아 떠났다.

역사 공부와 친숙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기에 정체성에 관한 탐구는 오롯이 내 개인의 몫이었다. 그리고 역사야말로 나의 실존을 가장 강력하게 어필해주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고국 혹은 모국은 한국이고, 조국은 중국이다'는 결론은 내가 납득하기 가장 편했던 결론이다. 마치 친어머니와 양어머니가 있는데 어느 한쪽도 쉽게 외면해서는 안 되고, 다 모시고 가야 한다는 주장과 흡사하다. 어떤 사람은 이를 다르게도 표현했는데 '시집은 각시가 친정과 시댁을 갖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꼭 우리의 해석대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친어머니와 양어머니는 심술들이 많았고, 시모는 친정 생각할 겨를을 허락하지 않는다. 더욱이 서러운 건 친정집에서조차 출가외인이라며 환대하지 않았다.

‘떠도는 땅’ 너머 ‘약속의 땅’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이산’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일제의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수탈은 해외로의 망명을 불러왔고, 이와 별개로 강제로 이주당하고 징용당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동족상잔의 전쟁은 수많은 난민을 양산했고, 극심한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다. 경제 개발기에는 보릿고개를 넘어보자고 광부나 간호사와 같은 노동력이 해외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산의 동기는 다양했고 이들이 오늘날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재외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조선족의 정체성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굴절 당했다. 그것은 고려인이 당한 강제 이주와 차별과 혐오 속 재일조선인의 자기부정과 비슷한 맥락 위에 있다. 일본의 천재 연출가 츠카 코우헤이(한국 이름 김봉용) 역시 “내 조국을 경멸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잖아. 한국이란 나라는 구제 불가능이야. 하지만 난 아니라고!”라는 생각을 청소년기에 품었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민족 정체성은 거세된 채 국가 정체성을 강요받아온 조선족의 수난사에 대해 한국 사회는 무지하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어디를 응원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여전히 검증의 잣대로 동원하면서 ‘조국’을 향한 그들의 애국심과 충정심을 테스트할 뿐이다. 조선족 공동체가 오로지 한국적 관점에서 편이대로, 경제주의적 논리로 해석되고 있음은 분명 성찰할 지점이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늘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을 때 찾아온다. 중국에서 나는 늘 소수자였다. 성씨까지 중국인 중에는 없는 ‘박 씨’여서 수시로 이질성을 확인하며 살아야 했다. 이생에 다수자로 한번 떳떳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에 나는 조국이라고 여겼던 한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했다. 아무리 지리적으로 자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익숙한 곳에 산다고 해도, 아무리 피부색과 언어가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해도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삶은 망명자와 다를 바 없다. 귀환이라는 표현 대신 ‘망명’을 고집하는 이유이다.

고향이란 무엇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사전적 정의로는 쉽게 해갈이 되지 않는다. 조선족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마주했던 질문 중 하나가 “고향은 어디예요?”이다. 얼핏 들으면 질문자의 관심에서 출발한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다른 데 있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질문자는 이 땅의 ‘주인’이고 피질문자는 이 땅의 ‘손님’이 된다. 조선족은 만들어진 이방인이다.

이집트 아래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출애굽 한다. 그것은 어찌면 일제 식민지라는 굴종이 강요받는 세상에서 뛰어나와 만주로, 연해주로,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을 닮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곧장 그들에게 신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허락됐던 것은 아니었다.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방황한다. 재일조선인들도, 조선족들도, 고려인들도 방황하고 있다. 그 방황의 세월이 히브리 민족에 비해 많이 길어졌을 뿐이다.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이다. 조선족을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는 물리적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은 기존의 배치 안에서 고정되거나 강제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새로운 가치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해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주라는 표현보다는 탈주라고 함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을 더 이상 희구하지 않는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고 소멸함으로써 얻어지는 탈영토적 삶의 양식. 아브라함을 불러 “너의 고향을 떠나라.” 했던 신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글학교에서

박시드니 (덴마크)

“선생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K-pop, K-movie도 언급하시고 안데르센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말을 아끼는 찰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조금은 자랑스러운 듯한 긍정적인 톤이 스며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고 싶은 듯했다. 학생들이 조금은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선생님!” 하고 불러줄 때면, 내 마음은 감동에 감전된다. ‘선생님’이란 호칭 외에 나머지 말은 모두 덴마크어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아직 초보단계라서 온전하게 한 문장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빨리빨리”라는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된다. 여긴 한국과 달리 느긋한 인내심이 잘 통하는 사회다.

“온라인 모임에 덴마크 대표로 참석했구요. 덴마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덴마크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을 수상한 이유는 영국사람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요. 맨부커상은 작가 본인뿐 아니라 번역자까지도

작가와 같은 자격으로 공동 수상을 하거든요.”

나의 대답에 찰리는 또 자랑스럽게 질문을 던진다.

“그럼, 덴마크 소개하시는데 왜 아인슈타인을 언급하셨죠?”

찰리는 내가 하는 한국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영상 몇 번이고 되돌려 봤을 게 분명했다. 한국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사이사이에 언급된 유명인의 이름들과 가까스로 알아들은 몇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전체의 내용을 유추하기 위해 무던히도 머리를 짜냈을 게 눈에 선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듣기 이해력을 자극하고자 한국어로 된 유튜브 동영상을 듣기 숙제로 자주 내주는데, 얼마 전엔 내가 발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나눠주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뤘던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를 소개하기 위해서였어요.”

나의 대답에 찰리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찰리 씨는 한국에 갈 계획 없어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교환학생으로 한양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찰리의 대답에 내 귀가 쫄긋해졌다. 덴마크의 학생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더구나 내가 다녔던 학교 이름을 들으리라고는.

“나는 한양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찰리는 무슨 전공이죠?”

“Business Engineering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Business Engineering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나로선,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한 전공 이름이다. ‘요즘엔, 그런 전공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재빨리 검색해 봤지만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글쎄...” 나는 말꼬리를 흐리며 몇 초의 시간을 벌었다. 문득 그럴듯한 단어 조합이 떠올랐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공 이름이니 번역하는 데 확신이 없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글쎄,

내 생각엔 ‘경영 공학’쯤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구글에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대답한 후 재빨리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다. 구글은 ‘비즈니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자랑스럽게 영어 발음의 한국어 버전을 내놓았다. 우리 모두 크게 한바탕 웃었다.

“선생님! 저도 한양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찰리와 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라도 신이 나서 대화에 참여했다.

“아, 그래요? 사라 씨는 전공이 뭔데요?” ‘이러다간 덴마크에서 한양대 동문회를 해도 되겠네’라는 즐거운 생각에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내 질문에 사라는 ‘금융 경제’라고 대답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한국어로?” 나는 궁금해서 사라에게 물었다.

“영어로 강의되는 수업을 주로 챙겨 들었어요. 수학은 필수 과목이었는데 한국어로만 강의를 해서 저는 F학점으로 낙제를 받았어요.” 한국어 초보자가 수업을 한국어로 들은 후 낙제를 받은 건 당연한 얘기였다.

“선생님, 저는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덴마크어나 영어를 사용하는 일자리가 있을까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덴마크 회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주재 덴마크대사관에 연락해 봤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사라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몰랐었다. ‘선생님’이란 호칭 외에 우리의 대화는 계속 덴마크어로 지속된다.

“로얄 코펜하겐이란 덴마크의 유명 도자기 회사가 한국에 진출해있고, 한국에서는 덴마크의 북유럽 디자인 상품이 인기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질문을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에게 했지만 풍력 관련 덴마크 회사들이 한국과 연계되어있다는 답만을 받았을 뿐이에요.”

“한국에 가는 방법을 대사관에 물어봤더니 F4 비자를 만들어 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라는 한국인 엄마와 나이지리아인 아빠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 아기 때 덴마크로 입양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인 입양자로 재외동포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대사관의 설명이 있었다고 했다.

“사라 씨, 그럼 F4 비자 만들어서 한국에 가요. 나도 지난번에 F4 비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갔었고, 외국인등록증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에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사라 씨 정도면 24시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식당에서 서빙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라의 한국행 꿈에 불을 지폈다. “뭐든 하고 싶은 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꼭 하세요! 나중에 미루지 말고!” 나는 나이든 연장자로서 진정 어린 충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선생님, 저도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찰리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찰리는 덴마크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베트남 출신이다. 태권도 검은 띠가 있는 찰리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접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 회사 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는 어떤 게 있나요?” 내 물음에 사라가 대답했다. “삼성하고 엘지요.”

“어? 삼성하고 엘지가 한국 회사예요?” 찰리는 놀라서 작은 눈이 조금 더 커졌다.

오래전 쇼핑센터에서 TV를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이 나름 아는 척을 하면서 삼성이 영국제품이라서 꽤 믿을 만하다고 내게 얘기한 적이 있었다. 직원이 TV 박스에 Made in UK로 쓰인 것을 본 탓이었다. 그래서 나는 삼성이 한국 브랜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삼성은 별이 세 개라는 한자이고, 엘지는 원래 럭키라는 샴푸, 비누, 치약 등을 만드는 회사와 금성(Gold Star)이라는 가전제품 회사의 재벌 자녀들이 결혼한 후 병합된 합작회사로 두 회사의 첫 알파벳을 따서 LG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이후로 Life is Good으로 변경했구요.”

나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삼성과 엘지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었다.

“선생님! 현대, 기아도 한국 브랜드예요.” 그 사이 찰리가 자랑스럽게 한국 회사 이름을 찾아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합병해서 두 회사는 한 회사가 되었어요. 기아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을 뿐이지요.” 나는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줬다. 오늘, 학생들은 이렇게 한국 상품과 한국의 기업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다.

“요즘 한국에서 크게 부상하고 있는 IT 관련 회사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어요. 인터넷 선진국으로서 한국에서 전망이 아주 좋은 회사들이예요.”

나의 얘기에 사라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한국에는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트로, 카카오퍼스. 카카이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한국에서 한 학기를 살아본 사라는 한국 실정에 대해 제법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그래요, 카카오펅크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발전이 있을 거예요.” 내 말에 찰리의 얼굴색이 한 톤 밝아졌다. 찰리가 신이 나서 나의 말을 이었다. “졸업하기 전에 실습 과정으로 회사를 선택한 후 한 학기 동안 인턴십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찰리 씨,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꼭 네이버나 카카오에 인턴십을 지원해 보세요. 잘 될 거예요.” 나는 적극적으로 찰리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선생님이 추천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찰리는 재치 있게 내게 추천서를 부탁했다. “물론이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요.”

나는 찰리의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써줄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반은 한국어를 1년 정도 배운 초2급반이고, 등록 학생은 많지만, 항상 결석 인원이 있어서 보통 5~6명 정도가 출석을 한다. 이날은 찰리와 사라 두 명만 출석을 했다. 핵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평소 수업 때 하지 않는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

2022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다섯 명의 학생이 새로 등록을 했다. 우리 한글 학교에서 33년 경력의 베테랑이신 Sook 선생님께서 새로 온 학생을 맡아 그들에게 한글 자모부터 가르쳐주시기로 했다. 그래서 작년부터 Sook 선생님께서 가르치던 학생 모두 내가 가르치는 반에 합류시켰다.

1월의 첫 수업. 좁은 교실이 학생들로 꽉 차서 시끌벅적해졌다. 합류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나는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지 동기를 물어봤다. 나는 한국어로 물었고 학생들도 한국어로 대답하기를 요구했다.

“알베아트 씨는 한국어 왜 배워요?” 나의 한국말 물음에 알베아트는 당황해했고, 생각나지 않는 한국 단어 중 “친구, 같이, 한국”을 가까스로 더듬어 찾아낸 후, 옆자리에 앉은 절친 카트리느에게 간절한 도움의 눈길을 보냈다. 나는 알베아트와 카트리느가 한국여행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카트리느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던 터라 알베아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짐작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더 절망하기 전에 구원의 한 마디를 던졌다.

“친구랑 한국에 가려고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지은 그녀는 “네.” 하고 대답을 했다. 이번엔 카트리느가 대답할 순서다. 카트리느는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 중 하나다. 카트리느의 꿈은 수의사다. 카트리느는 옆에 앉은 알베아트를 가리키며 “이 친구랑 같이요. 친구랑 같이 한국에 가요.” 카트리느의 대답에 나는 내심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내가 그녀에게 또 묻는다. “한국엔 언제 가요?” 카트리느는 손가락을 동원해서 숫자를 잠깐 머릿속으로 세어 보더니 대답했다. “3월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4월에 가요.” 학생들에게 한국 숫자는 어렵다. 언제 일, 이, 삼이라고 해야 하는지 언제 하나, 둘, 셋을 사용해야 하는지 항상 헷갈려 한다.

“마리 씨는 한국어를 왜 배워요?” 알베아트와 마찬가지로 마리도 오늘 합류한 학생 중 한 명이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요.” 베테랑 Sook 선생님께서 수업 시작 전 내게 귀뜸으로 한국어를 잘

하는 몇몇 학생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마리도 그중 한 명이다. "어느 학교?" 나는 최대한 간단하게 질문했다. 마리 또한 잘 알아듣고 간단히 "경희대학교"라고 대답했다. "언제 가요?" "가을에요." 가을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프리다는 K-pop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고, 한국에 갈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비야크는 엄마가 한국인이라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다. "집에서 엄마랑 한국어로 대화해요?" 내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집에서는 한국말 안 해요."

그는 한국에 8번을 다녀왔고, 한국에 가면 사촌들과 영어로 대화한다고 했다. 아틴은 "마리처럼 한국으로 대학교 가요."라고 얘기한다. 무슨 대학이냐는 질문에 SNU(Seoul National University)란다. '흠, 서울대라...' SKY를 아냐고 묻자 당연한 듯 안다고 대답한다. 비야크와 아틴도 Sook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한다고 귀땀해주신 학생들이다. 비야크는 의대생이고 아틴은 공대생이다. 그 외에 사라 티, 아기르 등 나머지 학생들 또한 K-pop, K-drama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다. 사브린은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한국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영어로 번역된 한강의 소설과 『82년생 김지영』을 재미있게 읽었고, K-pop 가사를 음미하며, 틈틈이 한국어로 시를 습작하고 있다.

나는 덴마크 올란드지구 한글학교에서 교포자녀들과 입양아 그리고 덴마크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 한글학교의 원래 목적은 한국인 2세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민 1세대인 Chang & Sook 선생님 부부께서 33년 전 세운 학교다. Sook 선생님께서 초1급반을, Chang 선생님께서 초2급반을 가르쳐 오셨는데, Chang 선생님께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고 싶어 하셨기에, 내가 Chang 선생님이 맡았던 초2급반을 작년 9월부터 가르치고 있다.

실은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주 오래 전 한인회를 통해 두 분을 알게 된 후, 한글학교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가르친 적이 있었다. 당시는 대다수 학생들이 덴마크에 입양된 한국인들이었다. 나는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의 덴마크 지사에서 시스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량이 늘고 새로 배워야 할 프로그램이 많아져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었기에, 몇 분의 여유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매주 월요일 저녁 두 시간씩 자유시간을 할애해서 한글을 가르치던 일을 포기하고 회사에만 전념했다. 그 이후, 나는 2010년 장난감 블록으로 유명한 덴마크 회사 레고로 이직해 9년간 프로그램 개발을 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했다. 컴퓨터를 전공한 후 계속 IT와 관련된 업무를 했지만, 한 번도 일을 즐긴 적은 없다. 밥벌이를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싫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일. 전공을 컴퓨터로 선택한 유일한 이유는 대학교 졸업 후 직장이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였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필수 요소인 '의식주' 조달이 어려웠던 비참하고 처절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나로서는 가난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 뿐이었다. 기적처럼 대학에 입학했고, 전공으로 컴퓨터를 선택했다. 졸업 후에는 첫 직장으로 프랑스 회사인 미쉐린타이어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드디어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 처음으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나의 전공은 당시 절체절명의 선택이었고, 덕분에 전공을 살려 한국뿐만 아니라 이곳 덴마크에서도 오랫동안 IT분야에서 전문직으로 일할 수 있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은 덴마크에 언제 오셨어요? 덴마크에 왜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학생들은 어려운 한국어 공부는 잠시 구석에 던져두고, 이제 자유롭게 덴마크어로 전환을 한 후 호기심 가득 찬 목소리로 나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는다.

“1996년 1월에 왔어요.”

학생들은 내 말에 다들 놀란 모습이다. 학생들에게 1996년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세상, 아주 먼 옛날이라고 느꼈을 게 분명하다. 나는 말을 이어 나갔다.

“1994년, 미국통신회사인 AT&T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국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시원한 나라로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결정하고 북유럽을 택했죠. 북유럽 여행안내 책을 구입한 후 계획을 세우면서, 덴마크는 너무 평평하고 밋밋해 보여서 제외하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를 여행했어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해 진켄담이란 유스호스텔에서 3일을 묵었는데, 같은 숙소에서 지내던 덴마크에서 온 아줌마와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친구가 되었고, 여행 후에도 계속 엮서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그 덴마크 아줌마는 유럽에 오게 되면 꼭 덴마크에 놀러오라고 하셨죠. 다음 해 여름 저는 서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거쳐 덴마크로 갔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잘츠부르크 여행을 끝낸 후 그곳에서 독일 함부르크를 거쳐 덴마크로 가는 기차로 갈아탄 후, 덴마크 내 최종 목적지까지 두어 번 더 기차를 갈아타고, 거의 24시간 동안의 긴 여행 끝에 덴마크 아줌마가 사는 어더(Odder) 라는 소도시에 도착했어요. 아줌마는 자신의 큰아들을 기차역으로 마중나가게 했고 저는 아줌마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근처에 사는 아줌마의 아들이 여행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그 인연으로 한국과 덴마크를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했고 1996년 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곧바로 덴마크로 오게 되었답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그 덴마크 아줌마가 선생님을 낙점하고 아들과 짝 지어 주려고 미리 계획한 것 같아요.”하며 나를 놀려댔다.

“선생님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학생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 나는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 대신 나 자신을 변명이라도 하듯 긴 설명을 부가해서 말했다.

“한국에는 일 년에 한 번씩 꼭 갔고, 최근 몇 년은 아픈 엄마를 보러 일 년에 두 번씩 한국에 다녀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서 3주가 지나면 덴마크로 돌아 오고 싶어졌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돈이 최고라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 걱정으로 시름하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외모에만 신경을 쓰고, 신제품만 앞 다투어 사들이고, 남보다 더 큰 차, 이왕이면 외국차, 명품 브랜드와 사치가 난무하고, 남보다 평수가 더 큰 아파트에 살아야 하고, 모두가 서로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경쟁하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고, 학군이 좋은 강남의 부동산 값이 치솟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겐 천국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각박한 사회죠…”

‘이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한국어교원 양성교육에서 배웠는데…’

“아니, 내가 너무 한국의 나쁜 점만 얘기했네요. 하여튼, 요점만 다시 말하자면 나는 부정부패 없이 민주주의 정치를 선도하는 덴마크에서의 생활이 질적으로 따져볼 때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덴마크에서 사는 게 나랑 훨씬 더 잘 맞아요.”

내 말에 학생들은 동조하는 듯 이해가 간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패션도 첨단이고, 남자도 화장을 한대요.”

학생들은 한국의 드라마, 각종 미디어, 유튜브, SNS를 통해 한국의 실정을 줄줄 꿰고 있었다. 이 넓은 세상은 스마트폰으로 축소되어 우리의 손바닥에 들어와 있다.

이곳의 한국 이민 1세대는 1970년대에 덴마크의 선진 농축업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왔다 이곳에 남으신 분들, 태권도 사범, 병아리 감별사로 취업 이민을 오신 분들, 덴마크인과 국제결혼으로 이주하신 몇몇 한국인들로 시작했다. 초창기 한글학교의 학생들은 한국이민 2세대이었고,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 온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했

고, 최근에는 K-pop과 K-drama를 통해 한류를 접한 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덴마크 현지 젊은 학생이 많아졌다. 덴마크 국적의 젊은이들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출신은 덴마크 외에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베트남, 동유럽 등 아주 다양하다. 한국의 덴마크 이민사에도 변화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덴마크로 이주해오는 한국 이민자들은 덴마크인과 결혼을 한 한국여성 외에도, 덴마크대학교에 석, 박사 과정의 유학생, Post Doc 자격의 대학교 연구직, 덴마크 회사에 취업이 되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덴마크에서 살아온 지난 26년간, 덴마크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초창기의 덴마크 내 한국의 인지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나마 몇몇 ‘한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전쟁 후 거지가 득실거리는 배고프고 가난한 나라였다. 덴마크에서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건 2012년 사이의 ‘강남스타일’ 덕분이다. 당시 레고에서 근무하고 있던 내게,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사이의 ‘강남스타일’ 동영상을 보여주며 가사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왔다. 나는 한 번도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가사 중 ‘오빠 강남스타일’이라는 소절 외에는 전혀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너무 당황해서 잠시 멍칫하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가사가 무슨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동료는 웃는 얼굴로, 한국사람이 한국 유행가 가사도 모르면 되겠냐고 핀잔을 주었다.

“선생님은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찰리가 묻는다.

“나는 강아지를 18년 동안 자식처럼 키웠었어요. 동물사랑 실천을 위해 비건이 된 지난 6년 동안 완전채식만 먹고 있고, 비건 전도사가 되었죠. 동물 권리 옹호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덴마크 내 모피 산업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쇄하기 위해, 덴마크의 대형 슈퍼마켓에서 값싼 닭고기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 보호 단체와 함께 팻말을 들고 열심히 동물을 위한 평화 시위에 참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비건 정당에도 당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기 위해 미니멀리스트가 되었고, 혼자 살

기에는 너무 커 지난 15년 동안 소유했던 정원 넓은 집을 팔고, 지금은 30평방 미터의 작은 다락방에 월세로 살고 있어요. 일상생활 중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말에는 시내와 바닷가에 나가 쓰레기 줍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한국인의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마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불태우고 있을 게 분명하다. 나의 의식주 해결이 불가능했다면, 나는 여전히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피라미드의 하단계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을 삶에서 치러 내고 값진 체험을 쌓으면서 오늘의 나로 성장해 왔다.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서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오랫동안 나는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해야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해 왔다. 오랜 방황과 고뇌 끝에 드디어 나는 차츰 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입양아, 교포 자녀, 덴마크 젊은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일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이 한국문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해 K-문학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에 도전하는 날이 있으리라.

지금 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숙명으로 삼고, 한국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다짐한다. 얼마 전 10주간의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끝냈고, 지금은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싶어 고려사이버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해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한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요즘은 만학의 기쁨으로 구름 위를 날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도 한국의 교육은 암기 위주의 4지선다형 시험이 대수라는 것이지만….

가난하고, 부모 없고, 힘없고, 나이 들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회의 약자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사람답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나는 믿고 있다. 덴마크의 투명한 정치와 부의 재분배, 인간적인 교육정책, 안정된 복지정책에서 한국이 배울 게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친환경적이며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권과 모든 생명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한국은 지금의 덴마크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있기를 바란다.

일반산문 부문
(체형수기)
가작

랩톱에 깃든 작은 이야기

배 동 선 (인도네시아)

주렁주렁 달린 코드들과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뽑아 분리한 삼성 랩톱을 보조 책상에 옮기고 새 레노버 랩톱을 메인스테이션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아까 뽑았던 코드들을 다시 연결하니 보조 모니터가 켜지고 마우스 커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새 랩톱에 세팅해야 할 것들이 아직 산더미지만 어쨌든 그렇게 새 시대가 또 시작되었다.

랩톱 하나 바꿨다고 뭐 새 시대까지 들먹일까 싶지만 나름 사양 높은, 그러나 6년쯤 사용하면서 여기저기 물리적 파손도 생기고 소프트웨어 에러도 잦아진 삼성 랩톱을 중국산 레노버, 그것도 속도나 램, 메모리 크기가 오히려 더 작고 느린 저사양 모델로 교체하는 건 나름 상당한 마음의 결심을 요한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50대 후반에 모든 코드를 혼자 연결하고 다양하기 짝이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일일이 찾아 설치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마저 든다. 그 흥미함 자체가 이미 새 시대 급이다.

이런 익숙하지도, 평범치도 않은 상황에 처한 건 몇 가지 우연이 겹쳤기 때문이다. 오늘 벌어진 일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다. 예외는 없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 맞게 된 죽음이 과거 그가 탄생하던 시점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어느 날 있었던 단 한 가지 원인만으로 벌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몇 년 전 랩톱 몸체와 기판을 고정하던 여러 개의 나사들 중 하나를 망실한 후 덮개를 여닫는 동작부위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는 뭇가 안에서 부러진 듯했고 얼마 후엔 급기야 외부에도 급이 생겼다. 컴퓨터 성능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SSD를 새것으로 바꿔 느려진 속도를 한 차례 복원한 적이 있는데 이번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터였다. 언젠가부터 아예 덮개를 여닫을 수 없게 되었다. 랩톱이란 모름지기 그 휴대성과 이동성 면에서 데스크톱의 우위에 있는 것인데 그 삼성 랩톱은 이후 덮개를 열어 놓은 채 내 책상 위에 줄곧 머물러야 했다. 효용가치가 반감된 것이다.

그 랩톱을 사양이 훨씬 떨어지는 중국산 레노버로 바꾼 이유는 딱히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회동 파트너 차차를 먼저 소개해야 한다. 한 살 반에 처음 만난 차차가 올해 17살이니 알고 지낸 지도 벌써 15년이 훌쩍 지났다.

어느 날 내가 북부 자카르타 소재 플라빠가딩 지역 루꼬(Ruko: 한 층이 열 평 전후인 2~4층짜리 상업용 건물 유닛)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당시 채용한지 얼마 되지 않은 메이가 어린 차차를 안고 들이닥쳤다. 몇 시간 전 퇴근한 그 친구가 벌써 출근했을 리 없는 일이다. 메이의 왼쪽 눈 밑엔 손톱으로 깊게 핏줄 자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동생과 싸우고서 식구 10여 명이 겹겹이 겹쳐 살던 다섯 평도 안 되는 중부 자카르타 센티옹(Sentiong) 소재의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이다. 영화 속 뱀파이어처럼 인도네시아 자매들도 간혹 날카로운 손톱을 곤추 세우고 서로에게 달려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미혼모인 메이가 갈 곳이 없어 아기와 함께 재워달라고 돌아온 것인데 사무실엔 업무용 집기들과 작은 소파가 하나 있

을 뿐 모녀가 밤을 지낼 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엄마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있던 차차는 저녁 무렵 엄마가 집에서 벌였던 전쟁과 낯선 외국인 남자가 있는 생경한 사무실 환경에 겁먹은 모습이 완연했다. 딱한 사정이 뻔했으므로 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무실 열쇠를 넘겨주었다. 그게 차차와의 첫 만남이었다.

차차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 후 메이가 발군의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면서부터다. 메이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한국회사의 최종면접을 통과하면서 전에 다니던 직장을 막 그만두었는데 정작 출근을 며칠 앞두고 한국인 사장이 변심해 채용을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기적인 고용주들이 흔히 그렇듯 그에겐 메이의 생계가 끊기든 말든 알 바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부당한 사건에 내 정의감이 오작동하며 끓어 넘쳤다는 점이다.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린 끝에 본의 아니게 메이를 떠안고 말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1년 후 그녀가 자카르타와 반둥 소재 천여 군데의 미용실과 거래를 트며 우리 매출을 주도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난 당시 미용기기 수입판매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 덕에 21세기 들어서자마자 드라마틱하게 겪었던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간신히 기어 나올 수 있었지만 돈은 여전히 잘 모이지 않아 내 아이들을 제대로 대학이나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속속 자카르타를 떠나 싱가포르와 호주 멜버른에 진학하게 된 것은 메이의 활약에 힘입은 바 컸다.

굳이 아이들을 제3국으로 보낸 이유는 내가 다녔던 한국회사들이 대학 특례진학을 위한 관련 서류발급에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난 채용취소라는 배신을 당한 메이에게 모종의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다. 마침내 2012년 전후로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학을 졸업하자, 난 사실상 아이들 학비의 반쯤을 메이가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이제 내 차례였다.

그때 여섯 살인 차차는 센터웅의 작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가정형편이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기인한 지독히 소극적인 성격과 낮가림, 그리고 남루한 옷차림 때문이었다. 거기다 메이는

일에는 진심이었지만 사랑에는 연전연패 했다. 두 번의 파혼을 겪는 사이, 차차 말고 아이가 하나 더 생겼는데도 메이는 여전히 미혼모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외근 중에 자꾸 기절하는 메이에게 종합검진을 받도록 한 결과,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메이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밖에 없었다. 메이는 얼마 후 남자아이를 낳고 마르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한편 당시 거래선에선 제품대금을 떼먹고 도주하는 미용사들이 종종 있었다. 그건 고작 한두 푼의 문제였지만 우리 영업사원들이 치는 사고는 아예 차원이 달랐다. 하루 종일 외근으로 회사의 통제를 벗어나 있던 영업사원들은 현금이 오가는 취약한 거래방식을 악용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에게서 수금한 대금을 들고 도주했다. 심지어 내 이름을 팔고 미용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서 메이의 능력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필드캡틴’이란 직책을 주었지만 메이는 부하직원 관리를 전혀 하지 못했다. 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전사고를 단 한 번도 미연에 막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터진 사건 뒷수습에는 상당한 수완을 보였다. 조직을 움직여야 하는 일은 전혀 못하면서 혼자서는 뭐든 해내는, 대단하고도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조사 업무도 대체로 혼자 하는 일이었다. 이미 횡령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 직원들이나 아직 회사 내부에 남은 조력자들로서는 사건을 조사하며 조여 들어오는 메이가 부담스럽지 않을 리 없었다.

그들은 회사 차량이나 제품창고 재고를 빼돌리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메이가 자주 불의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그 중 몇 번은 치명적이기까지 했다. 한 번은 시내에 수금하러 나간 메이가 몰래 뒤따라온 오토바이 뒷좌석 남자에게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져 길바닥에서 정신을 잃었다. 자칫 목숨을 잃을뻔한 사건이었다. 또 한 번은 옛 약혼자가 메이의 자취방에 몰래 찾아와 당시 아직 한 살도 안 된 마르셀을 유괴하려다 간발의 차이로 실패한 일도 있었다. 당시 그는 이미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는데 마르셀의 신변을 빌미로

자신을 추적하는 메이를 협박하려했던 것 같다. 정황상 메이가 날 위해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다 악당들에게 보복당하고 있는 게 분명했는데 그걸 알고도 방치할 수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난 악당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법 집행기관도 아니었으니 나를 위해 위협에 노출된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우선 메이와 아이들이 살고 있던 싸구려 자취방에는 누구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으므로 같은 사건의 재발을 피하려면 숙소를 아파트로 옮겨줄 필요가 있었다. 1998년 처참했던 자카르타 폭동 이후 현지 한국인들이 대거 아파트로 입주한 것도 일반 주택단지보다 아파트 치안을 훨씬 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민을 방문하려는 외부인은 반드시 소정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다. 숙소를 옮기는 비용이 적잖게 들었지만 돈은 이미 문제가 아니었다.

차차도 아파트 안에서 인도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등록했고 이듬해엔 끌라빠가딩의 한 사립학교로 진학해 초등과정을 시작했다. 매년 일인당 수만 불씩 드는 유명한 국제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명색이 사립학교인 만큼 저렴한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학비가 만만치 않았다. 아이들의 사립학교 진학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열악한 환경의 공립학교를 다니며 공부에 전념할 수 없었던 메이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다. 어쨌든 난 이미 메이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몇 년 후 마르셀까지 입학한 후엔 두 명의 학비를 내게 되었지만 더 이상 주판알을 튕기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차차와 마르셀에게 드는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난 아이들이 자기의 복은 타고 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파산 당시 꿈도 꾸지 못했던 내 아이들의 유학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들 자신의 운과 복이 작용한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메이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차차와 마르셀의 경우도 그랬다. 그 아이들의 운이 날 끌어당겼다면 난 그들에게 복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용을 감당했던 내 미용기기 수입판매사업이 2013년 말부터 망가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5년에 접어들면서 메이의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메이 혼자 찾아본 다른 직장들이 형편없는 월급을 제시했으므로 내가 직접 보증을 서 평소 안면이 있던 한국회사에 넣어주어야 했다. 그 결과 메이는 나름 괜찮은 월급과 출퇴근 차량까지 지원받게 되었지만 아이들 학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만 메이와 아이들이 세 끼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젠 내 직원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차차가 초등학교 5~6학년, 마르셀이 막 초등과정을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역시 돈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비싼 관리비를 내야 하는 아파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메이와 아이들을 일반 주택가로 옮겨준 것도 그 즈음의 일이다. 다행히 미용기기 수입판매사업을 하던 당시 만발했던 위험요소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마르셀이 유괴당할 뻔 했던 사건 이후 가사를 돕고 아이들도 돌볼 입주도우미를 한 명 고용해주었는데, '아르니'라는 이름의 그녀는 나중에 고향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그만두기까지 7~8년 동안 메이가 일하러 나간 사이 충실히 아이들을 지켰다. 직접 오토바이를 몰아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과제물 준비나 숙제를 돕기까지 해 아이들에겐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큰 누나, 작은 엄마 같은 존재였다. 그 역시 아이들이 타고난 복이라 생각했다.

2018년부터 다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꽤 오랫동안 문체부 산하 기관 몇 군데의 통신원 일을 하면서 조사보고 업무에 익숙해지자 다른 다양한 기관, 단체의 굵직한 조사용역을 꾸준히 받게 되었고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자 출장자를 보내지 못하거나 현지법인 관리가 곤란해진 기업들 업무도 일부 돕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리 없지만 당장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아이들 학비도 내가 다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릴 때 엄마 뒤에 숨길 좋아하고 숫기도 없던 차차는 영어 잘하고 독서도 좋아하는 영리하고 예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팬데믹 전에는 학교 친구들과 K-팝 커버댄스그룹 활동도 했는데 학교에선 고등학생들까지 사귀자고 할 만큼 인기도 좋았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차차는 이제 막 여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시기지만 너무 예뻐지니 좀 위험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난 메이가 철없던 10대, 20대에 겪었던 일들이 차차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물론 그런 바램은 나보다 메이가 더 절실했을 것 같다. 그간 생계를 위해 앞뒤 재지 않고 좌충우돌하던 메이는 내가 주선해 준 직장에서도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을 주도하는 발군의 수완을 보였는데 그 결과 몇 년 후엔 시내 대학 법학과 야간반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회사의 양해를 얻어낼 수 있었다. 겉멋 들어 시작했을 테니 곧 제품에 지칠 거란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진득하게 일과 학업을 병행한 그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 인턴 근무와 국가고시를 준비 중이다. 젊은 시절 제 멋대로 인생을 소진한 메이에겐 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차차에게 자신의 학창시절이 겹쳐지며 더욱 아슬아슬해 보였을 것이다.

난 아이들에게 매달 용돈도 주기 시작했다. 뻘한 집안사정에 비상금 한 푼 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안쓰럽고 위험해 보였다. 더욱이 예쁜 여학생이 돈에 쫓들리면 의외의 사고에 휘말릴 개연성도 크다. 특히 아르니가 떠난 후에는 등하교 문제가 대두되었다. 안전을 이유로 자카르타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 아이들도 자카르타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운전사가 딸린 차량으로 등하교를 시켰다. 차차와 마르셀에게 당장 통학용 차량을 마련해 줄 여력은 없었지만 믿을 만한 오토바이나 온라인 택시를 계약해 주는 건 가능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핑크가 날 경우에는 아이들이 하염없이 학교에 방치될 수도 있었기에 비상금이 필요했다. 물론 온라인수업이 계속된 지난 팬데믹 기간 2년 동안은 통학문제 걱정을 잠시 털 수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차차가 내 생일에 랩톱을 선물하겠다고며 몰래 돈을 모으는 중이라는 얘기를 메이에게 들었다. 내가 주는 용돈을 일년내내 모아도 충분하지 않은 데 차차라면 필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차차는 철이 들면서 매년 내 생일선물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것도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지난 연말 아내 생일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순금 2그램을 선물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고, 자기 몸을 꾸미기 바쁠 1학년 여고생의 그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차차와 마르셀은 내 아내를 '엄마'와 비슷한 발음인 '오마(Oma)'라 불렀는데 그건 집안 여성 중 최고 어른을 부르는 호칭이다. 아이들은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비싼 랩톱을 그 애에게 받을 수는 없는 일. 차차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단념시킬 필요가 있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먼저 랩톱을 사는 것이었다. 내 삼성 랩톱이 삐걱거리던 것은 어차피 차차도 알고 있던 상황. 그러니 랩톱을 선물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겠지. 하지만 차차가 랩톱을 사주려는 걸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내가 먼저 새 랩톱을 산다면 조금 실망은 하겠지만 크게 마음 상하진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내가 돈을 보태 차차가 더 좋은 랩톱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당시 차차는 내가 임시로 빌려준 여분의 업무용 랩톱으로 팬데믹 기간 2년내내 온라인수업을 받고 있었다. 차차에겐 그 나이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편집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했다.

난 어느 날 큰 마음먹고 오래 전부터 짝어둔 랩톱 대용 갤럭시탭을 사려고 가까운 몰의 삼성전자 대리점에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하필이면 내부수리 중. 부득이 며칠 후 멀리 자카르타 근교 BSD 지역의 매장에서 탭을 구매해 대금을 치르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 직불카드를 긁었는데 은행계좌에서 빠져나간 대금이 매장 계좌엔 입금되지 않은 것이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다. 매장 직원은 90일 이내에 해당 대금이 다시 내 계좌로 들어올 것이라 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카드를 긁을 수는 없었다. 결국 구매 실패. 내가 태블릿을 사는 걸 신이 원치 않는 거란 생각마저 들었다.

매일 오후 두 시 온라인수업을 마치는 차차를 일주일에 한 번쯤 데리고 나가 식료품을 사거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또는 생과일주스를 함께 먹는 한 시간 남짓의 여유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차차와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내 아이들이 자카르타에서 학교를 다닐 때 내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때 그들과도 이런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아쉬워하곤 한다. 지금이라도 못할 건 없지만 내 아이들을 보려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야 한다. 팬데믹이 터지면서 아이들을 보지 못한지도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때 내 아이들과 하지 못했던 것을 차차와 함께 하면서 많은 가정법을 이중, 삼중으로 사용하며, ‘내 아이들과 함께였다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함께 했을까’란 생각에 잠기곤 한다. 물론 때때로 마르셀도 데리고 나간다. 이제 중학생이 되는 마르셀은 요구르트보다 고기뷔페를 좋아해 얼굴이 점점 사각형이 되어가고 있다.

BSD 사건이 있을 후 집 근처 몰에서 차차와 사워샐리(Sour Sally)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며 갤럭시 탭에 얽힌 파란만장한 무용담을 말해준 이유는 내가 알아서 내 랩톱을 살 것이란 의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내 설명이 어딘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차차는 내가 BSD 매장에서 돈을 사기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밤새 평평 울더라고 메이가 다음날 전해주었다. 이 먼 나라에서도 날 위해 물어주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안쓰러우면서도 흐뭇한 감정이 일어 그날 내내 입가에 미소가 가시지 않았다.

90일 걸릴 거라던 결제금액 환불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처리되었고 환불입금을 확인한 나는 곧바로 자카르타 시내의 다른 매장에서 계획대로 갤럭시 탭을 샀다. 그런데 그날 차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파파 배, 랩톱 사놓았어요. 급히 필요하잖아요. 어서 와서 가져가세요.”

적잖이 당황해 달려가 보니 차차가 예의 레노버 랩톱을 내밀었다. “서두르느라 더 좋은 거 사드리지 못해 미안해요.” 차차는 내가 사기를 당하고 다닐 정도로 급히 랩톱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내 생일이 아직 몇 개월 남

은 시점. 난 차차가 어떻게 시간을 앞당겼는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용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사진도 팔았대요.” 메이의 설명에 화들짝 놀란 건 차차가 자기 사진을 팔았다고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차차는 미인인데다 깜짝 놀랄 만한 포토제닉이어서 페이스북 사진을 보고 접근해 치근덕대는 남자들이 이미 넘쳐나고 있었다. 새 신발이나 짝퉁 명품으로 보이는 여성용 손목시계를 포장지도 뜯지 않고 집 담장 안에 던져 넣고 가는 남자들도 있었다. 누군지 알 수 없으니 돌려줄 수도 없었다. 메이도 어릴 때 비슷한 일을 종종 겪었다.

하지만 차차가 판 사진은 엄마랑 함께 시장을 볼 때마다 자기 휴대폰으로 찍은 과일과 야채 사진들이었다. 그걸 셔터스톡(shutterstock)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간혹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 한 달에 몇십 불 정도 수입이 생겼는데 그 돈을 계속 모았다는 것이다. 아내의 생일선물도 그렇게 산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미술에 대단한 재능을 보이던 차차가 사진에도 그런 재주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차차는 미래의 건축설계사를 꿈꾼다.

그래서 그 레노버 랩톱은 절대 받을 수 없지만 절대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선물이었다.

돌려주는 게 맞고, 내가 아니라 차차가 새 랩톱을 쓰는 게 맞지만 선물을 주면서 그토록 기뻐하던 표정에 결국 거절하지 못했고 이제 와서 돌려줄 수도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100% 순수한 누군가의 선의를 입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기쁨과 아련함, 고마움과 죄책감이 마구 뒤엉킨 감정을 안고서 며칠을 보낸 후 난 2년 전에 사놓고 동영상 재생용으로만 가끔 사용하던 소형 태블릿에 자판과 각종 액세서리를 맞춰 차차에게 물려주었다. 얼마 전 랩톱 대용으로 산, 하지만 본의 아니게 차차에게 비밀로 하게 된 갤럭시탭을 줄까도 했지만 그건 차차의 선의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는 일이 될 것 같았다. 어쨌든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고 싶었다.

그렇게 받은 레노버 랩톱을 애지중지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양이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양이나 가격표가 아니라 거기 깃든 스토리다. 자그마한 새 레노버 랩톱이 내겐 수천 불짜리 삼성, 또는 애플 랩톱 이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내 책상 메인스테이션을 차지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사보고서를 쓰고 번역에 매달리는 내게 가장 필요한 MS오피스를 새 랩톱에 설치하는 건 한 달도 넘게 걸렸다. 깰럭시랩에는 베타 버전 30일 무료사용을 하겠냐고 묻는 박스가 아직도 뜨고 있다. 요즘 기계들은 뭘 하나 시키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자꾸 이것저것 되묻기만 한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애플리케이션 하나 설치하는 게 옛날처럼 쉽지 않다. 예전에 내가 익숙했던 방식들은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 ‘행’이 걸려 언젠간 명 짧은 놈이 먼저 죽고 말, 느려 터진 예러 투성이인 삼성 랩톱을 책상에서 일찌감치 치워버리지 못했고 이제야, 그것도 겨우 보조 책상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그나마 억지로라도 새 랩톱을 제대로 써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난 아버지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아버지가 전화기 저편에서 어린 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다. 내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높은 연세인 만큼 당연히 입원이 처음일 리 없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번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예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목사로 살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입원한 다음날, 곧 한국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 그 전에 아이들을 위해 처리할 문제들이 있는지 짚어보려고 낮에 잠시 들른 메이의 집에서 차차와 마르셀이 그렇게 말하며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 독실한 무슬림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 다섯 차례 메카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날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난 아이들의 기도가 무엇

보다도 위력적이라 믿는다. 그래서 두 아이를 통해 이슬람의 신마져 내 편으로 돌려세운 것 같아 늘 든든한 마음이 들곤 한다.

차차는 내가 아내를 두고 혼자 한국에 가게 되면 자주 방문해 오마를 돌보겠다고 한다. 팬데믹이 저물며 그간 발이 묶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복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대. 그래서 터무니없게 치솟은 항공료 때문에 난 아내의 동행을 포기해야 했다. 여러 사람이 턱없이 비싼 티켓 대금을 치르고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병원비 등 한국에서 필요한 경비에 보태기로 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차차의 저 말이 그토록 큰 의지가 될지 미처 몰랐다.

그러자 더 많은 질문이 마음속에 늘어선다.

과연 난 차차처럼 부모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 해 전 내 아이들이 아직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난 충분히 사랑했던 것일까? 혹시 내가 그때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차차와 마르셀에게 힘닿는 데까지 해주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난 ‘보복적’으로 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것일까? 이 상황을 안다면 내 아이들이 배신감을 느끼진 않을까? 이런 질문들 말이다. 그래, 굳이 가족들에겐 차차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한국 출발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저 레노버 랩톱을 가방 안에 넣는 것이다.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랩톱 작업을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한국의 내 어머니를 이미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차차의 선의를 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돌아오면 또 다시 차차와 함께 사워샐리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내 어머니와 레노버 랩톱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일반산문 부문
(체험수기)
가작

제니를 찾아서

이 단 비 (캐나다)

드르르륵, 드르르륵, 드르르륵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침대 옆 협탁으로 손을 뻗어 더듬더듬 휴대폰을 찾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진동 소리가 마치 지표면에 닿는 앰블린스의 바퀴 소리처럼 긴박하게 느껴졌다. 이 건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다. 휴대폰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화면을 터치하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오만 가지 무서운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헬로우?”

“미세스 리, 이 시간에 연락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니가 방에 없어요. CCTV까지 돌려보았는데 기숙사 안에서 아이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당직 중인 기숙사 사감 선생님 미즈 벨이었다.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가 불안함을 넘어서 공포에 가깝게 들렸다. 나는 직감적으로 제니를 떠올렸다. 캐나다에 온 지 삼 년이 된 제니는, 내가 캐나다 고등학교의 카운셀러로 막 일을 시작하면서 만난 학생 중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아이였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입으며 미즈 벨에게 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취침 점호 때였으니까 한 시간쯤 지난 거 같아요.”

곧 있으면 학교 건물의 문이 모두 닫히는 통행금지 시간이었다. 만약 아이가 건물 밖에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우선 아이가 갈만한 곳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니와 나누었던 무수한 대화들을 더듬고 또 더듬어 보았다. 설득, 공감, 격려, 조언, 칭찬, 훈계. 모든 말들이 강제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꼬이는 전선줄처럼 뒤죽박죽 엉켰다. 짐작해야 한다. 짐작해야 한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바람 쐬러 간다는 바다 근처 공원일까? 삼 년 유학 생활 동안 딱 한 번 식사했다던 고모네 집일까? 그것도 아니면, 기숙사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자주 찾아간다는 학교 근처 24시간 맥도날드일까? 나는 일단 공원부터 가보기로 했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이지 무서울 만큼 고요했다. 개미 새끼 하나 없는 캐나다의 밤거리는 나를 2003년으로 데려갔다. 그때 나는 고작 13살의 나이에 혼자 낯선 땅 캐나다를 밟았다. 이질적인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무엇보다 나를 당황시켰던 것은 해가 진 후의 거리 풍경이었다. 마치 흑사병이 도는 중세 유럽의 거리를 연상시켰다. 내가 아는 밤거리의 전부는 어디를 가도 넘치는 차와 사람들,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이들로 북적대는 아파트 단지, 절대 꺼지지 않는 현란한 네온사인이었다. 그런 나에게 불빛 한 점 없는 캐나다의 밤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도시 같았다. 모두 집안에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첫해, 나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인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다. 홈스테이 할머니는 새까맣게 탄 식빵 사이에 바르는 동 마는 동 딸기잼을 넣어 도시락을 싸주었다. 엄마였다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음식이었다. 사실 그냥 버리고 학교 카페 테리아에서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였다. 하지만 도시락뿐 아니라 매 끼

내가 부실한 탓에 나는 늘 허기가 졌다.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병원을 자주 들락 거릴 때마다 이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 씀하셨다.

한창 클 때라서 그런지 나는 결국 마트를 찾아 동네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호수 공원을 발견했다. 그 압도적인 거대함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중에 그것이 오대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호라는 것을 알았다. 호숫가를 따라 놓여 있는 오크나무 벤치에는 가족들이 무리 지어 행복한 한때 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무리와 조금 떨어진 회색 바위에 덩그러니 앉아 수평 선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다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대로 쪽 가면 한국에 가 닿을 텐데.’

하지만 수평선 너머 아무리 끝까지 간다 해도 한국에서 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캐나다 땅일 뿐이었다. 상상마저도 좌절되는 현실이 서러워 많이도 울었다. 나는 종종 땅거미가 길게 내릴 때까지 바위에 홀로 앉아 있곤 했다.

당시 나는 홈스테이 집도 학교도 불편했다. 하지만 학교의 불편함은 영어가 향상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하루에 이삼백 개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소설을 읽고, 영어로 일기를 쓰면서 버텼다. 때론 이런 나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과 좌절에 휩싸였다.

제니가 너무 힘들다며 처음으로 내게 상담을 받으러 찾아왔을 때, 아이는 학교를 벗어나 가장 자주 가는 곳이 공원이라고 했다. 나는 깊게 되묻지 않아도 제니의 마음을 이해했다. 운전조차 할 수 없는 미성년자가 캐나다 소도시에서 유일하게 갈 곳이라곤 공원뿐이었다. 내가 홈스테이와 학교의 무한반복적인 일상에서 탈출구가 필요했듯이 제니 또한 그럴 것이었다. 기숙학교에 다니는 제니는 학교 자체가 곧 집이니, 그 숨막힘이 몇 배는 더 했을 것이다.

십 분 남짓 걸려 도착한 공원은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무한한 어둠에 잠식되듯, 검은 바다는 나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짧은 산책로를 따라 곳곳에 놓인 벤치들, 뷰포인트에 작은 정자, 화장실 근처 쉼터 등 띄엄띄엄 놓인 가로등 불빛을 따라 확인 가능한 모든 장소를 돌아보았다.

그 어디에도 제니는 없었다. 문득, 기억 저편에 도사리고 있던 무언가가 용수 철처럼 솟아올랐다.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몇 년 전, 학업 부담감에 지독한 향수병까지 겹쳐서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담당 카운셀러와 경찰이 밤낮으로 아이를 찾아다녔다. 그들이 이틀 만에 아이를 발견한 장소는 학교에서 십여 킬로 떨어진 골든이어스 다리 위였다.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두었고, 카운셀러와 경찰의 설득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 아이를 다리 난간에서 내려오도록 한 것은 다름 아닌 부모의 목소리였다. 카운셀러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아이의 부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아이에게 부모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극적으로 난간에서 내려왔지만, 학교 관계자와 카운셀러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다리의 힘이 풀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카운셀러의 본분을 침착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다리의 힘을 지탱해주었다. 나는 뿔박질을 하듯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넣고 시동을 걸었다. 너무 긴장한 탓인지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맥도날드로 숨가쁘게 차를 몰았다. 적막만이 가득한 거리를 내달리며 길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었다. 극도의 불안감이 물러간 자리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비집고 들어왔다. 내가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건 아닐까.

“영어 선생님이 저만 미워하는 거 같아요.”

얼마 전, 제니는 시무룩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었다. 아이는 세상 의욕 없는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영어 선생님이 자꾸 자기만 면박을 준다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영어가 늘지 않아 답답한데, 선생님의 그런 태도 때문에 입 밖으로 나오려던 짧은 단어조차 목구멍으로 도로 들어간다고 했다. 괜한 설움이 복받치는지 제니의 동그란 눈에는 그렇그렇 눈물까지 돌았다.

나는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어 선생님의 의도는 제니를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것이었다.

제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였다.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이런 성격이 발표와 참여 위주의 능동적인 캐나다의 수업방식에서는 종종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영어 선생님은 제니의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유독 제니에게 더 많은 발표를 권유했고, 제니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물으며 대답을 종용했다. 제니는 반 학생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과중한 부담을 느껴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조차 몇 개의 단어로 내뱉거나 단답형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영어 선생님은 제니의 의욕 없음과 불성실로 판단했다. 이것은 비단 제니뿐 아니라, 참여보다는 경청과 암기 위주의 수업 방식에 익숙한 한국 학생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이기도 했다.

영어 선생님의 의도와 달리, 제니는 점점 더 의욕을 잃어 갔다. 영어 수업을 하기 몇 시간 전부터 머리가 아프다며 양호실을 들락거리더니, 급기야 세 차례 무단결석으로 교감선생님께 호출되었다. 영어는 필수과목이다.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한다. 이런 제니의 행동은 자칫 아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제니를 위해서라도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만 미워한다고 느껴지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처음 캐나다에 왔던 7학년 과학 시간이 내게는 그랬었다.

당시, 나는 수업을 겨우 따라갈 정도의 간단한 의사소통만 되었을 뿐,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와 예의를 갖춘 문장, 간접적으로 에둘러 표현하는 방법 등에는 무지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불시에 과학 쪽지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시험 도중 샤프심을 다 써서 답안지를 계속 작성할 수가 없었다. 옆자리 친구에게 연필을 빌리려고 말을 걸었다간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나는 당황한 나머지, 요의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 손에 들린 연필 두 자루가 내

눈에 띄었다. 나는 문장 따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뜸 선생님께 말했다.

“I need your pencil.”

그때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토론토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백인 위주의 소도시였다. 영어가 제2 외국어인 학생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었던 과학 선생님은 나의 ‘돌직구’ 표현에 귀까지 빨갛게 열이 올랐다. ‘도대체 이 근본 없고 미개한 말투는 뭐니’ 라는 표정으로 매몰차게 나의 시험지를 가져갔다.

“지금 너에게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따라 해봐.”

나는 ‘May I borrow your pencil please?’를 반 아이들 앞에서 100번 반복해야 했다. 어찌 보면 나의 ‘돌직구’ 표현에 선생님 또한 ‘돌직구’로 응수했던 것이다.

그 사건은 어린 마음에 꽤나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듯이, 이후 나는 아무리 다급한 순간에도 예의를 갖춘 부탁 형의 문장을 거의 자동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있었다면 오락실의 펀치기계 앞에서 울분을 토해냈을 테지만, 그런 것조차 없는 낯선 땅에서 영어를 향한 분노와 오기만큼 효율적인 무기도 없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나는 영어 공부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니처럼 소심했던 내가 12학년 문학 수업에서 그 어렵다는 A를 받고, 법학 수업의 모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고, Double Honor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말이다. 7학년 과학 선생님의 ‘돌직구’에 흠린까지는 아니어도 3루타 정도는 날린 것이라고 가끔 나는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제니도 스스로의 머리를 쓰다듬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나는 영어 선생님에게 아이의 성격과 성향에 관해 설명했다. 제니처럼 소극적인 아이가 매 수업마다 몇 번씩이고 반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인지 납득시키려고 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리 호락호락한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수직상하 관계가 뚜렷한 한국의 학교 시스템에서 제니의 수동적인 자세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수업 태도를 문제 삼는 선생님이 그녀에게는 선생님이 자기만 싫어한다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다가왔을 것이었다. 나는 영어 선생님에게 이와 같은 캐나다와 한국의 학교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동시에, 제니에게는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식과 선생님이 발표를 권유하는 의도에 대해 찬찬히 설명해주었다. 영어 선생님이 기대하는 바를 인지시켜 주고 제니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다행히도, 제니는 영어 수업이 조금은 편해지고 있다며 배시시 웃는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실종이라니. 나는 제니와의 상담에서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되새겨 보았다. 아이의 말에 그저 안도한 나머지 무언가를 놓쳤다면, 나는 카운셀러로서의 자질에 스스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제발, 제니가 맥도날드에서 천연덕스럽게 햄버거를 먹으며 웃고 있기를.

급하게 들어선 맥도날드에서 나의 바람은 산산조각났다. 아이는 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학교로 방향을 틀었다. 어쩌면 그 사이 제니가 돌아왔을지 모른다. 차 안에서 제니 고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는데, 미즈 벨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숙사 건물에 상주하는 직원과 순찰 중인 학교 지정 경찰관들 역시 제니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자정을 한참 넘긴 시각이었다.

나는 기숙사 계단을 두서너 개씩 뛰어 올라갔다. 제니의 1인실 방을 시작으로 친한 친구들의 방과 기숙사 동 전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3층 여자 기숙사 서관의 모퉁이를 돌아 제니의 방이 있는 동관으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서는데,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실루엣은 점차 덩치 큰 한 마리의 분홍색 토끼가 되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잠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토끼를 보았다. 새로 ‘직구’했다며 수줍게 자랑하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제니는 분홍색 일체형 잠옷을 입고 토끼 후드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줄린 듯 반쯤 감긴 눈으로 내게 태연하게 인사까지 했다. 제니의 걸음에 맞춰 팔랑팔랑 흔들리는 토끼의 양쪽 귀를 보고 있자니, 어이없게도 온몸을 조이던 긴박함과 불안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듯 감격의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제니는 친구 방에서

몰래 자려고 했는데 친구 룸메이트가 쫓아냈다고 투덜거렸다.

“치사하게, 사감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빨리 꺼지라는 거예요.”

제니는 저녁 자습시간이 끝나고 사감 선생님 몰래 서관 아이들 틈에 끼어 친구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한껏 고조되었던 안도감이 진정되자,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일단 열을 가라앉히고 제니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는지 알려주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찾느라고 학교가 발각 뒤집혔어요.”

그제야 제니는 사태 파악을 하는 눈치였다.

“죄송해요 선생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방에 혼자 있으면 자꾸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제니는 유독 이번 학기를 힘들어했다. 졸업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부모님의 기대와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현실이 버겁기만 한 모양이었다. 상위권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가위눌림처럼 아이의 가슴을 옥죄고 있었고, 공인 영어시험 점수도, 학교 성적도, 무엇 하나 기대만큼 따라주는 게 없었던 것이었다.

“주변에서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서 영어로 공부한다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저는 한국 갈 생각만 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속속들이 말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실망하실지 알거든요. 그동안 저한테 쏟아 부은 돈이 얼마대요. 그 생각만 하면 부담돼서 미치겠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의 성적과 입시에 거는 기대가 지나치게 커서,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편이다. 아이의 역량과 관심사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부모의 기대와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되어 아이를 정신적으로 핍박한다. 제니 같은 유학생뿐 아니라 이민 2세들도 자신들의 교육 때문에 한국에서의 익숙한 삶을 버리고 이민 와 고생하는 부모님에 대한 심적 부채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실종 해프닝 이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니와 미팅을 갖고 아이의 심리 상태와 입시 공부의 진전 상태를 체크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 심화 상담은

학기 말까지 진행되었다. 이미 중간고사가 지난 시점이기는 했지만, 개인 및 조별과제를 포함해 대학 입시 원서 준비까지, 제니는 육지에 닿기 위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해엄을 쳐야 하는 사람처럼 쉬지 않고 팔을 저었다. 그렇게 고비의 순간을 넘고 있는 제니를 지켜보며 나는 두 달 뒤 아이의 머리 위에 당당하게 얹혀 있을 학사모를 그려보았다.

제니의 일을 겪으면서 나는 카운셀러로서 학생과의 심리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다국적,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에서 학교 카운셀러들은 인종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학생들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유독 한국인 카운셀러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다는 동질감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이리라. 이것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 같다.

내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한국인 카운셀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카운셀러조차 드물었다. 고심 끝에 찾아가던 카운셀러 선생님과는 종종 거대한 벽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것은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원어민 카운셀러 선생님은 어린 이방인의 고충과 설움에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대화하는 내내 보여주었던 카운셀러 선생님의 상냥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마저 어색한 괴리감을 더할 뿐이었고, 영원한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학기 초에 과목을 선택할 때 말고는 거의 카운셀러 오피스에 가지 않게 되었다.

제2의 탄생기,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기는 심리적 불안과 혼돈이 극단에 달하는 시기이다. 요동치는 감정을 풀어놓을 사람, 좌절과 불만을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 따뜻한 위로와 이해의 말을 건네줄 사람이,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제니처럼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유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때로는 이민 2세 아이들조차도 이 격동의 시기를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마음 둘 데 없이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나는 2학년 때 신입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면서 카운셀러로서 나의 길을 예감했는지 모른다. 새내기 한국 학생들의 멘토를 하면서 나는 깡그리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경험들이 그들에게 귀중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국인 유학생이자, 1.5세대 이민자로서 캐나다 학교와 사회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 심지어 한 치의 의심 없이 불행이었다고 믿었던 경험까지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위안과 교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

드디어 졸업식이다. 나는 강당 뒤에서 감동에 젖어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졸업 가운을 입은 제니의 모습은 나의 깨달음의 화룡점정이었다. 나의 외로웠던 혼돈의 10대와 치열하게 고군분투했던 이십 대의 시간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제니는 졸업가운을 휘날리며 총총히 내게 걸어왔다.

“선생님, 선물이에요.”

아이는 수줍게 종이 가방을 내게 건넸다. 그 안에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H사의 장인라면, O사의 치킨팝, 수제 김부각 등이 들어있었다.

“ 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캐나다엔 아직 없는 거예요. 드실 때마다 제 생각 해주세용. 헤헤.”

나는 제니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얼굴 크기에 민감한 아이를 위해 나는 과장되게 얼굴을 앞으로 내밀었다. 활짝 웃는 제니와 나의 모습이 휴대폰 화면을 가득 메웠다. 내 얼굴의 삼분의 일 정도인 자신의 얼굴을 본 제니는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카운셀러 오피스 벽에 붙은 사진들과 감사 편지들을 본다. 창문 앞에 걸린 하늘색 깃털 드림캐처가 바람에 기분 좋게 흔들린다. 세 평 남짓한 공간에 또 다른 제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나는 종이 가방에서 수제 김부각 하나를 꺼내어 입에 넣는다. 고소하게 바삭거리는 한국의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마음에 담아 본다.

일반산문 부문
(수필)
가작

고사리

김미현(미국)

“앗, 여기도 있다.”

“이건 잎이 퍼서 안 되겠네.”

나뭇가지에 새잎이 돋기 시작하는 봄에 하이킹을 하다 보면 별 좋은 양지에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고사리를 발견할 수 있다. 키 크고 튼실한 콩나물을 세워놓은 듯한 ‘그것’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고사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워싱턴 주로 이사 온 지 6년이 넘은 작년의 일이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남편과 나는 고사리를 밥상에서나 봤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모습’은 그 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 간혹 한인마켓에서 사람들이 직접 말린 고사리를 파는 걸 보긴 했지만 한 봉지에 30~40달러나 하는 비싼 가격에 놀랐던 기억만 있었다. 그러다 고사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시애틀이 청정지역이라 고사리가 맛있다’는 델러스에 사는 이모의 말씀과 엘에이에서 이웃에 살던 친구로부터 ‘시애틀 고사리 유명하다’는 말을 연거푸 듣게 되면서부터다.

‘흙, 시애틀 고사리가 맛있다고?’

연중 여름 2~3개월을 빼고 줄곧 비가 내리는 워싱턴 주는 사철 푸른 숲을 볼 수 있어 에버그린 스테이트(Evergreen State)로도 불린다. 비가 많이 내린

다니 한국의 장마철을 떠올리겠지만 대개는 퍼붓는 비가 아니고 부슬부슬 꾸준히 내리는 비다. 그것도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고, 아침에 비가 오다가도 낮에는 별이 화창하고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흐리는 등, 구름의 이동에 따라 비가 오고 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다지 축축하단 느낌이 없다. 구름을 몰아내는 바람이 빗물도 금세 말려서 쾌적하고 상쾌한 날씨다. 그러다보니 나무와 풀이 잘 자라 숲이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 되는 것 이리라. 겨울에나 잠깐 비를 구경할 수 있는 엘에이에서 17년을 살다 이사 왔을 때는 이곳의 푸른 숲과 맑은 공기가 너무 반가웠다. 마치 우리나라 강원도 어느 산골 같은 풍경에 홀려 주말이면 지역 곳곳에 있는 산을 찾아다녔는데, 그 산에 먹을거리가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이 지역 고사리의 유명세를 듣게 된 것이다.

그 뒤부터 산에 오를 때마다 ‘고사리가 이 산에도 있지 않을까?’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게 됐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고사리가 눈에 들어왔다. 재미로 한 두 개 꺾다 보니 내려올 때는 양이 꽤 되었다.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 반찬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찾아봤다. 바로 탄 고사리에 는 독소가 있으니 끓는 물에 삶아 한나절 동안 물에 담가 독소를 빼주는 게 핵심이었다. 그렇게 한나절 동안 수시로 물을 갈아주며 담갔다가 꼭 짜서 간장, 소금, 파, 마늘 등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뒤 간이 배도록 볶았다. 산에서 캐와서 음식을 해 먹는다는 건 TV에서나 봤지 한 번도 해 본 적 없는 남편과 나는 고사리 나물에 쉼사리 젓가락을 댈 수 없었다.

“이걸 먹어도 되는 거야?”

“글쎄? 먹고 죽는 건 아니겠지?”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을 먹어보니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인데 제철에 탄 쉼사리라 그런지 연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었다. 역시 사람들 말이 맞았다. 웬지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다음 하이킹 때 고사리를 또 따려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철이 지났는지 잎이 활짝 핀 고사리만 볼 수 있었다.

이번 봄이 되자 작년의 고사리에 대한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기대를 안고 산

에 갈 날을 기다렸다. 고사리 철은 3월에서 5월까지라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 주말을 택하다 보니 4월에서야 하이킹을 가게 되었다. 고사리는 큰 나무 밑 그늘진 곳에 많이 있지 않을까 둘러봤지만 예상과 달리 약간 높은 지대의 양지바른 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밝은 햇살이 비치는 곳에 키가 1미터도 넘는 고사리들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란... 굳이 숲을 헤치고 들어가 찾지 않아도 길가의 손닿는 곳에 있는 것만 ‘뚝뚝’ 꺾어도 짙어지고 간 작은 배낭 하나를 금세 채울 수 있었다. 고사리가 작년부터 자란 것이 아니고, 하이킹도 작년에 시작한 것이 아닌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걸 보니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진리였다.

하지만 고사리가 주인 없는 것이라고 무한정 딸 수 있는 건 아니다. 삼림 소유주가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카운티정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용이 아닌 경우 5~15갤런까지 딸 수 있다고 한다. 작은 배낭에 가득 따온 고사리를 집에 오자마자 삶았더니 하루 종일 고사리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작년엔 적은 양이라 미처 몰랐는데 고사리는 삶을 때 특유의 냄새가 지독하고 그 냄새가 집안에서 잘 빠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두 번째부터는 뒷마당에 버너를 켜고 커다란 냄비에 삶았다. 이렇게 삶은 고사리 일부는 양념해서 볶아 나물로 먹고, 일부는 소고기 양지를 삶은 국물에 숙주, 파와 함께 넣고 푹 끓여 육개장을 해먹었다. 또 일부는 오일 파스타를 만들 때 마늘과 고사리를 함께 볶은 뒤, 면을 넣고 볶았더니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져 일품이었다.

다양한 요리를 해먹고 남은 것들은 뒷마당 테이블 위에 펴서 널어두었다. 마침 날이 맑아 하루 이틀 만에 바짝 말랐다. 고사리를 따서 삶고 말리는 과정을 직접 해보니 마켓에서 1파운드에 30~40달러에 파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 말린 고사리 1파운드를 만들려면 그 대어섯 배나 많은 생고사리를 삶아서 말려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처음해본 것이라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그 모든 과정이 그저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졌다. 이런 재미에 두어 차례 더 고사리를

따서 삶과 말려 반찬통에 담고 보니 양이 꽤 되었다. 이 중 일부를 델러스에 계신 이모께 보내드리기로 했다.

이모는 구순이 목전이고, 이모부는 구순을 넘긴지 몇 해 되었다. 이민해 온 지 60년이 넘는 긴 세월에 한국어보다 영어가 익숙한 분들이지만 입맛은 변치 않아 이모부는 지금도 하루 한 끼는 꼭 한식을 드신다. 두 분 모두 의사로 한평생을 일하다 은퇴한 뒤 3, 4년 전까지만 해도 1,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제 노쇠해서 한국방문은 엄두도 못 내셨다. 그제 안타까워 두 해 전 한국산 전기 압력밥솥을 보내드렸더니 ‘예전엔 일제밥솥이 최고였는데 한국밥솥이 어쩔 그렇게 밥맛이 좋냐’고 두고두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오셨다. 직접 따서 말린 이 고사리를 보내드리면 나물을 특히 좋아하는 이모는 아마 탄성을 지를 것이다. 소박한 나물 한 그릇이지만 고국을 그리워하는 두 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면 좋겠다.

엘에이에 사는 친구 것도 챙겨야겠다. 엘에이는 한국 식재료를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곳이긴 해도 제철에 딱 햇고사리를 구경하기는 쉽지 않다. 직장 생활에 바쁘고, 재미있게 사는 삶이 제일 관심사였던 친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든 부모 곁을 지키며 두 분의 밥상을 챙기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터이니 이 고사리가 더욱 반가울 것이다. 그의 부모님께 작게나마 위안이 되는 반찬이 되기를 바라본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포장하다보니 ‘고사리가 뭐라고 이렇게 큰 바람을 담아’ 싶어 피식 웃음이 났다. 한낱 말린 풀에 불과한 고사리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줄은 한국에 살 땐 미처 몰랐다. 그런 게 어디 고사리뿐이라. 어릴 때 고향에서 먹던 음식 하나하나를 여기서 발견할 때마다 그 시절 풍경과 그 안에서 숨 쉬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진 경험은 고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음식을 접하기 힘든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까지 갈 시간이 없으면 뉴욕이나 엘에이같이 한인타운이 크게 형성된 도시로 ‘떡방 여행(?)’을 하면서 대리만족이라도 하는 것이리라.

청춘의 한 시절을 보낸 엘에이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아이를 키우느라 향수를 느낄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중년에 접어들어 나를 온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구초심’의 마음이 깊어짐을 느끼게 됐다. 고국에서 산 날보다 훨씬 많은 날을 미국에서 산 노인일수록 더 그렇겠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산 날에 비례해 커지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그리움은 자라나는데 거동은 점점 어려워지니 안타깝기만 하다.

고사리가 그 안타까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년에도 산에 올라 기꺼이 따서 팔려 주변과 나누고 싶다. 워싱턴 주에 사는 동안은 고사리 따기가 우리 부부의 연례행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노크

심수연 (케냐)

비행기에서 내려 케냐 땅을 처음 밟는 순간 내 안에 작은 진동이 일었다.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미세하게 나를 흔들었다. 남편이 구해놓은 집으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생경하고도 흥미로웠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역동적이면서도 현란한 그림으로 치장하고 어쩐지 경건해지는 문구로 꼬리표를 단 버스들과 분주한 거리를 빠르게 걷는 사람들 틈으로 나른한 풍경, 그 속에 섞인 뿌연 먼지와 매캐한 매연 냄새의 묘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어 갈 즈음 교통 체증이라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 끝이 어디쯤인가 확인하려 정면을 주시한 사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순간적으로 '뭘지?'라는 얼떨떨함과 몇 초간의 당혹스러움.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옷을 입고 밖에서 있는 아이는 손을 연신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취하며 손을 내밀었다.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는 것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알았다. 나의 아이들은 누구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남편에게 돈을 좀 주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냉담한 사람이었나 생각하는데 남편은 눈이 마주치면 계속 서 있으니 쳐다보지 말라고 한다. 나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방황했다. 아프리카 하면 '빈

곤'과 '기아'라는 단어가 공식처럼 가장 먼저 떠오르고는 했는데 차 밖에서 있는 아이에게서 그 사실을 확인받는 느낌이었다. 차 안에서 신기한 듯 바깥을 바라보는 나의 아이들에게 시선이 닿자 이들은 온실 속 꽃들 같았고 밖에서 구걸하는 아이는 거친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나무 같았다. 정체를 알고 싶지 않은 안도와 참담함이 가슴 속에 파고들었다. 그 후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몇 번의 노크를 받으며 맘은 불편했지만 선명해진 사실 하나는 그들은 문 밖에 있고 나는 문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왜 구걸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지는 곧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말 그대로 앵벌이인 경우가 많았고 구걸하는 남녀노소 가운데 대부분이 배를 채우기보다 본드나 마약을 사고 술을 마시며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고 했다. 일리가 있어 보였다.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쓰인 돈으로 말미암아 구제가 아닌 구렁텅이로 그들을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면 못 본 척하거나 탄짓하며 그 사람이 어서 다른 차로 가기를 바랐다. 불편했지만 모질어야 했다.

그날은 친구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신호 대기에 걸렸다. 2차선에 딱 들어찬 차들 사이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신호를 받아 천천히 움직이는데 우리 차례에서 다시 빨간불로 바뀌었다. 남자는 친구의 차로 다가왔고 친구는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봉투 하나를 글로브 박스에서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봉투의 정체가 궁금했던 나는 허락을 받고 글로브 박스를 열었는데 박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겉면에는 'God loves you'라는 메시지가 수기로 적혀있었다. 나는 그 정성스러움에 적잖이 놀랐다. 친구도 구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주기로 했다고 한다. 뒤에서 돈을 갈취해 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구걸하는 사람 즉, 일하는 사람을 굶기지는 않으리라는 기대로 주기도 하고 오늘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준다고 한다.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거리에서 보아온 사람의 종류는 다양하다. 허름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어린아이들부터 더운 날씨에도 구멍 나고 해진 점퍼를 달팽이 집처럼 입고 다니는 노인과 지팡이를 의지한 채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장님, 다리가 한쪽 또는 양쪽 모두 없는 남자와 갓난아이를 둘러업고 위험천만하게 차 사이를 종횡무진하는 여자, 그러나 누군가는 아이가 여자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아이가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연민을 살 수 있기에 아무 아이나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 항상 차가 막히는 어느 회전 교차로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구간마다 무리 지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갑자기 우르르 모여들기도 해 난감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호텔들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공연팀이 거리로 나와 공연한다. 그들은 신호 대기에 있는 차량을 관객으로 모시고 머리 위의 해를 조명 삼아 아스팔트 위에서 인간 탑을 쌓고 저글링을 하며 차력을 선보인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어깨 위로 사람을 쌓아 올리는 남자가 중심을 잡기 위해 몸을 바들바들 떨며 흘리는 땀은 보기에 도 애처롭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양하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누가 더 빈곤하고 곤고한지 판단할 수도 없다. 이들은 절대 빈곤 속에 있다. 누가 더 빈곤한지 겨룬다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다. 마치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 한 끼를 먹으며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나는 하루보다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이들은 하루의 식량만 생각한다. 누가 더 가난한 걸까?

한국에서의 삶은 전투적이었고 쟁취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애써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내가 걷는 만큼 누군가는 그만큼 더 앞서 나갔다. 내가 사는 집과 차, 내가 나온 학교와 직장 등 모든 것들이 나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다. 참으로 고단한 삶이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삶에서 '보지 못했던' 삶으로 옮겨오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가치로 사용하게 되었다.

크게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부터 작게는 물과 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체험하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채우는 것이 아닌 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케냐에는 생각보다 NGO 단체와 다양한 기관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많은데 한국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적도 다양하다. 그들은 케냐 오지를 찾아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준다. 그리고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자립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과 교육도 감당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사람이 후원과 기부와 성금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절대 빈곤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구제라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님을 체감하게 된다. 당장에는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길거리의 사람들에게조차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기준이 서지 않지만 다른 이들과 이러한 고민을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나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공통의 고민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온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차 밖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돈 대신 매일 빵을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른 이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지만 그들이 파는 물건을 사준다고도 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그들의 달콤함을 책임지기로 했다. 입속에서 금방 녹아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달콤함일지라도 때로는 삶에도 감미로운 부분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사탕을 받은 아이의 얼굴이 활짝 피는 꽃처럼 환해진다.

결혼반지 이야기

윤덕환 (미국)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결혼반지로 겪었던 일로 쓴웃음을 짓게 된다. 우리 부부는 1980년 LA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20분 전, 하얀 턱시도를 입은 나는 식장으로 들어오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신부는 대기실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이때 긴급 상황이 벌어졌다. 예식을 준비하시는 분이 결혼반지를 못 찾겠다고 내게 달려왔다. 대기실에 있던 신부에게 물으니 깜박 잊고 안 가지고 왔으며 당황해한다. 아찔했다. 곧 예식을 시작해야 해서 급한 마음에 교회 청년회장에게 끼고 있는 결혼반지를 잠시 빌릴 수 있냐고 물었다. 대답이 없다. 괜히 물어본 꼴이 되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갈 수는 없고 내가 급히 차를 몰고 신부의 아파트로 갔다.

알려준 대로 첫 번째 서랍을 열어 보았으나 통 찾을 수가 없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예식시간이 되었다. 눈앞이 깜깜했다. 급히 교회로 전화해 짜증스럽게 물어보니 누가 훔쳐 갈까 봐 옷으로 푹푹 말아놓았다고 한다. 두툼한 옷을 찾아 뒤져보니 금가락지 한 쌍이 나왔다. 급히 예식장에 돌아오니 예식 시간은 이미 30분 정도 지나있었다. 코리안 타임에 익숙해진 하객들이 별로 개의치 않는 표정들이다. 다행이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주례 목사님이 예물 교환시간에 흰 장갑 낀 손에 금가락지를 쳐들고는 말씀 하신다. “이 금지환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반지가 둥근 이유는 부부가 원만하고 서로 이해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나는 금반지를 예물로 교환하는 이유를 그때 알았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지인 요세미티국립공원에 갔다. 어머니는 ‘요세미티’라는 말이 어려워 ‘요셉의 굴’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순환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돌 때 멀리 요세미티폭포에서 수백 미터 밑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차를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 그레이스 포인트의 정상에 도착했다. 파노라마 같은 전경이 펼쳐지고 그 웅대함에 새삼 놀랐다. 내려다보니 뻥뻥이 들어찬 침엽수림 사이에 거대하게 솟아있는 하프돔 바위산이 보였다. 늘 변함없는 웅장함을 볼 수 있었다.

요세미티공원을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들러 식물원공원을 구경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달리는 전차도 타보고 부둣가에서 저녁식사도 마쳤다. 숙소 근처에 영화관이 있어 들어갔다. 인디애나 존스의 ‘잃어버린 성궤의 추적자들(Raiders of the lost ark)’을 상영하고 있었다.

밤이 늦어 마지막 영화 상영 직전이었다. 자리에 앉은 아내가 손가락이 불편해서인지 결혼반지를 뺀다. 순간 반지가 영화관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극장 스크린 무대를 향해 경사진 콘크리트 바닥을 따라 둥근 결혼반지가 굴러갔다. 앞에 있는 수많은 의자에 시야가 가려 도대체 어디에서 멈췄는지 알 수가 없다. 영화가 시작되면 곧 암흑세계가 된다. 결혼반지라 포기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의자 밑 근처를 살펴봐도 없다. 다급해서 극장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극장에서는 영화 시작 시간을 늦춰 주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극장 종업원까지 세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극장 바닥을 청소하듯 의자 사이를 훑고 다녔다. 우리 부부가 보려는 영화는 ‘잃어버린 성궤의 추적자들’인데 성궤 대신 결혼반지를 찾는 ‘잃어버린 결혼반지의 추적자들’이 되어 버렸다. 계속 찾던 중 어느 의자 틈 사이에서 반짝거리면서 ‘나 여기

있지롱' 하며 숨어있는 개구쟁이 금반지를 드디어 찾았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곧 시작되었다. 속이 부글거렸지만 어찌하랴, 신혼여행인데 아내에게 좋은 표정을 지어야지.

결혼 후 10여 년이 지날 무렵이었다. 매년 찾아오는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다는 암시를 한다. 결혼식 때 고작 14K 금반지밖에 못 해주었으니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업그레이드 해주기로 했다. 아내와 함께 업무차 홍콩을 갈 일이 있어 다섯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샀다. 아내도 마음에 든다고 좋아했다.

고장도 안 나는 세월은 실 새 없이 흘러 어느덧 결혼 25주년 기념일을 맞았다. 아내가 결혼 기념으로 보다 큰 새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였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했으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코스트코에서 아내가 원하는 제법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

새 반지를 사고 나니 내게 궁금한 게 생겼다. 다이아몬드 반지 두 개를 어떻게 낄 것인가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 것은 문제도 안 된다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산 것이 약간 험령거려 안으로 끼고 그 위에 먼저 산 것을 끼우면 흘러내리지 않게 된다고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러면 쌍 다이아몬드 가락지다.

나는 결혼 후 지금까지 결혼 때 받은 금반지를 끼지 않는다. 손을 씻으면 반지 속에 물기가 들어가 마르면서 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는 세수하기 전후로 반지를 뺐다 껴다 하는 모양이다. 나는 그런 성가신 일이 싫어 아예 결혼반지를 안 낀 지 오래되었다.

어느 날 누님댁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 뵈는데 표정이 편치 않고 안절부절못하신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형수님이 어머니 생신에 본인이 끼던 다이아몬드 결혼반지를 주셨다고 한다. 어머니가 일생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 번도 껴보지 못한 게 한이 되어 늘 얘기하던 것을 형수님이 귀담아들은 것이다. 형수님의 효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70대의 어머니가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외출 전후로 반지를 어디다 보관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신 모양이다. 한 달 내내 찾고 찾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지쳐버린 모양이었다. 나중에 누님한테 들으니 결국 찾긴 찾으셨는데 바로 형수님께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그간 어머니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인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닌 모양이다.

올 8월이면 결혼 42주년을 맞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금지된 여행이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다행이다. 올해는 아내가 어떤 결혼 기념 선물을 원할까 궁금하다. 아내의 손을 보니 두 개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여전히 영롱한 광채를 띄운다. 3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옐로우스톤국립공원을 차로 다녀오는 것으로 결혼기념식을 대신할까 한다.

뿌리 얽은 나무

정은시 (캐나다)

밴쿠버의 나무는 옆으로 뿌리를 뻗어나간다. 굳이 땅속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도 쉽게 영양분을 얻기 때문이다. 강우량이 많고 온화한 날씨 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나무가 강풍에 자주 쓰러진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땐, 큰 나무가 바람에 맥없이 쓰러지는 광경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뿌리가 얽아서 그렇다는 말은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다.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어떻게 얽을 수 있단 말인가.

2012년 봄, 나는 은색 쏘나타에 이불, 냄비, 그릇 등 간단한 살림살이와 옷가지 몇 벌을 싸서 넣어 캐나다 중부에서 서부 태평양 연안까지 2,300킬로미터를 달렸다. 이민 2년 10개월 만에 전 재산 4억을 팔아먹은 뒤였다. 우리 가족은 잠시 전시체제에 돌입해 각자의 임무를 위해 흩어졌다. 허허벌판에 내가 의지할 것이라곤 '나타야' 라고 부르는 자동차가 전부였다. 한국의 열일곱 배에 달하는 광활한 프레리를 달리며 심정이 어땠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길은 프레리(대평원)라는 이름답게 정말이지 편평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동차의 트레블 코드를 작동시킨 채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시속 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한두 시간은 거뜰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 ‘길이든 삶이든 굴곡진 건 못 쓴다’고 하시던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 올었다. 프레리 지역을 지나 로키산맥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구불구불 험난해졌다. 눈 내리는 한계령을 넘을 때처럼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눈물이 바짝 말랐다. 호수와 협곡을 빼곡하게 에워싼 침엽수림을 관통해 평지에 내려왔을 때 결심했다. ‘다시는 쓰러지지 말자. 깊숙이 뿌리를 내리자.’

그러기 위해선 먹고 사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튿날, 나는 지역신문에서 ‘영어 가능자, 추천서 불필요, 당장 일할 수 있음’ 이라고 적힌 구인광고를 보고 보틀디포(Bottle Depot)라는 곳을 찾아갔다. 당시 내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완벽에 가까운 일자리였다. 문제가 조금 있었다면 뭘 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거였다. 나는 보틀과 디포라는 단어로 빈 병 정리 창고쯤으로 가볍게 유추했다. 아주 틀리진 않았다. 가볍다는 단어가 완전 빛나가진 했지만.

주차장에서 픽업트럭에 쌓인 맥주 캔을 카트로 옮기는 백인 아저씨 옆에 간신히 차를 세웠다. 활짝 열린 자동문을 기웃거리는데 죽히 육십은 넘어 보이는 여자가 상냥스럽게 “헬프?” 하며 물었다. 송 여사였다. 내가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고 하자, 주사기로 뽑아낸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서 과장된 상냥함이 사라졌다.

“코리안?”

예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자, 송 여사는 나를 위아래로 훑으며 대뜸 한국어로 말했다.

“그 몸으로 어디 힘쓰겠어요?”

무례함의 채찍으로 매질을 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반말 아닌 게 어딘가. 그녀는 나보다 체구가 더 작고 호리호리했다. ‘가뿐’까지는 아니어도 당신 정도 넘길 힘은 있어요. 이런 오만한 생각이 들자, 이력서를 내미는 손이 저절로 공손해졌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송 여사는 마귀할멈처럼 여자하면 올라탈 기세로 손에 쥐고 있던 대걸레를

불쑥 내 품에 던졌다. 걸레 자루가 내 키보다 길었다. “흠 청소부터 해요.”

네 개가 세트인 싱크대가 다섯줄로 배치된 홀은 주말 오후의 대형마트처럼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마트와 다른 게 있다면 형언할 수 없는 냄새였다. 곰팡내, 썩은 내, 쓰레기 냄새 등이 교묘하게 락스로 포장되어 코를 강타했다. 지독한 냄새는 코를 베어내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솔과 걸레와 물에 희석한 락스를 들고 다니며 싱크대와 바닥의 각종 오물을 닦아냈다.

손님들은 병, 캔, 팩 등 재활용 용기를 행구지도 않고 가라지에 묵혀 두었다가 한꺼번에 가져왔다. 그들은 용기를 싱크대에 펼쳐놓고 직사각형의 파란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카운터에 주고 몇 불, 몇 십 불, 많게는 몇 백 불까지 챙겨갔다. 용기 한 개당 가격이 5센트, 10센트인 걸 감안하면 대단한 양이었다.

송 여사는 카운터에서 보틀(재활용 용기를 총칭함)을 받고 돈을 내주었다. 그녀는 와인, 위스키, 맥주 등 술병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을 번쩍 들어 컨베이어벨트에 옮겼다. 나는 그녀가 평생 이 일을 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이놈의 보틀 땀에 골병들었어.” 송 여사는 옆구리를 주먹으로 툭툭 치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표정에서는 자부심이 푹푹 흘렀다. 왜 아니겠는가. 홀몸으로 자식 셋을 키우고 가르치고 엄청난 부까지 축적했으니 말이다. 그녀는 백만 불이 넘는 보틀디포 세 곳과 임대료가 나오는 땅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송 여사의 뿌리는 아주 깊고 튼실해 보였다. 토네이도가 와도 끄떡없을 것 같았다.

나는 청소와 보틀 정리 몇 개월을 거친 뒤 카운터를 맡았다. 나도 술병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을 번쩍번쩍 들어 올렸다. 그것은 여린 손목이나 작은 체구와 무관한 일이었다. 어떤 열망이 에너지로 응축되어 온몸으로 발화되는 일이었다. 밤낮으로 등덜미가 쑤시고 허리와 옆구리가 결리고 손목과 손마디가 시큰거렸지만 타이레놀 몇 알로 잠재웠다.

그런 송 여사가 자식들에게 보틀디포를 넘겨주고 은퇴를 선언했을 때, 나는 부러우면서도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한국에서 여생을 마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 고양 근처 전망 좋은 곳에 집까지 지었다고 했다. 거센 강풍

에도 끄떡없을 것 같던 그녀의 뿌리가 왠지 허상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일군 건 어찌구요.”

“뭘 어째.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보틀 소리만 들어도 신물 나.”

“한국 가서 뭐 하실 건데요.”

“친구도 만나고, 골프도 치고, 맛난 것도 먹으러 다니고. 평생 못 한 거, 원 없이 다 할 거야.”

그녀는 뒤늦게 골프를 배우느라 잠도 설친다고 했다.

“왜 진즉 못 했나 몰라. 등신처럼. 그 쪼그만 공이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는지.”

그녀의 뺨은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빨그스름했고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거렸다.

어느 날, 송 여사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에 간 지 일 년쯤 지났을 때였다.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자식들이 교대로 한국에 다녀오다가 싶더니, 결국 그녀는 캐나다로 다시 돌아왔다.

“딱 일 년 좋았지. 부잣집 마나님 행세하면서. 아주 후딱 가버렸어.”

의료시설은 한국이 좋은데 왜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좋으면 뭐해. 자식들이 다 여기 있는 걸.”

나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송 여사의 집을 나왔을 때 거리에는 복숭아 빛 석양이 쓸쓸히 내리고 있었다. 그 길을 걸으며 상념에 젖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무거운 보틀을 들어 올리고 있는 건가.

강풍에 또 나무가 쓰러졌다. 하필 전신주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이틀째 전기가 끊겼다. 난방과 취사를 전기에만 의존하는 주택에 살면 이럴 때 속수무책이다. 보틀디포에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그곳은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불린 쌀이 담긴 전기밥솥을 자동차 조수석에 태웠다. 집 근처 길가에 거대한 나무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크고 풍성한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게 달린 나무였다. 인부들이 나무를 대형트럭에 싣느라 애를 썼다. 나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숙연해졌다.

겉으로 온화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연이 그리 호락호락했을 리 만무지 않은가. 나무는 오랜 세월 묵묵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었다. 힘껏 양분을 빨아들이고 가지를 뻗고 나뭇잎을 무성하게 키워냈을 것이었다. 감히 누가 얇은 뿌리를 타박할 수 있겠는가.

뿌리가 봉두난발인 채 트럭에 실린 나무에게 경의를 표한다. 천천히 그 옆을 지나 나는 오늘도 보트를 들어올리기 위해 차를 달린다.

일반산문 부문
(수필)
가작

할머니의 간장

하선영 (중국)

만둣국을 끓인다. 조선간장을 두어 숟가락 넣는데 할머니 생각이 난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담그셔서 중국에 갈 때 가져가라며 페트병에 가득 담아 주셨던 간장이다. 짜고 꼬릿한 냄새가 싫어 양념 칸 안쪽 깊숙이 밀어 두었다가 깊은 맛이 필요할 때면 꺼내 들게 되는 간장이다.

한국의 장이란 것은 정말이지 신통하다. 한두 숟갈 떠 넣고 휘휘 저어주면 금세 국이 되고 요리가 되고 음식의 정체성이 완성된다. 담백한 쌀을 맛있게 먹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수천 년 고민의 산물이 바로 장(醬)이라고 한다. 진수의 삼국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서동이족(고구려인)은 ‘장 담그는 솜씨가 훌륭하다’, ‘발해의 명물은 책성에서 생산되는 된장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대부터 우리 민족은 장을 만들어 먹었고 이 음식문화가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한국의 전통 장 문화가 등재 신청 중이라고 하니 장은 한국음식의 맛과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듯하다.

예전 할머니 댁 마당 한쪽은 반질반질한 걸면에 때가 끼어 있는 크고 작은 장독들로 가득했다. 무엇이 들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외향의 그 장독들은 별이 잘

드는 곳에서 할머니의 바람이 가득 담긴 채로, 지긋이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 여전히 재래식화장실과 마당과 구멍 뚫린 모기장이 창마다 붙어있던 그 집. 재개발로 사라진 집의 그 장독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작년 2월,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렵던 그 시기 할머니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갑작스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중이셨고, 마지막 날 하신 말씀도 “너무 아프다, 아파.”였다고 한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해외유입자에게 3주간 강제되는 격리의무 때문에’, ‘아들이 학기 중이기 때문에...’ 같은 변명으로 나는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슬픔에 찬 어머니가 전해주는 회한과 감정, 장례식의 모습들과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버무려져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어린 시절 맞벌이로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셨다. 그때 날카로운 선반장식에 다친 흉터도 아직 이마에 남아있다. 항상 지척에 할머니가 사셨고 방학과 휴가를 맞아 모처럼 한국을 찾으면 할머니는 늘 간장이나 된장, 얇게 저민 감자 튀긴 것, 다시마 부각 따위를 싸주셨다.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휘어진,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의 손가락처럼 생긴 할머니의 무말랭이는 시장에 파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맛이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사후에 두 번, 내가 사는 중국으로 여행을 오셨다.

할아버지는 해방 후 중국과 일본을 다니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지내던 곳이 만주와 중국의 봉천(지금의 심양)으로, 당시의 생활과 그즈음 민족의 현실에 대한 각성과 개척정신으로 무장했던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소 부풀려졌을지도 모를) 듣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기억이었다.

할아버지가 말년에 암으로 투병하시던 중 휴가를 내고 일부러 찾아온 나에게 “너희 할머니는 꼭 중국 구경시켜 드려라.”하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인데, 실제로 ‘중국 사는 손녀 집 방문’은 할머니의 첫 해외여행이 되었다.

평생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온 어르신들이 타지에 가면 그러시듯 할머니도 도착 후 삼일부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다. 아파트를 낫설어 하는 그녀를 달래어 부러 그 도시의 유명사찰과 관광지를 돌아보고 맛집에 가는 것도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이며 “대충 봤으니 마, 고마 집에 가자.” 라며 일침했다. 동네 시장 구경과 알알이 자두만큼 큰 거봉을 사는 것만이 그녀의 큰 기쁨이었다. 할머니가 2주간의 중국생활을 뒤로하고 귀국하실 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 채로 여행이지.

그 후 할머니의 두 번째 방문에서 나는 조금 힘을 빼고, 멋진 구경거리와 진귀한 음식을 맛보여드리려 애쓰기보다 삶을 느리게 여행하는 지혜를 배우고, 할머니가 살아온 시간들을 천천히 이해해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당시의 나는 20대의 끝자락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중이었다. 유학과 졸업, 취업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남보다 빠르게 앞서나가려 단거리 육상선수처럼 뛰어가고 있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따위의 문구를 책상과 모니터에 붙여 놓고 잠을 줄여가며 쉼 없이 공부하고 일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듣기 좋은 말은, 꿈을 말하는 순간과 그것이 실현되는 순간 사이의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진공의 나날이 아니기에, 나는 끊임 없이 계획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나를 확인시켜주고 싶어 했다.

81세에 나의 공간으로 불쑥 찾아온 할머니와의 시간은 그래서 특별했다.

일상의 속도를 늦추니 섬세한 삶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 그 주, 열심히 이면지에 한글을 연습하시던 할머니가 내심 부듯했는데, 퇴근 후 돌아와서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 오신 마른멸치를 가루 내어 국 끓일 때 넣으라며 빈 병에 넣어두신 것을 보았다. 병 가운데에 삐뚤삐뚤 글씨로 쓴 ‘미르치’란 글자를 보며 먹먹해지는 마음을 나는 애써 크게 웃어 보였다.

할머니는 음식을 만들 때 언제나 간장으로 간을 하셨다. 국이며 나물마다 보기 싫게 까맣게 변하는 것을 보며 소금을 권해드렸더니 할머니는 되려 “간장을 무으면 죽을 때 근이 더 나간다케!” 하며 간장을 고수하셨다.

“할머니! 근이 많이 나가면 뒤편, 운구하는 사람들만 무거워서 힘들지!”하고 대거리를 하곤 했다. ‘근(斤)’이 더 나간다는 것은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삶의 무게를 덜어버리고 가볍게 훨훨 날고 싶어 하는 우리네들의 바람에 얼마나 반(反)한 것인가. 무겁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것, 감추어진 비밀을 토로하지 않는 것, 비읍으로 끝나며 발음할 때 약간의 긴장과 일시 정지 느낌을 내는, 허투루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겠다는 진중한 제동이 아니었을까.

예로부터 종갓집 종부들은 대대로 장맛이 이어지도록 그 집안만의 씨간장을 항아리에 따로 보관하고 또 별도의 담을 두르고 대문에 빗장까지 걸어 두며 지켰다고 한다. 씨간장에 담긴 그 집안만의 맛의 역사, 맛 좋은 씨간장을 올해 만든 새간장에 섞어 올해 간장 맛을 더 맛있고 깊게 유지해가는 것이다. 할머니의 씨간장도 그 집 장독대 어딘가에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장독대는 그 집 마당에서 제일 바람도 잘 통하고 별이 잘 드는 곳에 있었다. 가족이 아니면 장독대에 함부로 드나들지도 못하게 하셨다. 장독대는 할머니의 신당(神堂)이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발효되어 가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종갓집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간직하던 작은 항아리의 씨간장이 자식 중 누군가의 아파트 베란다에 아직 보관되어 있다. 할머니는 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녀의 정성과 사랑과, 신앙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유산이 그 안에 남아있다. 나는 이렇게 운이 좋게도, 할머니와 지냈던 20대 마지막의 그 시간을 말랑한 여운으로 껴입고 있다.

서로를 향해 떠났던 여행의 시간, 40대인 지금에도 나의 찬장에 짹짹하고 꼬릿하고 구수한 맛으로 남아 또다시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 매일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한다.

그리고 나는 할머니가 걸어온, 혹은 뛰어왔던 그 시간을 언제나 응원할 것이다.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청소년글짓기

중·고등부문

최우수상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 • 최찬아 (카자흐스탄) 278

우수상

홍콩에서 요식업 경영하기 • 정승호 (중국) 283

수라상 • 조규희 (인도네시아) 289

장려상

상하이에서 ‘해방’을 외치다 • 고수경 (중국) 294

선한 영향력 • 김기현 (도미니카공화국) 300

세상의 이웃, 글로벌 코리안 • 김세린 (칠레) 304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

최 찬 아 (카자흐스탄)

13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땅에서 살아온 내게 겨울은 그 무엇보다 긴 계절이었다. 러시아의 하단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10월부터 외투를 꺼내입는 건 물론이고, 종종 5월에도 눈이 내리는 진풍경을 구경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나의 감상은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변해갔다. 어릴 적 신기하고 예쁘게만 보였던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슬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은 학교의 등굣길을 더 지루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녀석이었다.

5학년 때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인해 다니던 국제학교를 갑작스럽게 그만두어야 했다. 급하게 전학 온 공립 학교는 내게 쉽사리 적응할 틈을 주지 않았다.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내게 덧씌우고 다가오는 친구들,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낯선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수업. 통명스러운 표정의 선생님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무서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중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은 수학이었다. 번역이 필요하지 않은 숫자를 마주할 때면 모두와 같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수업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던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 시간의 나는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싫은 것도 존재했다. 수업 중 어쩌다 질문을 받은 내가 서툰 러시아어로 더듬더듬 대답하면, 다른 과목의 선생님들은 그 기다림을 귀찮

아하며 다음부터 내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히려 갈수록 수업에서 배제당하는 것을 편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과묵한 성격의 수학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답답하게 굴어도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일어나 입을 열기 시작하면 몇몇 아이들은 저들끼리 키득대며 내 발음을 놀리곤 했다.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져 얼굴은 새빨개지고, 그렇지 않아도 잘 움직이지 않는 혀는 더 굳어갔다. 그래도 선생님은 왜인지 내 말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셨다. 철없던 나는 그게 감사하기보다 원망스러웠다.

노력을 거듭해 6학년이 되어서는 수업의 절반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학교생활에 큰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 어떤 아이들은 어차피 알아듣지 못한다며 바로 내 앞에서 험담하기도 했다. 화를 낼 용기가 없었던 나는 바보처럼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척을 하며 아이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때는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워왔던 시간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수학 선생님은 말없이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다.

다음 학기.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 전해졌다. 수학 선생님의 아침 보충반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한 시간이나 이르게 등교해 7시부터 수업을 들어야 했다. 나는 반에서 누구보다도 수학 성적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보충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선생님이 외국인인 나를 미워해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내린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억지로 도착한 교실에는 나 말고도 다섯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다. 생각보다 적은 인원인데 어색하게 눈동자를 굴리고 있자, 먼저 도착해 계시던 선생님이 교실 한편에 놓인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모두에게 일회용 컵에 차 한 잔씩을 나눠주신 선생님은 첫날이니만큼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한 학기 동안 같이 보충 수업을 들을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이셨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쉬웠던 나는 습관처럼 ‘쿵쿵’ 뛰는 심장을 느꼈다. 초조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여자아이가 돌연 말을 건네왔다.

“안녕?”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이들도 우리처럼 짝을 지어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그 아이는 자신이 옆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내 고향을 물었다. “한국에서 왔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정말? 신기하다. 러시아어를 잘해서 몰랐어.” 그 애는 다른 반이었고, 러시아어를 전혀 알지 못하던 작년의 나를 모르고 있었다. 나 역시 얼떨떨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나는 어쩌면 그동안 나 자신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 ‘나는 러시아어를 못하니까. 나는 멍청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보충수업 반의 친구 중에는 나처럼 수학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아이들도 한둘 포함되어 있었다. 어쩌면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런 시간을 마련해주신 건 아니었을까. 나는 한 학기 동안 즐겁게 아침 보충수업을 들었다. 가끔은 줄림과 추위로 유달리 힘든 날도 있었지만, 여차피 학교에 가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주는 선생님의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괜찮았다.

6학년의 졸업식 날이었다. 선생님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수학 선생님 역시 단상에 올라가 목을 가다듬으셨다. 선생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건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선생님은 점점 나빠지는 건강 탓에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직을 그만두게 되셨다고 했다. 이제야 선생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앞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못한다니. 충격받은 귀에는 선생님의 말씀이 ‘웅웅’ 울리듯 들려왔다. 선생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시는 순간 나는 용기를 내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나오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선생님은 말없이 팔을 벌리며 말을 건네셨다. 부끄럽고 아쉬운 일이지만, 그때 나는 진심이 담긴 선생님의 작별 인사를 전부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다. 무언가 나를 감싸는 듯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건네는 위로. 다정하게 어깨를 쓸어내리는 손길. 가끔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다음 해 수학 교실에는 선생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내 바람이 현실이 된 듯 그 장소에서 만든 추억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가끔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한국에 살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선생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가 한국에 살았다면 외국인으로서 많은 차별과 힘든 학교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의 내 삶은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어린 나이의 이민은 내가 내린 결정이 아니었지만, 내게 과거를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잡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그때부터는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의 순간마다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2년 전 나는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생님이 투병을 시작하신 해부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병문안을 할 수 없었고,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가족이 아니라면 어려웠다. 선생님의 죽음을 확인할 방법은 고작 해야 휴대폰 액정 속의 몇 글자였다. 그때는 다시 러시아어가 서툴렀던 5학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오래 슬퍼했다. 그 슬픔에 갇혀 다시는 벗어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며칠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간 날이었다. 때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며 내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누구보다 차가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는 눈은 손 위에서 녹아가며 가장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다. 나는 그걸 보며 내가 마지막으로 안겼던 선생님의 품을 떠올렸다. 이 세상 모두에게는 각자의 겨울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누군가에게 겨울은 낯선 단어일 것이고, 한국의 누군가에게는 시린 한파를 연상시키는 단어일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나에게 겨울은 유독 길고 혹독한 인내의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보낸 학창 시절이 내게 추운 겨울이었다면, 앞으로 화사한 봄이 펼쳐질 것이라는 미래를 멋대로 상상해도 될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 꽃봉오리는 이미 피어오르고 있는 걸까. 선생님과 이별 후, 학교에서 나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다.

그러나 전과는 분명 달라진 점이 존재한다. 졸업 후 한국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내가 헤어짐을 언급하게 될 때면 ‘어어’ 하며 탄식을 내뿜는 친구들이 생겼다. 그럴 때면 나도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미래를 약속해 본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만나러 오겠다고. 올해 또 한 번의 겨울이 지나갔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떠나보낼 수 있는 계절은 앞으로도 무수히 반복될 것이고, 내게는 금방 다시 아픔이 찾아올지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이 내게 주여주신 차 한 잔의 온도를 기억하는 한겨울은 내게 영영 따뜻한 계절일 것이다. 나는 추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청소년글짓기
중·고등 부문
우수상

홍콩에서 요식업 경영하기

정승호 (중국)

홍콩에서 산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시간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많은 지금은 홍콩이 제 고향이나 다름없습니다. 홍콩은 문화적이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꽤 유사하면서도 다르기에 종종 이곳에 안 왔다면 지금 무엇을 했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며 홍콩 사람들과 얽혀서 나름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경험은 제 어머니의 식당 창업에 따른 자영업자 가족으로서의 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반 정도 동안 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라면가게였습니다. 레스토랑 라이선스도 따고, 가게 인테리어도 하고, 창업을 주도한 라면 본사 사람들과 회의도 하며, 희망찬 출발을 하는 듯 분주해 보였습니다. 나와 동생도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생긴 것에 흥분했습니다. 일본 라면이 주메뉴였고 이외에도 돈가스, 일본식 가라아게(치킨), 가츠동 등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머니는 2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아주 낮은 값에 가게를 넘기고는 '이제 살았다'며 좋아하셨다는 것입니

다. 저도 이를 보고 요식업의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서 라면 한 그릇으로 수익을 내고, 외국에서의 창업은 그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당 운영 초반에 제 어머니를 도우며 제일 많이 들은 불평 중 하나는 직원들의 능력과 존재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처음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5명이나 6명이 항상 홀을 왔다 갔다 했으나, 몇 달 지나지 않아 많아 봐야 4명, 어느 날은 두 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개업 첫날 흔히 ‘오픈발’이라는 수준보다 점차 떨어져서 더 이상 직원들을 모두 고용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태도에 어머니의 불만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다소 손님들에게는 부적합하고, 생산성도 부족해 직원 수를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지자 어머니가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 건 물론, 저 또한 사람을 못 구하는 토요일 오전에는 캐셔, 설거지는 물론, 홀 서빙까지 해야 했습니다. 제가 긴장감 없이 손님 없을 때마다 폰을 쓰다가 어머니가 보고 있는 CCTV에 걸려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저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된 점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직원을 찾는 건 요식업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9년 홍콩 시위가 한창일 때는 가끔 시위대가 8시에 와서 라면을 많이 먹고 간 며칠 정도를 빼고는, 시위가 과격해져 시내에 있던 가게의 위치는 오히려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도 점점 줄었습니다. 심지어 가게가 있는 건물에서 셔터를 내려 그 안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무기를 겨누고 있는 장면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음식을 다 버리고 집으로 오기도 했고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저와 동생이 시위대를 뚫고 가게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식업이 특히 외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위가 줄어들지도 않은 순간에 찾아온 2020년 1월 홍콩의 코로나 사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식당 내 식사 금지, 영업시간 제한이 저녁 6시, 8시 10시로 반복되면서 식당 운영은 그야말로 고비였습니다. 아무리 일찍 식당을 닫아도 재료는 사야 하고, 월세와 직원의 월급은 고스란히 나갔기 때문에 적자에 적자가 거듭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홍콩 정부에서 무려 3번이나 레스토랑에 내려준 정부보조금으로 1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다고 들었고, 정부 보조금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어 가게를 아주 싼 가격에 새 주인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새 가게는 스파게티 전문점이었는데, 한 달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문이 닫힌 상태라고 하며 어머니가 자신의 경영능력을 자랑하셨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 정도로 어렵고 처절한 것이 자영업이란 건 알 수 있었고 홍콩에서 사업에 성공한 많은 한인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일본 라면 가게를 열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돈코츠 라멘과 값싼 배달 점심 도시락,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값싼 점심 세트, 배달에 필요한 인력 부족, 저녁 시간이면 비어버리는 건물 등으로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우리 가게는 시위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그리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재밌었던 것은 손님들은 일본 라면보다 값싼 배달 도시락을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게도 처음에는 팔지 않으려 했지만 좀 더 저렴한 것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나중에는 서서히 가게에서 팔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도시락 가격대에 맞춰 팔다 보니 가게 매출은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즉 저렴한 도시락이 잘 나가면서 점심시간 손님은 많아졌지만, 점심시간을 위한 직원 고용과 낮은 가격대의 음식 판매로 인한 매출 급락의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단체로 도시락을 시키는 주문이라도 있는 날에는 패닉이 되는 비전문 경영인인 어머니와 몰아치는 일을 감당하기 힘든 적은 인원도 제가 보기엔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홍콩에는 일본 음식과 제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문화와 음식, 제품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회의를 거쳐 점차 일본 음식을 대신해서 한국 반찬과 한국 찌개로 구성된 새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에는 한국 라면 ‘너구리’에 해물을 넣은 한국식 해물 라면, ‘짜파구리’마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처음에 있던 일본 셰프는 어느새 보이지 않고 한국인 셰프가 메인 셰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일본 셰프는 일본 음식밖에 못 하지만, 한국 셰프는 못하는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자주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홍콩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반찬에 감동한 듯 보였습니다. 멸치볶음에 감동하고 순두부 찌개에 밥을 말아서 먹는 손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밥에 매운 닭강정이 추가되고 나중에는 일본 라면도 먹을 수 있는 한국 스낵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퓨전이고 안 좋게 말하면 정체성이 사라진 그냥 밥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학교 수업으로 Economics를 들으면서 수입에서 재료비, 렌트비, 직원 급여를 빼면 수익이 남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번 것도 없는데, 회계 처리 비용이 너무 비싸고,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지 비용이 낮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 올라가는 재료비에 점심값이 올라 직장인이 점심 먹기가 부담스럽다는 한국 기사를 보면서 주변의 값싼 런치세트가 넘치는 상황에서 만원이 넘는 라면을 그나마 팔았다는 게 대견할 정도입니다. 또한 홍콩사람들은 플라스틱 컵에 든 아이스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료수 없이 점심 장사를 했다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결정이었던 듯합니다.

저 역시 어려운 때 생각 없이 폰을 쓰면서 성의 없게 일을 도왔던 것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더 정성껏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머니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서 가게 문을 닫은 지금의 우리 가족의 생활이 훨씬 안정적인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절할 일은 겉으로 보이는 가게의 모습과 달리, 가게 주방의 기름을 거르는 통의 끈적함이었습니다. 라면의 기름이 식기세척기를 거쳐 거의 매일 그 통의 끈적한 냄새와 함께 굳은 기름을 걷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직원들이 꺼리기 때문에 어머니와 제가 직접 해야 했고, 하루라도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라면의 기름이 하수구를 막아 물이 역류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언제 먹어도 맛있는 튀김과 식당 음식들을 내세운 뒤에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일의 무게는 정말 대단했고, 외부의 상황과 맞물려서 초보 경영인의 가족은 그야말로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당에서 팔다 남은 치킨과 밥을 도시락에 담아 밤늦게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매일 먹은 제 피부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제 탓이겠지요.

저 대신 나온 동생이 딜리버리 업체의 주문을 잘못 확인해서 엉뚱한 도시락을 내준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때문에 셰프가 급하게 도시락을 다시 만들어야 했고, 동생은 너무 당황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생은 그 후로 다시 가게에서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세금레포트를 하거나, 2년 계약된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불평은 2년 반 동안 온 식구가 가게를 경영하면서 겪은 큰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웃으면서 가볍게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도 최근 자영업자에게 주는 정부보조금이 좀 오른 것 같았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줘서 자영업자들이 적어도 직원 고용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 주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콩 국내경제에서 요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정부가 많은 신경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첫째 조건으로 정부보조금을 주었다고 하니, 실업을 막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마련한 점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콩은 현재까지 국경 봉쇄(격리정책)를 풀지 않는 나라이기에 그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홍콩이 한국처럼 봉쇄를 멈추고 다시 관광과 줄 서는 식당이 많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심한 바이러스가 없던 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처럼 문을 닫지 않고 적자를 견디면서도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성공하고 직원도 더 많이 고용해서 홍콩의 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글짓기
중·고등 부문
우수상

수라상

조규희 (인도네시아)

“김밥 3인방’이 뭐니?”

테이블 위의 핸드폰에서 한글로 ‘김밥 3인방’이란 그룹 채팅창이 뜨자, 엄마가 ‘깔깔깔’ 웃으신다.

엄마는 “아무리 유치원부터 10년을 같이 공부한 절친이라도, 외국인이 어떻게 한글로 채팅방을 열고, 소통하게 된 걸까?” 궁금해하셨다.

12년 전, 한국에서 돌잔치를 한 달 앞당겨 치르고, 내 발로 걷지도 못해서 엄마 등에 업혀서 온 인도네시아. 이곳에서 나는 걸음마를 뗐고, 인도네시아 유치원에서 한국의 애국가보다 먼저 인도네시아 라야(애국가)를 배워서 불렀다. 지난달 열세 번째 생일도 여기서 맞은 만큼, 음식도 한국의 김치보다 인도네시아 대표 음식인 나시고랭과 깡궁을 더 좋아한다.

그런 내가 중학생이 되어, 외국인 친구를 통해 역으로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소개받았다. 친구들은 나보다 더 많이 한국 연예인의 이름과 유명 드라마를 섭렵한 상태였다. 더 나아가 나의 친구들은 한국 문화와 한글에도 호기심을 보인 터라, 친구들의 이름 머리글자(KYUHEE, MARIA, BEKA)를 조합해 만든 그룹 채팅방 명칭이 바로 ‘김밥 3인방’이다.

지난 학기, ‘코로나 시대를 이길 세계 건강 음식을 소개하고, 책으로 만들어 보라’는 프로젝트 과제를 받았다. 나는 ‘조선왕의 밥상’이 주제에 딱 맞는다면 팀이 된 ‘김밥 3인방’에게 제안했다.

‘왕이 곧 하늘이자, 모든 백성의 어버이’였던 조선에서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궁에서 제일 중요한 곳 중 하나가 왕의 식사를 담당하던 수라청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상된 최상의 식재료를 왕의 체질과 건강상태에 맞춰 조리하고, 마지막엔 직접 목숨까지 걸고, 기미하는 상궁들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소개했다.

다른 팀들이 일본의 ‘낫토’나 그리스의 ‘그릭요거트’, 이탈리아의 ‘올리브오일’ 등 뻔한 음식을 선택할 텐데, 우린 오백 년간 왕의 음식을 만든 수라청에서 건강식을 찾아내면, 그게 ‘으뜸 건강식’ 아니겠냐고 설득했다.

“와 대단한데, 그래, 그래, 한번 해 보자!”

친구들의 동의를 얻자, 나는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수라청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찾아서 같이 보고, 특히 조선의 역사와 역대 27명의 왕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한 바에 따르면, 조선 왕의 식사는 하루 5끼로 <초조반상, 아침 수라상, 낮것 상, 저녁 수라상, 야참(주안상)>으로 준비된다. 200명의 수라청 궁인들은 2교대로 궁에 상주하면서 음식을 만든다. 수라청의 일은 노동강도가 높아서, 남자 요리사인 ‘숙수’가 도맡았다고 한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본 것처럼 여자 궁인들이 음식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만들어진 음식을 나르고, 차리는 일을 돕는 나인들이 ‘장금이’와 같은 여자 궁녀였고, 그중 연장자인 ‘기미 상궁’은 왕의 식사 전 반드시 음식에 독의 여부를 먼저 감별하는 ‘기미’를 시행했다. 절대 권력에 대한 찬탈이 빈번했던 시기이고, 독살로 의심되는 선왕들의 죽음도 있었기에 ‘기미 상궁’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왕보다 먼저 음식을 먹었다.

우리 ‘김밥 3인방’ 중 제일 용감한 행동파 레베카는 “나는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기미 상궁 할래, 매일 최고의 음식을 왕보다 먼저 맛볼 수 있잖아. 스릴도 있고 멋진 직업인 거 같아.”라고 했다.

보통 12첩으로 차려진 왕의 수라상은 혼자 먹기엔 상당히 많은 양이다. 수라청에서는 왕과 왕가의 식사 준비 외에 궁인들의 음식은 따로 만들지 않는다. 궁인들은 모두 왕과 왕가의 식사가 끝난 후, 수라상에서 남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한다.

레베카에 비해 겁이 많고, 쫄보인 나는 “그냥 왕이 남긴 음식을 나눠 먹는 무수리 할래. 아무리 맛난 음식도 ‘독이 들어 있을까’ 걱정하면서 먹으면 맛없지.”
“맞아, 나도 무수리 할래.”

마리아도 내 말에 맞장구를 쳐 줬다. 우리는 왕의 밥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 도서관에도 방문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한글학교도 다니고, 한국문화원 도서관에서 매주 5권씩 한글 책도 빌려다 읽었다. 문화원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 관람도 자주 하던 터라 익숙한 장소였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간 것은 처음이라 나도 친구들도 흥분됐다. 친구들은 도서관에 비치된 K-팝 앨범들과 드라마 VOD, 연예 잡지에 감탄했다. 계속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 소란을 떨었다.

나는 궁중요리와 관련된 책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만한 요리를 선정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왕의 하루 식사 5끼를 따로 분류하고, 대표 음식과 특별히 사연이 있는 왕을 연결해 보았다.

조선의 왕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속을 달랬던 <초초 반상>으로 어린 나이에 삼촌의 손에 죽임을 당한 제6대 비운의 어린 왕 단종이 좋아했다는 ‘타락죽’을 골랐다.

<아침 수라상>은 채식주의자였던 제21대 왕 영조가 좋아한 ‘구절판’과 봉당 정치를 없애고, 탕평책을 펼칠 의도로 영조가 직접 신하들에게 하사한 음식 ‘탕평채’를 선정했다. <낮것상>은 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하는 제4대 세종을

위해 아버지 세조가 장례식 중에도 세종의 수라상에는 고기를 올리라고 유언으로 남겼다고 해, ‘불고기’를 선택했다.

〈저녁 수라상〉은 중립외교를 펼친 제15대 왕 광해군이 궁중연회 특별식으로 꼽은 ‘신선로’를 뽑았다. 마지막으로, 〈야참, 주안상〉은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경연을 제일 많이 했다는 제9대 성종이 늦은 밤까지 학문 토론과 민생을 논할 때 올린 ‘삼색 다식’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우리는 두 가지씩 요리를 나눠 각자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정리했다. 그리고 대망에 요리를 진행하기로 한 날에 한국 식자재를 파는 한국 마트로 갔다. 장도 보고, 분식코너에서는 떡볶이와 김밥, 어묵, 쫄면도 사 먹었다. 무슬림인 마리아는 부대찌개, 삼겹살 등 돼지고기가 들어간 한국음식을 못 먹어서 아쉽다면서, “나는 반드시 결혼은 한국 남자랑 할 거야!”라고 해서 우린 어안이 병병했다. “뭐야,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 무슬림이 아닌 한국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레베카 말에 우리는 모두 어이가 없어 한바탕 웃었다.

음식 만들기는 한국 그릇과 양념이 있는 우리 집에서 했다. 재료 손질부터 조리, 데코레이션까지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계속 서서 분주히 움직였더니, 다리도 아팠다. 그런데 하나씩 음식이 완성될 때는 신이 났다. 색깔이 예쁜 한국 요리들은 영성한 우리 솜씨를 가려줬다.

책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음식마다 한국적인 소품들로 장식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기미 상궁처럼 맛을 볼 차례, 역시 용감한 레베카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다. 십년지기 내 친구들은 그 전부터 젓가락 사용법쯤은 이미 터득해 놓은 터였다. 레베카를 따라 나와 마리아도 하나씩 음식을 먹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우린 서로 감동했다. 친구들 부모님께도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각자 음식을 포장했다.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조선의 왕을 위해 만든 궁중요리라고 소개하고 “왕처럼 드시고, 맛을 평가해 달라”고 했다. 부모님들께서는 오색 채소로 꾸민 ‘신선로’를 좋아하셨고, 우린 전병을 대처해 무쌈으로 만든 구절판이 제일 맛있었다.

‘김밥 3인방’이 만든 ‘왕의 밥상-수라상’은 책으로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왕의 면역기능과 건강 증진이 목적인 수라상은 건강한 밥상이라는 주제에 부합하고, 오백 년 전통의 전문 궁중 요리사들의 비법을 따라서 재현해 본 것에 좋은 점수를 준다”며 칭찬해 주셨다.

우리 ‘김밥 3인방’은 이번 과제를 하면서, 더 깊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됐다.

특히 나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조선의 역사를 잘 설명해주기 위해 세세하게 조선 왕조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 어제 마리아네 가족은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나는 마침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수라간 시식 공감’이란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정보를 공유해 주고, 참여해 볼 것을 권했다. 거기서 마리아가 그녀의 바람처럼, 미래의 예비 신랑을 만날 수 있기를 살짝 기대해 봤다.

상하이에서 ‘해방’을 외치다

고수경 (중국)

어느 날 나는 ‘로마’라는 ‘화원’에 간혀 버렸다!

이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키의 몇 배는 될 듯한 이름 모를 석고상이 시선을 압도하며 한껏 위용을 뽐내고, 길로 난 커다란 금박 철제문을 마주한 남신들은 한가로이 풀밭 한가운데 모로 누워 강렬한 태양 빛 아래 한가로이 태닝을 해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대문 밖 자유를 갈망한 채 오롯이 박제되어 버린 이곳 ‘로마화원’.

건물 4개의 한쪽 면이 모두 대문을 향하고 있고 건물과 대문 사이 크지 않은 공터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여신상 분수대가 자리해 베란다에서 고개를 빼고 내려다 보노라면 이 모든 풍경이 한 폭의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들어온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비릿한 흙냄새와 습한 기운이 아무렇게나 한데 섞여 현실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듯 아득해 지기도 한다.

혹자는 물으리라. 내가 이탈리아 로마에 사냐고?

정답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아니!

나는 중국 상하이 어디쯤에 위치한 ‘루어마화위엔(로마화원)’이라는 아파트

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해서 여기가 로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 동네 아파트들이 아테네, 리옹, 로테르담, 파리 등 유럽의 이름난 도시 이름을 달고 있는걸로 봐서 설계한 사람들이 상하이 안에 또 다른 유럽을 건설해 보려고 애쓰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꼭 내가 살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 주위에서 우리 아파트가 제일 예쁘다!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지금 태닝하는 신들 만큼이나 저 문 너머 존재할 자유를 미치도록 갈망하며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우리의 용맹한 로마화원 린취(이웃)들은 마치 '이 안전지대를 뚫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야 말리라' 맹세한 투사가 된 것처럼 모두 하나로 뿔뿔 뭉쳐서는 갑자기 아파트 단톡방을 네댓 개 만들더니 동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혹시나 닥칠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했다. 아마 전생에 중세 로마의 기사 군단이었을지도? 전 세계가 앞다투어 보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곳 상하이에서 어느 날 거짓말처럼 벌어진 그 일, 모두 짐작하셨으리라.

그렇다, 바로 봉쇄!

지금 현재 우리의 공공의 적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이고 주민들은 '칭링(중국의 코로나 제로정책)'이라는 승리를 향해 이렇게 다 같이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300가구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아파트에 이사를 온 것은 바로 2년 전의 일이다. 16년차 주재원인 아버를 따라 갓난아기 때 중국에 발을 디딘 나는 중국어, 짱어, 한국어, 영어 등 여러 커리큘럼의 학교를 두루두루 섭렵해 가며 중국 전역을 떠돌아다녀야만 했다. 고수경의 중국 도장깨기? 그쯤으로 정리해두자!

해맑게도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나는 부모님의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지역이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고, 덕분에 6개월 밖에 보내지 못한 광둥성 선전에서 다시 상하이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 비교적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를 '마누라'라고 장난스럽게 불러주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못내 아쉽지만 우리에게겐 중국에선 다 통하는 위챗이 있으니까! 앞으로 닥칠 코로나 재앙이 우리를 한껏 위협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한 채 나는 그렇게 선전을 떠났다.

로마화원의 웅장한 이미테이션 석고상에 훌쩍 반한 우리 엄마의 강력한 주장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상하이의 또 다른 곳에서 이 역사적인 코로나 봉쇄 상황을 겪었겠지?

새삼 엄마의 안목이 탁월했음을 깨닫는다. 상하이로 이사를 오자마자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이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으며 잠깐의 베란다 외출이야말로 유일한 낙이 된 지가 오래인지라 베란다는 통해 내려다보이는, 내가 '우리 여신님'이라고 부르며 애정하는 분수대 석고상만이 목욕물을 사방에 흩뿌려가며 인적 하나 없는 저 멀리 지면의 쓸쓸함을 달래주고 있다. 하지만 로마화원에는 정작 여신님이 따로,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나는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21세기, 봉쇄된 사회에서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최첨단 SNS를 통한 원시적 공동구매와 물물교환이다. 상하이 시내 모든 슈퍼마켓과 솥이 문을 닫았고 택배마저 끊겨 엄마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대량 공동구매를 해보겠다고 종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광클릭에 열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구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부지기수라고 하신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있는 향푸강 서쪽, 푸시 지역은 정확히 4월 1일 새벽 3시부터 4월 5일 새벽 3시까지 4일만 견디면 된다고 발표했으니 간혀 있을 때를 대비한 사전준비는 넉넉잡아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봉쇄 하루 전날 엄마랑 같이 간 동네 마트에서 평소와는 달리 진열대마다 물건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들고 오기 너무 무겁다는 핑계로 딱 하나 남은 10kg짜리 쌀을 결국 포기하고 돌아온 것을 엄마는 두고두고 후회하셨다.

계획된 4월 5일이 되었을 때 정부 썸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는 '봉쇄 해제는 아주 먼 일이 되겠구나' 어렵פות이 깨달았지만…….

봉쇄 한 달이 지나자 욕실 샴푸와 치약, 엄마가 쓰는 주방세제가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통마다 물을 섞어 쓴지 수 일째 되던 어느 날, 두루마리 화장지를 구한다는 이웃의 SOS에 용기를 얻은, 참다못한 엄마가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당장 급한 주방세제를 구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게 웬일? 얼마 안 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어느 '여신님'이 생수병에 성수 같은 바다빛 주방세제를 가득 담아 선뜻 우리집 벨을 누르는 게 아닌가? 그 일을 시작으로 엄마도 우유나 설탕과 마늘, 대파가 필요하다는 다른 여신님들에게 기꺼이 우리집 냉장고를 활짝 열어주셨고 쌀과 채소, 귀하디귀한 과일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그렇게 알음 알음 수많은 아름다운 '신'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비록 내 인생에서 2022년 중 두 달이라는 시간이 처참히 순간 삭제되었고 학교 수학여행이나 오케스트라 봄 콘서트도 몽땅 취소되고 말았지만 전투에(?)로 끈끈해져 버린 소중한 이웃을 얻게 된 일들은 너무나 특별하고도 신기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딸이 생일을 맞았는데 케이크를 구할 수가 없다는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은 이웃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베이킹 재료를 털어 하나밖에 없는 수제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한 후 온라인 생일 파티까지 열어준 일은 기계 덩어리 핸드폰에서 실제로 온기가 '퐁퐁' 뿜어져 나오는 듯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집 안에만 있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층간 소음도 단톡방을 통해 아주 완곡하게 자제를 부탁하는 이웃들의 지혜도 배웠다. "OOO호, 음악 소리가 크게 울리는데 파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화원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전수검사에서 PCR검사 이상 소견이 보이는데 재검사로 확실하게 알아봐야 하니 전원 집 안에서만 머무르라는 통지였다. 그 후 미스터리하게도 아파트 안

에서만 지내셨다던 나나 나이나이(할머니)가 오미크론에 확진됐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과 동시에 할머니가 계시는 A동은 물론 아파트 대문까지 폴리스라인 같은 금줄이 일사분란하게 쳐지는 것이 아닌가. 할머니로 인해 아파트 주민 전체가 7일간 꼼짝없이 현관문 앞조차 나가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 7일 동안 더 이상 확진자가 없으면 아파트 안에서만 산책이 허용되는 7+7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옆집 갓난아기를 배려해 서둘러 격리소로 자진해서 떠나겠다는 할머니를 그저 보내 드려야만 하는 주민들은 베란다로 나가 할머니가 무사히 빨리 돌아오 시기를 기원하며 한마음으로 배웅해드렸다. 그 자그마한 몸으로 비닐 방호복을 아무렇게나 뒤집어쓴 채 집채만 한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분수대 여신님은 그때도 무심히 샤워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영락없이 다시 집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실 나는 나나 나이나이가 전혀 밋지 않았다. 이 일이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병에 걸린 사람을 질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록 1년을 열심히 준비한 AP시험이 학부모와 친구들의 눈물 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버린 것, 이 일로 상심이 크신 부모님의 고민이 깃든 깊은 한숨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만 이 또한 내가 극복해야만 할 일이라면 용감히 부딪혀 보겠다. 난 봉쇄도 겪은 사람이니까!

엄마는 봉쇄가 끝나 우리가 저 대문 밖을 자유로이 나갈 수 있게 되는 날 신세였던 이웃분들이랑 반상회를 열겠다고 하신다. - '반상회'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로마 반상회에는 그동안 맛보지 못한 '치코(치킨과 코코 백향과 음료수)'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

그리고 보니 봉쇄 이후 조울증이 생긴 것 같은 엄마가 요즘 열심히 챙겨 보는 드라마가 왜 하필 <나의 해방일지>인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상하이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해방'의 그날, 바로 평범한 일상으로의 회복!

아빠는 드디어 이발사 공동구매에 성공, 덩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게 되었다. 장발의 늪에서 끝내 해방되신 거다! 그럼 나는 보란듯이 치코를 배달시켜야지. 삼시세끼 준비에 질려버린 엄마가 상하이 봉쇄가 끝나면 우리집 부엌을 봉쇄해 버리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걸 서로 윈윈!

나의 해방은 집밥에서 벗어나는 것!

싹!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선한 영향력

김기현 (도미니카공화국)

나는 현재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국가 중 하나인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고, 자연스레 나의 학교생활은 현지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국제학교다. 내가 4학년 때 겪은 이 일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긴 인생에서 큰 길잡이가 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글로 남기고 싶었다. 그 친구에게는 매우 사소한 배려이거나, 너무나도 당연한 그의 일상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내게는 매우 큰 깨달음을 주고, 또한 내 스스로 지난 언행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태생적으로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운동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몸은 의지를 따라오지 못해,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을 때나, 친구들과 모였을 때, 혹은 쉬는 시간 공놀이를 할 때는 비주류가 된다. 친구들은 나를 폭탄 취급하며 같은 팀이 되기를 거부했고, 가끔은 아예 합류도 못 하게 했다.

오늘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 친구 중 한 명이었던 니콜라스다. 그는 나와 달리 인기도 많고 운동도 아주 잘한다. 뿐만 아니라 남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있어서, 모든 친구가 그를 좋아한다. 니콜라스는 체육 시간이나 공놀이를 할 때가 되면, 당연한 듯이 늘 리더가

되었고, 리더가 되지 않을 때도 매번 제일 먼저 선택이 되는 친구였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다 같이 축구를 하기 위해 모였고, 선생님의 지휘 아래 니콜라스와 다른 한 친구가 양 팀의 리더가 되었다. 각 리더는 가위바위보를 통해 차례대로 자신의 팀원을 선택해야 했고, 그런 경우 보통은 이긴 리더는 잘하는 사람 위주로 팀원을 선택해서 자신의 팀을 구성하기 마련이다. 난 당연히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대화하며 판 짓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니콜라스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나를 골랐고,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듯 주변의 아이들은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 치의 고민도 없이 나를 골랐다는 사실에 당황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고, 니콜라스는 주변의 비난 따윈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어서 자신의 쪽으로 나오라며 손짓을 보냈다.

나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니콜라스 쪽으로 걸어갔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의 비난과 야유는 점점 더 심해져 갔다. 다시 니콜라스에게 선택의 차례가 주어지자, 그는 이번에도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다른 아이를 선택했고, 그다음에도 그렇게 했다. 결국, 팀 선택이 끝났을 때는, 상대 팀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로 구성된 반면, 우리 팀은 축구는 못하지만, 열정만은 가득한 친구들로 구성되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불리한 팀 구성으로 우리 팀은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니콜라스는 계속 자신은 수비에 위치하며 경기를 이끌어갔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골을 다른 팀원들에게 계속하여 패스해주었다. 그 많은 패스 중 몇몇은 나에게도 왔고, 결국 나도 한 골을 넣게 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 게임이 끝난 후, 나는 니콜라스에게 가서 나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니콜라스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얘기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충분히 잘하는데, 애들이 자꾸 못한다고 말하니까. 애들한테 너 잘한다고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지.”

우리 주변에는 친구라는 이름의 수많은 존재가 있다. 특히 외국에서는 형, 누나라는 호칭이 없으니 위, 아래로 몇 살 터울의 친구, 가끔은 어른까지도 친구가 된다. 과연 내 주변에 이렇게 멋진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혹은 난 과연 몇 명에게나 이런 멋진 친구로 존재할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꺼내 더는 약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친구, 주변의 야유와 비난에 굴하지 않고 친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굳건한 친구,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내게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단한 일도 아닌 듯 쿨 하게 말하는 친구. ‘니콜라스 길잡이’가 탄생한 순간이다.

나는 이날, 니콜라스라는 한 사람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순위였던 나였다. 하지만, 누군가의 한 마디 말과 진실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니콜라스를 통해 배우게 되었다. 그 이후, 나의 행동과 말은 전보다 더더욱 신중하게 되었고 나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뒤늦게 깨닫게 될 때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 중심을 잡고자 노력한다.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있다.

니콜라스의 선한 행동은 나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었고, 나 역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는 학교 수업 중에 수학과 코딩을 잘하는 편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거나 성적에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는 언급을 하시면 많은 친구들이 당황한다. 게다가 코딩은 그룹 프로젝트도 많다.

평소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고 수학이 어려워질수록 아는 척을 하기도 하고, 특히 그룹 프로젝트엔 나랑 같은 팀이 되려고 한다. 목적은 간단하다. 수학은 그저 답만 얻기, 코딩은 팀원으로 이름만 얹고, 정작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나의 축구 흑역사에서 비난과 야유를

보내던 밭상들도 있다. 그 기억들을 소환하고자 하면 난 진심으로 그 누구도 도와주기 싫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나는 ‘니콜라스 길잡이’를 생각한다. 아무리 풀어도 답이 도출이 안 되는 친구는 기꺼이 나의 방식을 알려주고, 복잡한 코딩용어를 찬찬히 설명해준다. 수학 수업시간에는 상위 몇 명에 속하지만, 코딩 수업시간의 난 단연 으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잘난척하지 않기, 그들도 하나의 장애물만 넘기면 다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믿음, 그런 마인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 내 작은 변화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 어느 누군가도 타인에게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신념이 생겼다.

세상의 이웃, 글로벌 코리안

김세린 (칠레)

내 이름은 세상 '세(世)', '이웃' 린(隣), 세린(世隣)이다. 부모님은 내가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길 바라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 지금 한국 반대편 이웃들과 여기 칠레 산티아고에서 살고 있다. 6살에 칠레에 왔으니 이제 10년째다.

칠레에서 유치원에 처음 간 날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우리 반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자 한국인이었던 내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친구들도 나를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봤다. 첫 질문은 항상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인이야?'였다. 내가 '한국인이야.'라고 대답하면,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당시에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웬지 창피하고 숨기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어를 못하는 척하고, 도시락으로 한국 음식을 싸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친구들처럼 눈이 크고 코가 오뎅하기를 바랐다. 한국에 가면 인천공항에서부터 아무도 나를 다르게 보지 않고, 내가 그저 똑같은 한국 사람 중 하나라는 게 정말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국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익숙해졌다. 그 시선은 무시가 아니라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옛날에는 칠레인들과 다른 점을 숨겼지만, 이제는 서로 공유하고 알려려고 노력한다. 한국어로 인사

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특별한 문화도 알려주면서 부딪힘을 느낀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사를 번역해 줄 수 있는 것도 기쁘다. 따라서 이제 더는 다름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서로의 차이가 우리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로의 특별한 점을 주고받고 있다.

비록 지금은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만, 친구들과 있으면 여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도 느낀다. 나는 젓가락을 사용하고 우리 집 식탁에는 항상 밥과 김치가 빠지지 않지만, 친구들은 포크와 나이프로 빵에 아보카도를 발라 먹는다. 나는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지만 친구들은 집에서 신발을 신고 거실을 돌아다닌다. 학교에서는 스페인어로 말하지만 부모님과과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나와 달리, 친구들은 항상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점이 많지만, 그렇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 화장과 패션에 대한 관심,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은 10대 청소년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하면 웃을 수 있다. 즉,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변하지 않는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달라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이다.

사실, 때로는 한국 친구들과도 다르고 칠레 친구들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항상 이방인이라고 느낀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것 같은 소외감도 경험한다. 하지만 내가 소외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변화하는 오늘날의 세상에 맞는 새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꼭 어느 한 곳에만 소속된 마음을 갖기보다는, 이 넓고 서로 연결된 세상 안에서 각자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나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 국적이 있고, 여전히 국경은 굳건히 존재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지금의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덕분에 끊임없이 교류한다. 과거에는 여행이나 출장이 그 교류의 전형적인 수단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화상 회의 방식 덕분에 랜선 교류라는 새로운 방식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됐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매일 오가고 소통하기 때문에 국경은 점점 허물어지고, 그만큼 국적의 개념도 열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국경을 넘어 세계가 함께 이겨내고 살아야야 하는 시대가 왔다. 아무리 한 지역에서만 백신을 맞고 방역하더라도 백신을 살 수 없는 나라가 있다면 전염병은 극복하기 어렵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앞에서도 모두의 협력만이 답이다.

이제는 세상이 기술과 과학의 발달 덕분에 정말 가까워졌지만, 아직 전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성을 수용해야 하지만, 기존의 고정관념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아직도 남녀 차별, 인종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다름을 거부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으로 남을 혐오하는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단지 같은 곳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항상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성은 국적만이 아니라 장애, 소득수준, 피부색, 종교, 살아가는 방식에도 있다. 칠레의 자연을 구경하기 위해 배낭을 메고 해외여행을 온 사람도 있듯,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칠레에 온 주변국 이민자도 있다. 자신의 조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가족을 두고서라도 타지로 떠나는 것만이 마지막 희망이다. 보다시피 살아가는 방식에 우리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사람이 진정한 글로벌인이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와 배경의 사람을 만나려면 외국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의 조국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민족의 역사와 현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할 수 없고 오히려

려 다양성을 점점 잃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살든 해외에 살든, 여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내게 '세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이웃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을까? 글로벌 코리안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내리기 어렵다. 특별히 무언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가장 글로벌한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작고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이웃은 물리적으로만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지만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각자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잊지 않으며 나누다면 세상은 더 풍부해질 것이다. 또한, 차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글로벌 코리안의 모습이지 아닐까?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청소년글짓기

초등부문

최우수상

나는 카잔카 • 주세아 (러시아) 310

우수상

내가 기증한 태극기 • 김수아 (미국) 313

나 혼자여도 괜찮아 • 최소을 (독일) 316

장려상

나의 코로나 생활 • 강태윤 (중국) 319

팽이놀이와 김밥이야기 • 김주안 (아일랜드) 322

할아버지와 나의 만남 • 장예준 (베트남) 325

나는 카잔카

주 세 아 (러시아)

나는 카잔카(카잔에서 태어난 아이)다. 그리고 나는 귀염둥이 세오츠크카(나를 귀엽게 부르는 말)다. 그런데 다른 카잔카 친구들과는 달리 내 머리 색깔은 진짜 새까만 색이다. 딱 봐도 여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염색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가 염색은 안 된다고 하셨다. 눈에 나쁘다고 한다. 우리 언니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만날 굴러다닌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염색은 좀 참아야겠다.

“너 어디서 왔니?”

“나? 카잔사람인데...”

“거짓말...”

“나 저기 2번병원에서 태어났어.”

“아... 미안해.”

친구가 미안하다고 말해서 마음이 풀렸지만, 카잔카라고 설명하는 나도, 듣는 친구도 이상하다. 그래서 요즘은 내 맘대로 말한다. 어떨 때는 한국사람, 어떨 때는 카잔사람이라고 한다.

나는 시 외우는 걸 좋아한다. 타타르 시인의 시도 러시아 시인의 시도 다 좋다. 유치원에서는 타타르어로 투카야 시인의 시를 배웠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타타르어로 알리샤 시인의 시를 너무나도 자주 배운다. 왜냐하면 우리학교는 20번 김나지아 갑돌라 알리샤학교다. 그래서 학교에는 알리샤박물관도 있고 알리샤 시 읽기대회도 열린다. 알리샤는 카잔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다. 알리샤 시인의 시가 멋있어서 나는 자주 내 맘속에 저장한다. 푸쉬킨의 시도 멋있다고 하는데 나는 푸쉬킨의 시가 멋있는 건 잘 모르겠다. 내가 러시아어를 타타르어보다 잘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글학교에서 운동주라는 한국시인과 그의 시에 대해 배웠다. 운동주 시인은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에 한국어로 시를 쓰셨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시를 쓴 시인이라고 한다. 나는 그의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냥 나에게 아프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냥 한국어 시는 다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다.

집에 와서 운동주 시인의 시를 더 읽는데 이번에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다. '별 헤는 밤'이라는 시는 제목부터 이해가 안 간다. 별을 헤?? 뭘 해?? 별을 이쪽저쪽으로 옮기는 건가? 아~~ 한국어야. 너는 또 나를 찢찢뼉뼉 뒤통만드네. 엄마한테 여쭙봤더니 별 헤는 것은 별이 몇 개인지 세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 이해가 간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별을 세면서 별 하나하나에 뜻을 넣어 주는 것이다. 우와~ 좋은 아이디어다. 내가 느끼는 시인들은 천재다. 그런데 계속 이 시를 읽다가 나는 또 눈물이 났다.

나는 5살 때 크게 다쳐 지금까지 4번 수술을 받았다. 한 번은 러시아에서, 나머지 3번은 한국에서 수술했다. 수술 때마다 늘 엄마는 나랑 같이 있었다. 그런데 운동주 시인의 어머니는 멀리 북간도에 계신가 보다. 그는 이 시에서 매우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나는 수술실 들어가며 느껴졌던 마음이 떠올랐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한국시는 슬프다.

우리 엄마는 매년 태극기 그리기를 시키신다. 그런데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가 어렵다. 러시아 국기는 줄 두 개 굵고 3가지 색만 칠하면 끝인데 태극기는 동그라미에 작대기가 도대체 몇 개야? 엄마는 늘 '작대기 개수가 다 나라사랑

개수야'라고 하셨다. 우리 엄마의 무한 사랑 코리아~ 요즘은 나도 한국 역사를 배우며 엄마가 이해간다. 한글학교에서 이 주에 한 번씩 한국 역사를 배우는데 러시아 역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엄마는 늘 말씀하신다. 한국 역사는 나의 역사라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역사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다. 우리 엄마는 한국 역사만화표를 화장실 한쪽 벽에 붙여 놓으셨다. 가끔 화장실에서 나와 벽에 그려진 만화를 보고 한국 역사를 물어보면 우리 엄마와 아빠는 서로 가르쳐주려고 하신다. 러시아 역사를 물어보면 “너의 친구, 유튜브가 있잖아” 하시면서 한국 역사는 아주 영화까지 찾아주며 가르쳐주신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며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배운다.

하지만 나는 카잔카다. 나는 내가 카잔카인 것도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카잔은 늘 나와 함께 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러시아어로 말하는 게 더 쉽다. 그리고 여기는 나의 베프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때도 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이 하도 인기가 많아서 나도 덩달아 학교에서 인기가 많아졌다. 학교에서는 내가 외국인인지 러시아인인지 친구들끼리 내기를 하기도 한다. 아주 아이러니하다.

나는 러시아 사람도 한국 사람도 되고 싶다. 그런데 이건 아주 어렵다. 알리샤 시는 나를 즐겁게 하고 윤동주 시는 나를 눈물짓게 한다.

청소년글짓기
초등 부문
우수상

내가 기증한 태극기

김수아 (미국)

“선생님, 여기 왜 한국 국기가 없어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2학년 때는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들었고, 3학년 때부터 학교에 다시 가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간 학교 식당에서 많은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태극기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많은 국기 중에 태극기가 없다니... 선생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께 여쭙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과 만난 나는 똑같이 여쭙보았다. “왜 식당에 한국 국기가 없나요?” 교장 선생님은 “나는 한국 국기가 뭔지 모른다.”고 얘기하셨다.

집에 온 뒤 이 사실을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학교 식당에 국기가 많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 한국 국기가 없어.” 내가 서운해하며 말하자, 엄마는 서랍장에서 태극기를 꺼내주면서 “이 태극기를 걸어 달라고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교장 선생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학교 식당에 한국 국기가 없는 걸 봤어요. 제가 이 국기를 드릴 테니 식당에 걸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편지를 태극기와 함께 교장 선생님께 드렸다.

얼마 후 점심시간이었다. 밥을 먹다 고개를 들어보니, 식당 벽에 그렇게 기다리던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얘들아, 저기 한국 국기가 걸려 있어!” “어떤 게 한국 국기인데?” “저기, 저게 한국 국기야. 내가 기증한 거야.” 그랬더니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른 친구들도 “우와, 나도 기증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 걸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 나는 엄청 뿌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학교 식당에는 못 보던 국기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터키, 브라질, 우크라이나 국기 등…. 자신이 기증한 국기가 걸릴 때마다 친구들은 신이 났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내 동생도 식당에서 태극기를 봤다며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 더욱 기분이 좋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 반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내 짝꿍은 나에게 자기 이름을 한국어로 써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짝꿍에게 한국어로 이름을 써주었다. ‘Harlow, 헬로우.’ 그러자 옆에서 보던 다른 친구들도 자기 이름을 한국어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내 책상 주변으로 어느새 친구들이 가득 모여들었다. 한참을 쓰고 나니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다. 친구들은 신기한지 한국어로 된 자기 이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공책에 한글로 따라 적어놓는 친구도 있었다. 한글이 귀엽다고 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게임을 친구들이 하고 있었다. 물론 술래가 “Green Light! Red Light!”을 외치고 있어서 조금 달랐지만, 그 게임은 분명히 내가 동생과 자주 하는 한국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참 반가웠다. <오징어 게임>이란 한국 영화 때문에 유명해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자랑스럽게 그 영화가 한국 영화라는 것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다.

우리 반 남자에 중 한 명은 태권도를 배운다며, 검은 띠라고 자랑을 했다. “그거 한국 무술이야.” 내가 가르쳐주니, 일본 것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또 한국 라면이 너무 맛있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한국식 치킨을 맛본 후에 엄마, 아빠와 나눠 먹기 아까울 정도로 맛있었다고 했다. “한국 음식은 더 맛있는 게 많아.” 나는 좋아하는 김치도 얘기해주고, 한국 음식 자랑을 실컷 했다.

학교가 끝나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다른 반 여자애들과 얘기를 하게 됐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게 된 친구 중 한 명은 자기는 Black Pink를 좋아한다고 했고, 자기 오빠는 BTS를 좋아해서 BTS와 같은 가수가 되겠다고 매일 노래를 들으며 연습을 한다고 했다. 내 동생도 체육시간에 BTS 음악이 나오면 신이 나서 춤을 춘다고 알려줬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난 한국이 참 좋다. 이번 여름 방학에 코로나 19 때문에 오랫동안 못 갔던 한국에 드디어 간다. 보고 싶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뵈고, 가고 싶었던 곳도 많이 가볼 생각이다. 물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먹어야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태극기도 여러 개 사와야겠다. 앞으로 필요할 곳에 태극기를 기증하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을 알리고 싶다.

나 혼자여도 괜찮아

최소율 (독일)

나는 독일의 초등학교 1학년이다. 내가 다니는 독일학교에는 아시아 학생이 나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 친구들도 없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 혼자만 아시아 학생이고, 한국인도 나밖에 없다. 내 친구들은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지만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최소율은 아시아의 한국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이 어디 있는지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서 속상했다.

지난달 한글학교에서 한국 전통탈을 만들었다. 한글학교 선생님이 내가 만든 탈을 쓰고 한국문화축제 때 친구들과 함께 탈춤을 출 거라고 했다. 내가 만든 탈은 도깨비 탈이다. 반짝이와 조개도 붙여서 예쁘게 색칠했다. 그리고 월요일에 독일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한글학교에서 한국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내가 만든 한국 전통탈이 궁금하다고 가져올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다음 날에 학교에 탈을 가져갔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탈이 예쁘다고 칭찬을 해줘서 행복했다. 그래서 나는 독일선생님과 친구들을 한국문화축제에 초대를 했다. 나는 축제 때 이 탈을 쓰고 춤을 추고, 친구들에게 한복과 한글, 한국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우리 반 친구들 20명이 모두 오고 싶다고 대답했다. 기분이 좋았다. 집에 와서 태극기와 한복 그림을 그

려서 초대장 25개를 만들었다. 팔이 너무 아팠지만 행복했다.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국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모든 친구와 선생님께 초대장을 줬다.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한국문화축제에 왔다. 나는 독일 친구들과 선생님이 탈춤을 추는 나를 보러 와줘서 너무 행복했다. 한글학교 친구들과 함께 탈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춤을 잘 춘다고 칭찬해줬다. 많은 한국 사람과 독일 사람 앞에서 탈춤을 추는 게 재밌고 제일 좋았다.

또 축제에 온 독일 친구와 선생님께 한국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다. 축제에 전시된 전통탈과 내가 만든 도깨비탈을 같이 보여줬다. 한국의 악기라고 북도 보여줬다. 나는 친구와 선생님께 한국문화를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한국 북을 쳐보았다. 나도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친구에게 한국 악기라고 소개를 하면서 친구에게 쳐보라고 했다. 솔직히 한국 악기의 이름을 잘 몰랐지만 뿌듯했다. 그래서 이름은 북이고 다른 한국 악기들은 그냥 쳐보라고만 했다. 엄마에게 나중에 이름을 물어보니 한국의 전통 악기인 장구라고 알려줬다. 또 엄청 무겁고 동그란 큰 쇠가 있었는데 그 악기의 이름이 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일 친구와 선생님에게 한국악기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한국악기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축제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다. 친구에게 한복을 같이 입자고 했더니 친구가 쑥스러워서 싫다고 했다. 나 혼자 한복을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혼자 한복을 입어서 쑥스러웠지만 한국사람으로 특별해진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또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쓰는 친구들의 이름을 알려줬다. 내가 직접 종이에 친구와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줬다. 선생님은 한글을 모르지만 독일어로 쓴 것보다 예쁘다고 했다. 독일어보다 예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님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나를 보러 축제에 와준 독일 친구들과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

지금도 독일 초등학교에 한국인은 나 혼자다. 하지만 더 이상 속상하지 않다. 이제 친구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다. 한국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국문화축제 때처럼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나는 한국사람이니까 친구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다.

엄마가 내가 독일사람들한테 한국을 알려주려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이 더 궁금해졌다.

청소년글짓기
초등 부문
장려상

나의 코로나 생활

강태윤 (중국)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직 수업 중이었다. 수업 중에 잠이 들었나 보다. 분명히 난 수업이 끝나서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수업 중이었다니….

친구들이 모두 나에게 왜 수업 중에 잠들었냐고 물어왔다. 나는 민망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수업 중에 잠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정신 좀 차리라고 내 볼을 꼬집었는데,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윤,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

눈을 번쩍 떴다.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나는 드디어 내 시간으로 돌아왔다.

매일 아침처럼 늘 똑같이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아침도 먹는 등 마는 등 옷을 갈아입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리고는 털썩 책상 앞 의자에 앉는다. 이것으로 학교 갈 준비 끝! 나는 매일 아침 내 방으로 등교한다.

그렇다. 오늘도 어제처럼 온라인수업이다.

매일 아침 아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사들을 확인하시는데 확진자 숫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번 학기에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는 틀린 것 같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와 다르게 온라인수업을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긴다.

우리 반 친구 중 한 명은 수업 중간에 이상한 녹음을 튼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는 'Hello'라는 노래를 틀고,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친구들이 다 "No"를 외칠 때는 "No"의 가사가 들어가는 녹음을 튼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녹음을 틀어서 웃음을 준다. 선생님이 많이 혼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장난을 친다.

다른 한 친구는 온라인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항상 수업에 늦는다. 선생님이 그 친구가 수업에 들어온 후, 왜 늦었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매번 똑같이 자기가 긴장하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늦었다고 한다.

어떤 때는 선생님도 실수를 하신다. 한 번은 마이크를 꺼 놓은 걸 모르고, 수업을 하셨는데, 한 친구가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라고 말한 후에야 마이크가 꺼져 있다는 걸 알아채셨다.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다들 가만히 있었다.

또 최근에는 선생님 집 와이파이 신호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노트북을 들고 집 안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가장 좋은 곳을 찾으려 이 방, 저 방, 거실로 부엌 쪽으로 돌아다니셨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집 구경을 시켜준다고 좋아하는 적도 있었다. 지루하고 답답한 온라인수업이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해의 거의 모든 집들이 봉쇄되어 너무 슬프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수업이 끝나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은 만날 수 있었다. 비록 단지 안이지만 수다도 떨고,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놀이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는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래도 이번에는 미리 상해 전체 봉쇄가 공지되어서 다들 언제쯤 봉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순간부터 아파트 전체가 봉쇄되는 일이 있었다.

한 번은 우리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아파트가 갑자기 봉쇄되어 친구들이 한 명도 집에도 못 가고 모두 그 집에서 계속 지내야 했던 일도 있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또 있다. 어떤 택시 운전사가 아파트 단지에 손님을 내려주고, 막 단지를 빠져 나오는데 그 사이 단지가 봉쇄되어 택시 운전사는 가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다.

중국에 살지 않으면 모든 이야기가 황당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해에서 실제로 벌어진 100% 리얼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온 지구를 뒤덮어버렸고, 우리의 일상도 같이 사라졌다. 모든 학생들의 평범한 삶, 눈뜨면 당연히 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면 집에 돌아오는 이런 평범한 삶이 다 영켜버렸다. 하지만 나와 내 친구들은 어떤 때는 방으로, 어떤 때는 학교로 등교를 하면서 영킨 우리의 삶이 천천히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지구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없기를, 혹시 이런 병이 다시 생기더라도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두뇌와 능력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버린 질병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잡는 시간, 지구 전체를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큰 대가를 치렀으니 코로나19 이후의 인류는 좀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팽이놀이와 김밥이야기

김주안 (아일랜드)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는 내가 팽이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팽이 좋아하네. 신기하구나.”

“할머니, 우리 팽이놀이 같이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팽이놀이라 신이 났어요. 내 팽이는 노란색, 할머니 팽이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왕팽이는 뚱뚱해서 힘이 약해요. 내 팽이가 날씬하고 내 손 힘이 세서 할머니의 초록팽이를 이겼어요.

“야호! 신나다!” 내가 4:1로 이겼어요. 할머니가 ‘호호’ 칭찬하셨어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얼음판 위에서 하는 놀이지만 나는 지금 더블린 집에서 할머니와 같이 해요.

“오빠, 나랑 해보자!” 동생 리안이기도 인형을 내려놓더니 팽이놀이가 하고 싶은가 봐요.

한국에서는 설날이나 대보름에 팽이놀이를 한다고 할머니께서 설명해주셨어요. 겨울에 한국에 가면 얼음판 위에서도 진짜로 팽이놀이를 해보고 싶어요. 팽이채로 팽이를 때릴수록 더 잘 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팽이가 힘이 없어서 느려질 때 팽이채로 세계 치면 잘 돈다는 것을 꼭, 나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

고 얼음판 위에서 썰매도 타고 한국 친구들과 눈싸움도 많이 하고 싶어요. 더블린은 한국만큼 춥지 않아서 눈도 잘 안 오고 얼음판도 없어서 정말 아쉬워요.

우리나라 음식에는 맛있고 신기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미역국은 우리 집에서 자주 먹어요.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애기를 낳으면 꼭 미역국을 끓여서 먹는대요. 우리엄마도 막내 동생 안나를 낳았을 때 아빠가 끓여주셨어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할머니께서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랑 아가를 돌보셨어요. 아, 그래서 안나가 미역국을 좋아하나 봐요. 밥을 국에 말아서 주면 “맘마, 맘마” 하면서 금방 다 먹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치가 한국음식이라서 자랑스러워요. 나는 김치찌개가 정말로 맛이 있어요. 매운 맛도 좋아요!

엄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김치볶음밥은 동생이 좋아하고 나는 김밥을 좋아해요. 할머니도 엄마가 만든 김밥을 먹어보시더니 감동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내일 도시락, 김밥 해줄 수 있어요?” 나는 학교에 도시락으로 김밥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해요. 내 친구들이 김밥을 볼 때마다 신나게 얘기해요.

“Oh, this is Sushi!” 그러면 내가 얘기해줘요.

“No, this is Gimhap!”

나는 친구들이 김밥을 신기해하고 먹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엄마는 김밥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좋아하니 기쁘게 만들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김밥 날’이에요. 학교 친구들이 먹고 싶어 하면 주라고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만들어주신대요. 벌써 마음이 두근거려요.

한국에서 하는 놀이 중에 ‘연날리기’가 있는데, 더블린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연날리기를 하면 좋겠다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쁘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가오리연’을 잔디밭 놀이터에서 날렸어요. 연실을 풀어주니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올라갔어요. 아빠도 이 연을 볼 수 있을까…?

오늘은 'Father's Day'인데 우리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셔서 우리가족은 걱정하고 있어요. 연을 날리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아빠의 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머니, 엄마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 보살펴주고... 아버지가 퇴원하실 때까지 첫째 아들 노릇을 잘 하겠다고요. 드디어 저녁 때 아빠랑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나이는 아홉 살이거든요. 잘 할게요!”

청소년글짓기
초등 부문
장려상

할아버지와 나의 만남

장예준 (베트남)

나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있는 친구가 참 부럽다.

우리할아버지는 안 계신다. 돌아가셨단다. 그런데 우리할머니, 고모, 작은아빠, 아빠와 엄마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 없는데, 어떻게 여기 있다는 말일까? 사실 나는 이미 1학년 때 ‘사람이 죽어서 밤하늘의 별이 된다’라는 동화 속 이야기도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어벤져스>의 토르, 오딘, 헐크, 스파이더맨도 사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것도 2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작년까지 나는 어른들은 때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했고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 어린이들은 바보가 아니다!

어른들은 지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3학년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돌아간다는 말은 ‘go back’인데 어디로 가셨다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4학년이 되어 나는 알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죽었다’란 말을 ‘돌아가셨다’라 말한단다. 어쩌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주로 돌아가고, 하늘나라에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인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

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긴 어디에서 왔으니,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 있겠다고 4학년인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설과 추석 때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한국의 전통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교과서와 책 <why> 시리즈 등을 읽어보면 한국인들은 조상이 죽어도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항상 함께 있다고 믿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났고 나도 이제는 믿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2년 전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기 바로 전, 할아버지께서 매우 아프시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들었다. 아빠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듣고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병원에서 할아버지를 배웅해드렸다. 나는 엄마랑 같이 서둘러서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 갔지만 우리가 갔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잠을 주무시듯 눈감고 계시어서 그때는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줄 알았다.

그때 나는 정말 몰랐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못 본다는 것을 몰랐다.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안에 할아버지가 들어가셔도 할아버지가 잠을 자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가끔 한국에 가면 우리할아버지는 아프셔서 낮에도 주무실 때도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베트남에서 전화하면 언제나 할아버지가 항상 제천 집에 계시고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 다시 돌아왔고, 한참 뒤에 알았다. 할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슬펐다.

그런데 아빠는 슬퍼하지 않는 듯하다. 아빠가 죽으면 나는 참 슬플 것 같은데, 아빠는 내가 보는 곳에서 울지 않는다. 세상에 아빠와 엄마가 없다? 만약에 나의 아빠가 돌아가시면 나는 매일 슬플 것 같다. 아빠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 기억과 마음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하늘나라에서 만나셔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하신다.

우리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원래 왔던 곳으로 가신 것이지만,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부르면 항상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기억한다. 기억할 것이다. 어렸을 때, 나에게 웃어 주시던 할아버지 얼굴. 나를 업어주시던 할아버지의 따뜻한 등, 전화하면 “밥 먹었니?” 라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한다, 나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낳아주시고,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 나는 할아버지들 덕분에 태어난 것이다.

나는 오늘도 할머니께 전화한다. 할머니는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실 것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생각하며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할아버지와 만나는 방법이다. 우리는 기억을 하며 그렇게 오늘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나는 또 우리의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차



수상 소감

시 부문 330

단편소설 부문 345

일반산문 부문 355

청소년글짓기 부문 378

시 (대상)
치매꽃



주양수 (중국)

저는 지금 天津에 있습니다. 십오 년째 天津에 있습니다.

여기는 미세먼지나 안개는 자주 오지만, 기다리는 사람이나 소식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어딘가에, 답장 따위는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어딘가에, 병편지처럼 보내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도 몇 년째 저에게 먼저 연락을 안 주십니다. 저를 연락할 번호도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도 어쩌면 적어놨다는 것도 잊고, 전화기에서 연락처를 찾는 방법도, 지금은 알지 못하십니다.

이번에 보낸 병편지에는 미등단 신인의 패기나 시대를 뛰어넘어 감각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시도 따위는 조금도 넣지 않은, 담백한 것만 넣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작이라고 할 다섯 개의 이야기만 붙였기 때문에 그런 참신하고 강렬한 작법으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어머니 이야기는 담백한 게 더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당신의 침묵과 나를 바라볼 때 뭉클 흔들리던 젖은 동공에 아파하며

삶이 온전히 투영된 정 깊은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맛있는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不到黃河心不死. 15년을 살아내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마음부침이 심하던 때였는데, 어려운 시기를 잘살아내라고 격려를 해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억을 잃어버린 모든 분, 지워낸 기억의 자리마다 다시 새롭게 행복한 추억이 채워지고 자라고, 다시 지워져도 다시 꽃으로 피어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옆을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계신 분들께도 깊은 공감과 최대한의 응원을 드립니다.

시 (우수상)
구두



KoAnn (미국)

먼저 저의 시 ‘구두’를 뽑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해외동포 대상으로 이런 문학 참가 기회가 해마다 있다는 걸 이번 참가를 통해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전 세계의 수많은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사실에 놀랐고 그 많은 참가자 중 한 사람으로서 참가한 것도 뜻깊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수상 소식에 너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두’는 제가 오래전에 써둔 시 중 한 편이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빗대어 쓴 시입니다.

실제 예쁘고 높은 구두를 신고 발이 아파서 구두를 벗어 버리고 걷고 싶은 적이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힘든 상황을 구두에 비유해서 쓴 시인데 뽑혀서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매년 이런 좋은 기회의 장에 해외동포로서 한국 문화에 참여하고 이런 대회가 매년 열린다는 걸 주위에 알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문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시 (우수상)

한 장의 결혼사진



유한나 (독일)

지난 8월 말,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워낙 시를 잘 쓰시는 재외동포들이 많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에 더욱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작인지 우수상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상자 신분확인 및 정보이용 허락동의서를 검토하시는 3주 동안 최종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 '우수상' 수상이라는 기쁜 메일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독일의 한 동포신문에 실린 재외동포문학상공모 광고를 보고 처음 응모했습니다. 그때는 시를 10편 이내로 제출해야 해서 9편을 보냈는데 그중 한 편이 제4회 시 부문 가작으로 뽑혔습니다. 4년 후에 다시 응모하였는데 그때도 가작으로 뽑혔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은 저를 문학의 길로 들어서도록 밀어주었습니다. 다른 수상자와 함께 재독한국문인회발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2004년 3월에 재외동포문학상 1회부터 5회 수상자를 모아서 7명이 재독한국문인회를 창립했습니다. 2007년부터 회원들의 창작작품집인 「재독한국문학」을 매년 펴냈습니다. 2017년에는 독일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유럽에 거주하는 동포문인들이 한글로 쓴 문학창작집인 「유럽한인문학」을 창간하여 올해 4호까지 발간하였습니다.

낮선 외국에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외국 생활에서 모국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로 문학창작작품을 쓰는 동포들에게 재외동포문학상이 주는 격려와 힘이 얼마나 큰 열매로 맺혀가는지 체험했습니다.

올 2월 24일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 인터넷 신문기사와 함께 올라온 한 장의 결혼사진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시커멓게 불탄 자국이 찍힌 벽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자동차 지붕 위에 앉아 두 젊은이가 서로 마주 보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 가슴에 시의 씨앗을 뿌려주었고, <한 장의 결혼사진>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제 곧 육십 중반에 이르고, 저만치 앞서 시의 길을 걸어가는 시인들이 많아서 이쯤에서 나는 ‘그만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제 시를 우수작으로 뽑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알이 뚫을 수 없는 시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시인의 길을 계속 걸으라는 격려의 상으로 받고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좋은 시를 쓰도록 늘 격려해주시는 어머니와 제 시의 첫 독자인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시 (가작)

봄의 문자



김미영 (캐나다)

결을 쉽게 내주지 않는 시,
자주 외롭고 쓸쓸했었습니다.
그래도 시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별새, 가문비나무, 그믐달, 그리고 바람
당신들을 짊으며 이 계절을 건넜습니다.
끝자락에서 당신들을 찾으면
아침은 느리게 왔고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지치면 고개만 끄덕거리려도 되나요, 신뢰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일어나는 한 철과 한 철 사이에서
노을의 눈빛은 잊지 못하겠어요.
여전히 막막한 시절, 아득할 때마다 당신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친구들, 당신들과 커피 마시는 시간이 행복하답니다.
길 선생님, 말간 시와 시인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의 표정을 알려 주신 선생님들께도 문안 인사드립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 으니, 울타리가 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사슴 동생과 작가님, 당신들이 있어서 어깨를 펴 수 있었어요. 쏜, 바다를 보러 가야겠어요. 락, 아들 덕분에 사랑을 배웠어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저를 온전히 사랑해 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오늘의 기쁨을 안겨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저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빠뜨린 서류를 친절하게 알려주신 담당자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접어서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시 (가작)

차보(Tsavo) 공원의 심바(사자)를 보았는가?



김미영 (케냐)

아침 태양이 붉게 타오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황토빛 땅이 시나브로 붉게 달구어지고, 지나가던 먼지바람의 열기가 얼굴을 훑 덮쳐옵니다.

우기를 지나쳐 버린 삭막한 이땅에서 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게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하늘에 몽글몽글 피어오른 구름이 한줄기의 비를 몰고 오는, 그런 가슴 설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제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니 너무 기쁩니다.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과 재외동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량한 들판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처럼,
농부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한 줄기의 바람처럼,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나의 별처럼,
아프리카 시골 보이(Voi) 지방에서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시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가작)

부엌에서 소 기르기



김사비나 (미국)

내게 이런 행운은 천사가 도왔을 것!

먼저 내게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G-mail로 통보를 받고 정말인가 하고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내게 이런 행운이’ 하고, 초등학교서부터 글이 좋아 이불속에서 호롱불 켜놓고 「장화홍련전」을 읽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절필할까 하기도 여러 번 했지만,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잡고 씩씩하는 글입니다.

서정주 선생님이 흰 두루마기 입고 천정을 바라보며 시를 읊듯 강의하시는 모습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고, 박목월 선생님의 붉은 동안의 얼굴로 시를 읊으면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고, 김동리 선생님의 “사반의 십자가”나 “등심불”을 강의할 때는, ‘나도 선생님처럼 멋진 글을 써야지’ 하며 외길을 걸었습니다.

서울역에 보파리 하나 들고 당도하여 겨우 서라벌예대 시험을 치르니, 갑류 장학생이러는데, 내 몸 하나 누일데나 있을 데가 없어 파고다 공원 의자에 다섯 시간을 앉아서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나요? 무조건 살려 주세요’ 하고 기도했지요.

두 천사가 나타나 필운동 사시는 80대 노부부 집에 인도해 주시어 그집서 밥해주고 청소하고 그리고 학교 다녀라 하여 두 천사로 인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어려울 때는 천사가 나타나 도와줍니다. 이번 재외동포문학상도 분명 천사가 도와 주었을 것 같습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심사위원들께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 더 열심히 글을 써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 (가작)

옮겨진 한 그루



류명순 (에콰도르)

1996년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처음 이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지인이 말씀하시길, 많은 이민자들이 보따리를 풀지도 못한 채 이방 땅에 사시다 그 땅에 뿌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 땅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글로 표현해보았습니다.

2005년 현재 살고 있는 에콰도르로 또 한 번 이민을 왔습니다. 다시금 언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뿌리 채 뽑혀 옮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듯 제게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길고 긴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짧은 시 한 편이 재외동포분들의 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되고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한줄기, 빗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를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보호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한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도록 저를 품어주고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 (가작)

아버지의 바이칼



윤희경 (호주)

미국 서부를 여행 중이었다. 팬데믹으로 발이 묶였던 3여 년, 이번에는 불발로 끝나지 않고 기어이 떠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었다. 여행 열이틀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다음 기착지로 떠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겪은 가장 쌀쌀한 겨울은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었다”라던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샌프란시스코의 바닷바람은 그야말로 찬 서리 내린 아침 같았다. 작가 일행 스물세 명은 그 무렵 다소 지쳐있었다. 몇몇은 기침도 했다. 공항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다들 손전화를 켜서 안부를 보내고 메일을 체크하는 쉬는시간이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였다.

- 와, 나 됐다!

메일을 체크하던 순간,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별떡 일어났다. 그 소리에 물려왔다. 본의 아니게 일행과 함께 수상 소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우리 일행들의 박수소리와 환호로 잠시 떠들썩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것을 감지했는지 빙그레 웃으며 지나갔다. 뜻밖의 장소에 화살처럼 날아온 좋은 소식,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벽찬 가슴을 쓸어내렸다. 곧 동서남북으로 감사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나 하나 글 쓰자고 무심했던 그들의 시간, 많은 용기를 부여준 동료들, 오히려 그들은 나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축하 메시지를 힘껏 보내주었다. 그들은 안다. 이 늦은 나이에 받는 상이 내게 얼마나 고무적이라는 걸,

문학동인 썬거루, 문학과 시드니 멤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 분들은 나의 평생지기들이다. 빈터 식구들의 응원, 동문 동아리 SBS팀의 끊임 없는 성원에도 감사드린다. 수상 소식을 받고 병싯 병싯 웃고 있었을, 내 그림자 같은 지인 몇 명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들이 용맹정진하고 있는 문학과 투병에 서광이 비치기를 간절히 빈다.

첫 시집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수상 소식, 언젠가 세 번째로 올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남편과 가족에게 무한 감사를 드린다. 그러기 위해 나는 더 부단히 읽고 쓰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처럼 말없이 쌓여가는 시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나를 더 겸손한 자로 세워주신 재외동포 재단 임원들과 치열한 심사과정을 겪으셨을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도 머리 숙여 큰 감사를 드린다.

시 (가작)

뿌리 깊은 나무



이영미 (인도네시아)

북회귀선 아래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가을이 왔습니다. 붉게 물드는 나뭇잎 대신 마음속에 고운 단풍이 들어갑니다. 여름의 언덕에서 첫 동화책에 들어갈 작가의 말을 썼습니다. 적도의 가을 들녘에서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소감을 적으며 재외동포로 살아온 19년의 세월을 돌아봅니다.

태국에서의 10년과 9년의 인도네시아 생활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고국에서 아동문학가로 등단을 하고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사이트 '스터디 코리안'의 통신원으로 활동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삶을 문학으로 조명하여 옹골차게 만들어 주시는 재외동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뒤편길에서 작은 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싶다는 어머니. 창가의 책꽂이에 하나씩 사 모은 화분들이 몇 번의 분갈이를 하는 동안, 쪼그라드는 당신의 몸에서도 희끔희끔 살비듬이 떨어집니다. 누군가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망설임 없이 당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임재순 여사님, 뿌리 깊은 나무로 기억될 나의 어머니.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시를 쓰지 못하는 건 신의 형벌이라 생각했습니다. 가
우똥거리는 첫 발자국을 지켜봐 주시는 김주명 시인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
른 뒤, 제 글을 읽으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덜 부끄럽기 위해 더 매달
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김근수 씨, '나의 작은 우주' 김재이, 김아린.

소중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끄러운 수상 소감을 마칩니다.

단편소설 (대상)

타이거 마스크



이수정 (미국)

소설 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에디터로, 기자로, 번역작가로 기사나 칼럼, 에세이는 술하게 써왔지만 나 자신을 명백히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여긴 적은 없었다. 더구나 소설이라.

소설과 나 사이에는 깨지도, 오르지도 못할 철벽이 가로막힌 줄로만 알았다. 소설을 쓸 사람은 따로 있다고만 생각했다. 소설이란, 누군가에게 교훈을 주고 누군가를 계몽하는 것인 줄 알았던 내 착각도 한몫했다. 소설을 좋아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읽고도 몰랐다.

이제 겨우 눈을 떠 가는 느낌이다. 소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에. 그리고 알아가는 느낌이다. 소설은, 우리네 삶을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읽기’만이 아니라 ‘쓰기’로도 참여할 수 있는 예술이란 것을.

「타이거 마스크」는 그렇게 우리 삶을 응시한 결과였다. ‘이수정’이란 내 이름을 서서히 잃어가며 엄마로, 아내로, 주부로 어언 삼십 년, 또 이민자로 어언 이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 부지불식 간에 내게 부여된 어떤 ‘맥 빠진’ 프레임을 인지한 결과였다. 「타이거마스크」는 매일 지는 게임만 해야 하는 한 프로 레슬러에게 부여된 패배의 프레임이다. 그 타이거마스크를, 문득 가만히 응시하게 된 내 삶에, 조금 더 넓게는 이민자의 삶에,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삶에 씩워 보았다. 그중에서도 어찌면 미소를 잃었을지 모르는 어떤 얼굴들에 씩워 보았다. 그랬더니 ‘소설’이 되었다. 그 얼굴들이 소설이 되었다.

‘타이거 마스크’로 내 삶의 어떤 프레임을 깨는 한편, 내가 소설에 부여한 프레임도 깨진 셈이다. 프레임들이 깨지자 내가 응시한 삶들은 마치 그게 원래 제 모습인 양 능청스러우리만치 모두 소설이 되었다.

졸작 「타이거 마스크」에 주어진 이번 대상은 상, 그 이상의 의미다. 이제라도 괜찮으니 소설을 쓰라고, 소설을 써도 된다고, 한눈팔지 말고 소설에 정진 하라고 내 등을 토닥거리는 누군가의 두터운 손이다. 많은 존재들의 손이 그 손에 겹친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글 잘 쓰는 줄 아는 어머니, 내 소설을 제일 먼저 읽어주는 남편과 딸, 엄마가 쓰는 소설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해도 무조건 엄지를 치켜주는 아들. 다음 소설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쓰라고 말해주는 친구, 지인들. 소설을 공부하려 만났으나 소설을 넘어 자꾸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게 만드는 미주 작가 선생님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졸작의 평가를 청할 때마다 과분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나의 소설 스승, 손흥규 작가님. 나와 소설을 가로막았던 철벽을 무너뜨려 주신 분. 사실, 소설은 내 삶을 낮게, 아주 낮게 두르고 있는 투명한 장막임을 알게 해주신 분이다. 그분께 수상의 영광을 바친다.

단편소설 (우수상)

달의 비밀



박종진 (미국)

조국을 떠난 지 벌써 42년이 지났고 그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영어는 여전히 외국어이고 게다가 우리말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기든 신변잡기든 글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글을 쓴답시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린 것이 가장 잘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잊지 않으려고 글쓰기 연습을 시작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욕심이 생기더니 결국, 소설에 도전했습니다. 글 쓰는 일을 통해서 세계 최고인 우리말, 우리글을 잊지 않으려고 문학상에 응모했는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게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 사람을 접하게 됩니다. 음식은 모르지만, 언어에 있어서 한글은 그 어느 나라 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합니다. 그동안은 우리 국력이 약해서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시작으로 윤여정 어른의 미나리,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파친코, 게다가 방탄소년단의 활약으로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민 초창기인 1980년 어느 날 TV를 사려고 전자제품 전문점에 갔습니다. 모두 일제와 미제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망치가 필요해서 동네 철물점에 갔더니 한쪽 구석 선반에 ‘Made in Korea’ TV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라 서러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갖가지 문화 영역에서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미 TV와 냉장고, 세탁기는 한국 제품이 가장 질이 좋아서 비싸고, 도로 위에는 한국 자동차가 달리고, 점심으로 한국산 컵라면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시장에 가도 한국 사람 반에 외국 사람도 반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저희 같은 글 쓰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일의 선봉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 시대적, 국가적 소명을 갖고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상을 받습니다. 영광입니다.

단편소설 (우수상)

루시, 너에게서 빛이 나



원선미 (형가리)

감사합니다.

쓰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 소녀들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녀들이 어린 엄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넌 존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란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려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만 하다가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충명해서 더 깊고 슬픈 눈을 가진 도리가 어린 집시 여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난 손을 내밀어 잡아 줄 수 없는 현실에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나의 루시가 우리 집 벨을 눌러 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편소설 (가작)

히피는 아니지만



김경숙 (호주)

신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본 것을 서로 공유하도록 단어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위해 글을 씁니다.

5,000개 가까운 단어들이 노트북 자판을 유연한 몸짓으로 채울 때, 흠칫 생경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흔히 썼던 표현들인데... 갑자기 낯설어지곤 하더군요. 고국을 떠나 이곳에서 살아온 생활이 어언 40년을 향해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뇌리에 수십 년간 녹슬어 잠겨있던 단어들을 소환해낸 이면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습니다. 2021년 8월 예기치 않은 백신 부작용으로 유배되었던 '노던비치'병원의 입원실에서...

그리고 재유행에 따른 2차 Lockdown이 11월에 해제되었건만, 백신 부작용에 따른 위험 부담에 꼬박 집안에 갇혀 지낼 때...

재외동포재단의 문학상공모 공고문이 구원투수로 다가왔습니다. 대충 열개를 짜놓았던 뼈대에 단어들을 불러내 살을 붙이고 채색해가던 그 지난(至難)한 시간들은 침잠의 긴 끝을 헤쳐나올 수 있는 활력소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있던 장편에 도전할 원동력이 되었음에 기쁩니다.

미흡한 졸작을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모국어 향연의 장을 베풀어주신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문우님들과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단편소설 (가작)

한겨울의 외출



김미영 (스웨덴)

주말 산책을 마치고 숲을 나설 무렵 야영을 하기 위해 숲에 들어서면 짧은부부를 보았다. 대여섯 살 돼보이는 그들의 어린 두 아이는 양증맞은 배낭을 메고 나무뿌리가 삐져나와 있는 호숫가 숲길을 조심조심 걸었다. 가을 햇살이 단란한 가족과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과 초록의 이끼와 열매를 미처 떨구지 못한 블루베리를 투명하게 내리비쳤다. 나는 자연과 인간이 햇살 아래 반짝이며 환하게 빛나는 순간을 볼 때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풍경이야'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에서 25년이나 살면서도 여전히 그렇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 중간쯤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서점이 하나 있다. 하루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서 서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마음처럼 시간이 더디 가기를 바라며 책들 사이를 한가로이 거닌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서서 뻑뻑하게 꽂혀있는 책 중 한 권의 책을 뽑아 들고 페이지를 조심스레 넘긴다. 이것은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스웨덴의 가을 햇살 아래에서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한국에서의 옛 풍경이다. 한국어로 된 책들이 가득한 정겨운 서점이었다니, 추억하기에 황홀하다.

날이 갈수록 더한 한국어 서적의 결핍 속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수상소식을 들으면 부족함은 잠시 잊고 그저 기쁘기만 하다.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린다.

단편소설 (가작)

M. I. A.



이지혜 (미국)

마음속에 늘 한국시간과 이곳의 시간을 띄워놓고 살고 있습니다. 12시간의 시차를 헤아려보며 ‘지금쯤 한국에 있었다라면 무얼 하고 있겠지’ 따위의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십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한국을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저를 그리워할 사람이 없는데도 말이죠.

단편소설 미아는 타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가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재외동포로 살면서 제가 느끼고 목격했던 감정을 미아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이야기를 뽑아주신 걸 보니 제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미아를 쓸 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 게 매일 미아의 진행 상황을 들려주며 글쓰기로 태교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 제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글쓰기는 솔직한 나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라 감정적으로 지칠 때가 많습니다. 내밀한 감정과 생각의 겹을 벗겨서 그 실체를 마주하는 일이 가끔은 귀찮아 덮어놓고 펼치지 않은 적도 많고요. 그러나 낯선 나라에서 두 발 붙이고 살아가는 힘 또한 글쓰기에서 얻고 있습니다. 제 소설 속 미아처럼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저를 잡아주는 것 역시 글쓰기입니다. 앞으로는 의무감을 가지고 글을 써야겠다는 각오를 해봅니다.

제 소설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옆에서 늘 저를 응원해주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저의 영원한 독자, 제 남편에게도 고맙단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일반산문 (대상)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고 재외동포문학상을 주최하신 재외동포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지만 제가 정말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합니다. 저는 고려인3세이고 한국어를 20대가 거의 다 되어서 배우기 시작했기에 한국어가 모국어인 대단한 분들이 참가하는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이고 들리는 언어만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한국음식을 먹고 설날이나 추석이면 성모를 하고, 평소에 한국어만 쓰시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라왔던 덕에 우리가족의 마음속의 언어는 조국인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제 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뿌리가 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힘을 합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할머니(엄올가 여사)와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조카들도(알리사와 아르썸) 사랑합니다. 나중에 커서 자랑스러운 동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지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살았을 때 많은 분께 도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출신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일반산문 (우수상)

엘에이 폭동과 민들레



조성환 (미국)

오래전 감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다가, ‘이놈이 언제 자라 감꽃을 달까’ 싶을 때가 있었다. 막막하고 막연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그와 다르지 않았다. 우리 이민자들은 커가는 자식들을 위하여 나의 노동이 거름이 될 것을 주저하지 않았지만, 막막하긴 감나무 심듯 했다.

감이 실하게 달리고, 우리의 뿌리는 이제 이 사회 곳곳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때를 같이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본향은 세계의 선진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여러 면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어디를 가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더니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불과 이삼십 년 만이다.

4.29폭동이 나던 해로부터 30년이 흘렀다. 흑인에게 당하고 백인에게 당하고도 마땅히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이 없어 냉가슴으로 앓았던 때가 있었다. 한인들은 분을 삭이면서도 우리들의 아이들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야말로 절치부심이었다.

불과 30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한인들의 의식도 변하고, 주류의 사람들도 한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짧은 시간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민족임을 인정한 것이다.

세상에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란 없다. 말 설고 물선 땅에서 억척스러운 삶의 표본이 엘에이 한인 타운이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소수민족의 타운이 이처럼 크고 활성화가 된 곳은 없다고 한다. 이곳에 가면 때때로 한국의 그 어디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이곳은 올드 타이머가 된 초기 이민자들의 눈물의 결실이다.

이제 됐다.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 돌이켜보면 지난 40년은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퇴자로 뒤로 물러서 있는 지금은 보람으로 뿌듯하다.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동포의 수가 740만 명이라고 한다. 광활한 대륙에서 보는 한국의 지도는 토끼 똥만큼이나 작다. 그것도 반으로 뺄린 나라 사람들이 발발거리며 세계 곳곳에 안 나가 있는 곳이 없다. 이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국력이 높아진 모국에서 생계형으로 이민을 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나름대로 웅지를 품고 떠난 사람일 것이다. 그만큼 한국인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다.

이런 재외동포를 한곳에 연결하여 결집력을 높여준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제 수기를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일반산문 (우수상)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채단비 (프랑스)

저의 일상이 글이 되어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글을 제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약 4년간 가지 못했던 한국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던 때라 공모전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도 제가 신청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두 달 반의 행복한 휴가를 보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던 날, 울적했던 마음을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 수상 소식이 달래줬던 기억이 납니다.

얼떨떨했습니다. 경유지에서 수상 발표 메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을 정도로 놀랐고 또 기뻐했습니다.

‘소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는 제 인생에서 첫 슬럼프를 겪었던 당시, 지난 유학 생활을 돌아보며 썼던 글입니다. 꾸준히 해오던 학업에 진척이 나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가 겹치며 한국에 갈 수도,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할 집에서조차 끝이 보이지 않는 우울이 저를 따라다녔고 남편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내던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귀찮은 빨래를 해결하러 다니던 평범한 코인 세탁방에서 조금씩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이름 모를 위안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기대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발견이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의 프랑스 일상이, 10여 년간 특별한 일 없이 묵묵히 보내왔던 프랑스에서의 삶이 이번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글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힘을 믿습니다. 비록 글을 쓰며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하는 과정은 여전히 어렵지만 꾸준히 글을 쓰며 힘든 일상에서 따뜻한 치유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글을 통해 위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글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희망과 꿈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산문 (가작)

stay hungry, stay foolish!



김순희 (일본)

9월의 어느 날, 저녁수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니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해있었다. 무심히 열어본 순간, 숨이 멎추는 듯했다.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 확인 안내.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상 심사결과 성인 일반산문 부문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엇인가가 서서히 차올라왔다. 설렘인 듯, 아픈 듯, 기쁨인 듯... 눈물이 그렁그렁 시야를 흐리더니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희망의 배를 띄워놓고 오랜 기다림에 이제 그 마음을 접으려던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이야. '그래, 삶은 하루하루가 기적일 수 없지만, 아주 가끔은 이렇게 흔치 않은 기적을 선물하며 다시금 용기 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 하는구나'

육아와 일, 학업으로 앞뒤 바라볼 여유도 없이 뛰어왔던 시절이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삶의 변환기를 맞이했을 때, '재외동포문학상'을 만났다. 무언가를 쓰려고 하니, 23년의 세월 동안 빈약하고 투박해진 내 모국어와 마주해야 했다. 부끄러움과 싸우며 용기와 희망으로 나를 추스르며 그렇게 세 번째 문을 두드렸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인생 스토리를 엮어낼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부족한 글에 날개를 달아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많은 귀한 인연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반산문 (가작)

떠나는 삶에 관하여



박동찬 (중국)

2015년 열아홉 되던 해, 중국 선양(瀋陽) 태생인 저는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어느 유학생과 달리 한국어를 제법 잘 구사하고, 한국에 막연한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던 저의 정체성은 ‘조선족’이라는 표현 하나로 설명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정체성은 저 스스로의 인정 투쟁을 통해 획득한 주체적인 호명이 아닌, 국가에 의해 부여되고 강제된 것이기에 그런 규정을 지양하는 편입니다. 인간의 의례적 평등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분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한중 수교 이후 한국 사회로 이주해 온 이전 세대 ‘조선족’이 겪어야 했던 서러움은 중층적입니다. 불안한 체류자격, 미디어의 차별적 프레임과 온라인에 난무하는 혐오 표현, 3D업종에 몸담으며 겪는 산업재해, 최저 주거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생활환경. 초창기 귀환 동포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적 현실은 유학생인 제가 경험했던 환경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쩌면 저는 기득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력이나 권력은 없지만, 최소한 인정 투쟁의 장에서는 어느 정도 단맛을 본 입장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알량한 기득권을 근거로 가해자의 자리에서 가해자와 공모하고 동조해왔습니다. 차별받는 것은 당신들 교양(제도권 교육)의 부족 때문이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한밤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파란만장했던 5대의 가족사를 복기하고, 그들에게 존재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저는 소수이고 약자이고 비주류입니다. 결코 한곳에 정착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 콤플렉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력과 횡포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할 수밖에 없는) 삶,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조망할 수 있는 삶이라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 대한 자신의 소유 의식을 버리고, 자신이 몸담은 공간의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존재 방식과 공생하고 연대하는 길을 걷는 일도 설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하나의 타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완벽하다. 예민성을 지닌 사람은 이 세계의 한 곳에만 애정을 고정시켰고, 강한 사람은 모든 장소로 애정을 확장했고, 완전한 인간은 자신의 고향을 소멸시켰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영원한 생명은 감히 ‘떠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떠나는 삶을 한결같이 성원해주시는 소중한 길벗들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일반산문 (가작)

한글학교에서



박시드니 (덴마크)

오랫동안 길잃은 양처럼 헤맸었다. 30년 동안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뭔가가 부족했다. 점점 우울해졌다. 불면증이 심해졌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삶이란 게 뭔지도 알지 못했다. 결국 난 살기 위해 직장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했다.

'나 자신 탐구'라는 내 안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평소에는 존재를 의식하지도 못했던 작은 들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들꽃을 찾아 춤을 추는 땀벌이 눈에 보였고, 꽃의 넥타를 긴 빨대로 빨아먹는 나비도 보였고, 가는 다리와 투명한 날개를 깨끗이 닦고 손질하는 파리도 보였으며, 새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도대체 어떤 새가 그런 소리로 노래하는지가 궁금해졌다. 가을이면 숲, 들, 곳곳에 피어나는 각종 색깔과 모양의 버섯들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어떤 나무에는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도 알고 싶어졌다. 그들 꽃의 이름을 찾기 위해, 새의 이름을 찾기 위해, 버섯 이름을 찾기 위해 나는 백과사전을 들춰봤으며, 인터넷 검색에 열을 올렸다. 창가에 고추와 토마토를 기르면서 생명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과 존귀함을 내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환경보호자가 되었고 동물권 옹호자가 되었으며,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다. 햇벌이 좋은 날엔 바다로 달려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실었다.

해바라기가 되어 태양을 흡수했다. 자연과의 동화와 감사의 느낌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결국 나의 여정은 한글학교를 찾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만났으며, 한국어교육학과를 선택했다.

덴마크 올란드지구 한글학교를 1989년 4월 25일에 설립해서 최근까지 3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주신 안창현 선생님과 김명숙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두 분의 뒤를 이어 이제 내가 더 열심히 달려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낯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우리 한글학교의 기특한 학생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올 12월 종강파티에는 학생들과 함께 비빔밥과 잡채를 만들어 축하해야겠다.

일반산문 (가작)

랩톱에 깃든 작은 이야기



배동선 (인도네시아)

30대 초반에 길어야 5년, 주재원으로 생활하다 귀국할 것이라 생각했던 인도네시아에서 28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 비록 '내 인생'이란 타이틀이 달려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절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그것도 적도마저 넘어온 곳에서 여러 차례 반강제로 새삼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겪었던 주입식 반복 학습 방식이 인성발달에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겐 인생 자체가 주입식 반복학습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인성 발달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과 사건들 역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겪어야 했던 외환위기와 자카르타 폭동, 파산, 각종 사건사고를 겪으면서도 기어이 살아남아 가정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나 혼자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손을 잡아 주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 결과 현지인 중에 두 가정과 끈끈하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른바 패밀리 프렌드가 된 것이죠. 이 글에 등장하는 차차는 그중 한 가정의 장녀입니다.

6월 초부터 병세가 위중해 입원한 어머니는 한동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 9월의 첫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다행히 며칠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임종을 지킬 수 있었고 장례와 뒤처리를 모두 마친 후 보름 만에 자카르타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수상 통지 이메일을 한국까지 들고 간, 차차가 사준 랩톱을 통해 받았죠. 자카르타에 돌아와 수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끌라빠가딩 몰 3층 푸드코트에 앉아 차차와 사워샐리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으면서 참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순간 마주 앉은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법이죠. 바로 며칠 전엔 차차의 열일곱 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이 글을 수상작 대열에 올려 추억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반산문 (가작)

제니를 찾아서



이단비 (캐나다)

제니는 제 자신인 동시에 자의든 타의든 꿈을 향해 닳은 땅에서 고분분투하는 모든 젊은이들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 모르 그들에게 제니와 나의 이 짧은 이야기가 미약하나마 작은 응원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성실함과 깨우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지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렵게 뚫 첫걸음에 이런 뜻깊은 결과가 있어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게 됩니다. 부족한 솜씨에도 이렇게 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가족들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본인의 꿈을 위해 오늘도 톱 끝까지 숨차게 헤엄치고 있을 세계의 수많은 제니들에게 받칩니다.

일반산문 (가작)

고사리



김미현 (미국)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 귀국한 날 인천공항에서 당선 축하 메일을 받았다. 10시간이 훌쩍 넘는 긴 비행의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비록 수필 한 편이 말석에 오른 것이지만 상의 크기를 떠나 내 글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다.

‘늘 여전한 내 일상’에 설렘과 기쁨을 선물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항상 글을 써보라고 격려해준 남편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

일반산문 (가작)

노크



심수연 (케냐)

오래전 천 피스 퍼즐에 빠져 밤을 새우며 맞추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림을 면밀히 살피면서 가장자리부터 맞추기 시작했죠. 어떤 것은 모양이 비슷했고 또 어떤 것은 색이 비슷해 조각을 끼워보면 결국에는 모양과 색이 미묘하게 달라 다시 맞는 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생각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있는 자리도, 글도... 어른이 되고 나니 어떤 그림을 맞춰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멋진 삶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작품을 삶이라는 조각들로 하나씩 맞춰가야 하는 창작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퍼즐. 조각이 될지 출작에 그칠지 혹은 명작으로 오래 남을지 모르지만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은 지난합니다. 물론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끔은 영원히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도무지 맞는 조각들을 찾을 수 없어 그저 흐트러진 그대로 몇 날이고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보이지 않던 조각들이 눈에 똑똑 들어오기도 합니다. 전에는 찾으려고 애써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밀당의 귀재인 퍼즐은 이래저래 저를 설레게 합니다.

부끄럽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밋밋했던 제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을 가작이라는 영광의 조각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은철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곳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보라님, 당신의 격려가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경 언니, 항상 미안해. 우리 해남매, 지켜봐줘서 고마워. 글사랑 글둥이님들의 동행 잊지 않아요. 에스더 님의 따뜻한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산문 (가작)

결혼반지 이야기



윤덕환 (미국)

저의 '결혼반지 이야기'는 42년 결혼 생활에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에 결혼 축하 케이크는 찾아왔지만 정작 결혼식 예물을 잊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극장에서 아내가 무심결에 손가락에서 뺀 결혼반지를 찾느라 고생한 것을 아내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였기에 남에게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는 아들 부부조차도 모르는 우리 부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10살짜리 이민 3세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궁금해해서 사진 정리와 결혼반지 얘기도 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결혼식에서 주례 목사님이 결혼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내와 오랜 세월 변함없이 사랑하고 원만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반지의 서약과 증표로 살다 보니 두 아들이 태어났고 두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반지의 주인공인 아내에게 감사의 뜻으로 손을 잡아봅니다. 제 글이 수상하게 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수필을 선택해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고 남가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찬열 선생이 지도하는 오렌지 글사랑 동우회를 통해 팬데믹 기간에도 노년문학도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미주 크리스찬문학(정지윤)과 강태광문학교실에서도 글쓰기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가끔씩 LA지역의 미주중앙과 미주 한국일보 문예란에 기고한 수필들이 실려 글 쓰는 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즘 고 최인호 작가의 '천국에서 온 편지'를 읽다 보니 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장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천국으로 수상 소식을 띄우고 싶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형님과 누님들, 여동생과 조카들 그리고 처가댁 등 많은 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결혼반지를 지금까지 소중히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여러 이민 문화를 접했기에 앞으로 수필뿐 아니라 단편소설도 쓰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재외동포의 문화 활동을 후원하는 재외동포재단과 한국 정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산문 (가작)

뿌리 얽은 나무



정은시 (캐나다)

이민 1세대들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 때문일 것이고, 자식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챙길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리다 노년을 맞이한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뿌리가 아직도 고국에 있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간이 그들의 바람에 부합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때로 시간은 그들에게 다른 길을 마련해 놓고 기다린다.

뿌리는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튼튼한 가지와 무성한 앞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뿌리가 허공에 떠돈다 한들, 당신의 삶이 위대하지 않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므로.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산문 (가작)

할머니의 간장



하선영 (중국)

모든 것은 한 편의 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사로 근무중인 선전한글학교의 시낭송대회 무대배경용 자료를 만들던 중에, 한 학생의 참가 시가 저를 단숨에, 눈 오는 날 할머니집의 그 마당으로 데려가, 무엇이든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마음

이른 새벽부터

시골 할머니 댁에

함박눈이 내렸다

- 눈이 많이 와서 우야노?

할머니가 걱정하며 물었다

- 눈이 녹으면 올라가죠, 뭐

마당에서 눈을 쓸던 아빠가 대답했다

- 그래도 개안나?

할머니가

두부찌개를 끓이겠다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 윤보영(1961~)

문학의 힘이란 바로 그런 것이겠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연결 해주고, 죽었던 심장과 손가락에 다시 생기가 오르게 합니다. 읽고 또 쓰는 순간만큼은 나는 고체가 아닌 생체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라지고 먼지 한 톨까지 내게 귀를 기울여줍니다.

기쁜 수상 소식과 감사를 돌아가신 할머니 고 김재순 여사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잘 모르시는 할머니는 서툰 이 글을 여러 번 쓰다듬으실 것입니다. 그녀가 사물에 스미는 오랜 방식입니다. 할머니께 이 작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청소년글짓기 / 중·고등 부문 (최우수상)

누구에게나 겨울은 있다



최찬아 (카자흐스탄)

아주 어린 시절 한국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여전히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감정을 글자로 새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사님의 소식은 제게 아픔이었지만, 그분을 추모하는 글은 수상집에 실려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슬픔은 글로 남긴 후에야 비로소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훗날 제 글을 읽는 누군가도 가슴속 응어리진 기억을 쓸어내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재단 관계자분들, 과분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오빠, 내 글의 시작과 마지막을 같이하는 수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모, 할머니.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 아빠.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정진하며 글을 쓰겠습니다.

청소년글짓기 / 중·고등 부문 (우수상)

홍콩에서 요식업 경영하기



정승호 (중국)

이번 공모전에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다양한 좋은 작품들이 많았을 텐데 제 글을 뽑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콩에 살면서 기억에 남는 많은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가게 창업과 폐업 과정의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메모했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들은 과정이라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가느라 앞뒤가 맞나 안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이면서 또한 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기에 제 동생은 부정적인 글은 공모전에 내서는 안 되고 희망차고 즐거운 경험,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글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기록과 감상이 좋게 평가를 받아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바로 며칠 전 홍콩의 코로나19 격리정책 완화 발표와 함께 요식업 매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었을 때, 지금은 제 글에 나와 있는 비참함이 과거가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영어로 수업받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한국어로 작성된 글, 자료와 기사에 더 친숙함을 느끼고 감흥을 받는 편입니다. 이렇게 계속 해외에서 생활하면 한국에서 소통하고 글을 나눌 때 문제가 될지 종종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경험으로 제가 글을 쓸 때 실수하는 부분도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어로 글을 쓸 때도 이번 수상을 통해 더 밝은 글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전처럼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어로 글을 작성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좋은 글을 써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오타도 있고, 너무 늦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다듬지 못한 부분이 보여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다시 한번, 제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글짓기 / 중·고등 부문 (우수상)

수라상



조규희 (인도네시아)

마침내 굳게 닫혔던, 교문이 열렸다. 2년 동안 온라인수업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반가웠다. 학교에서 첫 팀 과제로 '건강음식 레시피 디자인'이 주어졌다. 평소 한국문화를 좋아하던 친구들과 함께 이 과제를 풀기 위해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도 찾아갔다.

조선왕조 500년간 왕과 왕실의 음식을 책임지던 '수라청'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친구들과 시청했다. 처음엔 나도 외국인 친구들도 '수라상'이라는 왕의 밥상 이름도 낯설고, '기미상궁'이 진짜 기미를 하다 죽은 적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각 지방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왕의 면역기능과 건강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밥상'의 500년 비법이 더 궁금해졌다.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하게 됐다.

왕의 식사는 하루 5끼로(초조반상, 아침수라상, 낮것상, 저녁수라상, 야참(주안상))으로 준비되었다. 우리는 이중 조선을 대표하는 왕과 음식을 골라 매칭시켜 보았다. 한국식자재마트에서 재료를 구해 타락죽, 구절판, 불고기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시식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선로와 같은 음식은 외국에서 그릇을 찾을 수 없어 포기했다.

내 주변에는 k-pop에 관심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다. 그들은 나보다 한국드라마와 가수 이름, 한국 연예뉴스를 줄줄 꿰고 있다. 그런데 ‘수라상’ 과제를 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식문화까지 외국인 친구들과 더 깊이 접할 수 있었다. 나에게도 친구들에게 좋은 경험이라 글로 써서 응모하게 됐다. 수상 소식을 이 글을 쓰는 데 함께한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부족한 저를 우수상에 뽑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글짓기 / 중·고등 부문 (장려상)

상하이에서 ‘해방’을 외치다



고수경 (중국)

거짓말 같던 두 달간의 봉쇄생활과, 봉쇄와 맞먹는 지리한 여름방학을 끝내고도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어찌어찌 온라인개학을 맞았던 저에게, 책상 기준 반경 2미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일상을 파고들 때쯤 있고 있던 소식이 선물처럼 들려왔습니다.

평소 메일확인을 할 일도 많지 않았고 한국에서 국제전화가 올 일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그날 핸드폰 액정에 반복해서 뜨는 낯선 번호는 분명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혼자 단정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많은 경계심으로 조심스레 전화를 받고 전해 들은 수상결과... 어안이 병병해 단답형으로 건성건성 대답한 후 곧바로 메일함을 열어 보았더니,

오마이 갓! 제가 수상자가 되다니요?! 우리끼리 쓰는 말, 레알? 찐? 대박!

솔직히 많이 부족한 제 글이 뽑혀서 기쁘다는 생각보다 이게 뭐지? 하는 비현실감이 좀 더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글은 지난 4~5월 상하이에서 일어난 봉쇄상황에 직접 겪은 일을 쓴 것입니다. 저희 가족 세 명이 두 달간 하루 24시간을 오롯이 붙어 지내며 울고웃고 분노했던 유일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후로도 몇 달이 훌쩍 더 지났지만 전 여전히 매일매일 핵산(PCR)검사를 받고 장소를 옮겨 다닐 때마다 QR코드를 스캔해가며 마스크에 파묻힌 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 글의 제목처럼 봉쇄된 상하이에서의 ‘해방’만을 그토록 간절히 외치던 때도 있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시대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안타깝게도 아직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맞이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끝으로,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남다른 교육철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저의 여름날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부끄러운 제 소감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짜이찌엔(再見)!

청소년글짓기 / 중·고등 부문 (장려상)

선한 영향력



김기현 (도미니카공화국)

안녕하세요, 이번 청소년 글쓰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글학교 교장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다른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승부욕을 자제하고 끝까지 열심히 응원 해준 저의 최고의 친구, 니콜라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선행을 베풀었으며, 비록 지금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제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그를 통해 지금의 저를 빛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운동을 꽤 잘한다고 말할순 없지만, 현재의 전, 저의 스포츠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남들과 함께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와도 열심히 응원하고 칭찬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영어와 한국어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장르의 책을 골고루 즐겨 읽었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들에게 이방인, 외계인 취급을 조금 받긴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새로운 단어와 표현법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고, 또한 표현 방식을 더욱 수월하고 자세하게 늘릴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이 이번 문학상 수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헛된 것은 없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를 하는 내내, 저는 제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행복했던 일, 슬펐던 일, 짜증났던 일, 또는 이번 주제처럼 감동 받은 일 등등. 초등학교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번 글쓰기를 통해 저는 제 삶을 회상할 수 있었고, 미래는 또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할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싶으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시간에 손을 내밀어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글짓기 / 중·고등 부문 (장려상)

세상의 이웃, 글로벌 코리안



김세린 (칠레)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김세린입니다.

우선, 제 글을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글을 처음 쓰려고 했을 때 시작은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떤 주제를 정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고 저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긴 고민 끝에, 타지에 오랫동안 살면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제가 느끼는 ‘글로벌코리안’의 개념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다 보니, 재외동포로 겪은 문화 차이와 이에 따른 저의 가치관의 변화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칠레생활을 되돌아보고 이 기간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해왔을 다른 재외동포 친구들에게도 이 글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항상 잊지 않고 나눈다면 세상은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글짓기 / 초등 부문 (최우수상)

나는 카잔카



주세아 (러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카잔에 살고 있는 주세아입니다. 제가 쓴 글을 읽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상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한글학교의 안내를 보시고 방학이니 이 대회에 한 번 참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셔서 글만 써서 엄마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틀린 것을 고쳐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한참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맞춤법을 많이 틀렸거든요. 하지만 글은 재미있게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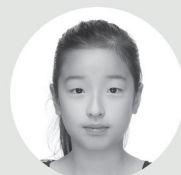
글을 제출하고는 대회에 대해 잊고 있었는데 엄마가 제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해서 다시 재부팅을 하다가 제 메일을 보시고는 “세아야! 너 무슨 상을 타나 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재외동포재단에서 온 메일이 제가 쓴 글이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달란트도 주시고 좋은 기회도 주시고 좋은 상도 주셔서요.

제가 저의 글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카잔카이지만 두 나라를 다 사랑하고 두 나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 쓰고 싶은 내용을 다 써서 만족하지만 신청 마지막 날에 늦게 글을 올리는 바람에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글의 제목을 정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글의 제목을 ‘나는 카잔카’가 아닌 ‘나는 카잔카 아니면 한국인?’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사는 친구들이 이 글을 읽고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글짓기 / 초등 부문 (우수상)

내가 기증한 태극기



김수아 (미국)

제 이야기가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제 글이 책에도 실린다니 기쁘고요. 이 기쁨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만날 수 있어서 기뻐던 부산 할머니, 할아버지, 일산 할머니, 할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늘 저를 응원해주는 엄마, 아빠, 남동생 단이, 이모, 이모부도 모두 감사합니다. 글에도 썼지만, 저는 한국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런 한국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글짓기 / 초등 부문 (우수상)

나 혼자여도 괜찮아



최소율 (독일)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7살 최소율입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소울아! 드디어 글짓기 결과가 나왔어. 몇 등일 것 같아?”

“음. 2등!!”

“맞아!소울아, 축하해!”

엄마, 아빠한테 칭찬과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한글학교에서도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전 세계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내가 우수상이라니!!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5살 때부터 열심히 생각나무를 했어요. 엄마랑 노는 시간에 동시도 많이 쓰고,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썼어요. 그림대회에 나갈 때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말하기 대회를 나갈 때는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이번 글짓기 대회는 한국을 모르는 내 독일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한 행복한 기억으로 우수상을 받아서 더 행복해요.

앞으로 저는 한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국문화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독일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고 싶거든요. 저처럼 친구들이 한국을 모른다고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한국인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알려주면 되거든요.

청소년글짓기 / 초등 부문 (장려상)

나의 코로나 생활



강태윤 (중국)

저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문학상에 도전해 보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뭐를 써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 쓰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겪은 ‘나의 코로나 생활’에 대해 솔직한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을 타서 너무 기쁩니다.

2개월간의 봉쇄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간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새로운 학생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났습니다. 대신, 매일 학교에서 핵산검사를 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지금...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봉쇄 기간 동안의 힘든 기억에 문학상 수상이라는 즐거운 추억이 하나 더해져 감사합니다.

청소년글짓기 / 초등 부문 (장려상)

팽이놀이와 김밥이야기



김주안 (아일랜드)

안녕하세요. 더블린에 살고 있는 이제 막 8살이 된 김주안입니다. 먼저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뻐요. 사실 글을 쓰는 것이 힘들기도 했는데 제 글을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큰 상까지 주셔서 정말 좋아요. 한글을 열심히 가르쳐주신 더블린한글학교 김효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김밥을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우리엄마, 재미있는 팽이놀이와 연날리기를 가르쳐주신 우리할머니께도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글을 쓸 때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다 나오셔서 상 받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하신 우리아빠 너무 사랑합니다. 물론 오빠를 좋아하고 늘 같이 노는 귀여운 내 동생 리안이와 안나도 사랑해요. 앞으로 동생들에게도 글 쓰기를 가르쳐줄래요.

청소년글짓기 / 초등 부문 (장려상)

할아버지와 나의 만남



장예준 (베트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일기장에 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기억이 참 많았어요. 쓰는 것은 힘들지만 쓰다 보면 자꾸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돌아가셨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우리에게 한국은 산, 강, 바다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랍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서 나의 아빠와 엄마가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은 제 마음속에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께서 저처럼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750만 명이냐 된다고 해요. 이번 대회를 열어주신 재외동포재단처럼 우리 한국 교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4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2 재외동포

문학의 창 O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발행일	2022년 11월 22일
디자인/교정/교열	(주)디자인여백플러스 02) 2672-153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재외동포재단
전화	064) 786-0200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ISBN 979-11-85409-66-5

〈비매품〉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이 책은 수상자로부터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수상작품집 감상 외 목적으로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저작권자(수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